국토교통부

2014. 12

2014년「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연구

14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제 출 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국가정보화사업 중 「2014년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이 창 윤

본 『2014년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은 다음 연구진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참 여 연 구 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찬성 연구위원
연 구 진	◦ 박인기, 최정민 , 정경옥 연구위원 ◦ 조종석, 박민철, 박용일, 박상준, 이석주, 김주영, 김희경, 황순연, 홍다희, 천승훈, 연지윤, 장동익, 한진석, 김병관 부연구위원 ◦ 신영권, 성홍모, 김동호, 김진우, 김규진, 김정은, 강국수, 강재원, 고두환 김관용, 김성민, 김은미, 김진오, 김형범, 박미란, 박준호, 박흥주, 변상진, 손강주, 서창범, 신동찬, 오연선, 이선아, 정승연, 정재훈, 정창욱, 정현진, 주진호, 최서윤, 탁지훈, 홍성표 연구원 ◦ 신지현 연구조원 ◦ 전윤미, 나선영, 소윤종, 윤황섭, 박선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 구 진	◦ 이호춘 전문연구원 ◦ 이건우 전문연구원 ◦ 반영길, 김혜주 연구원

『2014년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보고서 구성 및 담당연구진

번 호	과 제 명	연 구 진
제 1권	요약보고서	박용일, 황순연, 정경옥, 신영권 김규진, 박준호, 신동찬, 정재훈
제 2권	전국 여객 O/D 보완갱신 연구	박인기, 조종석, 김병관, 강국수, 박미란, 이선아, 탁지훈
제 3권	여객 O/D 조사방법론 개선방안 연구	조종석, 김동호, 정현진
제 4권	여객교통수요 신뢰도 개선방안 연구	천승훈, 김동호, 김성민, 강국수 이선아, 김관용, 탁지훈
제 5권	장래교통계획DB 구축 및 실행방안 연구	김희경, 서창범, 정창욱
제 6권	국가교통DB 사후평가	김주영, 박흥주
제 7권	화물 O/D 보완갱신 연구	박민철, 강재원, 김형범, 변상진
제 8권	물류거점 화물실태조사	박민철, 한진석, 김형범, 변상진
제 9권	해상화물 O/D 보완갱신 및 방법론 연구	이호춘, 이건우, 반영길, 김혜주
제10권	교통시설 인프라 조사 및 교통주제도 구축	최정민, 정승연, 김은미
제11권	교통망 성능평가 연구	홍다희, 손강주, 김진오, 최서윤
제12권	교통유발원단위 조사연구	황순연, 오연선, 고두환
제13권	교통수단 이용실태조사 연구	연지윤, 김정은, 주진호
제14권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연구	성홍모, 홍성표
제15권	교통비용 및 온실가스 DB 구축 연구	연지윤, 김정은, 주진호
제16권	대용량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분석	천승훈, 이석주, 장동익, 김진우 김성민

『2014년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과제별 공동참여·위탁용역 사업자

【공동사업 참여기관】
• 전국여객 O/D 현행화 공동사업(부산·울산권 부문) - ㈜선일이엔씨, 경성대학교산학협력단 • 전국여객 O/D 현행화 공동사업(대전광역권 부문) - ㈜드림이엔지 • 전국여객 O/D 현행화 공동사업(광주광역권 부문) - ㈜유신 • 전국여객 O/D 현행화 공동사업(수도권 부문) - 서울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 전국여객 O/D 현행화 공동사업(대구광역권 부문) - 대구경북연구원
【위탁용역 사업자】
• 2014년 국가교통DB점검단 운영지원 - (사)교통투자평가협회 • 교통수단이용실태조사 - ㈜메트릭스코퍼레이션 • 전국 지역간 여객O/D 조사방법론 개선방안 연구 - 홍익대학교 • 대도시권 여객O/D 조사방법론 개선방안 연구 - 경기개발연구원 • 2014년 교통주제도 구축 - ㈜팀지오&중앙항업(주) 컨소시엄 • 물류거점 화물실태조사 - ㈜메트릭스코퍼레이션, 부경대 • 국가교통DB-Brief 발간대행 - ㈜피그마리온

【위탁용역 사업자】

- 여객교통수요 신뢰되 개선방안 연구(시외유출입 교통량조사)
  - 동해엔지니어링, 한국교통량데이터베이스, 도시데이타시스템
- 광역시 교통네트워크 성능평가체계 구축 및 분석
  -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 KTDB 전산 인프라 유지보수
  - 아이넷시스템즈
- 첨단자료를 이용한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 현대엠엔소프트(주)
-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 ㈜리서치랩
- 빅데이터 기반 교통예보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
  - 큐빅웨어&서울대학교
- 장래교통계획 DB 시작품 재작
  - 팀지오
- 첨단자료를 활용한 여객교통수요 신뢰도 개선방안 연구
  - 명지대학교, 큐빅웨어
- Car Navigation 자료를 이용한 교통혼잡지도 검증 및 고도화 연구
  - 서울대학교, 큐빅웨어
- 복합용도시설 교통유발원단위조사
  - 아이로드테크
- 국민생활시설 교통실태 설문조사
  - 네오알앤에스
- 교통유발원단위조사
  - 도시데이타시스템
- 복합용도시설 교통유발통행실태조사
  - 나이스알앤씨

【자문용역 사업자】
• 전국 장래 시군 및 읍면동 인구예측에 관한 연구 - 고려대 김기환교수 • 교통유발원단위조사 표본설계 연구 - 경기대 이상은교수, 한국외대 신기일교수 • 효율적인 차량주행거리 산정방법론의 확대방안 연구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물류시설사업 평가방법론 사례연구 -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최종보고서 목차

제 1권 요약보고서

제 2권 전국 여객 O/D 보완갱신 연구

제 3권 여객 O/D 조사방법론 개선방안 연구

제 4권 여객교통수요 신뢰도 개선방안 연구

제 5권 장래교통계획DB 구축 및 실행방안 연구

제 6권 국가교통DB 사후평가

제 7권 화물 O/D 보완갱신 연구

제 8권 물류거점 화물실태조사

제 9권 해상화물 O/D 보완갱신 및 방법론 연구

제 10권 교통시설 인프라 조사 및 교통주제도 구축

제 11권 교통망 성능평가 연구

제 12권 교통유발원단위 조사연구

제 13권 교통수단 이용실태조사 연구

제 14권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연구

제 15권 교통비용 및 온실가스 DB 구축 연구

제 16권 대용량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분석

목 차

요 약

제1장 과업의 개요 ····· 1

제2장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 5

제1절 설연휴 수송실적 자료조사 / 7

제2절 설연휴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 조사 / 9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 48

제4절 사후평가 / 52

제3장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 53

제1절 하계휴가 수송실적 자료조사 / 55

제2절 하계휴가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 조사 / 57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 93

제4절 사후평가 / 95

제4장 2014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 97

제1절 추석연휴 수송실적 자료조사 / 99

제2절 추석연휴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 조사 / 101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 138

제4절 사후평가 / 142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 143

제1절 결론 / 145

제2절 향후 과제 / 147

부 록 ····· 149

표 목 차

〈표 2- 1〉 2012, 2013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 8
〈표 2- 2〉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지역별 조사 세대수 ····· 10
〈표 2- 3〉 2013년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 14
〈표 2- 4〉 2013년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 ····· 15
〈표 2- 5〉 2014년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 ····· 15
〈표 2- 6〉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 16
〈표 2- 7〉 설 귀성 또는 여행의 여부(미정 제외)(연도별) ····· 17
〈표 2- 8〉 귀성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 18
〈표 2- 9〉 설 귀성 또는 여행을 할 가능성 ····· 18
〈표 2-10〉 설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연도별) ····· 19
〈표 2-11〉 다른 가족들(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여부(연도별) ····· 20
〈표 2-12〉 설당일 계획(복수응답) ····· 21
〈표 2-13〉 설 귀성 또는 여행 지역(연도별) ····· 22
〈표 2-14〉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일자 ····· 23
〈표 2-15〉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시점(연도별) ····· 24
〈표 2-16〉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 25
〈표 2-17〉 설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예정 일자 ····· 26
〈표 2-18〉 설 연휴기간 중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시점(연도별) ····· 27
〈표 2-19〉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 28
〈표 2-20〉 설 연휴 체류일수(연도별) ····· 29
〈표 2-21〉 2014년 설연휴 귀성-귀가일자 분석 ····· 30
〈표 2-22〉 귀성-귀가일자 분석(연도별) ····· 30
〈표 2-23〉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연도별) ····· 31
〈표 2-24〉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2014년) ····· 32

〈표 2-25〉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자가용 이용시(연도별) ····· 33
〈표 2-26〉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도로(2014년) ····· 34
〈표 2-27〉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도로(연도별) ····· 35
〈표 2-28〉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고속도로 노선(연도별) ····· 36
〈표 2-29〉 자가용 보유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 37
〈표 2-30〉 설 귀성 및 귀가시 왕복 교통비용 - 전년 비용/올해 비용 ····· 38
〈표 2-31〉 설연휴 기간중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여부(연도별) ····· 39
〈표 2-32〉 습득한 정보에 따른 일정 변경 여부 ····· 40
〈표 2-33〉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연도별) ····· 41
〈표 2-34〉 휴대폰, 스마트폰 이용시 정보 획득 경로 ····· 42
〈표 2-35〉 설 연휴기간 중 본가/처가 방문 예정 여부 ····· 43
〈표 2-36〉 설 연휴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 계획 여부 및 휴가일 수 ····· 44
〈표 2-37〉 설 연휴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 계획일 수 ····· 45
〈표 2-38〉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이용을 위한 대기 여부 ····· 46
〈표 2-39〉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이용을 위한 대기 시간 ····· 47
〈표 2-40〉 2014년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 49
〈표 2-41〉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 ····· 52
〈표 3- 1〉 2012, 2013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 56
〈표 3- 2〉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지역별 조사 세대수 ····· 58
〈표 3- 3〉 하계 휴가시 여행 여부(연도별) ····· 62
〈표 3- 4〉 작년(2013년) 하계 휴가시 여행 여부 ····· 63
〈표 3- 5〉 작년(2013년) 하계 휴가시 여행일 ····· 64
〈표 3- 6〉 하계 휴가시 여행 안감 이유(연도별) ····· 65
〈표 3- 7〉 하계 휴가시 여행 미정 이유(연도별) ····· 66
〈표 3- 8〉 하계 휴가여행 계획을 세우는 시점 - 계획있음(연도별) ····· 67
〈표 3- 9〉 하계 휴가시 여행 지역(연도별) ····· 68
〈표 3-10〉 하계 휴가시 여행 지역(연도별)(국내) ····· 69

〈표 3-11〉 하계 휴가시 해외 여행 지역(연도별) ····· 70
〈표 3-12〉 하계 휴가시 여행 일자 ····· 71
〈표 3-13〉 하계 휴가시 여행 시기(연도별) ····· 72
〈표 3-14〉 7월 5주~8월 1주에 하계휴가 여행을 계획한 이유 ····· 73
〈표 3-15〉 하계휴가 사용 예정일 ····· 74
〈표 3-16〉 하계 휴가시 여행 기간(연도별) ····· 75
〈표 3-17〉 하계 휴가시 이용 교통수단(연도별) ····· 76
〈표 3-18〉 자가용 보유자의 자가용·대중교통 이용여부(연도별) ····· 77
〈표 3-19〉 하계 휴가시 이용 도로(연도별) ····· 78
〈표 3-20〉 하계 휴가시 고속도로 이용 예정 노선(연도별) ····· 79
〈표 3-21〉 하계 휴가시 예정 동행인 수(연도별) ····· 80
〈표 3-22〉 여름 휴가를 함께 가는 동행인(연도별) ····· 81
〈표 3-23〉 선호하는 여름휴가 유형(연도별) ····· 82
〈표 3-24〉 휴가여행 목적지까지 예상 소요 시간(연도별) ····· 83
〈표 3-25〉 하계 휴가시 총 예상 휴가 비용 - 국내/해외여행별 ····· 84
〈표 3-26〉 하계 휴가시 총 예상 휴가 비용(연도별) ····· 85
〈표 3-27〉 하계 휴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여부(연도별) ····· 86
〈표 3-28〉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연도별) ····· 87
〈표 3-29〉 휴대전화, 스마트폰 사용자의 정보 획득 경로 ····· 88
〈표 3-30〉 자가용 안전용품 구비여부(자가용 보유자) ····· 89
〈표 3-31〉 여행전 차량점검 여부(자가용 보유자) ····· 90
〈표 3-32〉 작년 여름휴가 여행시 차량고장 경험 여부 ····· 91
〈표 3-33〉 휴게소 화장실 대기여부 ····· 92
〈표 3-34〉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이용을 위한 대기 시간(연도별) ····· 92
〈표 3-35〉 2014년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 94
〈표 3-36〉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 ····· 95
〈표 4- 1〉 2012, 2013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 100

〈표 4- 2〉 2014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지역별 조사 세대수 ····· 102
〈표 4- 3〉 작년(2013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 106
〈표 4- 4〉 작년(2013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 ····· 107
〈표 4- 5〉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 108
〈표 4- 6〉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 - 미정제외(연도별) ····· 109
〈표 4- 7〉 추석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연도별) ····· 110
〈표 4- 8〉 다른 가족들(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여부(연도별) ····· 111
〈표 4- 9〉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지역(연도별) ····· 112
〈표 4-10〉 추석 귀성 및 여행시 출발 예정 일자 ····· 113
〈표 4-11〉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시점(연도별) ····· 114
〈표 4-12〉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오전/오후)대 ····· 115
〈표 4-13〉 추석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예정 일자 ····· 116
〈표 4-14〉 추석 연휴기간 중 귀경 또는 여행후 귀가 시점(연도별) ····· 117
〈표 4-15〉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오전/오후)대 ····· 118
〈표 4-16〉 체류일수(연도별) ····· 119
〈표 4-17〉 추석 귀성-귀가 출발 예정일자 교차분석 ····· 120
〈표 4-18〉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연도별) ····· 121
〈표 4-19〉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자가용 이용(연도별) ····· 122
〈표 4-20〉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대중교통 이용 ····· 123
〈표 4-21〉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여부 ····· 124
〈표 4-22〉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고속도로 노선(연도별) ····· 125
〈표 4-23〉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자가용 이용 이유 ····· 126
〈표 4-24〉 자가용 보유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 127
〈표 4-25〉 추석 귀성 및 귀가시 왕복 교통비용 - 전년 비용/올해 비용 ····· 128
〈표 4-26〉 대체휴일제에 대한 인지도 ····· 129
〈표 4-27〉 추석 연휴기간 중 처가(친정/외가) 방문 예정 여부 ····· 130
〈표 4-28〉 추석 연휴기간 중 처가(친정/외가) 방문 예정 일자 ····· 131

〈표 4-29〉 추석 연휴기간 중 성묘 여부 ····· 132
〈표 4-30〉 벌초계획 ····· 133
〈표 4-31〉 벌초시기 ····· 133
〈표 4-32〉 벌초 진행 주체 ····· 134
〈표 4-33〉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이용을 위한 대기 여부 ····· 135
〈표 4-34〉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이용을 위한 대기 시간 ····· 135
〈표 4-35〉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 ····· 136
〈표 4-36〉 추석연휴특별교통대책에 대한 인지도 ····· 137
〈표 4-37〉 추석연휴특별교통대책에 대한 인지도 - 2009년/2014년 ····· 137
〈표 4-38〉 2014년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 139
〈표 4-39〉 2014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 ····· 142

그림목차

〈그림 2- 1〉 2013년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 14
〈그림 2- 2〉 2013년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 ····· 15
〈그림 2- 3〉 2014년 설 귀성 및 여행 여부 ····· 16
〈그림 2- 4〉 설 귀성 및 여행 여부(연도별) ····· 16
〈그림 2- 5〉 설 귀성 또는 여행의 여부(미정 제외)(연도별) ····· 17
〈그림 2- 6〉 귀성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 18
〈그림 2- 7〉 설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연도별) ····· 19
〈그림 2- 8〉 다른 가족들(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여부(연도별) ····· 20
〈그림 2- 9〉 설당일 계획(복수응답) ····· 21
〈그림 2-10〉 설 귀성 또는 여행 예정 지역(연도별) ····· 22
〈그림 2-11〉 설 귀성 및 여행시 출발 예정 일자 ····· 23
〈그림 2-12〉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시점(연도별) ····· 24
〈그림 2-13〉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 25
〈그림 2-14〉 설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예정 일자 ····· 26
〈그림 2-15〉 설 연휴기간 중 귀경 또는 여행후 귀가 시점(연도별) ····· 27
〈그림 2-16〉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 28
〈그림 2-17〉 설 연휴 체류일수(연도별) ····· 29
〈그림 2-18〉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연도별) ····· 31
〈그림 2-19〉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2014년) ····· 32
〈그림 2-20〉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자가용 이용시(연도별) ····· 33
〈그림 2-21〉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도로(2014년) ····· 34
〈그림 2-22〉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도로(연도별) ····· 35
〈그림 2-23〉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고속도로 노선(연도별) ····· 36
〈그림 2-24〉 자가용 보유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 37

〈그림 2-25〉 설 귀성 및 귀가시 왕복 교통비용 - 전년 비용/올해 비용 ····· 38
〈그림 2-26〉 설연휴 기간중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여부(연도별) ····· 39
〈그림 2-27〉 습득한 정보에 따른 일정 변경 여부 ····· 40
〈그림 2-28〉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연도별) ····· 41
〈그림 2-29〉 휴대폰, 스마트폰 이용시 정보 획득 경로 ····· 42
〈그림 2-30〉 설 연휴기간 중 본가/처가 방문 예정 여부 ····· 43
〈그림 2-31〉 설 연휴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 계획 여부 및 휴가일 수 ····· 44
〈그림 2-32〉 설 연휴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 계획일 수의 분포 ····· 45
〈그림 2-33〉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이용을 위한 대기 여부 ····· 46
〈그림 2-34〉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예측과정 ····· 48
〈그림 2-35〉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일자별 이동수요(전망) ····· 50
〈그림 2-36〉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연도별 하루최대 이동 추이 ····· 50
〈그림 2-37〉 2014년 설 귀성, 귀경기간 권역간 통행수요 ····· 51
〈그림 3- 1〉 하계 휴가여행 여부(연도별) ····· 62
〈그림 3- 2〉 작년(2013년) 하계 휴가시 여행 여부 ····· 63
〈그림 3- 3〉 작년(2013년) 하계 휴가시 여행일 ····· 64
〈그림 3- 4〉 하계 휴가시 여행 안감 이유(연도별) ····· 65
〈그림 3- 5〉 하계 휴가시 여행 미정 이유(연도별) ····· 66
〈그림 3- 6〉 하계 휴가여행 계획을 세우는 시점 - 계획있음(연도별) ····· 67
〈그림 3- 7〉 하계 휴가시 여행 지역(연도별) ····· 68
〈그림 3- 8〉 하계 휴가시 여행 지역(연도별)(국내) ····· 69
〈그림 3- 9〉 하계 휴가시 해외 여행 지역(연도별) ····· 70
〈그림 3-10〉 하계 휴가시 여행 일자 ····· 71
〈그림 3-11〉 하계 휴가시 여행 시기(연도별) ····· 72
〈그림 3-12〉 7월 5주~8월 1주에 하계휴가 여행을 계획한 이유 ····· 73
〈그림 3-13〉 하계휴가 사용 예정일 ····· 74
〈그림 3-14〉 하계 휴가시 여행 기간(연도별) ····· 75

〈그림 3-15〉 하계 휴가시 이용 교통수단(연도별) ····· 76
〈그림 3-16〉 자가용 보유자의 자가용·대중교통 이용여부(연도별) ····· 77
〈그림 3-17〉 하계 휴가시 이용 도로(연도별) ····· 78
〈그림 3-18〉 하계 휴가시 고속도로 이용 노선(연도별) ····· 79
〈그림 3-19〉 하계 휴가시 예정 동행인 수(연도별) ····· 80
〈그림 3-20〉 여름 휴가를 함께 가는 동행인(연도별) ····· 81
〈그림 3-21〉 선호하는 여름휴가 유형(연도별) ····· 82
〈그림 3-22〉 휴가여행 목적지까지 예상 소요 시간(연도별) ····· 83
〈그림 3-23〉 하계 휴가시 총 예상 휴가 비용변화(연도별) ····· 84
〈그림 3-24〉 하계 휴가시 총 예상 휴가 비용 - 국내/해외여행별 ····· 85
〈그림 3-25〉 하계 휴가시 총 예상 휴가 비용(연도별) ····· 85
〈그림 3-26〉 하계 휴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여부(연도별) ····· 86
〈그림 3-27〉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연도별) ····· 87
〈그림 3-28〉 휴대전화, 스마트폰 사용자의 정보 획득 경로 ····· 88
〈그림 3-29〉 자가용 안전용품 구비여부(자가용 보유자) ····· 89
〈그림 3-30〉 여행전 차량점검 여부(자가용 보유자) ····· 90
〈그림 3-31〉 작년 여름휴가 여행시 차량고장 경험 여부 ····· 91
〈그림 3-32〉 휴게소 화장실 대기여부 및 시간 ····· 92
〈그림 3-33〉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예측과정 ····· 93
〈그림 4- 1〉 작년(2013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 106
〈그림 4- 2〉 작년(2013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 ····· 107
〈그림 4- 3〉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 108
〈그림 4- 4〉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 - 미정제외(연도별) ····· 109
〈그림 4- 5〉 추석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연도별) ····· 110
〈그림 4- 6〉 다른 가족들(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여부(연도별) ····· 111
〈그림 4- 7〉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지역(연도별) ····· 112
〈그림 4- 8〉 추석 귀성 및 여행시 출발 예정 일자 ····· 113

〈그림 4- 9〉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시점(연도별) ····· 114
〈그림 4-10〉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오전/오후)대 ····· 115
〈그림 4-11〉 추석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예정 일자 ····· 116
〈그림 4-12〉 추석 연휴기간 중 귀경 또는 여행후 귀가 시점(연도별) ····· 117
〈그림 4-13〉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오전/오후)대 ····· 118
〈그림 4-14〉 체류일수(연도별) ····· 119
〈그림 4-15〉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연도별) ····· 121
〈그림 4-16〉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자가용 이용(연도별) ····· 122
〈그림 4-17〉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대중교통 이용 ····· 123
〈그림 4-18〉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여부 ····· 124
〈그림 4-19〉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고속도로 노선(연도별) ····· 125
〈그림 4-20〉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자가용 이용 이유 ····· 126
〈그림 4-21〉 자가용 보유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 127
〈그림 4-22〉 추석 귀성 및 귀가시 왕복 교통비용 - 전년 비용/올해 비용 ····· 128
〈그림 4-23〉 대체휴일제에 대한 인지도 ····· 129
〈그림 4-24〉 추석 연휴기간 중 처가(친정/외가) 방문 예정 여부 ····· 130
〈그림 4-25〉 추석 연휴기간 중 처가(친정/외가) 방문 예정 일자 ····· 131
〈그림 4-26〉 추석 연휴기간 중 성묘 여부 ····· 132
〈그림 4-27〉 벌초계획 ····· 133
〈그림 4-28〉 벌초시기 ····· 134
〈그림 4-29〉 벌초 진행 주체 ····· 134
〈그림 4-30〉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이용을 위한 대기 여부 ····· 135
〈그림 4-31〉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 ····· 136
〈그림 4-32〉 추석연휴특별교통대책에 대한 인지도 ····· 137
〈그림 4-33〉 2014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예측과정 ····· 138
〈그림 4-34〉 2014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일자별 이동수요(전망) ····· 140
〈그림 4-35〉 2014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연도별 하루최대 이동 추이 ····· 140

〈그림 4-36〉 2014년 추석 귀성, 귀경기간 권역간 통행수요 ····· 141

요 약

요 약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과업은 2014년도 하계·추석연휴기간, 2015년 설연휴기간과 같은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의 통행행태 및 교통수요를 조사 및 분석하여 특별교통대책기간의 특별교통수요를 예측/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됨

- 정부는 매년 설, 추석 등 명절기간과 하계휴가 기간 동안 장거리 이동 통행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특별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 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설정하여 교통수단별 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 효과적인 특별교통대책은 지역간 이동수요, 첨두일자 및 시간대 등 특별교통수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수립될 수 있음

○ 설, 추석, 하계휴가 등 연휴 및 휴가기간은 특정 시간대 및 특정 지역으로 통행이 집중되지만 교통시설 공급에 한계, 수요억제 정책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함. 따라서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수단별 교통수요를 예측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통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특별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교통수요예측은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하여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온 사업으로서 이번 년도에는 2014년도 하계·추석연휴기간, 2015년도 설연휴기간 같은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의 통행행태 및 교통수요를 조사·분석하여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특별교통대책의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음

나. 과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 2014년 7월 25일 ~ 8월 10일(17일간)

○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 2014년 9월 5일 ~ 9월 11일(7일간)

○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 2015년 2월 17일 ~ 2월 22일(6일간)(예정)

※ 본 보고서에서는 2013년 사업에서 실시된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의 결과를 수록하

였으며, 2015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의 결과는 2015년 사업 최종보고서에 수록예정

2) 공간적 범위

○ 특별교통대책기간별 통행실태 조사의 범위는 전국 17개 시·도로 함

3) 내용적 범위

○ 하계휴가, 추석, 설 연휴기간 동안의 수송수요 예측을 위한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기초자료수집

- 전국대상 각 수단별 시설현황 및 사회경제지표자료 수집
- 도로·철도·해운·항만 등의 교통시설 및 수송실적 현황
  · 자료내용 : 과거년도 및 해당년도 월별 수송실적, 특별교통대책기간 일별 수송실적 자료
  · 대상수단 : 고속도로(승용차, 고속버스, 전세버스, 시외버스), 철도(KTX, 일반열차), 해운, 항공

○ 연휴기간동안 통행계획 및 통행특성조사

- 조사대상 : 전국/광역권 단위 세대
- 설문조사내용
  · 전년도 귀성 및 여행 여부(목적지, 이용교통수단, 동반자수 등)
  · 올해 귀성 및 여행 여부(목적지, 이용교통수단, 통행예정일자, 통행예정시간대, 동반자수 등)
  · 개인 및 가구 속성(거주지역, 성별, 연령, 직업 등)

○ 특별교통대책수립을 위한 교통수요예측

- 수요예측 근거자료 : 전년도 교통수단별 수송실적 자료 및 사전 설문조사결과, 과거 연휴기간동안 통행패턴을 활용하여 당해연도 연휴기간 교통수요예측
- 특별교통대책기간 총 교통수요, 지역간 통행수요(여름휴가 제외) 및 수단별 수송분담율 등

○ 교통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특별교통대책 수립

-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예측결과를 근거로 특별교통대책 수립(정부합동)

2.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1)]

가. 설연휴 수송실적 자료조사

1) 자료수집 개요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관

- 도로 : 한국도로공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철도 : 한국철도공사
- 항공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해운 : 한국해운조합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기 : 특별교통대책기간 약 25일 전까지

- 2013년 12월 17일(화)~2013년 12월 24일(화)

○ 수송실적 수집기관별 수집데이터

- 승용차(한국도로공사,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월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고속버스(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전세버스(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시외버스(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철도(한국철도공사) : 월별/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항공(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해운(한국해운조합)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간적 범위

- 월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3년 8월 ~ 2013년 11월
- 일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3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5일간: 2013.2.8~2.12)

---

1)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는 2013년 사업에서 수행되었음

2) 자료수집 결과(2013년 설연휴 수송실적)

○ 항공을 제외한 전체 수단에서 2013년 설연휴기간 일평균 수송실적은 2012년 동기간보다 증가하였음

- 특히 승용차와 고속버스, 철도는 각각 일평균 363,815대(15.6%), 20,782명(11.8%), 54,168명(14.0%) 증가로 전년 대비 10% 넘는 증가율을 보임
- 반면 항공의 경우 전년대비 4.8% 감소

<표 1> 2012, 2013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교통수단	단위	일평균		기간 전체		증감 (B-A)		일평균실적 증감률 (%)
		2012년 (A)	2013년 (B)	2012년(6일) (A)	2013년(5일) (B)	일평균	기간 전체	
승용차주)	대	2,327,557	2,691,371	13,965,340	13,456,856	363,815	-508,484	15.6
고속버스	인	175,617	196,398	1,053,699	981,992	20,782	-71,707	11.8
시외/전세	인	1,181,874	1,270,396	7,091,242	6,351,980	88,522	-739,262	7.5
철도	인	387,633	441,801	2,325,800	2,209,007	54,168	-116,793	14.0
항공	인	62,846	59,799	377,077	298,997	-3,047	-78,080	-4.8
해운	인	33,382	35,924	200,291	179,620	2,542	-20,671	7.6

주: 한국도로공사의 TCS자료(폐쇄식구간 기종점간 교통량)를 기준으로 1종과 2종을 승용차로 간주하여 통행량을 산정함

나. 설연휴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 조사

1) 조사범위 및 방법

○ 조사범위

- 2014년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1.29(수)-2.2(일): 5일간)의 통행계획
- 전국 단위 세대(17개 시·도) 대상

○ 조사시기·방법·표본

- 조사시기 : 2014년 1월 2일(목) ~ 6일(월)(5일간)
-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
- 조사표본 : 9,000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03%)
- 유효표본수[2) : 2,001 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 2.19%)

2) 조사내용

○ 작년(2013년) 설연휴기간 통행 관련사항 : 설연휴 귀성 및 여행 여부, 주이용 교통수단

○ 올해(2014년) 설연휴기간 중 귀성 및 여행 관련사항

- 설연휴 기간의 귀성 및 여행계획, 귀성 및 여행지역, 명절에 귀성을 꼭 가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가족들의 역귀성 여부 및 지역, 설당일 계획, 출발·귀가 날짜 및 시간

○ 주이용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 자동차 보유 여부, 주이용 교통수단, 동행인 수, 주이용 도로 및 이용 노선 등

○ 설연휴 교통비용 및 교통상황 안내정보의 이용

- 2014년 2013년 교통비용,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여부 및 수단, 교통상황 안내정보에 따른 출발시간·노선 변경 여부, 휴대폰·스마트폰 사용시 구체적인 교통정보 수신처

○ 기타사항

- 본가(시댁/친가) 및 처가(친정) 방문 여부, 연휴기간 외의 추가적인 휴가계획 여부 및 추가적인 휴가 일수, 휴게소 화장실 이용시 대기 경험 및 시간

○ 개인 속성 : 가족인원수, 세대주 연령 및 직업

3) 사전 설문조사 주요 결과

○ 귀성 및 여행비율

- 응답가구 중 22.2%는 올해 설 연휴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있으며, 역귀성 비율은 13.6%임

- 설 연휴에 귀성 또는 여행을 간다는 응답은 22.2%, 안간다는 62.6%, 미정은 1.5%이며, 가지 않는 이유는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서 거주하기 때문(71.5%)임

○ 귀성을 꼭 해야하는지 여부

- 설 연휴 귀성계획이 있는 가구 중 16.7%는 귀성을 꼭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81.8%)’ 대비 ‘지방(84.9%)’ 거주자가 귀성을 꼭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설당일 계획

- 설당일 계획은 주로 ‘차례/제사’(69.8%)인 것으로 나타남

---

2) 유효표본은 올해 귀성, 여행 계획이 있는 응답가구 기준임

- 설당일 계획에 따르면, ‘차례/제사’(69.8%), ‘본가방문’(30.9%), ‘휴식’(30.3%), ‘성묘’(28.1%), ‘처가방문’(25.6%)의 순

○ 귀성-귀가 출발일

- 귀성 출발일은 설 전날인 ‘1월 30일(목)’, 귀가 출발일은 설 다음날인 ‘2월 1일(토)’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설 귀성 또는 여행 출발일은 올해(2014년)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예정일자로 설 전날인 ‘1월 30일(목)’이 57.3%, 귀가일자는 설 다음날인 ‘2월 1일(토)’이 42.6%로 가장 높음
- 출발 일자별 시간은 ‘1월 30일(목, 설연휴) 오전’(40.6%), 귀가 일자별 시간은 ‘2월 1일(토, 설연휴) 오후’가 32.9%로 가장 높음
- 연도별로는 귀성출발일은 설전일(D-1)과 설당일(D-day)에 출발하는 비율이 증가한 반면, ‘D-2이전’에 출발하는 비율이 감소하며, 귀가출발일은 ‘설당일(D-day)’과 ‘설 다음날(D+1)’에 귀가하는 가구는 2013년 대비 2014년 감소함

○ 귀성 또는 여행 예정지역

- ‘영남권’이 31.8%로 가장 높고, ‘충청권’(17.0%), ‘호남권’(16.8%) 순이며, 수도권 거주자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51.9%로 통행의 과반수이상을 차지
- 귀성 또는 여행 예정지역은 ‘영남권’이 31.8%로 가장 높고, ‘충청권’ 17.0%, ‘호남권’ 16.8% 순이며, 작년 대비 해외여행 비율이 증가(0.8%(’13)→1.2%(’14))

○ 체류일수

- 체류일수는 ‘1박 2일’(34.0%)이 가장 높고, ‘2박 3일’(33.4%), ‘3박 4일 이상’(20.2%), ‘당일’(12.4%) 순
- 연도별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박 3일’의 비율이 증가추세

○ 이용교통수단 및 예상 교통비용

- 주 이용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이 86.4%로 가장 높았고, ‘버스(5.1%, 고속버스 3.9%+시외버스 1.1%+전세/관광버스 0.1%), ‘열차(5.0%, 일반열차 2.3%+고속열차 2.7%)’ 순으로 자가용을 가장 많이 이용하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가용’의 이용비율이 8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는 ‘교통 혼잡’(62.0%) 때문임

- 가구당 왕복 예상 교통비용은 평균 14만 6천원으로 작년(12만 4천원) 대비 증가(2만 2천원)할 것으로 예상

○ 동행인수

- 동행인수는 '4명'이 51.8%로 가장 높고, 자가용이용자 대비 대중교통 이용자의 동행인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동행인수 4명 : 자가용(54.5%)〉전체(51.8%)〉대중교통(34.7%)
- 동행인수 1명 : 대중교통(13.5%)〉전체(3.0%)〉자가용(1.4%)

○ 고속도로 이용

- 고속도로 이용률은 81.1%이며, 2012년부터 증가추세
- 자가용 이용자의 고속도로 이용률은 최근 3년간 증가하였으며, 특히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를 동시에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짐

· 고속도로 이용률 : 77.6%('12)→80.2%('13)→81.1%('14)
·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 동시 이용 : 30.6%('12)→34.8%('13)→38.6%('14)

○ 주이용 고속도로 노선

- 고속도로 이용자의 주이용 노선으로는 '경부선' (30.1%)이 가장 높고, '서해안선'(13.3%), '중부선'(9.6%), '남해선'(8.2%) 순
- 경부선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기타 고속도로의 비율이 증가추세

· 경부선 : 34.4%('12)→31.5%('13)→30.1%('14)
· 기타고속도로 : 2.7%('12)→5.5%('13)→9.2%('14)

○ 교통상황 안내정보의 이용

-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률은 53.9%이며, 이를 통한 출발시간 및 노선변경률은 69.9%이고, 주로 '휴대폰, 스마트폰'(51.0%)을 통해 교통정보를 습득
-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률 : 30.3%('12)→53.9%('14)
- 휴대폰, 스마트폰을 통한 교통정보 획득 : 19.5%('12)→51.0%('14)
- 휴대폰, 스마트폰 이용시 주로 '도로교통 정보제공 어플'(42.9%)을 통해 정보 획득

○ 본가/처가방문 여부

- 설 연휴기간 중 '둘 다 방문'하는 가구는 52.9%, '본가(시댁/친가)만 방문'(36.0%), '처가(친정/외가)만 방문'(6.3%) 순임
- 본가와 처가 둘 다 방문하는 가구는 '수도권'(50.0%) 대비 '지방'(56.1%)의 비율이 높음

○ 추가 휴가계획

- 설 연휴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1.7%(155명)이며, '설 연휴 이전

휴가일수’ 및 ‘설 연휴 이후 휴가일수’ 평균 2.4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고속도로 화장실 대기 시간

- 지난 명절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기다려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6.5%이며, 평균 대기시간은 6.1분임
- 성별에 따르면, 남성(평균 6.0분) 대비 여성(평균 6.2분)의 화장실 대기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다.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요예측 및 사후평가 결과

1) 수요예측 결과

○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014.1.29-2.2, 5일간) 동안 일평균 554만명, 총 2,769만명 이동하여 작년대비 1.1% 증가, 평시대비 64.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표 2> 2014년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단위: 천명)

구분 / 교통수단			평시 1일 수송량	설연휴기간(´14.1.29～2.2)			평시대비 (%)
				일평균 이동인원	5일 총 이동인원	분담률 (%)	
도로	승용차		2,444	4,611	23,055	83.3	188.7
	버스	고속버스	44	79	396	1.4	179.5
		시외·전세	669	587	2,937	10.6	87.7
철도			160	214	1,069	3.9	133.8
항공			28	28	140	0.5	100.0
해운			20	18	90	0.3	90.0
합계			3,365	5,537	27,687	100.0	164.5

주: 1)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로 한정하였으며, 폐쇄식 구간을 기준으로 함
2) 수단별 수송실적 자료는 각 기관에서 수집하여 사용함
3) 과거의 수송실적현황과 설연휴 통행패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용한 통행수요임

2) 사후평가 결과

○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1일 평균 예측치는 4,950천명, 실제 이동인원은 5,219천명으로 94.8%의 정확도로 예측되었으며, 5.2% 과소예측함

- 대부분 교통수단의 오차율이 10% 이내이지만, 해운부문의 오차율이 16.7%로 가장 큰 오차를 보임

○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 작년 동기간보다 6.7%, 2014년 평시보다 93.6% 증가

<표 3>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

(단위: 천명)

교통수단	2013년 실적 (일평균) (A)	2014년 평시 (일평균) (B)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				정확도 (E) (C÷D×100) (%)	오차율[3] (E-100) (%)	전년대비 (D÷A×100) (%)	평시대비 (D÷B×100) (%)
			예측		실적					
			1일평균 (C)	기간 전체	1일평균 (D)	기간 전체				
승용차	4,555	2,444	4,611	23,055	4,868	24,340	94.7	▼5.3	106.9	199.1
고속버스	90	44	79	396	88	441	89.8	▼10.2	97.8	202.3
철도	203	160	214	1,069	211	1,053	101.5	▲1.5	103.8	131.5
항공	27	28	28	140	30	152	92.1	▼7.9	110.7	107.9
해운	16	20	18	90	22	108	83.3	▼16.7	131.0	107.7
전체	4,892	2,696	4,950	24,750	5,219	26,094	94.8	▼5.2	106.7	193.6

주: 1) 대중교통 중 시외·전세버스 실적은 수집이 불가능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
2)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 폐쇄식구간 통행에 한함
3) 오차율 : ▲ - 과대예측, ▼ - 과소예측

3.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가. 하계휴가 수송실적 자료조사

1) 자료수집 개요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관

- 도로 : 한국도로공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철도 : 한국철도공사
- 항공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해운 : 한국해운조합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기 : 특별교통대책기간 약 25일 전까지

- 2014년 6월 13일(금)~2014년 6월 20일(금)

○ 수송실적 수집기관별 수집데이터

- 승용차(한국도로공사,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월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고속버스(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전세버스(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시외버스(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철도(한국철도공사) : 월별/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항공(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해운(한국해운조합)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간적 범위

- 월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3년 12월 ~ 2014년 5월
- 일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3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18일간: 2013.07.25~8.11)

2) 자료수집 결과(2013년 하계휴가 수송실적)

○ 항공을 제외한 전체 수단에서 2013년 하계휴가기간 일평균 수송실적은 2012년 동기간보다 증가하였음

- 특히 철도는 일평균 54,061명(9.0%) 증가로 각 수단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반면 항공은 전년대비 0.6% 감소

<표 4> 2012, 2013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교통수단	단위	일평균		기간 전체		증감 (B-A)		일평균실적 증감률 (%)
		2012년 (A)	2013년 (B)	2012년 (19일) (A)	2013년 (18일) (B)	일평균	기간 전체	
승용차	대	3,984,509	4,144,322	75,705,677	74,597,799	159,813	-1,107,878	4.0
고속버스	인	141,262	142,169	2,683,985	2,559,038	906	-124,947	0.6
시외/전세	인	588,671	628,385	11,184,749	11,310,938	39,714	126,189	6.7
철도	인	598,098	652,159	11,363,864	11,738,862	54,061	374,998	9.0
항공	인	371,087	368,961	7,050,655	6,641,304	-2,126	-409,351	-0.6
해운	인	70,863	71,810	1,346,401	1,292,586	947	-53,815	1.3

나. 하계휴가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 조사

1) 조사범위 및 방법

○ 조사범위

- 2014년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7.25(금)-8.10(일): 17일간)의 통행계획

- 전국 단위 세대(17개 시·도) 대상

○ 조사시기·방법·표본

- 조사시기 : 2014년 6월 26일(목) ~ 29일(일)(4일간)
-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
- 조사표본 : 9,000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03%)
- 유효표본수[3] : 2,447 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 1.98%)

2) 조사내용

○ 올해(2014년) 휴가 관련

- 올해 여름 휴가여행 계획, 가족구성원, 자가용 보유여부, 자가용에 안전용품 구비 여부, 평소 여름 휴가여행 계획을 세우는 시점, 여름 휴가 사용 시기, 여름 휴가여행 예정 날짜, 7월 5주~8월 1주에 여름휴가 여행을 계획한 이유, 여름 휴가여행 일수, 여름 휴가여행 동행인, 여름 휴가여행지(본인, 가족구성원), 여름 휴가여행지의 유형, 주 교통수단, 고속도로 이용여부, 주이용 고속도로, 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 여름 휴가여행 지출 비용(2014년, 2013년),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여부 및 수단

○ 작년(2013년) 휴가 관련

- 작년 여름 휴가여행 여부, 작년 여름 휴가여행 날짜, 작년 여름 휴가여행시 차량고장 경험, 작년 여름 휴가여행시 휴게소 화장실 대기 경험 및 시간

○ 개인 속성 : 세대주 연령, 주거형태, 직업

3) 사전 설문조사 주요 결과

○ 하계휴가 여행비율

- 응답가구 중 27.2%는 하계 휴가여행을 갈 계획이 있으며, 이미 다녀왔다는 응답자는 1.2%임
- 하계휴가 여행을 간다는 가구는 27.2%, 안간다는 55.1%, 미정은 16.6%임. 가지 않는 이유는 '생업(사업)상의 이유' 때문(33.0%)이며, 미정인 이유는 '일정조율이 필요해서'(49.7%)임

○ 하계 휴가여행 계획을 세우는 시점

- 하계 휴가여행 계획이 있는 가구 중 45.6%는 '6월 이전'에 하계 휴가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남

[3] 유효표본은 올해 귀성, 여행 계획이 있는 응답가구 기준임

- 조사 시점에서 하계 휴가여행 계획이 미정인 경우, 평소 하계휴가 여행계획을 세우는 시점을 조사한 결과, 주로 '7월 초순(31.9%)'에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남

○ 하계 휴가여행 지역(국내+해외)

- '동해안권'(25.6%)이 가장 높고, '남해안권'(18.4%) 〉 '서해안권'(10.2%) 〉 '강원내륙권'(9.7%) 순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방 대비 수도권의 '동해안권'으로의 휴가 여행비율이 높은 반면, '남해안권'으로의 여행 비율은 낮음
- 하계 휴가시 여행 지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호남내륙권'과 '영남내륙권'의 비율이 감소하고, 2013년 대비 2014년 '해외'여행은 1.6% 증가함

○ 하계 휴가여행 시기

- '7월 26일(토)~8월 1일(금)' 에 하계휴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가 36.4%로 가장 많음
- 7월 26일(토)부터 8월 8일(금)에 하계휴가 여행을 계획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회사의 휴가시기 권유로 인해'(49.5%), '자녀의 학교, 학원 및 어린이집 방학에 맞춰'(27.7%), '가장 더운 시기여서'(8.9%), '남들이 많이 쉬어서'(7.3%) 등의 순임
- 하계 휴가여행 계획있음 응답자의 휴가사용 예정일 및 휴가여행 일자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하계 휴가여행 기간

- 하계 휴가여행 기간으로 '2박 3일'이 44.6%로 가장 높고, '3박 4일'(26.6%), '1박 2일'(11.9%) 순임
- 하계 휴가시 여행기간의 연도별 분석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박 3일'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3박 4일'의 비율은 증가추세를 나타냄

○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이용

- 하계 휴가여행시 '자가용(승용차, 승합차)' 이용이 79.8%이며, 그중 86.1%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예정임. 주이용 고속도로는 '영동선'(32.8%)으로 나타남
- 주이용 교통수단은 '자가용(승용차, 승합차)'(79.8%)〉'비행기'(14.4%)〉 '버스(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관광버스)'(2.9%)〉'철도(열차, 고속철도)'(1.4%) 순임
- 고속도로 이용자의 주 이용노선은 '영동선'(32.8%) 〉 '경부선'(19.0%) 〉 '서해안선'(14.3%) 등의 순임

○ 동행인 및 동행인 유형

- 동행인은 '4명'이 38.7%로 가장 높고, 동행인 유형은 주로 '가족, 친지'(88.6%)임
- 하계 휴가시 예정 동행인 수(본인포함)는 '4명'이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명(14.1%)', '3명(12.1%)' 순임
- 동행인 유형은 '가족/친지'(88.6%), '친구'(5.3%), '가족/친지+친구'(4.4%) 순임

○ 선호하는 여름휴가 유형

- 선호하는 여름휴가 유형은 '바캉스형(바다나 계곡)'(72.4%) 임
- 2013년 대비 2014년, '자연동화형'은 감소한 반면, '도심휴가형'의 비율이 증가함

○ 예상 소요시간

- 여름 휴가여행 목적지까지 예상 소요시간은 '3시간 이상~4시간 미만'(26.4%)이 가장 많고, '2시간 이상~3시간 미만'(25.3%), '4시간 이상~5시간 미만'(15.8%) 순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의 비율은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4시간 이상~5시간 미만'은 감소추세임

○ 휴가 비용

- 올해(2014년) 평균 약 90.5만원, 국내여행 평균 61.8만원, 해외여행 평균 437.4만원을 사용할 예정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년(2013년) 대비 올해(2014년) 여행 비용이 증가(약 15만원)함

○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 하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중 59.7%가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이용할 계획이며, 수신처로는 '휴대전화, 스마트폰'(48.8%)이 가장 높고, 스마트폰을 통한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43.6%)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계 휴가시 교통상황 안내 정보획득 경로는 '휴대전화, 스마트폰'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비게이션' 27.4%, '라디오' 16.2% 순임
- 휴대전화/스마트폰으로 교통정보를 취득하는 경로는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이 4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도로교통정보제공 어플'이 29.9%, '포털사이트' 19.6%순임

○ 자동차 안전용품 구비 및 여행전 차량 점검 여부

- 자가용 보유가구 중 71.7%가 안전용품을 구비하고 있으며, 여름 휴가여행에 자가용을 이용할 가구의 89.4%가 평소 여행전 차량점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작년 여름휴가 여행시 차량 고장 경험

- 작년 여름휴가 여행을 다녀온 가구중 1.3%가 차량 고장 경험이 있음

○ 휴게소 화장실 대기여부 및 시간

- 작년 여름휴가 여행 가구의 32.6%가 고속도로 휴게소화장실에서 기다려 본 경험이 있으며, 평균 대기시간은 5.1분임
- 성별에 따르면 '기다려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남성(18.1%) 대비 여성(40.2%)의 비율이 높으며, 남자는 평균 5.1분, 여자는 평균 5.2분을 기다린 것으로 나타남

다.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요예측 및 사후평가 결과

1) 수요예측 결과

○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2014.7.25~8.10, 17일간) 동안 일평균 439만명, 총 7,464만명 이동하여 작년대비 2.1% 증가, 평시대비 24.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표 5> 2014년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단위: 천명)

구분 / 교통수단			평시 1일 수송량	휴가기간(´14.7.25～8.10)			평시대비 (%)
				일평균 이동인원	17일 총 이동인원	분담률 (%)	
도로	승용차		2,624	3,599	61,178	82.0	137.1
도로	버스	고속버스	43	68	1,156	1.5	157.5
도로	버스	시외·전세	652	478	8,124	10.9	73.3
철도			160	170	2,896	3.9	106.5
항공			29	37	627	0.8	125.5
해운			20	39	655	0.9	193.3
합계			3,529	4,390	74,637	100.0	124.4

주: 1) 수단별 수송실적 자료는 각 기관에서 수집하여 사용함
2) 과거의 수송실적현황과 하계휴가 통행패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용한 통행수요임

2) 사후평가 결과

○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1일 평균 예측치는 3,913천명, 실제 이동인원은 4,927천명으로 79.4%의 정확도로 예측되었으며, 20.6% 과소예측함

- 해운의 오차율이 77.3%로 가장 높으며, 고속버스, 승용차 순으로 높은 오차를 보임

○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에 작년 동기간보다 32.9%, 2014년 평시보다 71.3% 증가

<표 6>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

(단위: 천명)

교통수단	2013년 실적 (일평균) (A)	2014년 평시 (일평균) (B)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				정확도 (E) (C÷D×100) (%)	오차율[3] (E-100) (%)	전년대비 (D÷A×100) (%)	평시대비 (D÷B×100) (%)
			예측		실적					
			1일평균 (C)	기간 전체	1일평균 (D)	기간 전체				
승용차	3,396	2,624	3,599	61,178	4,657	83,821	77.3	▼22.7	137.1	177.5
고속버스	66	43	68	1,156	55	987	123.6	▲23.6	83.3	127.9
철도	173	160	170	2,896	161	2,903	105.6	▲5.6	93.1	100.6
항공	33	29	37	627	32	575	115.6	▲15.6	97.0	110.3
해운	40	20	39	655	22	393	177.3	▲77.3	55.0	110.0
전체	3,708	2,876	3,913	66,512	4,927	88,679	79.4	▼20.6	132.9	171.3

주: 1) 대중교통 중 시외·전세버스 실적은 수집이 불가능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
2)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 폐쇄식구간 통행에 한함
3) 오차율 : ▲ - 과대예측, ▼ - 과소예측

4. 2014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가. 추석연휴 수송실적 자료조사

1) 자료수집 개요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관

- 도로 : 한국도로공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철도 : 한국철도공사
- 항공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해운 : 한국해운조합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기 : 특별교통대책기간 약 25일 전까지

- 2014년 7월 28일(월)~2014년 8월 6일(수)

○ 수송실적 수집기관별 수집데이터

- 승용차(한국도로공사,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월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고속버스(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전세버스(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시외버스(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철도(한국철도공사) : 월별/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항공(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해운(한국해운조합)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간적 범위

- 월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4년 6월 ~ 2014년 7월
- 일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3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6일간: 2013.9.17~9.22)

2) 자료수집 결과(2013년 추석연휴 수송실적)

○ 고속버스를 제외한 전체 수단에서 2013년 추석연휴기간 일평균 수송실적은 2012년 동기간보다 증가하였음

- 특히 항공은 일평균 5,987명(8.7%) 증가로 각 수단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반면 고속버스의 경우 전년대비 17.3% 감소

<표 7> 2012, 2013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교통수단	단위	일평균		기간 전체		증감 (B-A)		일평균실적 증감률 (%)
		2012년 (A)	2013년 (B)	2012년(6일) (A)	2013년(6일) (B)	일평균	기간 전체	
승용차주)	대	2,973,884	3,101,573	17,843,304	18,609,440	127,689	766,136	4.3
고속버스	인	198,357	164,001	1,190,139	984,008	-34,355	-206,131	-17.3
시외/전세	인	1,368,416	1,439,973	8,210,497	8,639,837	71,557	429,340	5.2
철도	인	456,477	466,994	2,738,862	2,801,965	10,517	63,103	2.3
항공	인	68,963	74,950	413,777	449,701	5,987	35,924	8.7
해운	인	64,214	86,364	385,283	518,185	22,150	132,902	34.5

주: 한국도로공사의 TCS자료(폐쇄식구간 기종점간 교통량)를 기준으로 1종과 2종을 승용차로 간주하여 통행량을 산정함

나. 추석연휴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 조사

1) 조사범위 및 방법

○ 조사범위

- 2014년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9.5(금)-9.11(목): 7일간)의 통행계획
- 전국 단위 세대(17개 시·도) 대상

○ 조사시기·방법·표본

- 조사시기 : 2014년 8월 8일(금) ~ 12일(화)(5일간)
-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
- 조사표본 : 9,000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03%)
- 유효표본수[4] : 2,163 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 2.19%)

2) 조사내용

○ 작년(2013년) 추석연휴기간 통행 관련사항 : 추석연휴 귀성 및 여행 여부, 주이용 교통수단

○ 올해(2014년) 추석연휴기간 중 귀성 및 여행 관련사항

- 대체휴일제 인지도, 2014년 추석연휴 기간의 귀성 및 여행계획, 귀성 및 여행지역, 거주지와 귀성지역의 동일권역 여부, 가족들의 역귀성 지역, 출발 날짜 및 출발시간, 귀가 날짜 및 귀가시간 등

○ 주이용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 자동차 보유 여부, 주이용 교통수단, 동행인 수, 주이용 고속도로 노선, 자가용 이용 귀성 및 여행하는 이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 추석연휴 교통비용 및 기타사항

- 추석연휴 교통비용, 본가와 처가 방문 여부 및 출발일자, 성묘 시기 및 성묘 지역, 벌초 여부, 시기 및 벌초 주체, 지난 명절(추석 또는 설)때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대기 경험 및 대기 시간,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인지도

○ 개인 속성 : 가족인원수, 세대주 연령 및 직업, 주거형태

---

[4] 유효표본은 올해 귀성, 여행 계획이 있는 응답가구 기준임

3) 사전 설문조사 주요 결과

○ 귀성 및 여행비율

- 응답가구 중 24.0%는 올해 추석 연휴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있으며, 역귀성 비율은 13.8%임
- 추석 연휴에 귀성 또는 여행을 가지 않는 이유는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서 거주하기 때문(67.9%)임

○ 귀성-귀가 출발일

- 귀성 출발일은 추석 전날인 '9월 7일(일)', 귀가 출발일은 추석 다음날인 '9월 9일(화)'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출발일은 올해(2014년)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예정일자로 추석 전날인 '9월 7일(일)'이 46.0%, 귀가일자는 추석 다음날인 '9월 9일(화, 추석연휴)'이 43.7%로 가장 높음
- 출발 일자별 시간은 '9월 7일(일, 추석연휴) 오전'(32.7%), 귀가 일자별 시간은 '9월 8일(월, 추석당일) 오후'가 31.9%로 가장 높음
- 연도별로는 귀성출발일은 '추석당일(D-day)', '추석 다음날(D+1)'에 출발하는 비율이 증가하며, 귀가출발일은 'D+2'에 돌아오는 비율이 증가추세임

○ 체류일수

- 체류일수는 '1박 2일'이 32.2%로 가장 높고, '2박 3일'(29.9%), '3박 4일'(16.4%), 당일(12.4%) 등의 순임
- 연도별로는 2012년부터 2014년 '2박3일'은 감소추세인 반면, '3박4일'은 증가추세임

○ 귀성 또는 여행 예정지역

- '영남권'이 32.6%로 가장 높고, '호남권'(18.5%), '충청권'(17.5%) 순이며, 수도권 거주자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52.7%로 통행의 과반수이상을 차지
- 작년 대비 해외여행 비율이 소폭 감소 : 1.8%('13)→1.6%('14)

○ 이용교통수단

- 주 이용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이 86.9%(승용차 85.3%+승합차 1.6%)로 가장 높았고, '열차(3.9%, 일반열차 2.1%+고속열차 1.8%)', '버스(5.0%, 고속버스 3.6%+시외버스 1.1%+전세/관광버스 0.2%) 등임
- 자가용을 이용하여 귀성 및 여행하는 이유로는 '자가용 이용이 편리해서'(71.3%) 이며, 자

가용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는 '교통 혼잡'(52.0%) 때문임

- 가구당 왕복 예상 교통비용은 평균 16만원으로 작년(16만 4천원) 대비 감소(4천원)할 것으로 예상

○ 동행인수

- 동행인수는 '4명'이 각각 52.4%, 32.7%로 가장 높으나, 대중교통대비 자가용 이용자의 비율이 높음
  - · 동행인수 4명 : 자가용(52.4%)〉대중교통(32.7%)
  - · 동행인수 1명 : 대중교통(14.1%)〉자가용(1.4%)

○ 주이용 고속도로 노선

- 고속도로 이용자의 주이용 노선으로는 '경부선' (34.2%)이 가장 높고, '서해안선'(14.2%), '호남선', '남해선'(각각 8.6%) 순
- 경부선의 이용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중부선 이용률이 감소추세
  - · 경부선 : 30.4%('12)→33.8%('13)→34.2%('14)
  - · 중부선 : 10.8%('12)→8.3%('13)→6.6%('14)

○ 고속도로 화장실 대기 시간

- 지난 명절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기다려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5.8%이며, 평균 대기시간은 5.6분
- 같은 문항을 조사한 2008년 추석 간이조사와 비교하면, 화장실을 대기시간은 2008년 평균 7.6분에서 2014년 평균 5.6분으로 2.0분 개선되었으며, 2008년, 2014년 모두 여성의 대기시간은 남성 대비 긴 것으로 나타남
- 2008년과 2014년의 평균 대기시간을 분석하면, 남성(1.2분 개선) 대비 여성(2.1분 개선) 화장실의 대기시간 개선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처가방문 여부

- 추석연휴 기간 중 처가(친정/외가)를 방문하는 가구는 66.7%이며, 처가방문 가구의 68.5%가 추석당일인 '9월 8일(일)'에 방문 예정임

○ 성묘여부 및 성묘지역

- 성묘를 할 예정인 가구는 71.0%임
- '추석 연휴' 중에 성묘 예정은 35.9%, '추석연휴 전'이 29.8%, '추석연휴 이후'가 5.3%로 나타남

○ 벌초계획

- 벌초계획이 있는 가구는 65.2%이며, 벌초시기는 '추석 연휴 2주전'이 가장 많고, 벌초가구의 85.1%가 '직접' 벌초를 하는 것으로 분석됨
- 벌초시기는 '추석 연휴 2주전'(43.0%), '추석연휴 3주 이전'(27.0%), '추석연휴 1주전'(24.7%) 순임

○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

- '음식, 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노동'(28.7%), '귀성 및 귀경길 교통체증'(22.0%)이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은 '귀성 및 귀경길 교통체증'(33.4%)을, 여성은 '음식, 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노동'(35.4%)을 가장 염려하고 있음

○ 특별교통 대책에 대한 인지도

- 응답자의 26.8%가 추석연휴특별교통대책에 대해 알고 있으며, 2009년(25.0%) 대비 인지율이 1.8% 증가함

다. 2014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요예측 및 사후평가 결과

1) 수요예측 결과

○ 2014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014.9.5-9.11, 7일간) 동안 일평균 564만명, 총 3,945만명 이동하여 작년대비 2.9% 감소, 평시대비 71.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표 8> 2014년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단위: 천명)

구분 / 교통수단			평시 1일 수송량	추석연휴기간(´14.9.5~9.11) 일평균 이동인원	7일 총 이동인원	분담률 (%)	평시대비 (%)
도로	승용차		2,502	4,759	33,313	84.4	190.2
	버스	고속버스	45	67	468	1.2	148.9
		시외·전세	553	561	3,930	10.0	101.5
철도			140	185	1,293	3.3	131.9
항공			29	33	233	0.6	112.2
해운			18	30	210	0.5	163.9
합계			3,288	5,635	39,447	100.0	171.4

주: 1)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로 한정하였으며, 폐쇄식 구간을 기준으로 함
2) 수단별 수송실적 자료는 각 기관에서 수집하여 사용함
3) 과거의 수송실적현황과 설연휴 통행패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용한 통행수요임

2) 사후평가 결과

○ 2014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1일 평균 예측치는 5,074천명, 실제 이동인원은 5,043천명으로 100.6%의 정확도로 예측되었으며, 0.6% 과대예측함

- 대부분 교통수단의 오차율이 5% 이내이지만, 고속버스가 16.5%로 가장 큰 오차를 보임

○ 2014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 작년 동기간보다 2.8% 감소, 2014년 평시보다 53.4% 증가

<표 9> 2014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

(단위: 천명)

교통수단	2013년 실적 (일평균) (A)	2014년 평시 (일평균) (B)	2014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정확도 (E) (C÷D×100) (%)	오차율[3] (E-100) (%)	전년대비 (D÷A×100) (%)	평시대비 (D÷B×100) (%)
			예측		실적					
			1일평균 (C)	기간 전체	1일평균 (D)	기간 전체				
승용차	4,846	2,502	4,759	33,312	4,715	33,002	100.9	▲0.9	97.3	188.5
고속버스	70	45	67	468	80	561	83.5	▼16.5	113.9	177.7
철도	200	140	185	1,293	186	1,302	99.3	▼0.7	93.0	132.6
항공	32	29	33	233	33	230	101.5	▲1.5	102.8	112.3
해운	37	18	30	210	29	206	103.6	▲3.6	78.4	158.5
전체	5,186	3,288	5,074	35,516	5,043	35,301	100.6	▲0.6	97.2	153.4

주: 1) 대중교통 중 시외·전세버스 실적은 수집이 불가능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
2)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 폐쇄식구간 통행에 한함
3) 오차율 : ▲ - 과대예측, ▼ - 과소예측

5. 결론 및 향후과제

가. 결론

○ 본 과업은 하계휴가, 추석연휴 기간 동안 평시와 달리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수단별 특별수송수요를 예측하여 각 기간별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 유효표본오차 및 전체표본오차 개선을 위해 유효표본수를 증대시켰으며, 통행시 의사결정권자의 남성의 응답비율 증가를 위해 기존 오전 10시~오후 6시에서 오후 13시~21시로 조사시간대를 변경하였으며 더불어 주말조사를 추가 하였음

- 조사지침서, 조사원 평가표, 내검 및 코딩가이드, 상담품질관리 가이드 등에 대한 지침을 매뉴얼화하였으며, 다수의 자문회의를 통하여 조사표를 삭제, 변경 추가하였으며 조사시기

별 추가된 문항은 아래와 같음

· 2014년 설연휴[5)] : 명절연휴 귀성 필요성, 설 당일 계획, 대중교통 동행인원, 대중교통 이용 이유, 처가(친정) 방문여부, 휴게소 화장실 대기여부 및 대기시간

· 2014년 하계휴가 : 안전용품 구비여부, 휴가 사용시기, 7월5주~8월1주 휴가 계획 이유, 여행전 차량점검 여부, 지난 휴가시 차량고장 경험

· 2014년 추석연휴 : 대체휴일제 인지도, 귀성 및 여행에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 처가로의 출발일, 벌초 시기 및 벌초 방법,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 추석연휴 특별교통 대책 인지도

-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의 공간적 범위 확대(수도권 및 광역시→전국) 및 표본수 증대(약 4천표본→9천표본)로 조사의 신뢰도 제고

-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부터 응답자에게 답례품(경품)을 제공하여, 조사 응답률을 증대하였음

○ 교통수요예측방법

- 2014년도 사업은 2013년도 사업에서 적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전년도 특별교통대책기간의 수송실적과 사전 설문조사결과에 근거하여 평시 통행과 특별(연휴, 휴가 등) 통행을 구분하여 교통수요를 예측하였음

- 추석연휴 특별교통수요 예측을 위해서는 통행 목적을 평상시 통행, 귀성·귀경통행(역귀성 포함)으로 세분화함. 즉, 평상시 통행은 전년도 대비 올해의 연평균 증감률을 적용하였으며, 귀성 및 귀경통행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전년도 대비 올해의 귀성비율을 적용하였음

- 공간적 단위로는 귀성, 귀경 수요 제공시 전국을 6개 권역(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기종점 통행량을 구축 및 제시하였음

○ 특별교통대책기간별 교통수요특성

- 하계휴가 수요는 주5일근무제의 확대와 휴가기간의 증가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였고, 2014년에도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설과 추석연휴 기간의 귀성 수요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음

○ 사후평가결과

- 특별교통대책기간 이후 특별교통대책 추진결과보고에서 특별교통수요예측결과와 각 수단

5)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는 2013년 사업에서 수행되었음

별 수송실적 집계자료에 의거한 총 수송인원을 비교하여 평가하였음

· 전체수단 기준(시외·전세버스 제외) 2014년 설의 경우 5.2%, 2014년 하계휴가의 경우 20.6%, 2014년 추석연휴의 경우는 0.6%의 오차율을 보임

· 오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수단은 설과 하계휴가의 경우 해운(설 16.7%, 하계휴가 77.3%), 추석연휴의 경우 고속버스가 16.5%로 가장 큰 오차를 보였음

나. 향후 과제

○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특별교통수요에서 발견되는 통행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 예측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초자료를 상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승용차 통행의 시·공간적 이동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위한 자료 보완 대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함
- 최근 첨단기기를 활용하여 교통정보의 취득 및 활용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 정체를 피할 수 있는 우회국도 선택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내비게이션 자료 및 국도 교통량조사 자료가 확보될 경우, 이 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수요예측방법을 도입하여 기존 수요예측 방법론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

○ 과거의 통행수요 예측치와 고속도로 TCS 자료와 같은 수송실적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예측모형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사전 및 간이조사로 구분하는 현행 방법은 특별교통대책 기간 보다 30여일 전에 시행되는 사전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간이조사를 시행하나, 연말연시, 여름휴가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의 보완조사로서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2010년 제안)

- 이에, 2013년에 이어 간이조사를 생략하는 대신 사전조사 표본수를 늘려 수행하였음
- 사후조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예측된 통행수요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사전응답과 실제 결과간의 편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전조사의 유효표본수 및 사후조사의 표본수를 늘려 수행하는 것이 필요로 함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과업은 2014년도 하계·추석연휴기간, 2015년 설연휴기간과 같은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의 통행행태 및 교통수요를 조사 및 분석하여 특별교통대책기간의 특별교통수요를 예측/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됨

- 정부는 매년 설, 추석 등 명절기간과 하계휴가 기간 동안 장거리 이동 통행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특별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 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설정하여 교통수단별 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 효과적인 특별교통대책은 지역간 이동수요, 첨두일자 및 시간대 등 특별교통수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수립될 수 있음

○ 설, 추석, 하계휴가 등 연휴 및 휴가기간은 특정 시간대 및 특정 지역으로 통행이 집중되지만 교통시설 공급에 한계, 수요억제 정책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함. 따라서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수단별 교통수요를 예측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통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특별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교통수요예측은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하여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온 사업으로서 이번 년도에는 2014년도 하계·추석연휴기간, 2015년도 설연휴기간 같은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의 통행행태 및 교통수요를 조사·분석하여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특별교통대책의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음

2.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 2014년 7월 25일 ~ 8월 10일(17일간)

○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 2014년 9월 5일 ~ 9월 11일(7일간)

○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 2015년 2월 17일 ~ 2월 22일(6일간)(예정)

※ 본 보고서에서는 2013년 사업에서 실시된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의 결과를 수록하였으며, 2015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의 결과는 2015년 사업 최종보고서에 수록예정

나. 공간적 범위

○ 특별교통대책기간별 통행실태 조사의 범위는 전국 17개 시·도로 함

다. 내용적 범위

○ 하계휴가, 추석, 설 연휴기간 동안의 수송수요 예측을 위한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기초자료수집

- 전국대상 각 수단별 시설현황 및 사회경제지표자료 수집
- 도로·철도·해운·항만 등의 교통시설 및 수송실적 현황

· 자료내용 : 과거년도 및 해당년도 월별 수송실적, 특별교통대책기간 일별 수송실적 자료
· 대상수단 : 고속도로(승용차, 고속버스, 전세버스, 시외버스), 철도(KTX, 일반열차), 해운, 항공

○ 연휴기간동안 통행계획 및 통행특성조사

- 조사대상 : 전국/광역권 단위 세대
- 설문조사내용

· 전년도 귀성 및 여행 여부(목적지, 이용교통수단, 동반자수 등)
· 올해 귀성 및 여행 여부(목적지, 이용교통수단, 통행예정일자, 통행예정시간대, 동반자수 등)
· 개인 및 가구 속성(거주지역, 성별, 연령, 직업 등)

○ 특별교통대책수립을 위한 교통수요예측

- 수요예측 근거자료 : 전년도 교통수단별 수송실적 자료 및 사전 설문조사결과, 과거 연휴기간동안 통행패턴을 활용하여 당해연도 연휴기간 교통수요예측
- 특별교통대책기간 총 교통수요, 지역간 통행수요(여름휴가 제외) 및 수단별 수송분담율 등

○ 교통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특별교통대책 수립

-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예측결과를 근거로 특별교통대책 수립(정부합동)

제2장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제1절 설연휴 수송실적 자료조사

제2절 설연휴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 조사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제4절 사후평가

제2장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1)]

제1절 설연휴 수송실적 자료조사

1. 자료수집 개요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관

- 도로 : 한국도로공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철도 : 한국철도공사
- 항공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해운 : 한국해운조합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기 : 특별교통대책기간 약 25일 전까지

- 2013년 12월 17일(화)~2013년 12월 24일(화)

○ 수송실적 수집기관별 수집데이터

- 승용차(한국도로공사,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월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고속버스(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전세버스(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시외버스(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철도(한국철도공사) : 월별/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항공(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해운(한국해운조합)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간적 범위

- 월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3년 8월 ~ 2013년 11월

---

1)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는 2013년 사업에서 수행되었음

- 일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3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5일간: 2013.2.8~2.12)

2. 자료수집 결과(2013년 설연휴 수송실적)

○ 각 기관별 2013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자료를 수령한 후 전년도(2012년) 수송실적과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항공을 제외한 전체 수단에서 2013년 설연휴기간 일평균 수송실적은 2012년 동기간보다 증가하였음
  - · 특히 승용차와 고속버스, 철도는 각각 일평균 363,815대(15.6%), 20,782명(11.8%), 54,168명(14.0%) 증가로 전년 대비 10% 넘는 증가율을 보임
  - · 반면 항공의 경우 전년대비 4.8% 감소

<표 2-1> 2012, 2013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교통수단	단위	일평균		기간 전체		증감 (B-A)		일평균실적 증감률 (%)
		2012년 (A)	2013년 (B)	2012년(6일) (A)	2013년(5일) (B)	일평균	기간 전체	
승용차주)	대	2,327,557	2,691,371	13,965,340	13,456,856	363,815	-508,484	15.6
고속버스	인	175,617	196,398	1,053,699	981,992	20,782	-71,707	11.8
시외/전세	인	1,181,874	1,270,396	7,091,242	6,351,980	88,522	-739,262	7.5
철도	인	387,633	441,801	2,325,800	2,209,007	54,168	-116,793	14.0
항공	인	62,846	59,799	377,077	298,997	-3,047	-78,080	-4.8
해운	인	33,382	35,924	200,291	179,620	2,542	-20,671	7.6

주: 한국도로공사의 TCS자료(폐쇄식구간 기종점간 교통량)를 기준으로 1종과 2종을 승용차로 간주하여 통행량을 산정함

제2절 설연휴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 조사

1. 조사개요

가. 조사범위 및 방법

○ 조사범위

- 2014년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1.29(수)-2.2(일): 5일간)의 통행계획
- 전국 단위 세대(17개 시·도) 대상

○ 조사시기·방법·표본

- 조사시기 : 2014년 1월 2일(목) ~ 6일(월)(5일간)
-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
- 조사표본 : 9,000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03%)
- 유효표본수[2] : 2,001 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 2.19%)

나. 조사내용

○ 작년(2013년) 설연휴기간 통행 관련사항 : 설연휴 귀성 및 여행 여부, 주이용 교통수단

○ 올해(2014년) 설연휴기간 중 귀성 및 여행 관련사항

- 설연휴 기간의 귀성 및 여행계획, 귀성 및 여행지역, 명절에 귀성을 꼭 가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가족들의 역귀성 여부 및 지역, 설당일 계획, 출발·귀가 날짜 및 시간

○ 주이용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 자동차 보유 여부, 주이용 교통수단, 동행인 수, 주이용 도로 및 이용 노선 등

○ 설연휴 교통비용 및 교통상황 안내정보의 이용

- 2014년 2013년 교통비용,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여부 및 수단, 교통상황 안내정보에 따른 출발시간·노선 변경 여부, 휴대폰·스마트폰 사용시 구체적인 교통정보 수신처

○ 기타사항

- 본가(시댁/친가) 및 처가(친정) 방문 여부, 연휴기간 외의 추가적인 휴가계획 여부 및 추가

---

2) 유효표본은 올해 귀성, 여행 계획이 있는 응답가구 기준임

적인 휴가 일수, 휴게소 화장실 이용시 대기 경험 및 시간

○ 개인 속성 : 가족인원수, 세대주 연령 및 직업

다. 조사표본 선정

○ 설 연휴기간 통행실태 설문조사가 전국 세대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해, 「2013년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을 모집단으로, 전국 17개 특별 광역시/도의 대도시 위주(군 단위 이하 제외)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지역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서울 및 광역시 : 군 단위 제외한 행정구역
- 경기도 : 세대수 30만 가구 이상 행정구역
- 세종시 : 전 지역
- 그 외 지역 : 세대수 상위 10% 이상을 차지하는 행정구역

<표 2-2>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지역별 조사 세대수

(단위: 세대수(세대), 비율(%))

구분	2013년 설					2014년 설				
	전체	표본		유효표본		전체	표본		유효표본	
	세대수[1]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세대수[2]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서울특별시	4,180,568	1,656	20.7	325	19.4	4,184,122	1,842	20.5	414	20.7
부산광역시	1,388,602	550	6.9	128	7.6	1,404,011	618	6.9	133	6.6
대구광역시	948,321	376	4.7	96	5.7	959,457	422	4.7	113	5.6
인천광역시	1,095,983	434	5.4	100	6.0	1,117,478	492	5.5	133	6.6
광주광역시	555,377	220	2.7	58	3.5	563,078	247	2.7	70	3.5
대전광역시	575,014	228	2.8	69	4.1	584,215	257	2.9	83	4.1
울산광역시	421,545	167	2.1	52	3.1	430,697	189	2.1	67	3.3
경 기 도	4,632,096	1,835	22.9	439	26.2	48,860	2,072	23.0	492	24.6
강 원 도	655,509	260	3.2	38	2.3	4,706,010	292	3.2	44	2.2
충청북도	632,639	250	3.1	47	2.8	664,587	283	3.1	56	2.8
충청남도	841,427	333	4.2	92	5.5	643,305	377	4.2	107	5.3
전라북도	759,809	301	3.8	35	2.1	856,606	337	3.7	40	2.0
전라남도	808,074	320	4.0	32	1.9	765,922	358	4.0	56	2.8
경상북도	1,123,736	445	5.6	83	5.0	815,023	500	5.6	102	5.1
경상남도	1,300,204	515	6.4	74	4.4	1,137,629	580	6.4	78	3.9
제 주 도	231,980	92	1.1	4	0.2	1,318,669	104	1.2	8	0.4
세종특별자치시	45,914	18	0.2	2	0.1	237,959	30	0.3	5	0.2
전 국	20,196,798	8,000	100	1,674	100.0	20,437,628	9,000	100.0	2,001	100.0

주: 1) 안전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12. 11)
2)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13. 11)
3) 비례할당 적용시 세종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을 위해 30표본으로 유의 할당하여 진행함

라. 조사표본 추출

○ 설 연휴기간 통행실태조사를 위한 추출표본이 조사대상 지역별 통행특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별로 할당된 조사표본의 20배수의 리스트를 2013년도 세대수를 기준으로 비례할당한 리스트를 추출하여, 최종 설문조사된 비율이 지역별 세대수 및 동단위 세대수 비율과 근사치로 조사됨

○ 리스트 추출은 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KORA)의 유선전화 RDD(Radom Digital Dialing System) 제공서비스를 사용하여 조사대상 지역별 세대수와 동일한 비율로 조사표본 20배의 리스트를 추출하였으며, 자체 개발한 랜덤샘플링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추출하여 각 권역별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사를 진행하였음

○ 전국 17개 시·도 중 해당 조사 지역을 선택하여 표본수를 입력하면 시·군·구·동 단위의 실제 세대수와 동일한 비율로 리스트가 추출되고 이를 무작위로 조사 진행함

2. 사전 설문조사 주요 결과

가. 결과 요약

○ 귀성 및 여행비율

- 응답가구 중 22.2%는 올해 설 연휴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있으며, 역귀성 비율은 13.6%임
- 설 연휴에 귀성 또는 여행을 간다는 응답은 22.2%, 안간다는 62.6%, 미정은 1.5%이며, 가지 않는 이유는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서 거주하기 때문(71.5%)임

○ 귀성을 꼭 해야하는지 여부

- 설 연휴 귀성계획이 있는 가구 중 16.7%는 귀성을 꼭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81.8%)’ 대비 ‘지방(84.9%)’ 거주자가 귀성을 꼭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설당일 계획

- 설당일 계획은 주로 ‘차례/제사’(69.8%)인 것으로 나타남
- 설당일 계획에 따르면, ‘차례/제사’(69.8%), ‘본가방문’(30.9%), ‘휴식’(30.3%), ‘성묘’(28.1%), ‘처가방문’(25.6%)의 순

○ 귀성-귀가 출발일

- 귀성 출발일은 설 전날인 ‘1월 30일(목)’, 귀가 출발일은 설 다음날인 ‘2월 1일(토)’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설 귀성 또는 여행 출발일은 올해(2014년)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예정일자로 설 전날인 ‘1월 30일(목)’이 57.3%, 귀가일자는 설 다음날인 ‘2월 1일(토)’이 42.6%로 가장 높음
- 출발 일자별 시간은 ‘1월 30일(목, 설연휴) 오전’(40.6%), 귀가 일자별 시간은 ‘2월 1일(토, 설연휴) 오후’가 32.9%로 가장 높음
- 연도별로는 귀성출발일은 설전일(D-1)과 설당일(D-day)에 출발하는 비율이 증가한 반면, ‘D-2이전’에 출발하는 비율이 감소하며, 귀가출발일은 ‘설당일(D-day)’과 ‘설 다음날(D+1)’에 귀가하는 가구는 2013년 대비 2014년 감소함

○ 귀성 또는 여행 예정지역

- ‘영남권’이 31.8%로 가장 높고, ‘충청권’(17.0%), ‘호남권’(16.8%) 순이며, 수도권 거주자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51.9%로 통행의 과반수이상을 차지
- 귀성 또는 여행 예정지역은 ‘영남권’이 31.8%로 가장 높고, ‘충청권’ 17.0%, ‘호남권’ 16.8% 순이며, 작년 대비 해외여행 비율이 증가(0.8%(’13)→1.2%(’14))

○ 체류일수

- 체류일수는 ‘1박 2일’(34.0%)이 가장 높고, ‘2박 3일’(33.4%), ‘3박 4일 이상’(20.2%), ‘당일’(12.4%) 순
- 연도별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박 3일’의 비율이 증가추세

○ 이용교통수단 및 예상 교통비용

- 주 이용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이 86.4%로 가장 높았고, ‘버스(5.1%, 고속버스 3.9%+시외버스 1.1%+전세/관광버스 0.1%), ‘열차(5.0%, 일반열차 2.3%+고속열차 2.7%)’ 순으로 자가용을 가장 많이 이용하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가용’의 이용비율이 8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는 ‘교통 혼잡’(62.0%) 때문임
- 가구당 왕복 예상 교통비용은 평균 14만 6천원으로 작년(12만 4천원) 대비 증가(2만 2천원)할 것으로 예상

○ 동행인수

- 동행인수는 ‘4명’이 51.8%로 가장 높고, 자가용이용자 대비 대중교통 이용자의 동행인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동행인수 4명 : 자가용(54.5%)>전체(51.8%)>대중교통(34.7%)
- 동행인수 1명 : 대중교통(13.5%)>전체(3.0%)>자가용(1.4%)

○ 고속도로 이용

- 고속도로 이용률은 81.1%이며, 2012년부터 증가추세
- 자가용 이용자의 고속도로 이용률은 최근 3년간 증가하였으며, 특히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를 동시에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짐

· 고속도로 이용률 : 77.6%('12)→80.2%('13)→81.1%('14)
·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 동시 이용 : 30.6%('12)→34.8%('13)→38.6%('14)

○ 주이용 고속도로 노선

- 고속도로 이용자의 주이용 노선으로는 '경부선' (30.1%)이 가장 높고, '서해안선'(13.3%), '중부선'(9.6%), '남해선'(8.2%) 순
- 경부선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기타 고속도로의 비율이 증가추세

· 경부선 : 34.4%('12)→31.5%('13)→30.1%('14)
· 기타고속도로 : 2.7%('12)→5.5%('13)→9.2%('14)

○ 교통상황 안내정보의 이용

-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률은 53.9%이며, 이를 통한 출발시간 및 노선변경률은 69.9%이고, 주로 '휴대폰, 스마트폰'(51.0%)을 통해 교통정보를 습득
-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률 : 30.3%('12)→53.9%('14)
- 휴대폰, 스마트폰을 통한 교통정보 획득 : 19.5%('12)→51.0%('14)
- 휴대폰, 스마트폰 이용시 주로 '도로교통 정보제공 어플'(42.9%)을 통해 정보 획득

○ 본가/처가방문 여부

- 설 연휴기간 중 '둘 다 방문'하는 가구는 52.9%, '본가(시댁/친가)만 방문'(36.0%), '처가(친정/외가)만 방문'(6.3%) 순임
- 본가와 처가 둘 다 방문하는 가구는 '수도권'(50.0%) 대비 '지방'(56.1%)의 비율이 높음

○ 추가 휴가계획

- 설 연휴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1.7%(155명)이며, '설 연휴 이전 휴가일수' 및 '설 연휴 이후 휴가일수' 평균 2.4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고속도로 화장실 대기 시간

- 지난 명절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기다려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6.5%이며, 평균 대기시간은 6.1분임
- 성별에 따르면, 남성(평균 6.0분) 대비 여성(평균 6.2분)의 화장실 대기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나. 작년(2013년) 설 귀성 및 여행

1) 작년(2013년) 설 귀성 및 여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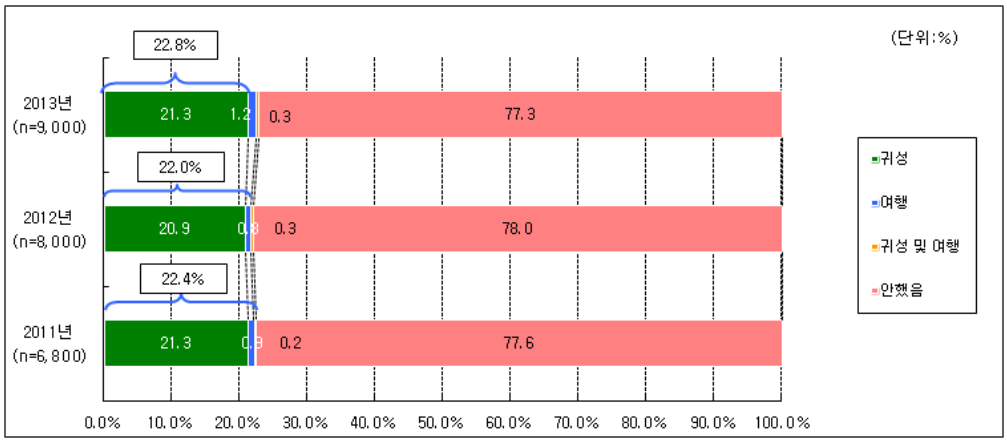
○ 작년(2013년) 설 연휴기간의 귀성 및 여행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22.8%가 작년 설연휴 기간에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왔다는 응답자가 비슷한 추세를 보임

<표 2-3> 2013년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귀성	여행	귀성 및 여행	안했음	합계
2013년	비율	21.3	1.2	0.3	77.3	100.0
	빈도	1,914	104	25	6,957	9,000
2012년	비율	20.9	0.8	0.3	78.0	100.0
	빈도	1673	64	22	6241	8,000
2011년	비율	21.3	0.9	0.2	77.6	100.0
	빈도	1,450	62	12	5,276	6,800



<그림 2-1> 2013년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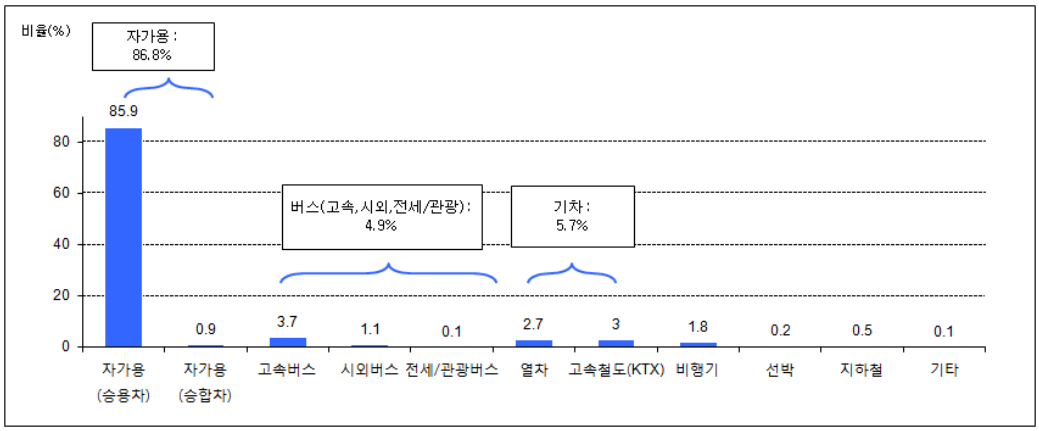
2) 작년(2013년) 설 귀성 및 여행시 주 이용 교통수단

○ 작년(2013년) 설연휴 기간에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주이용 교통수단은 '자가용(86.8%)'이며, 다음으로 '기차(5.7%)', '버스(4.9%)', '비행기(1.8%)' 순임

<표 2-4> 2013년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자가용(승용)	자가용(승합)	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열차	고속철도	비행기	선박	지하철	기타	합계
2013년	비율	85.9	0.9	3.7	1.1	0.1	2.7	3.0	1.8	0.2	0.5	0.1	100.0
	빈도	1,752	18	76	22	1	55	61	37	5	11	2	2,040



<그림 2-2> 2013년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

다. 올해(2014년) 설 귀성·귀경 또는 여행 여부

1)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

○ 올해(2014년)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및 여행 계획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가구의 22.2%가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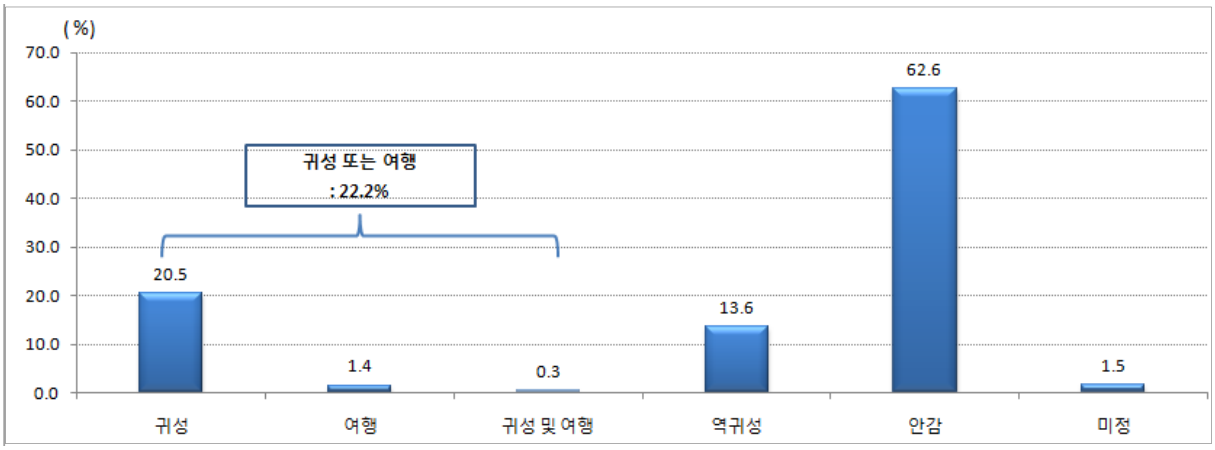
○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가구 중 13.6%는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임

<표 2-5> 2014년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귀성	여행	귀성 및 여행	안감		미정	합계
					역귀성주)			
2014년	비율	20.5	1.4	0.3	13.6	62.6	1.5	100.0
	빈도	1,844	130	27	1,223	5,637	139	9,000

주: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



<그림 2-3> 2014년 설 귀성 및 여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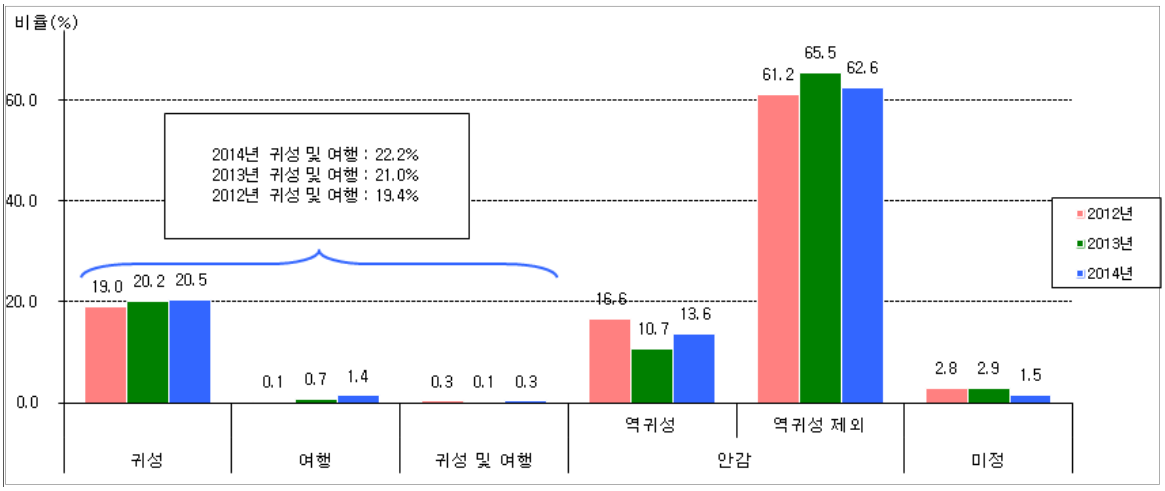
○ 설 귀성 또는 여행여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서 2014년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

<표 2-6>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귀성	여행	귀성 및 여행	안감		미정	합계
					역귀성주)	역귀성 제외		
2014년	비율	20.5	1.4	0.3	13.6	62.6	1.5	100.0
	빈도	1,844	130	27	1,223	5,637	139	9,000
2013년	비율	20.2	0.7	0.1	10.7	65.5	2.9	100
	빈도	1,612	53	9	857	5,238	231	8,000
2012년	비율	19.0	0.1	0.3	16.6	61.2	2.8	100
	빈도	1,294	4	19	1,128	4,164	191	6,800

주: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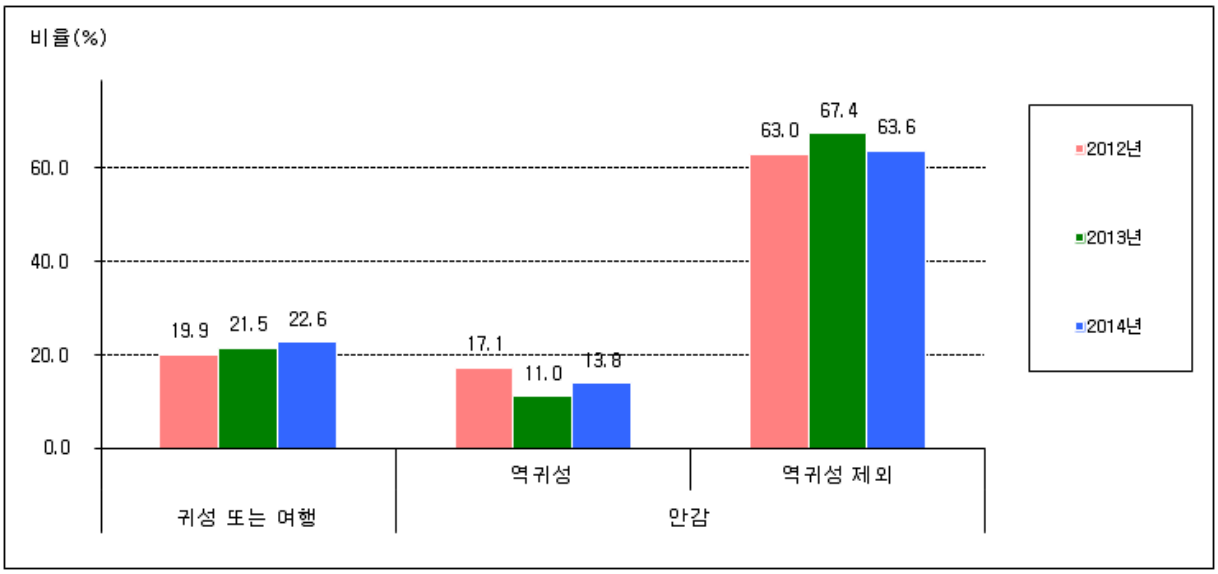
<그림 2-4> 설 귀성 및 여행 여부(연도별)

○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미정'인 경우를 제외하면, '귀성 또는 여행'은 2012년부터 2014년 까지는 귀성 또는 여행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7> 설 귀성 또는 여행의 여부(미정 제외)(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귀성 또는 여행	안감		합계
			역귀성	역귀성 제외	
2014년	비율	22.6	13.8	63.6	100.0
	빈도	2,001	1,223	5,637	8,861
2013년	비율	21.5	11.0	67.4	100.0
	빈도	1,674	857	5,238	7,769
2012년	비율	19.9	17.1	63.0	100.0
	빈도	1,317	1,128	4,164	6,609



<그림 2-5> 설 귀성 또는 여행의 여부(미정 제외)(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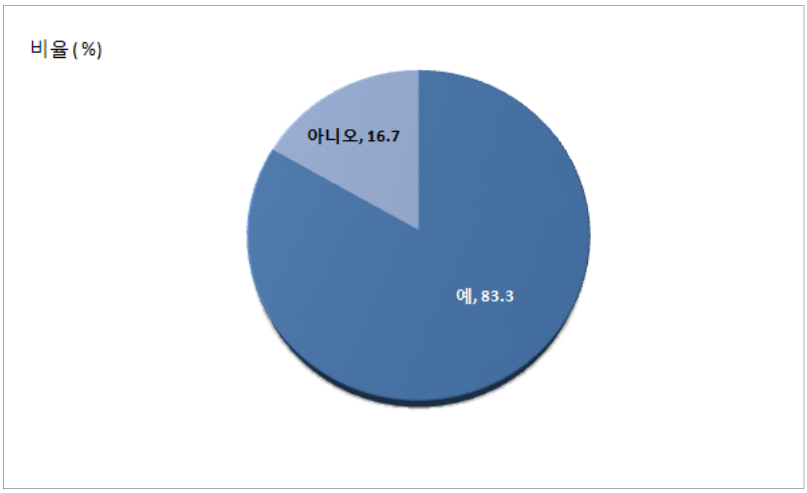
2) 귀성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 올해(2014년) 설 연휴에 귀성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평소 명절 연휴에 귀성을 꼭 가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따르면 83.3%는 꼭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6.7%는 꼭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8> 귀성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예	아니오	합계
전체	비율	83.3	16.7	100.0
	빈도	1,552	312	1,864



<그림 2-6> 귀성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3)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가 미정인 경우 가능성

○ 설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미정'이라는 응답자에게 귀성 또는 여행을 할 가능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귀성/여행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이 58.3%로 '귀성/여행할 가능성이 높음(41.7%)' 대비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9> 설 귀성 또는 여행을 할 가능성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귀성/여행 할 가능성이 높음	귀성/여행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합 계
2014년	비율	41.7	58.3	100.0
	빈도	58	81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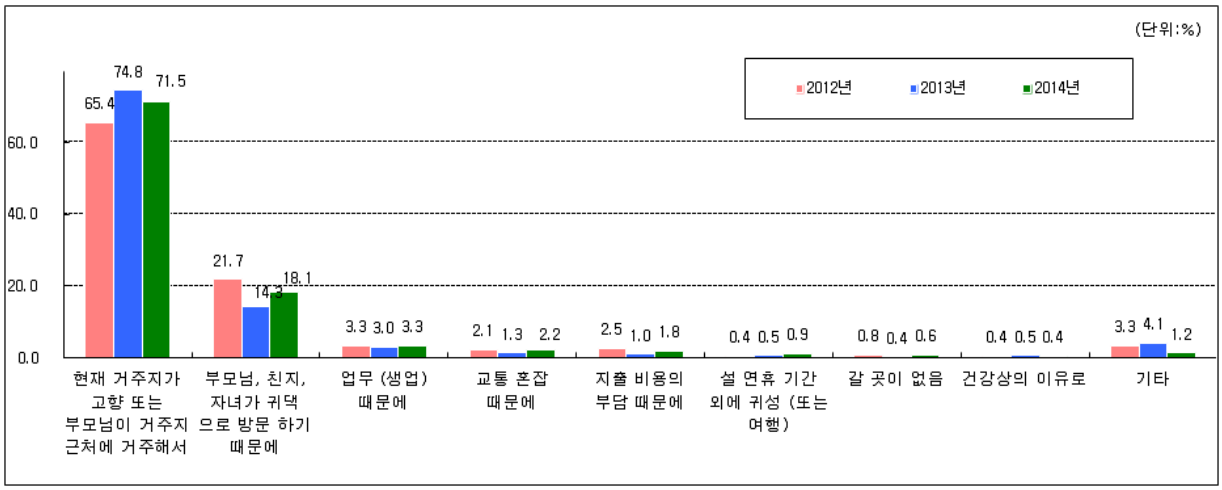
4) 설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

-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로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서 거주해서'가 7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18.1%), '업무(생업) 때문에'(3.3%) 등의 순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대비 2014년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의 비율은 감소하고,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 비율은 증가함

<표 2-10> 설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 하기 때문에	업무 (생업) 때문에	교통 혼잡 때문에	지출 비용의 부담 때문에	설연휴 기간 외에 귀성 (또는 여행)	갈곳이 없음 (부모님이 안계심)	건강상의 이유로	기타	합계
2014년	비율	71.5	18.1	3.3	2.2	1.8	0.9	0.6	0.4	1.2	100.0
	빈도	4,841	1,223	220	150	125	64	41	26	78	6,768
2013년	비율	74.8	14.3	3.0	1.3	1.0	0.5	0.4	0.5	4.1	100.0
	빈도	4,485	857	179	78	59	32	23	28	251	5,992
2012년	비율	65.4	21.7	3.3	2.1	2.5	0.4	0.8	0.4	3.3	100.0
	빈도	3,398	1,128	172	110	131	22	39	21	172	5,193



<그림 2-7> 설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연도별)

5) 설 연휴기간 중 다른 가족(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계획

○ 설 연휴기간 중 다른 가족(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 작년(2013년) 대비 올해(2014) 역귀성 비율은 다소 증가(+2.9%)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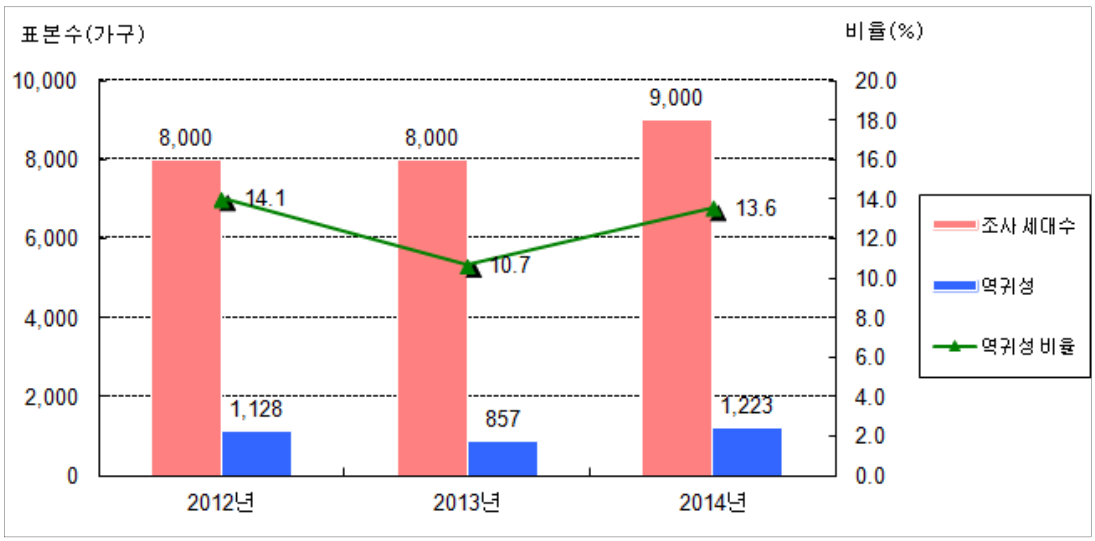
<표 2-11> 다른 가족들(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여부(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조사 세대수	역귀성[1]	역귀성 비율[2]
2014년	9,000	1,223	13.6
2013년	8,000	857	10.7
2012년	8,000	1,128	14.1

주: 1) '올해(2014)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 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

2)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 하기 때문에'의 응답 표본과 '조사 세대수'의 백분율 값으로 전체 조사 세대수 중 역귀성 응답자의 비율임



<그림 2-8> 다른 가족들(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여부(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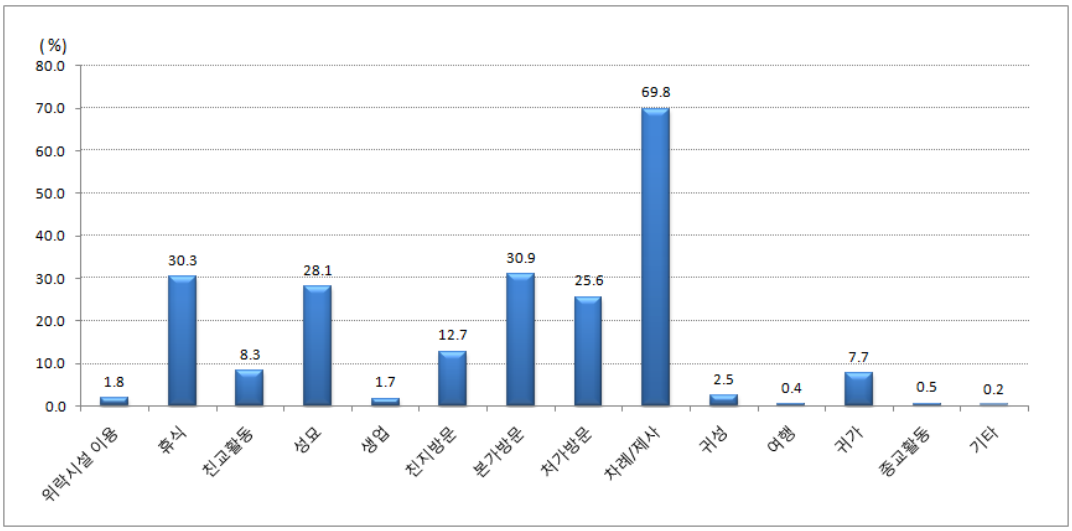
6) 설당일 계획

○ 설당일 계획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차례/제사'가 69.8%로 가장 높았고, '본가방문'(30.9%), '휴식'(30.3%), '성묘'(28.1%), '처가방문'(2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12> 설당일 계획(복수응답)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위락시설 이용	휴식	친교활동	성묘	생업	친지방문	본가방문	처가방문	차례/제사	귀성	여행	귀가	종교활동	기타	합계
전체	비율	1.8	30.3	8.3	28.1	1.7	12.7	30.9	25.6	69.8	2.5	0.4	7.7	0.5	0.2	100.0
	빈도	163	2,710	744	2,512	151	1,141	2,768	2,292	6,253	223	39	693	45	17	8,953



<그림 2-9> 설당일 계획(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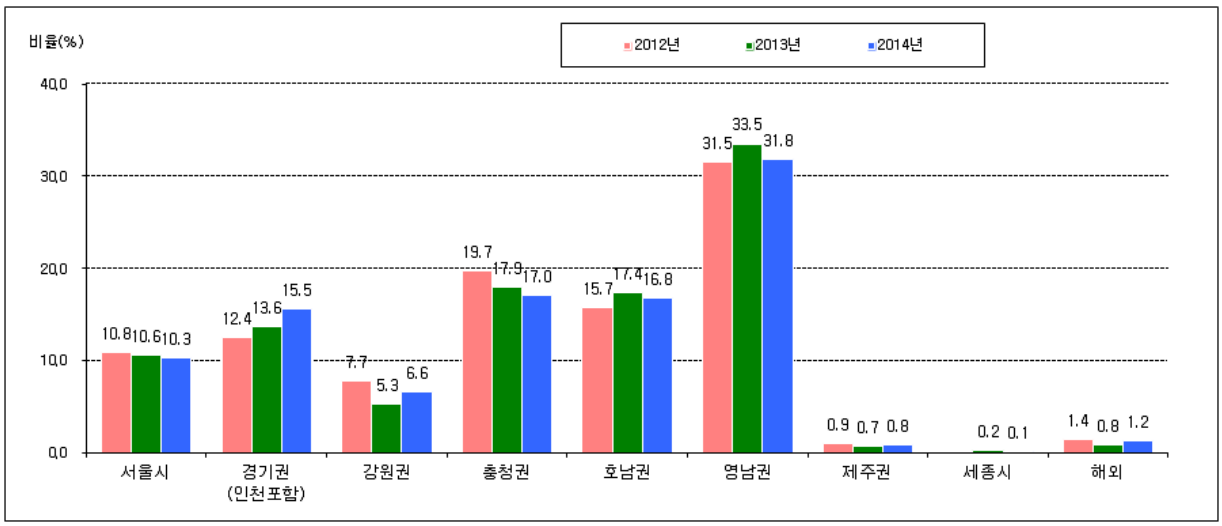
7) 설 귀성 또는 여행 지역[3)]

- 올해(2014년) 설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지역은 '영남권'이 31.8%로 가장 높고, '충청권' 17.0%, '호남권' 16.8% 순임
-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예정 지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권(인천포함)'의 비율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충청권'은 감소추세를 나타냄
- 2013년 대비 2014년 '해외'로의 귀성 또는 여행의 비율이 증가함

<표 2-13> 설 귀성 또는 여행 지역(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서울시	경기도 (인천 포함)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세종시	해외	합계
2014년	비율	10.3	15.5	6.6	17.0	16.8	31.8	0.8	0.1	1.2	100.0
	빈도	205	310	131	339	335	634	15	2	24	1,995
2013년	비율	10.6	13.6	5.3	17.9	17.4	33.5	0.7	0.2	0.8	100.0
	빈도	176	227	88	298	290	558	12	4	14	1,667
2012년	비율	10.8	12.4	7.7	19.7	15.7	31.5	0.9	-	1.4	100.0
	빈도	150	172	106	272	217	435	12	-	19	1,383



<그림 2-10> 설 귀성 또는 여행 예정 지역(연도별)

3) 여행지역은 '1차 지역' 기준으로 작성됨

8)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예정 시기(출발일자 및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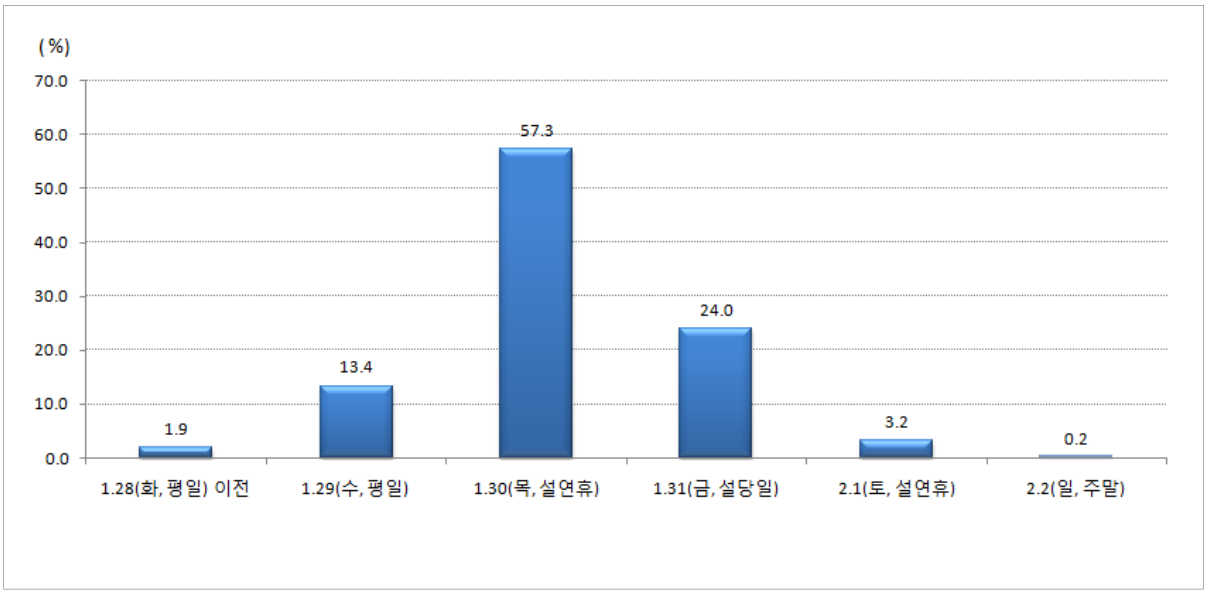
①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일자

- 올해(2014년)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예정일자로 설 전날인 '1월 30일(목)'이 57.3%로 가장 높았고, 설당일인 '1월 31일(금)(24.0%)', '1월 29일(수)(13.4%)' 순임
- 설 전전날인 1월 29일(수)부터 설당일인 1월 31일(금)이 9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4>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일자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1.28(화, 평일) 이전	1.29(수, 평일)	1.30(목, 설연휴)	1.31(금, 설당일)	2.1(토, 설연휴)	2.2(일, 주말)	합계
2014년	비율	1.9	13.4	57.3	24.0	3.2	0.2	100.0
	빈도	36	250	1,073	450	59	3	1,8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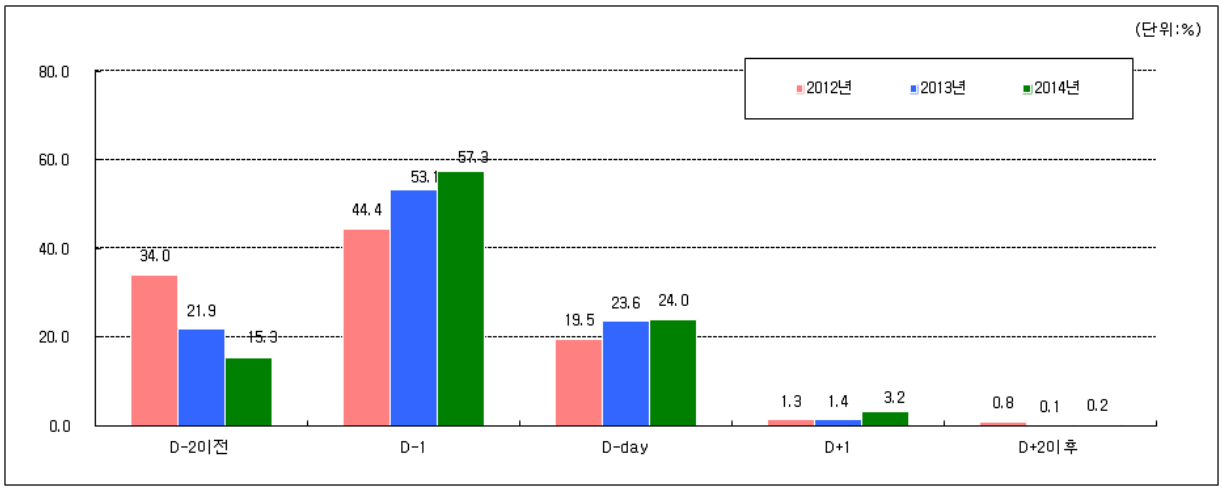
<그림 2-11> 설 귀성 및 여행시 출발 예정 일자

○ 출발 일자를 설을 기점으로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올해(2014) 설전일(D-1)과 설당일(D-day)에 출발하는 비율이 증가한 반면, ‘D-2이전’에 출발하는 비율이 감소함

<표 2-15>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시점(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D-2이전	D-1	D-day	D+1	D+2이후	합계
2014년	비율	15.3	57.3	24.0	3.2	0.2	100.0
	빈도	286	1,073	450	59	3	1,871
2013년	비율	21.9	53.1	23.6	1.4	0.1	100.0
	빈도	340	824	367	21	1	1,553
2012년	비율	34.0	44.4	19.5	1.3	0.8	100.0
	빈도	471	614	270	18	11	1,384



<그림 2-12>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시점(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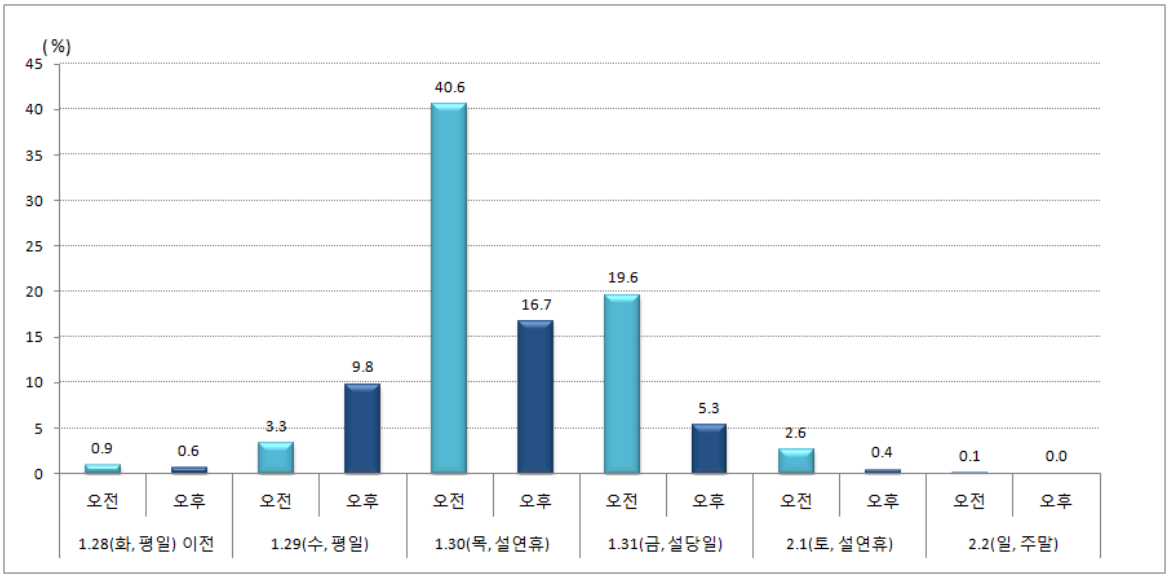
②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오전/오후)대

○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대를 오전, 오후로 분석해 보면, '1월 30일(목, 설연휴) 오전'이 40.6%로 가장 높고, '1월 31일(금, 설당일) 오전'(19.6%), '1월 30일(목, 설연휴) 오후'(16.7%) 순임

<표 2-16>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1.28(화, 평일) 이전		1.29(수, 평일)		1.30(목, 설연휴)		1.31(금, 설당일)		2.1(토, 설연휴)		2.2(일, 주말)		합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비율	0.9	0.6	3.3	9.8	40.6	16.7	19.6	5.3	2.6	0.4	0.1	-	100.0
빈도	16	11	57	167	692	285	334	90	45	6	2	-	1,705



<그림 2-13>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9) 설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예정 시기(귀가일자 및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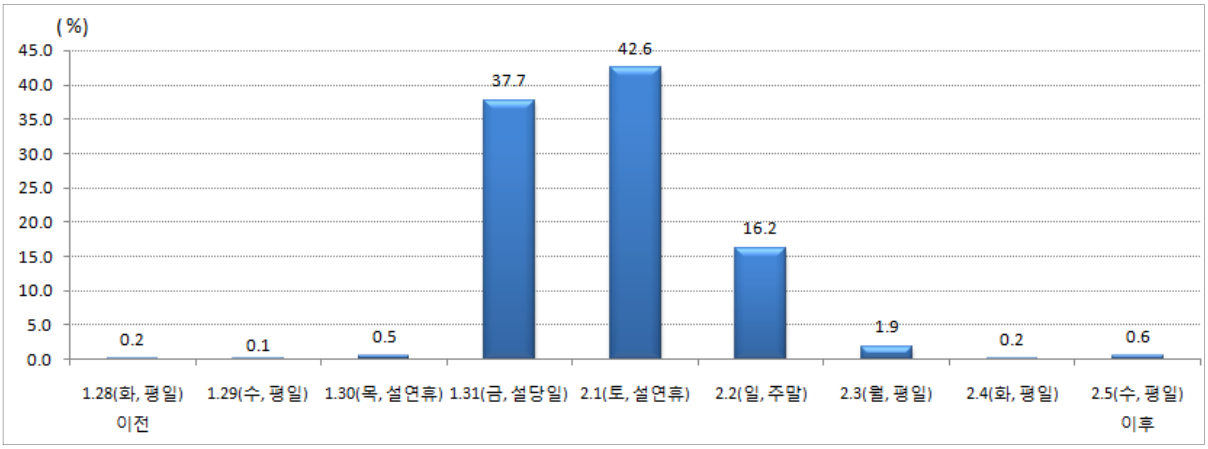
① 설 귀경 또는 여행후 귀가 예정 시기

○ 설 연휴기간의 귀가 예정 일자는 설 다음날인 '2월 1일(토, 설연휴)'이 42.6%로 가장 높고, '1월 31일(금, 설당일)'(37.7%), '2월 2일(일, 주말)'(16.2%) 순임

<표 2-17> 설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예정 일자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1.28(화, 평일) 이전	1.29(수, 평일)	1.30(목, 설연휴)	1.31(금, 설당일)	2.1(토, 설연휴)	2.2(일, 주말)	2.3(월, 평일)	2.4(화, 평일)	2.5(수, 평일) 이후	합계
2014년	비율	0.2	0.1	0.5	37.7	42.6	16.2	1.9	0.2	0.6	100.0
	빈도	3	2	9	690	778	297	35	3	11	1,828



<그림 2-14> 설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예정 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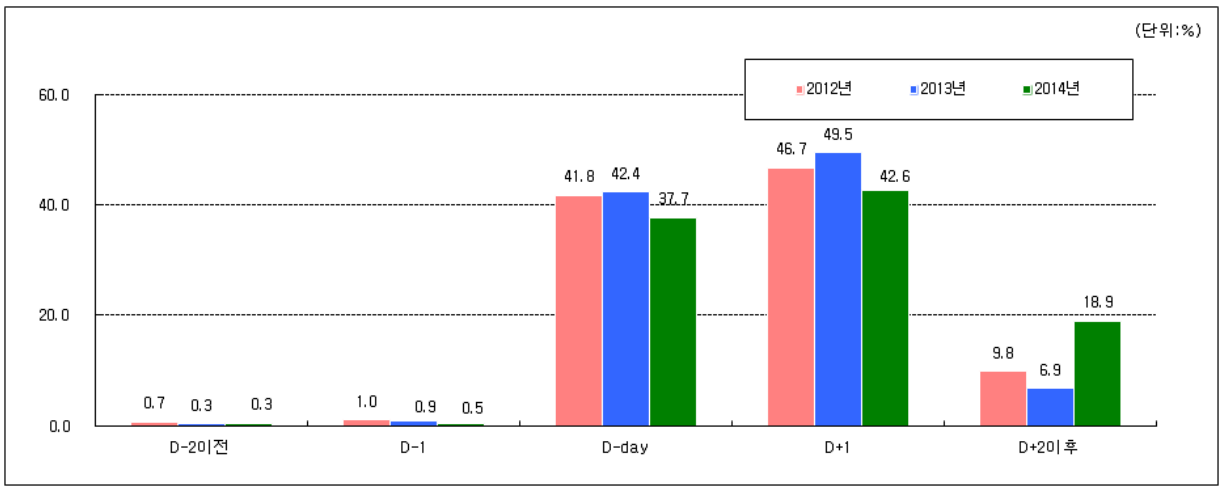
○ 설 연휴기간 중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시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설당일(D-day)'과 '설 다음날(D+1)'에 귀가하는 가구는 2013년 대비 2014년 감소함[4)]

○ D+2일 이후에 귀가하는 가구는 2013년 대비 2014년 증가하였는데 이는 올해 D+2는 일요일이고, 작년은 평일(화요일)이기 때문임

<표 2-18> 설 연휴기간 중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시점(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D-2이전	D-1	D-day	D+1	D+2이후	합계
2014년	비율	0.3	0.5	37.7	42.6	18.9	100.0
	빈도	5	9	690	778	346	1,828
2013년	비율	0.3	0.9	42.4	49.5	6.9	100.0
	빈도	5	14	657	766	161	1,549
2012년	비율	0.7	1.0	41.8	46.7	9.8	100.0
	빈도	9	14	578	647	136	1,384



<그림 2-15> 설 연휴기간 중 귀경 또는 여행후 귀가 시점(연도별)

4) 2014년 설 연휴기간은 1/30(목)~2/1(토)로 주말과 이어지는 연휴임
2013년 설 연휴기간은 2/9(토)~2/11(월)로 주말과 겹치는 연휴임
2012년 설 연휴기간은 1/22(일)~1/24(화)로 연휴 앞에 주말을 낀 연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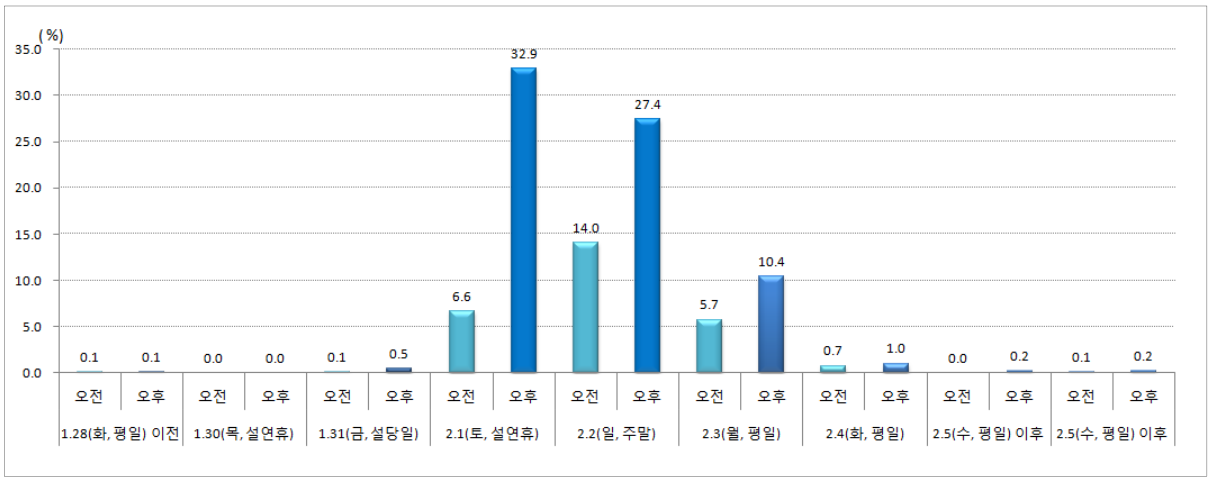
② 귀가(출발)일자 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 귀가(출발)일자 별 시간대를 오전, 오후로 분석해 보면, '2월 1일(토, 설연휴) 오후'가 32.9%로 가장 높고, '2월 2일(일, 주말) 오후'(27.4%), '2월 2일(일, 주말) 오전'(14.0%) 순임

<표 2-19>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1.28(화, 평일) 이전		1.29(수, 평일)		1.30(목, 설연휴)		1.31(금, 설당일)		2.1(토, 설연휴)		2.2(일, 주말)		2.3(월, 평일)		2.4(화, 평일)		2.5(수, 평일) 이후		합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비율	0.1	0.1	-	-	0.1	0.5	6.6	32.9	14.0	27.4	5.7	10.4	0.7	1.0	-	0.2	0.1	0.2	100.0
빈도	1	1	-	-	1	8	107	532	227	444	93	169	12	16	-	3	1	4	1,619



<그림 2-16>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10) 체류일수

○ 귀성-귀가일을 통해 체류일수를 분석한 결과 '1박 2일'이 34.0%로 가장 높고, '2박 3일'(33.4%), '3박 4일 이상'(14.9%), '당일'(12.4%)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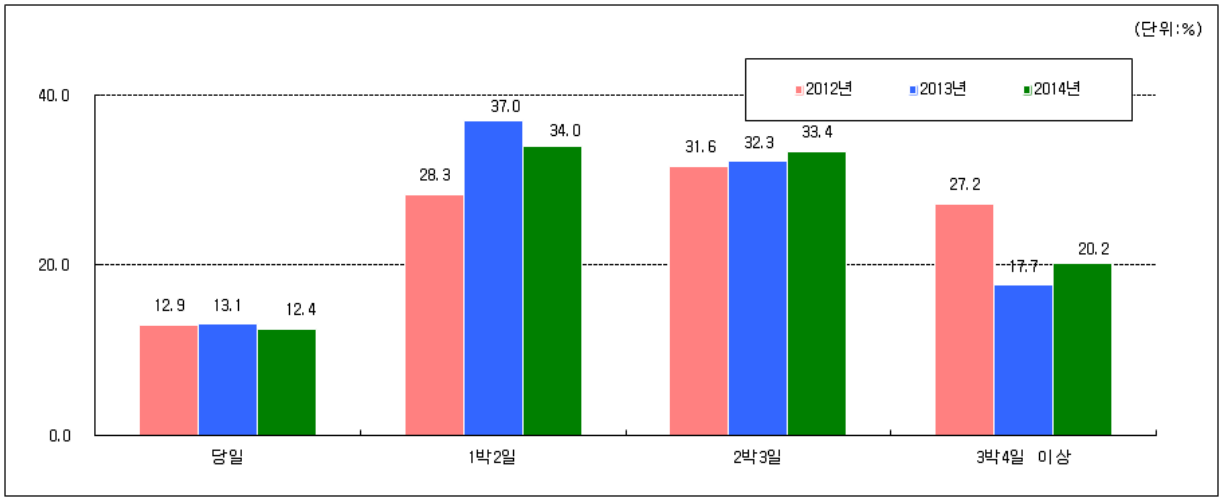
○ 연도별로는 2박 3일의 비율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 3박 4일 이상은 2012년 대비 2013년 큰 폭으로 감소

<표 2-20> 설 연휴 체류일수(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당일	1박2일	2박3일	3박4일 이상	합계
2014년	비율	12.4	34.0	33.4	20.2	100.0
	빈도	220	605	595	253	1,673
2013년	비율	13.1	37.0	32.3	17.7	100.0
	빈도	194	548	479	262	1,483
2012년	비율	12.9	28.3	31.6	27.2	100.0
	빈도	179	392	437	376	1,384



<그림 2-17> 설 연휴 체류일수(연도별)

11) 귀성-귀가일자 분석

○ 귀성 귀가일자 분석에 따르면, 1월 30일에 출발하여 2월 1일에 귀가하는 비율이 26.1%로 가장 높고, '1월 30일에 출발하여 1월 31일 귀가'(22.9%), '1월 31일에 출발하여 1월 31에 귀가'(11.1%) 순임

<표 2-21> 2014년 설연휴 귀성-귀가일자 분석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귀경				
		1.29(수)이전 D-2이전	1.30(목) D-1	1.31(금) D-DAY	2.1(토) D+1	2.2(일)이후 D+2이후
귀성	1.29(수) D-2이전	0.2	0.2	3.9	6.6	4.3
	1.30(목) D-1	-	0.3	22.9	26.1	8.3
	1.31(금) D-DAY	-	-	11.1	9.0	3.9
	2.1(토) D+1	-	-	-	0.7	2.4
	2.2(일)이후 D+2이후	-	-	-	-	0.2

<표 2-22> 귀성-귀가일자 분석(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출발일	도착일	연도별 비율		
		2012년 설	2013년 설	2014년 설
D-1	D+1	21.2	25.4	26.1
D-1	D-day	20.8	25.4	22.9
D-day	D-day	11.2	11.5	11.1
D-2 이전	D+1	18.4	12.3	6.6
D-day	D+1	6.7	10.9	9.0
D-2 이전	D+2 이후	7.8	2.9	4.3

라. 주이용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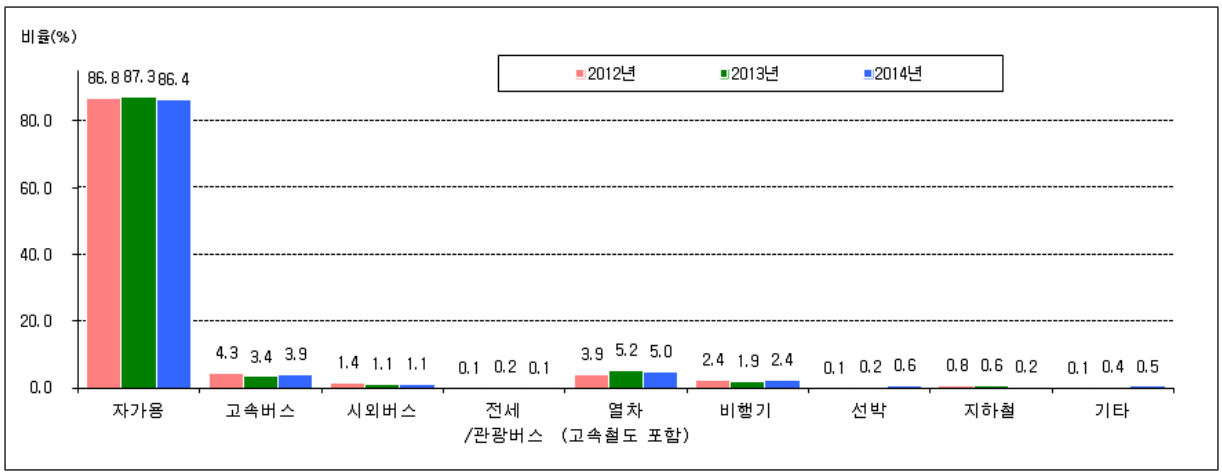
1)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

- 올해(2014년) 설 연휴기간 귀성 또는 여행시 주 이용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이 86.4%로 가장 높았고, '버스(5.1%, 고속버스 3.9%+시외버스 1.1%+전세/관광버스 0.1%), '열차(5.0%, 일반열차 2.3%+고속열차 2.7%)' 순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자가용'의 이용비율이 8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3>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자가용	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관광버스	일반열차	고속열차	비행기	선박	지하철	기타	합계
2014년	비율	86.4	3.9	1.1	0.1	2.3	2.7	2.4	0.6	0.2	0.5	100.0
	빈도	1,706	77	22	1	45	54	47	11	3	9	1,975
2013년	비율	87.3	3.4	1.1	0.2	1.7	3.5	1.9	0.2	0.6	0.4	100.0
	빈도	1,452	57	18	4	28	59	32	3	10	8	1,663
2012년	비율	86.8	4.3	1.4	0.1	1.7	2.2	2.4	0.1	0.8	0.1	100.0
	빈도	1,201	59	20	1	24	31	33	2	11	2	1,384



<그림 2-18>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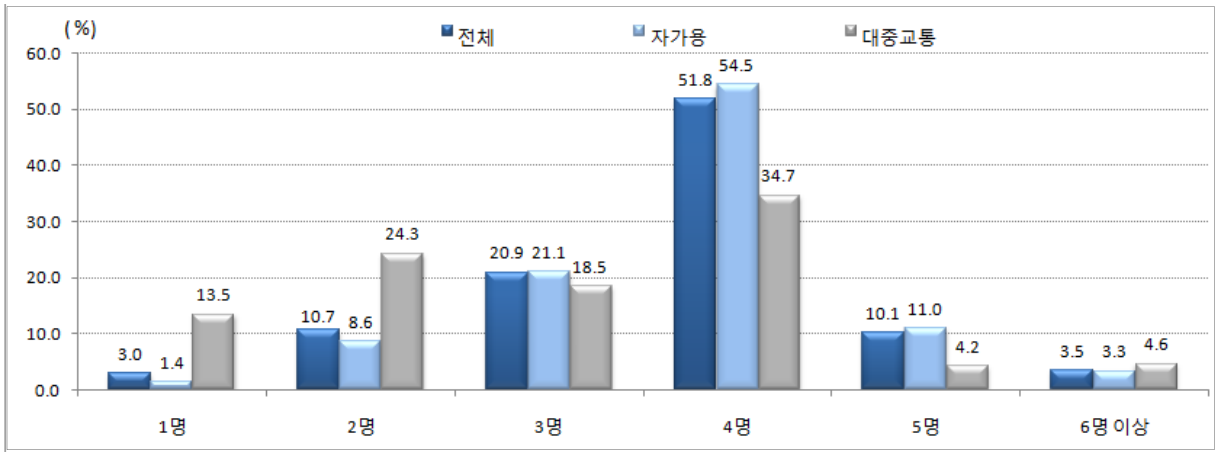
2)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올해(2014년) 설 연휴기간 중 '자가용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성 또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예정 동행인 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4명'이 51.8%로 가장 높고, '3명'(20.9%), '2명'(10.7%) 순임

<표 2-24>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2014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합계
전체	비율	3.0	10.7	20.9	51.8	10.1	3.5	100.0
	빈도	59	209	409	1,014	198	68	1,957
자가용	비율	1.4	8.6	21.1	54.5	11.0	3.3	100.0
	빈도	24	145	356	917	186	56	1,684
대중교통	비율	13.5	24.3	18.5	34.7	4.2	4.6	100.0
	빈도	35	63	48	90	11	12.0	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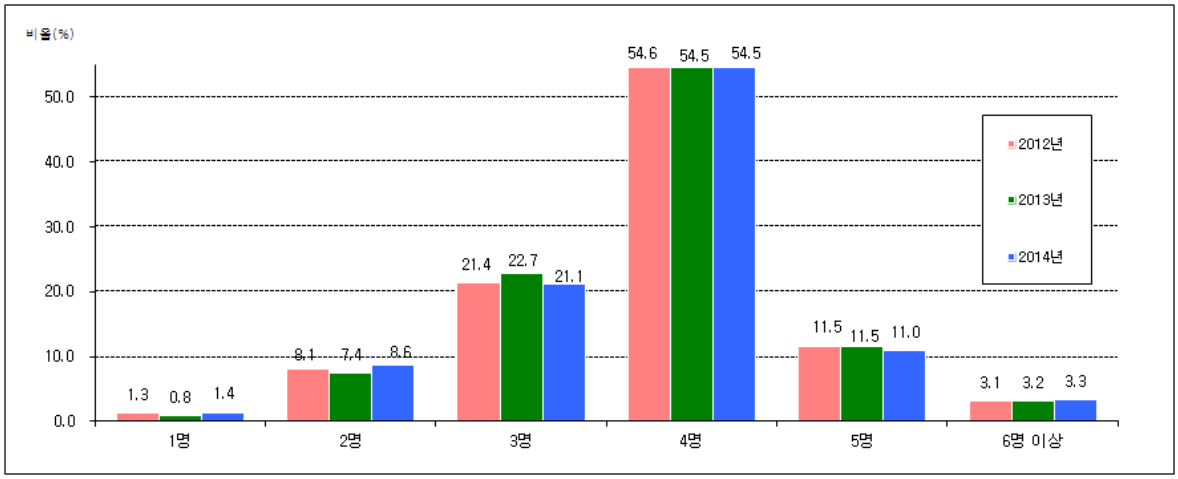
<그림 2-19>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2014년)

○ 2013년 대비 2014년 '1명', '2명'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 '3명'의 비율이 감소함

<표 2-25>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자가용 이용시(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합계
2014년	비율	1.4	8.6	21.1	54.5	11.0	3.3	100.0
	빈도	24	145	356	917	186	56	1,684
2013년	비율	0.8	7.4	22.7	54.5	11.5	3.2	100.0
	빈도	11	107	328	788	166	46	1,446
2012년	비율	1.3	8.1	21.4	54.6	11.5	3.1	100.0
	빈도	16	97	256	655	138	37	1,199



<그림 2-20>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자가용 이용시(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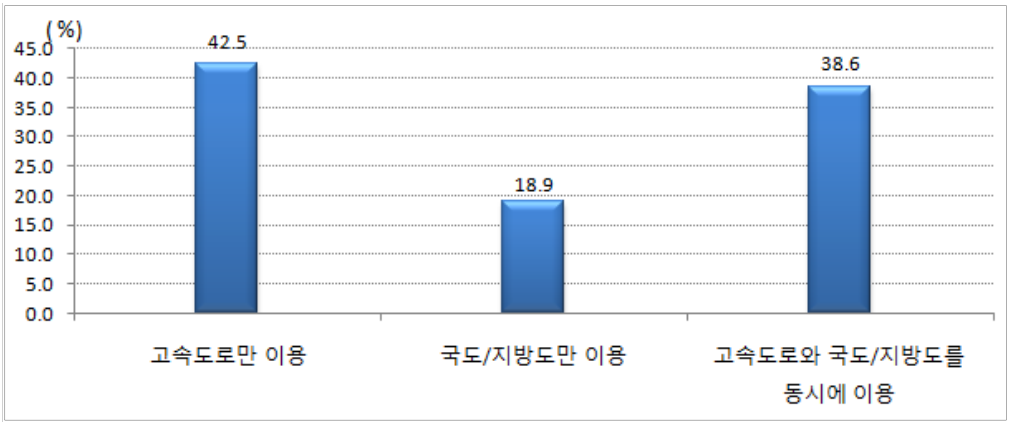
3)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도로

○ 올해(2014년)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자가용 운전자의 이용도로는 '고속도로만 이용'이 42.5%로 가장 높았고,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로 동시 이용(38.6%)', '국도/지방도만 이용(18.9%)' 순임

<표 2-26>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도로(2014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고속도로만 이용	국도/지방도만 이용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 동시이용	합계
2014년	비율	42.5	18.9	38.6	100.0
	빈도	725	323	658	1,7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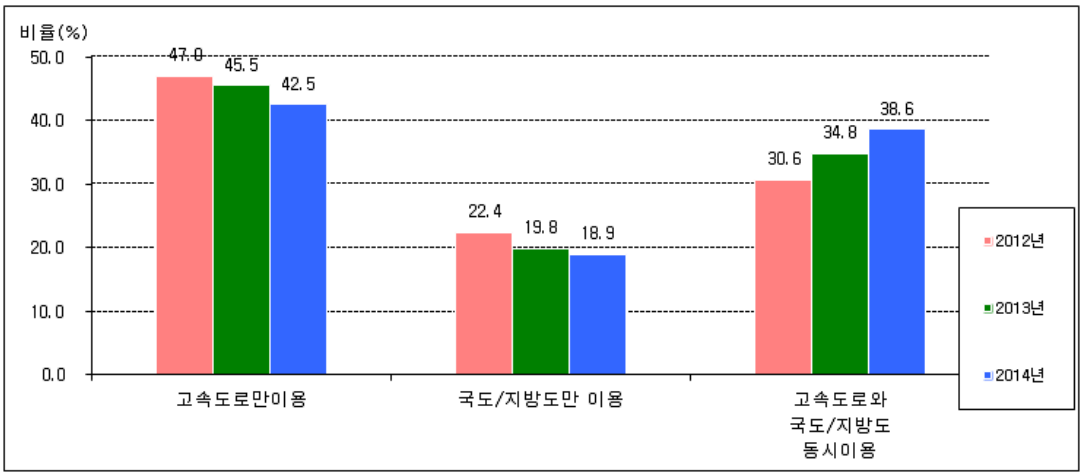
<그림 2-21>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도로(2014년)

○ 연도별로 살펴보면,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 동시 이용'한다는 응답률은 증가추세를 보이며, '국도/지방도만 이용'의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점차 고속도로 이용률이 증가(2012년 77.6% → 2014년 81.1%)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2-27>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도로(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고속도로만 이용	국도/지방도만 이용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 동시이용	합계
2014년	비율	42.5	18.9	38.6	100.0
	빈도	725	323	658	1,706
2013년	비율	45.5	19.8	34.8	100.0
	빈도	660	287	505	1,452
2012년	비율	47.0	22.4	30.6	100.0
	빈도	565	269	367	1,201



<그림 2-22>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도로(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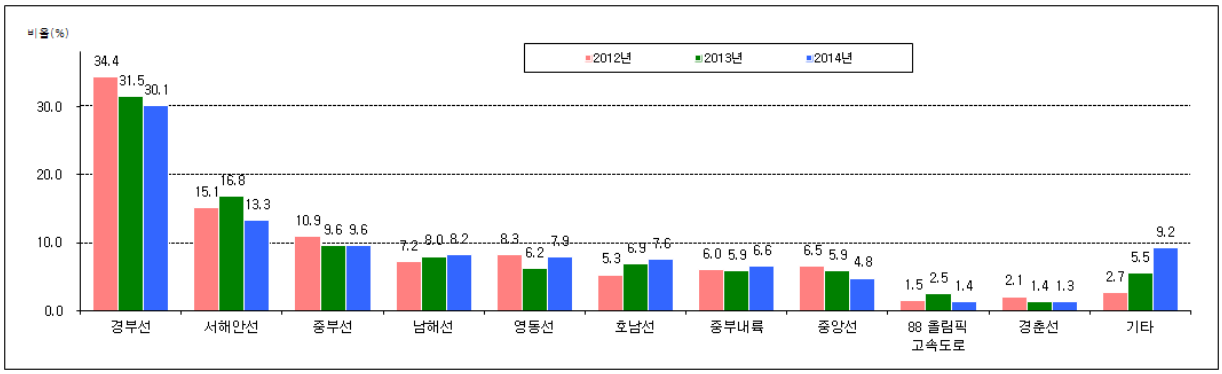
4)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고속도로 노선

- 올해(2014년) 설 귀성 또는 여행시 가장 오랫동안 이용할 고속도로로는 '경부선'이 30.1%로 가장 높았고, '서해안선'(13.3%), '중부선'(9.6%), '남해선'(8.2%) 순임
- 기타로는 '대구-부산선'(1.6%), '경인선'(1.2%) 등이 있음
- 연도별로는 '경부선', '중앙선', 의 비율이 감소하고, 남해선, 호남선, 기타고속도로의 비율이 증가함

<표 2-28>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고속도로 노선(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경부선	서해안선	중부선	남해선	영동선	호남선(천안-논산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88올림픽고속도로(무안-광주선)	경춘선	기타	합계
2014년	비율	30.1	13.3	9.6	8.2	7.9	7.6	6.6	4.8	1.4	1.3	9.2	100.0
	빈도	416	184	133	113	109	105	91	66	19	18	127	1,381
2013년	비율	31.5	16.8	9.6	8.0	6.2	6.9	5.9	5.9	2.5	1.4	5.5	100.0
	빈도	312	166	95	79	61	68	58	58	25	14	54	990
2012년	비율	34.4	15.1	10.9	7.2	8.3	5.3	6.0	6.5	1.5	2.1	2.7	100.0
	빈도	306	134	97	64	74	47	53	58	13	19	24	889



<그림 2-23>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고속도로 노선(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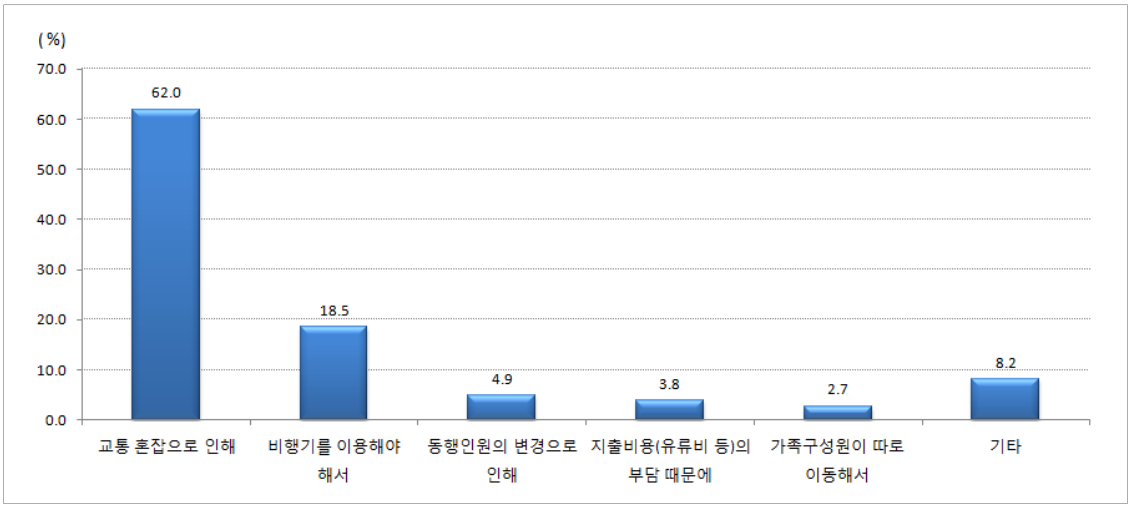
5) 자가용 보유에도 대중교통 이용 이유

○ 자가용이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교통 혼잡으로 인해'가 62.0%로 가장 높고, '비행기를 이용해야 해서'(18.5%), '동행인원의 변경으로 인해'(4.9%)등의 순임

<표 2-29> 자가용 보유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교통 혼잡으로 인해	비행기를 이용해야 해서	동행인원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비용(유류비 등)의 부담 때문에	가족구성원이 따로 이동해서	기타	합계
전체	비율	62.0	18.5	4.9	3.8	2.7	8.2	100.0
	빈도	114	34	9	7	5	15	184



<그림 2-24> 자가용 보유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마. 설 연휴 교통비용 및 교통상황 안내정보의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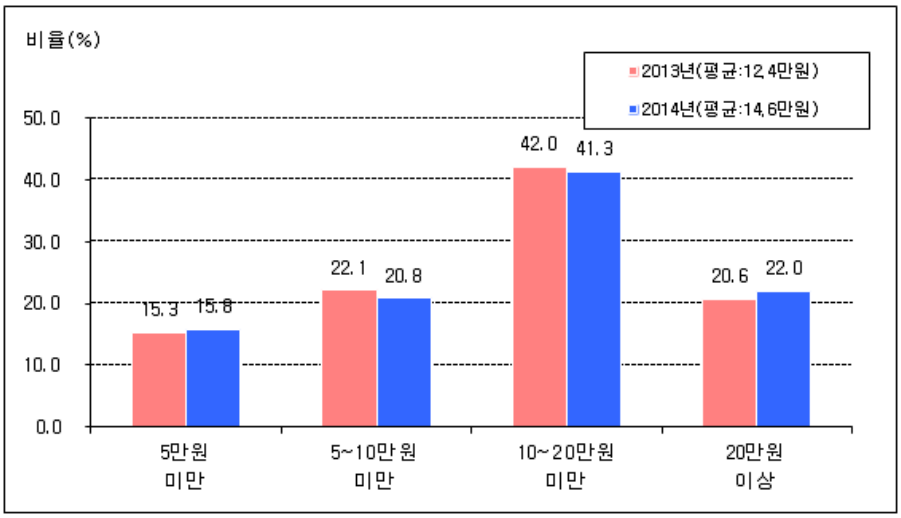
1) 설 연휴 교통비용

○ 올해(2014년) 설 연휴기간 귀성 및 귀경을 위한 왕복 예상 교통비용은 평균 14만 6천원으로 나타나, 작년(2013년) 12만 4천원 대비 증가(+2만 2천원)한 것으로 조사됨

<표 2-30> 설 귀성 및 귀가시 왕복 교통비용 - 전년 비용/올해 비용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합계	평균 (만원)
올해 (2014년)	비율	15.8	20.8	41.3	22.0	100.0	14.6
	빈도	241	318	631	336	1,526	
작년 (2013년)	비율	15.3	22.1	42.0	20.6	100.0	12.4
	빈도	194	280	531	260	1,265	



<그림 2-25> 설 귀성 및 귀가시 왕복 교통비용 - 전년 비용/올해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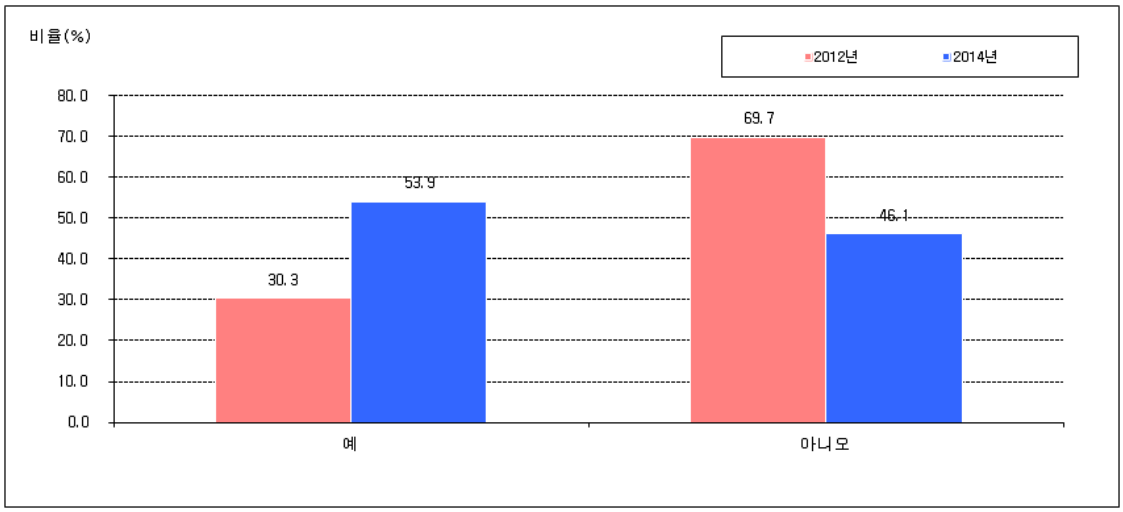
2) 설 연휴 기간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여부

- 설연휴 기간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53.9%이며, 46.1%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는 2012년(30.3%) 대비 2014년(53.9%)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이용한다는 응답률이 증가함[5)]

<표 2-31> 설연휴 기간중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여부(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예	아니오	합계
2014년	비율	53.9	46.1	100.0
	빈도	1,060	906	1,966
2012년	비율	30.3	69.7	100.0
	빈도	2,058	4,742	6,800



<그림 2-26> 설연휴 기간중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여부(연도별)

5) 2013년도의 설문방법 변경으로 인해 2012년과 2014년만 비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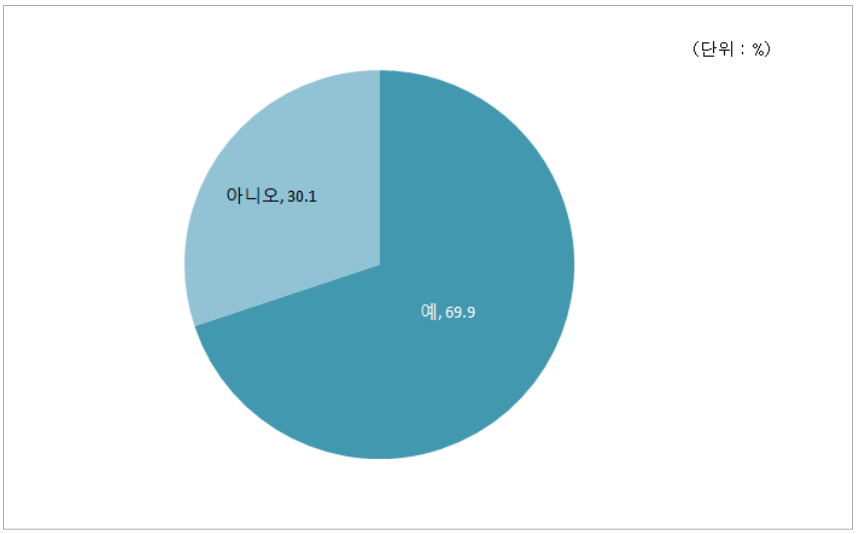
3) 습득한 정보에 따른 일정 변경 여부

ㅇ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이용하는 응답자 중 69.9%는 평소 습득한 정보에 따라 출발시간이나 노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2> 습득한 정보에 따른 일정 변경 여부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예	아니오	합계
전체	비율	69.9	30.1	100.0
	빈도	729	314	1,043



<그림 2-27> 습득한 정보에 따른 일정 변경 여부

4) 교통정보를 얻는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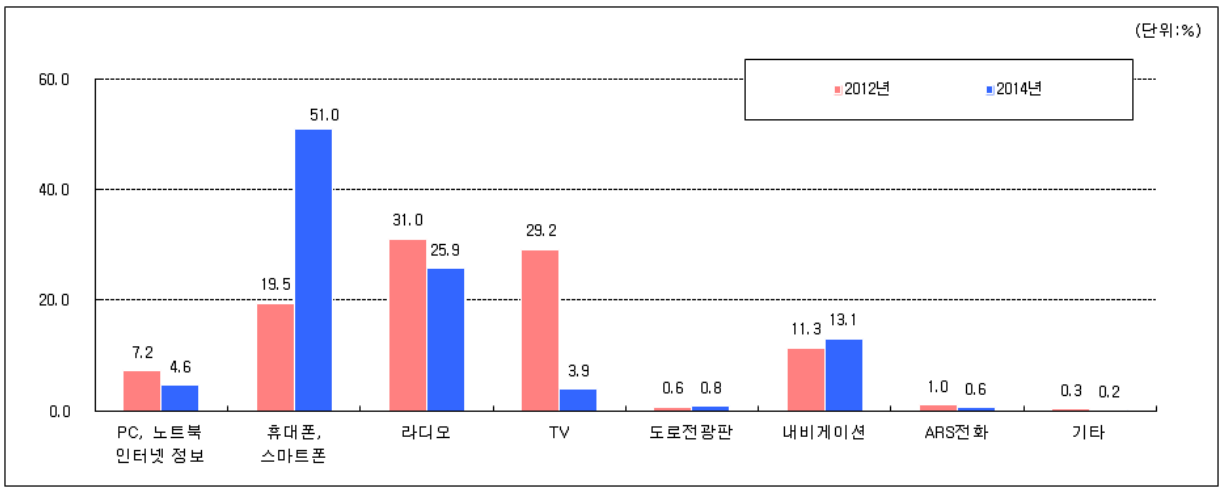
○ 응답자들은 주로 '휴대전화, 스마트폰'(51.0%)을 통해 교통정보를 얻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라디오'(25.9%), '내비게이션'(13.1%) 등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라디오'와 'TV'의 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휴대전화, 스마트폰'의 이용률은 큰 폭으로 증가추세를 보임[6)]

<표 2-33>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PC, 노트북 인터넷 정보	휴대폰, 스마트폰	라디오	TV	도로 전광판	내비게이션	ARS전화	기타	합계
2014년	비율	4.6	51.0	25.9	3.9	0.8	13.1	0.6	0.2	100.0
	빈도	48	535	272	41	8	138	6	2	1,050
2012년	비율	7.2	19.5	31.0	29.2	0.6	11.3	1.0	0.3	100.0
	빈도	148	401	637	601	13	232	20	6	2,058



<그림 2-28>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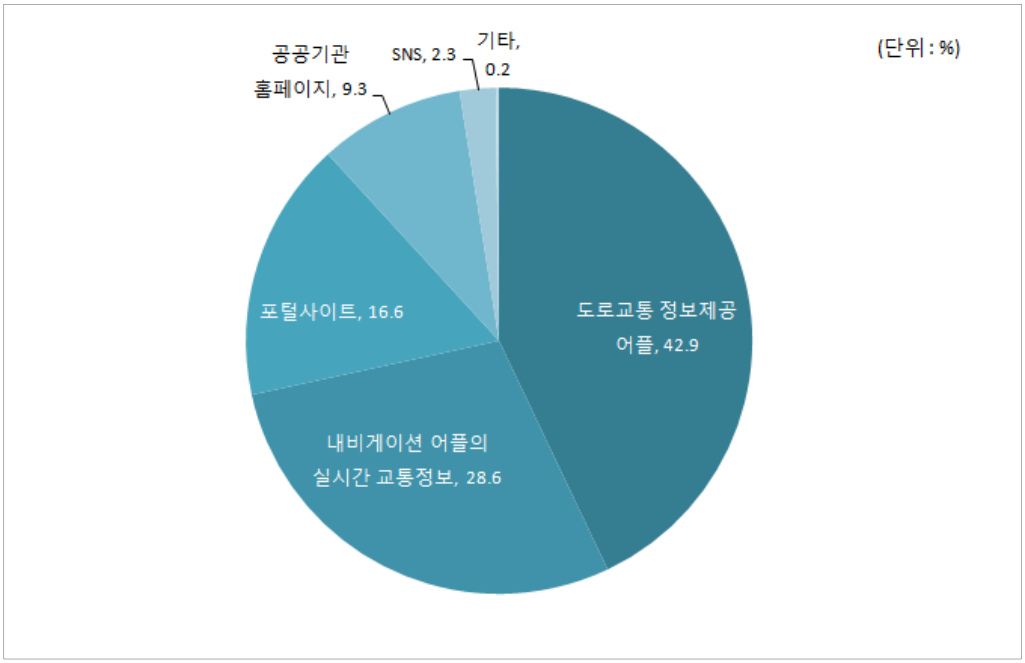
6) 2013년도의 설문방법 변경으로 인해 2012년과 2014년만 비교함

○ 휴대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획득하는 응답자의 세부 정보 획득 경로를 살펴보면, '도로교통 정보제공 어플'이 42.9%로 가장 높고, '내비게이션 어플의 실시간 정보'(28.6%), '포털사이트'(16.6%) 순임

<표 2-34> 휴대폰, 스마트폰 이용시 정보 획득 경로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도로교통 정보제공 어플	내비게이션 어플의 실시간 교통정보	포털사이트	공공기관 홈페이지	SNS	기타	합계
비율	42.9	28.6	16.6	9.3	2.3	0.2	100.0
빈도	204	136	79	44	11	1	475



<그림 2-29> 휴대폰, 스마트폰 이용시 정보 획득 경로

바. 기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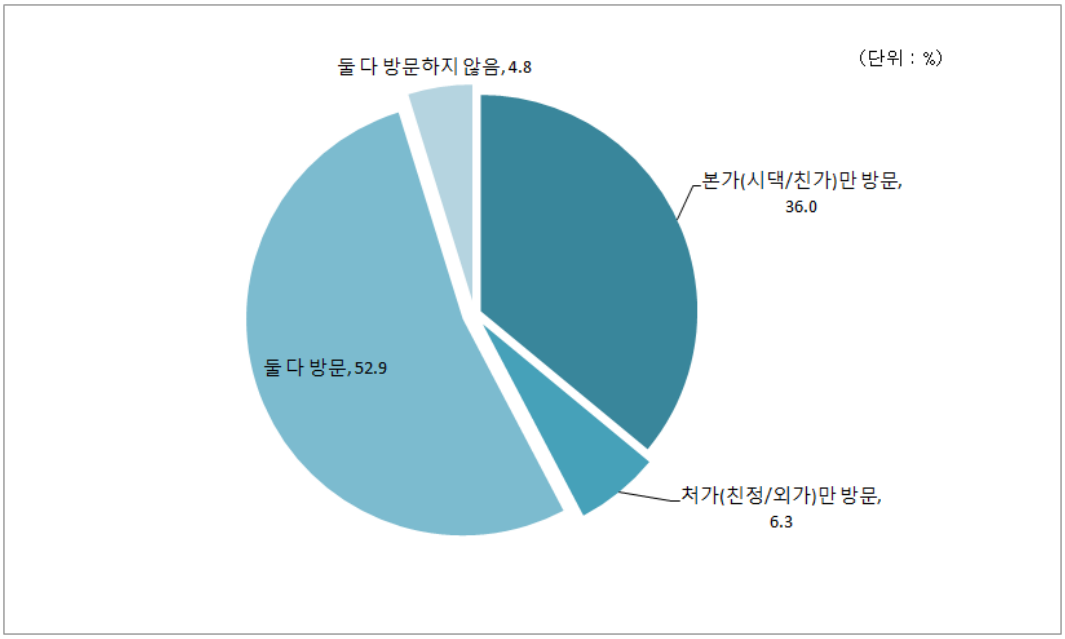
1) 설 연휴기간 중 본가/처가 방문 여부

○ 설 연휴기간 중 본가와 처가 '둘 다 방문'하는 가구가 52.9%로 가장 높고, '본가(시댁/친가)만 방문'(36.0%), '처가(친정/외가)만 방문'(6.3%) 순임

<표 2-35> 설 연휴기간 중 본가/처가 방문 예정 여부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본가(시댁/친가) 만 방문	처가(친정/외가) 만 방문	둘 다 방문	둘 다 방문하지 않음	합계
2014년 설	비율	36.0	6.3	52.9	4.8	100.0
	빈도	717	125	1,052	95	1,989



<그림 2-30> 설 연휴기간 중 본가/처가 방문 예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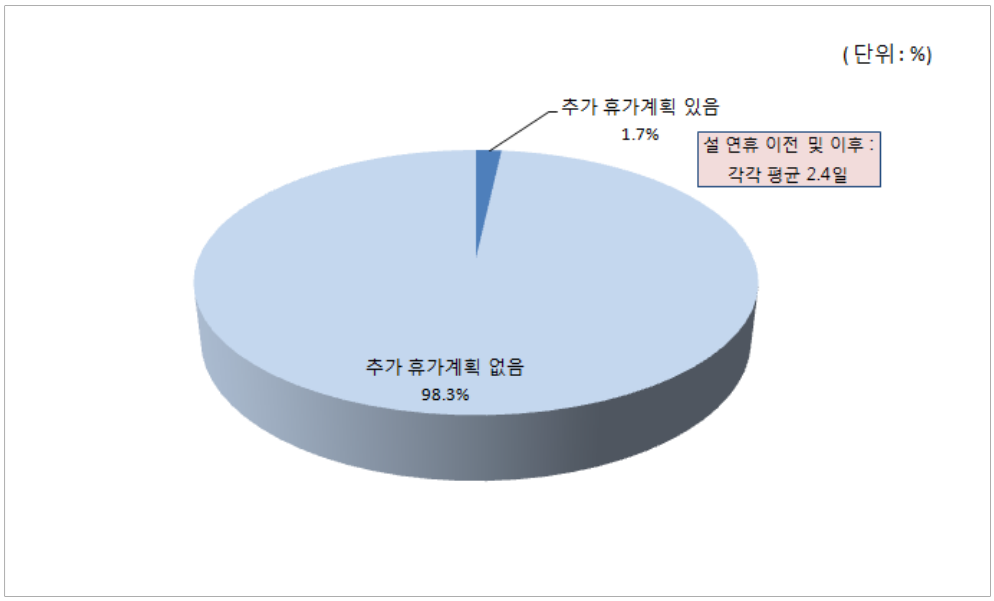
2) 설 연휴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 계획 여부 및 휴가일 수

○ 설 연휴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1.7%(155명)이며, '설 연휴 이전 휴가일수' 및 '설 연휴 이후 휴가일수' 평균 2.4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표 2-36> 설 연휴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 계획 여부 및 휴가일 수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추가 휴가계획 있음	설 연휴 이전 휴가일수	설 연휴 이후 휴가일수	추가 휴가계획 없음	합계
2014년	비율	1.7	2.4일	2.4일	98.3	100.0
	빈도	155			8,747	8,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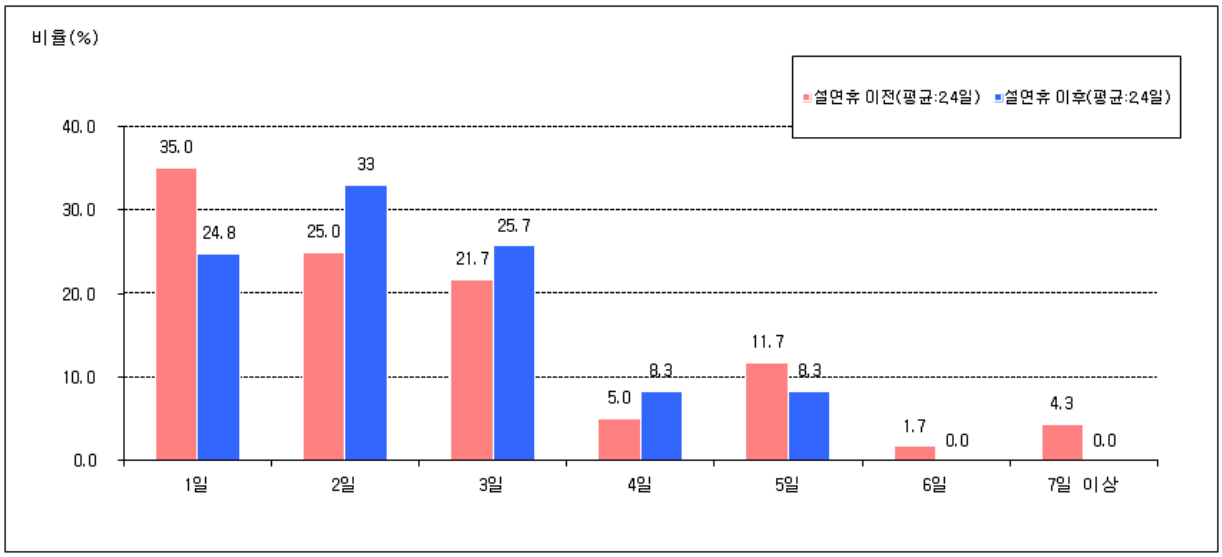
<그림 2-31> 설 연휴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 계획 여부 및 휴가일 수

○ ‘설 연휴 이전 휴가일’ 수는 평균 2.4일, ‘설 연휴 이후 휴가일’ 수는 평균 2.4일임

<표 2-37> 설 연휴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 계획일 수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합계	평균 (일)
설 연휴 이전	비율	35.0	25.0	21.7	5.0	11.7	1.7	100.0	2.4
	빈도	21	15	13	3	7	1	60	
설 연휴 이후	비율	24.8	33.0	25.7	8.3	8.3	0.0	100.0	2.4
	빈도	27	36	28	9	9	0	109	



<그림 2-32> 설 연휴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 계획일 수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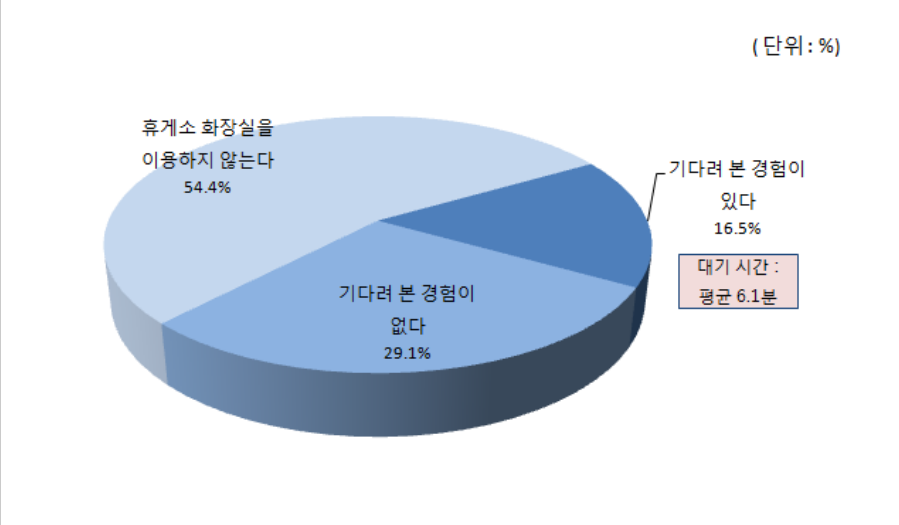
3)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이용을 위한 대기 여부

○ 지난 명절(설 또는 추석)때 귀성하는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6.5%이며, 평균 대기 시간은 6.1분임

<표 2-38>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이용을 위한 대기 여부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기다려 본 경험이 있다	평균 대기시간	기다려 본 경험이 없다	휴게소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다	합계
2014년	비율	16.5	6.1분	29.1	54.4	100.0
	빈도	1,485		2,615	4,900	9,000



<그림 2-33>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이용을 위한 대기 여부

○ 같은 문항을 조사한 2008년 추석 간이조사와 비교하면, 화장실을 대기시간은 2008년 평균 7.6분에서 2014년 평균 6.1분으로 감소함

- 2008년, 2014년 모두 여성의 대기시간은 남성 대비 긴 것으로 나타남

○ 2008년과 2014년의 평균 대기시간을 분석하면, 남성 대비 여성 화장실의 대기시간 개선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9>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이용을 위한 대기 시간

(단위: 분)

구 분		2008년 평균	2014년 평균
전체		7.6	6.1
성별	남	6.4	6.0
	여	7.8	6.2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1. 설연휴 특별교통대책 수요예측 방법

○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총 5일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요예측방법도 기존의 특별교통대책과 유사한 방법을 적용함

○ 통행수요예측을 위한 우선적으로 수집될 전년도 설연휴 기간 일별 수송실적 자료를 수집하여 특성을 파악함

- 귀성 및 귀경, 성묘 등 설 특별 교통수요는 D-1일부터 D+1일에 집중될 것이며, D-2일과 D+2일은 평상시 통행과 귀성통행이 혼재한 것으로 가정함
- 평상시 통행과 혼재되어 있는 수송실적에서 설문조사에서 산출되는 일자별 귀경비율을 적용하여 귀성 및 귀경 통행을 산출하며, 나머지 통행을 평상시 통행인 것으로 간주함

○ 2014년 설 특별교통대책 기간은 설연휴를 중심으로 한 5일간 통행과 인접 주말 통행을 구분하여 예측함

- 연휴기간 포함 5일간 통행은 전년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을 기반으로 전년도 대비 올해의 연평균 증감률,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전년도 대비 올해의 귀성비율, 성묘통행 및 친지방문통행 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함
- 인접 주말동안의 통행수요는 전년도 수송실적 자료에서 관련 자료를 구득하기가 어려우므로, 과거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주말이 포함된 유사 경우에서 통행패턴과 주말 통행 특성 조사에 의한 평일 대비 주말통행특성을 고려하여 예측함

2013년 특별교통대책기간 수단별 수송실적 조사	○ 전년도인 2013년의 수단별 수송실적을 조사하여 2014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요예측에 활용
⇓	
2014년 특별 교통대책기간 통행 특성 설문조사	○ 전년도 2013년의 귀성여부와 올해 2014년의 귀성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통행패턴을 예측 ○ 지역간 무작위층화추출법을 적용하여 전국단위로 전화설문조사
⇓	
수단별 수송수요 (권역간 O/D) 예측	○ 2013년 수송실적자료와 2014년 통행패턴의 변화를 이용하여 2014년 권역간 수송수요를 예측 ○ 과거년도 연휴기간 통행패턴 변화 참조

<그림 2-34>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예측과정

2. 수요예측 결과

-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5일간) 전국 예상 이동인원은 총 2,769만명, 1일 평균 554만명으로 전망됨
- 1일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 설(548만명/일)에 비해 1.1% 증가하고, 평시(337만명/일)보다 64.5%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설연휴기간 중 귀성객 등이 이용할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83.3%, 버스(고속버스+시외·전세버스)가 12.0%, 철도가 3.9%, 항공 0.5%, 해운 0.3%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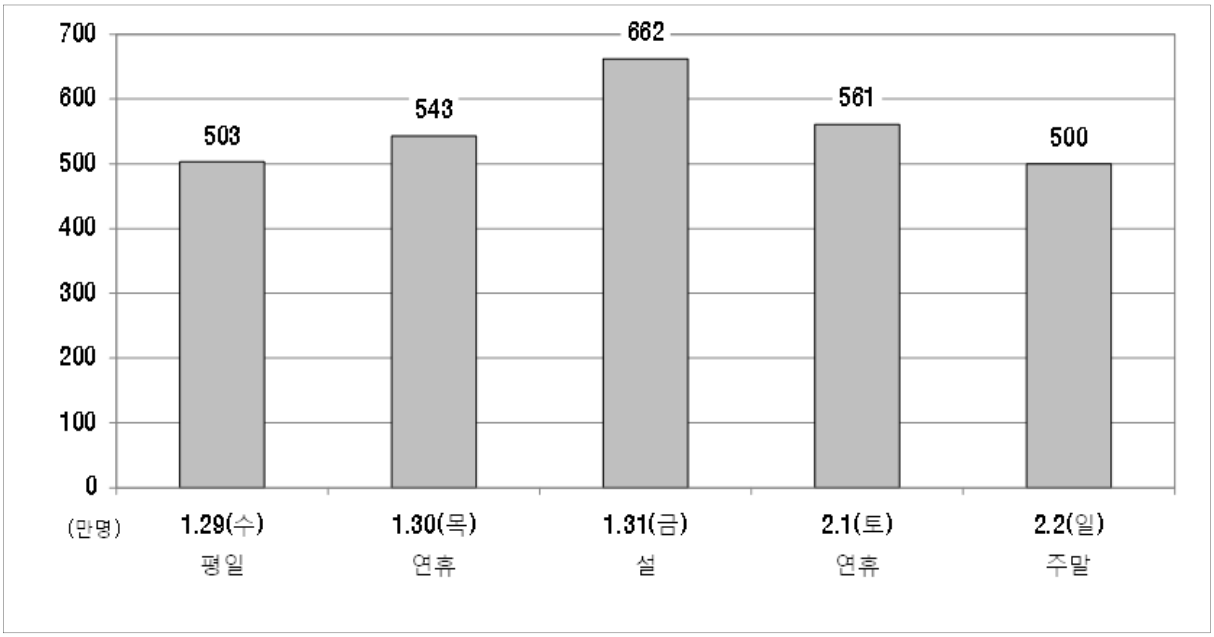
<표 2-40> 2014년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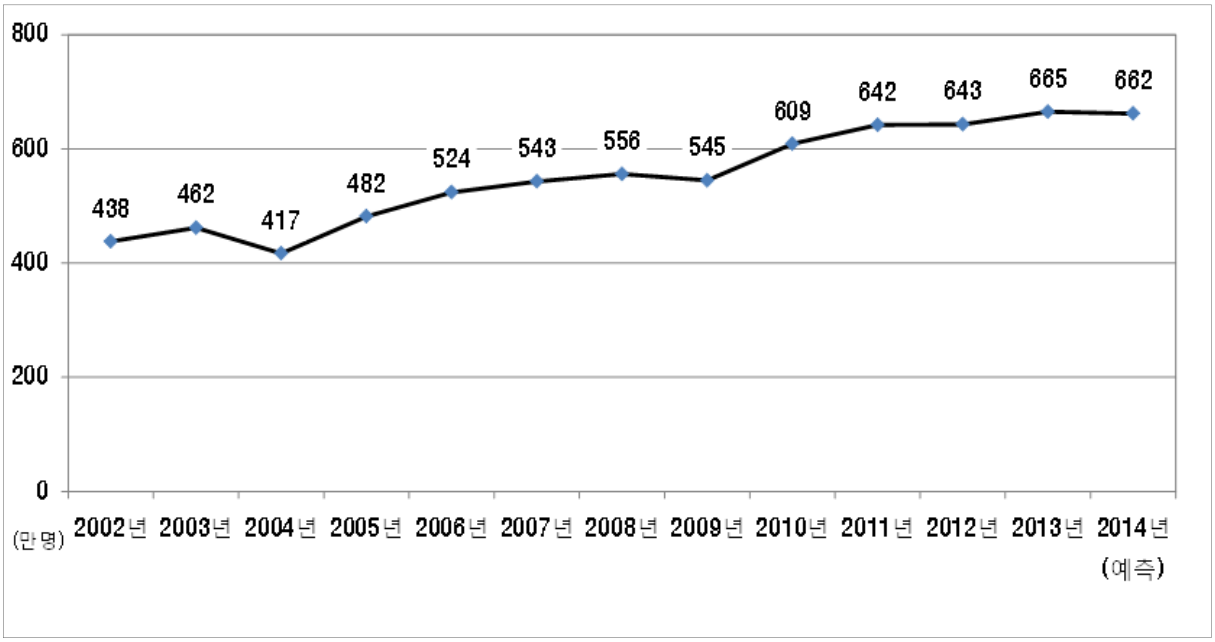
구분 / 교통수단			평시 1일 수송량	설연휴기간('14.1.29~2.2)			평시대비 (%)
				일평균 이동인원	5일 총 이동인원	분담률 (%)	
도로	승용차		2,444	4,611	23,055	83.3	188.7
	버스	고속버스	44	79	396	1.4	179.5
		시외·전세	669	587	2,937	10.6	87.7
철도			160	214	1,069	3.9	133.8
항공			28	28	140	0.5	100.0
해운			20	18	90	0.3	90.0
합계			3,365	5,537	27,687	100.0	164.5

주: 1)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로 한정하였으며, 폐쇄식 구간을 기준으로 함
2) 수단별 수송실적 자료는 각 기관에서 수집하여 사용함
3) 과거의 수송실적현황과 설연휴 통행패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용한 통행수요임

- 1일 최대 이동인원은 1월 31일(설 당일) 662만명으로 작년 대비(665만명, 2월 10일 설 당일) 0.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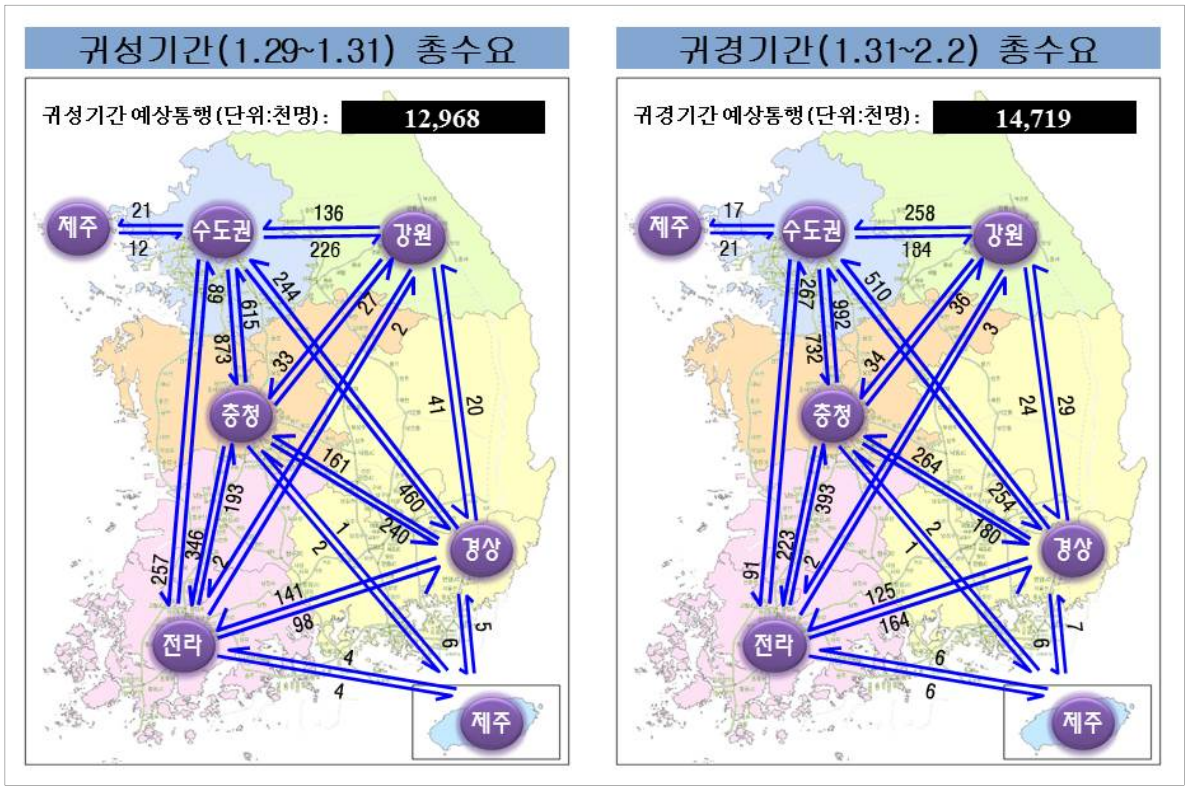


<그림 2-35>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일자별 이동수요(전망)



<그림 2-36>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연도별 하루최대 이동 추이

○ 설 연휴기간 동안 예상되는 지역간 이동은 귀성시 1,297만명, 귀경시 1,472만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통행 중 수도권에서 출발하거나 수도권으로 도착하는 통행이 귀성시 41.9%, 귀경시 41.1%를 차지하여 각 권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과 충청권역의 고속도로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그림 2-37> 2014년 설 귀성, 귀경기간 권역간 통행수요

제4절 사후평가

1. 사후평가 방법론

○ 특별교통대책용 교통수요예측결과와 특별교통대책기간 실적자료 간의 비교하기 위하여 특별교통대책기간 완료 이후 집계 가능한 수단별 수송실적을 활용하여 사후평가 함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해운조합,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수송실적 수집 자료 :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1.29~2.2, 5일간)의 일별 출발·도착지별 여객 수송실적 및 일별 총 수송실적
- 대중교통 중 시외·전세버스 실적은 수집이 불가능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함

2. 사후평가 결과

○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1일 평균 예측치는 4,950천명, 실제 이동인원은 5,219천명으로 94.8%의 정확도로 예측되었으며, 5.2% 과소예측함

- 대부분 교통수단의 오차율이 10% 이내이지만, 해운부문의 오차율이 16.7%로 가장 큰 오차를 보임

○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 작년 동기간보다 6.7%, 2014년 평시보다 93.6% 증가

<표 2-41>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

(단위: 천명)

교통수단	2013년 실적 (일평균) (A)	2014년 평시 (일평균) (B)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				정확도 (E) (C÷D×100) (%)	오차율[3] (E-100) (%)	전년대비 (D÷A×100) (%)	평시대비 (D÷B×100) (%)
			예측		실적					
			1일평균 (C)	기간 전체	1일평균 (D)	기간 전체				
승용차	4,555	2,444	4,611	23,055	4,868	24,340	94.7	▼5.3	106.9	199.1
고속버스	90	44	79	396	88	441	89.8	▼10.2	97.8	202.3
철도	203	160	214	1,069	211	1,053	101.5	▲1.5	103.8	131.5
항공	27	28	28	140	30	152	92.1	▼7.9	110.7	107.9
해운	16	20	18	90	22	108	83.3	▼16.7	131.0	107.7
전체	4,892	2,696	4,950	24,750	5,219	26,094	94.8	▼5.2	106.7	193.6

주: 1) 대중교통 중 시외·전세버스 실적은 수집이 불가능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
2)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 폐쇄식구간 통행에 한함
3) 오차율 : ▲ - 과대예측, ▼ - 과소예측

제3장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제1절 하계휴가 수송실적 자료조사

제2절 하계휴가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 조사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제4절 사후평가

제3장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제1절 하계휴가 수송실적 자료조사

1. 자료수집 개요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관

- 도로 : 한국도로공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철도 : 한국철도공사
- 항공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해운 : 한국해운조합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기 : 특별교통대책기간 약 25일 전까지

- 2014년 6월 13일(금)~2014년 6월 20일(금)

○ 수송실적 수집기관별 수집데이터

- 승용차(한국도로공사,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월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고속버스(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전세버스(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시외버스(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철도(한국철도공사) : 월별/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항공(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해운(한국해운조합)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간적 범위

- 월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3년 12월 ~ 2014년 5월
- 일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3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18일간: 2013.07.25~8.11)

2. 자료수집 결과(2013년 하계휴가 수송실적)

○ 각 기관별 2013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자료를 수령한 후 전년도(2012년) 수송실적과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항공을 제외한 전체 수단에서 2013년 하계휴가기간 일평균 수송실적은 2012년 동기간보다 증가하였음

· 특히 철도는 일평균 54,061명(9.0%) 증가로 각 수단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반면 항공은 전년대비 0.6% 감소

<표 3-1> 2012, 2013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교통수단	단위	일평균		기간 전체		증감 (B-A)		일평균실적 증감률 (%)
		2012년 (A)	2013년 (B)	2012년 (19일) (A)	2013년 (18일) (B)	일평균	기간 전체	
승용차	대	3,984,509	4,144,322	75,705,677	74,597,799	159,813	-1,107,878	4.0
고속버스	인	141,262	142,169	2,683,985	2,559,038	906	-124,947	0.6
시외/전세	인	588,671	628,385	11,184,749	11,310,938	39,714	126,189	6.7
철도	인	598,098	652,159	11,363,864	11,738,862	54,061	374,998	9.0
항공	인	371,087	368,961	7,050,655	6,641,304	-2,126	-409,351	-0.6
해운	인	70,863	71,810	1,346,401	1,292,586	947	-53,815	1.3

제2절 하계휴가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 조사

1. 조사개요

가. 조사범위 및 방법

○ 조사범위

- 2014년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7.25(금)-8.10(일): 17일간)의 통행계획
- 전국 단위 세대(17개 시·도) 대상

○ 조사시기·방법·표본

- 조사시기 : 2014년 6월 26일(목) ~ 29일(일)(4일간)
-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
- 조사표본 : 9,000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03%)
- 유효표본수[7] : 2,447 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 1.98%)

나. 조사내용

○ 올해(2014년) 휴가 관련

- 올해 여름 휴가여행 계획, 가족구성원, 자가용 보유여부, 자가용에 안전용품 구비 여부, 평소 여름 휴가여행 계획을 세우는 시점, 여름 휴가 사용 시기, 여름 휴가여행 예정 날짜, 7월 5주~8월 1주에 여름휴가 여행을 계획한 이유, 여름 휴가여행 일수, 여름 휴가여행 동행인, 여름 휴가여행지(본인, 가족구성원), 여름 휴가여행지의 유형, 주 교통수단, 고속도로 이용여부, 주이용 고속도로, 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 여름 휴가여행 지출 비용(2014년, 2013년),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여부 및 수단

○ 작년(2013년) 휴가 관련

- 작년 여름 휴가여행 여부, 작년 여름 휴가여행 날짜, 작년 여름 휴가여행시 차량고장 경험, 작년 여름 휴가여행시 휴게소 화장실 대기 경험 및 시간

○ 개인 속성 : 세대주 연령, 주거형태, 직업

---

7) 유효표본은 올해 귀성, 여행 계획이 있는 응답가구 기준임

다. 조사표본 선정

○ 하계 휴가기간 통행실태 설문조사가 전국 세대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해, 「2014년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을 모집단으로, 전국 17개 특별 광역시/도의 대도시 위주(군단위 이하 제외)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지역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서울 및 광역시 : 군 단위 제외한 행정구역
- 경기도 : 세대수 30만 가구 이상 행정구역
- 세종시 : 전 지역
- 그 외 지역 : 세대수 상위 10% 이상을 차지하는 행정구역

<표 3-2>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지역별 조사 세대수

(단위: 세대수(세대), 비율(%))

구분	2013년 하계					2014년 하계				
	전체 세대수[1]	표본		유효표본		전체 세대수[2]	표본		유효표본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서울특별시	4,181,819	1,385	30.1	279	27.5	4,189,440	1,835	20.4	470	25.6
부산광역시	1,396,943	465	10.1	87	8.6	1,410,558	617	6.9	144	23.3
대구광역시	954,131	317	6.9	69	6.8	964,444	422	4.7	112	26.5
인천광역시	1,106,340	368	8.0	79	7.8	1,126,619	492	5.5	140	28.5
광주광역시	558,883	183	4.0	43	4.2	567,451	247	2.7	61	24.7
대전광역시	579,989	194	4.2	46	4.5	589,333	257	2.9	76	29.6
울산광역시	426,252	142	3.1	46	4.5	435,848	190	2.1	64	33.7
경 기 도	4,669,308	1,546	33.6	367	36.1	4,742,158	2,074	23.0	616	29.7
강 원 도	-	-	-	-	-	668,750	292	3.2	69	23.6
충청북도	-	-	-	-	-	649,024	283	3.1	95	33.6
충청남도	-	-	-	-	-	865,343	378	4.2	97	25.7
전라북도	-	-	-	-	-	769,886	336	3.7	94	28.0
전라남도	-	-	-	-	-	820,119	359	4.0	100	27.9
경상북도	-	-	-	-	-	1,144,241	500	5.6	134	26.8
경상남도	-	-	-	-	-	1,330,005	582	6.5	153	26.3
제 주 도	-	-	-	-	-	241,639	106	1.2	17	16.0
세종특별자치시	-	-	-	-	-	53,101	30[3]	0.3	5	16.7
전 국										

주: 1) 안전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13. 5)
2)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14. 5)
3) 비례할당 적용시 세종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을 위해 30표본으로 유의 할당하여 진행함

라. 조사표본 추출

○ 하계 휴가기간 통행실태조사를 위한 추출표본이 조사대상 지역별 통행특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별로 할당된 조사표본의 20배수의 리스트를 2014년도 세대수를 기준으로 비례할당한 리스트를 추출하여, 최종 설문조사된 비율이 지역별 세대수 및 동단위 세대수 비율과 근사치로 조사됨

○ 리스트 추출은 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KORA)의 유선전화 RDD(Radom Digital Dialing System) 제공서비스를 사용하여 조사대상 지역별 세대수와 동일한 비율로 조사표본 20배의 리스트를 추출하였으며, 자체 개발한 랜덤샘플링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추출하여 각 권역별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사를 진행하였음

○ 전국 17개 시·도 중 해당 조사 지역을 선택하여 표본수를 입력하면 시·군·구·동 단위의 실제 세대수와 동일한 비율로 리스트가 추출되고 이를 무작위로 조사 진행함

2. 사전 설문조사 주요 결과

가. 결과 요약

○ 하계휴가 여행비율

- 응답가구 중 27.2%는 하계 휴가여행을 갈 계획이 있으며, 이미 다녀왔다는 응답자는 1.2%임
- 하계휴가 여행을 간다는 가구는 27.2%, 안간다는 55.1%, 미정은 16.6%임. 가지 않는 이유는 '생업(사업)상의 이유' 때문(33.0%)이며, 미정인 이유는 '일정조율이 필요해서'(49.7%)임

○ 하계 휴가여행 계획을 세우는 시점

- 하계 휴가여행 계획이 있는 가구 중 45.6%는 '6월 이전'에 하계 휴가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 시점에서 하계 휴가여행 계획이 미정인 경우, 평소 하계휴가 여행계획을 세우는 시점을 조사한 결과, 주로 '7월 초순(31.9%)'에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남

○ 하계 휴가여행 지역(국내+해외)

- '동해안권'(25.6%)이 가장 높고, '남해안권'(18.4%) 〉 '서해안권'(10.2%) 〉 '강원내륙권'(9.7%) 순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방 대비 수도권의 '동해안권'으로의 휴가 여행비율이 높은 반면, '남해안권'으로의 여행 비율은 낮음

- 하계 휴가시 여행 지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호남내륙권’과 ‘영남내륙권’의 비율이 감소하고, 2013년 대비 2014년 ‘해외’여행은 1.6% 증가함

○ 하계 휴가여행 시기

- ‘7월 26일(토)~8월 1일(금)’에 하계휴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가 36.4%로 가장 많음
- 7월 26일(토)부터 8월 8일(금)에 하계휴가 여행을 계획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회사의 휴가시기 권유로 인해’(49.5%), ‘자녀의 학교, 학원 및 어린이집 방학에 맞춰’(27.7%), ‘가장 더운 시기여서’(8.9%), ‘남들이 많이 쉬어서’(7.3%) 등의 순임
- 하계 휴가여행 계획있음 응답자의 휴가사용 예정일 및 휴가여행 일자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하계 휴가여행 기간

- 하계 휴가여행 기간으로 ‘2박 3일’이 44.6%로 가장 높고, ‘3박 4일’(26.6%), ‘1박 2일’(11.9%) 순임
- 하계 휴가시 여행기간의 연도별 분석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박 3일’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3박 4일’의 비율은 증가추세를 나타냄

○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이용

- 하계 휴가여행시 ‘자가용(승용차, 승합차)’ 이용이 79.8%이며, 그중 86.1%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예정임. 주이용 고속도로는 ‘영동선’(32.8%)으로 나타남
- 주이용 교통수단은 ‘자가용(승용차, 승합차)’(79.8%)〉‘비행기’(14.4%)〉‘버스(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관광버스)’(2.9%)〉‘철도(열차, 고속철도)’(1.4%) 순임
- 고속도로 이용자의 주 이용노선은 ‘영동선’(32.8%) 〉 ‘경부선’(19.0%) 〉 ‘서해안선’(14.3%) 등의 순임

○ 동행인 및 동행인 유형

- 동행인은 ‘4명’이 38.7%로 가장 높고, 동행인 유형은 주로 ‘가족, 친지’(88.6%)임
- 하계 휴가시 예정 동행인 수(본인포함)는 ‘4명’이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명(14.1%)’, ‘3명(12.1%)’ 순임
- 동행인 유형은 ‘가족/친지’(88.6%), ‘친구’(5.3%), ‘가족/친지+친구’(4.4%) 순임

○ 선호하는 여름휴가 유형

- 선호하는 여름휴가 유형은 ‘바캉스형(바다나 계곡)’(72.4%) 임
- 2013년 대비 2014년, ‘자연동화형’은 감소한 반면, ‘도심휴가형’의 비율이 증가함

○ 예상 소요시간

- 여름 휴가여행 목적지까지 예상 소요시간은 '3시간 이상~4시간 미만'(26.4%)이 가장 많고, '2시간 이상~3시간 미만'(25.3%), '4시간 이상~5시간 미만'(15.8%) 순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의 비율은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4시간 이상~5시간 미만'은 감소추세임

○ 휴가 비용

- 올해(2014년) 평균 약 90.5만원, 국내여행 평균 80.3만원, 해외여행 평균 437.4만원을 사용할 예정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년(2013년) 대비 올해(2014년) 여행 비용이 증가(약 15만원)함

○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 하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중 59.7%가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이용할 계획이며, 수신처로는 '휴대전화, 스마트폰'(48.8%)이 가장 높고, 스마트폰을 통한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43.6%)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계 휴가시 교통상황 안내 정보획득 경로는 '휴대전화, 스마트폰'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비게이션' 27.4%, '라디오' 16.2% 순임
- 휴대전화/스마트폰으로 교통정보를 취득하는 경로는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이 4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도로교통정보제공 어플'이 29.9%, '포털사이트' 19.6%순임

○ 자동차 안전용품 구비 및 여행전 차량 점검 여부

- 자가용 보유가구 중 71.7%가 안전용품을 구비하고 있으며, 여름 휴가여행에 자가용을 이용할 가구의 89.4%가 평소 여행전 차량점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작년 여름휴가 여행시 차량 고장 경험

- 작년 여름휴가 여행을 다녀온 가구중 1.3%가 차량 고장 경험이 있음

○ 휴게소 화장실 대기여부 및 시간

- 작년 여름휴가 여행 가구의 32.6%가 고속도로 휴게소화장실에서 기다려 본 경험이 있으며, 평균 대기시간은 5.1분임
- 성별에 따르면 '기다려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남성(18.1%) 대비 여성(40.2%)의 비율이 높으며, 남자는 평균 5.1분, 여자는 평균 5.2분을 기다린 것으로 나타남

나. 하계 휴가시 여행 여부[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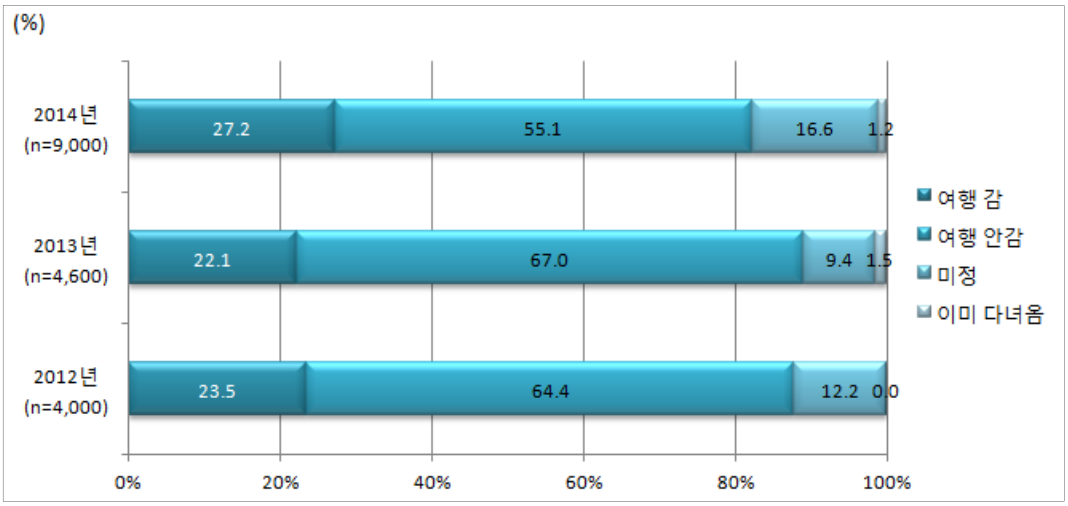
1) 올해(2014년) 하계 휴가시 여행 여부

- 올해 하계 휴가시 여행계획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가구의 27.2%는 '하계 휴가여행을 갈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미 다녀왔다는 응답자는 1.2%임
-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살펴보면, 하계 휴가기간 중 여행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23.5%, 2013년 22.1%, 2014년 27.2%로 2012년에서 2013년 감소하였다가 2014년 증가함
- 2013년 대비 2014년 '미정' 응답자는 7.2% 증가함

<표 3-3> 하계 휴가시 여행 여부(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여행 감	여행 안감	미정	이미 다녀옴	합계
2014년	비율	27.2	55.1	16.6	1.2	100.0
	빈도	2,447	4,955	1,492	106	9,000
2013년	비율	22.1	67.0	9.4	1.5	100.0
	빈도	1,016	3,081	434	69	4,600
2012년	비율	23.5	64.4	12.2	-	100.0
	빈도	939	2,575	486	-	4,000



<그림 3-1> 하계 휴가여행 여부(연도별)

8) 2013년까지는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함

2) 작년(2013년) 하계 휴가시 여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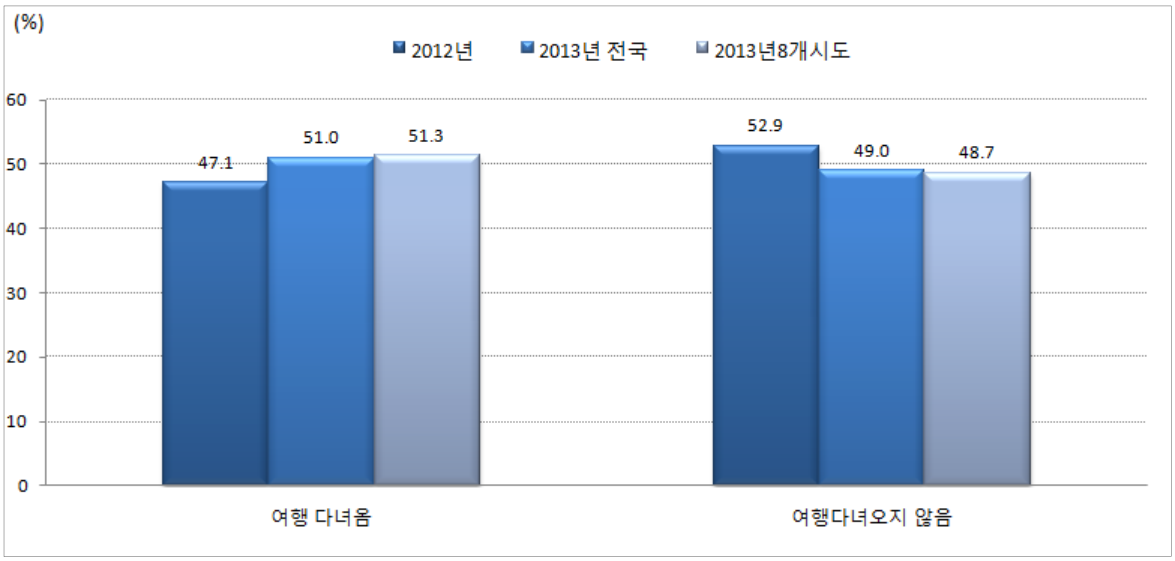
○ 올해 하계휴가 사전조사 대상자(n=9,000) 중 51.0%가 작년(2013년)에 하계 휴가여행을 다녀왔다고 응답함

- 올해 하계휴가 사전조사 대상자 중 출발지역이 8개시도인 응답자의 51.3%가 작년에 하계휴가 여행을 다녀왔다고 응답함

<표 3-4> 작년(2013년) 하계 휴가시 여행 여부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여행 다녀옴	여행 다녀오지 않음	합계
2013년	전국	비율	51.0	49.0	100.0
		빈도	4,543	4,362	8,905
	8개시도	비율	51.3	48.7	100.0
		빈도	3,107	2,952	6,059
2012년		비율	47.1	52.9	100.0
		빈도	2,167	2,433	4,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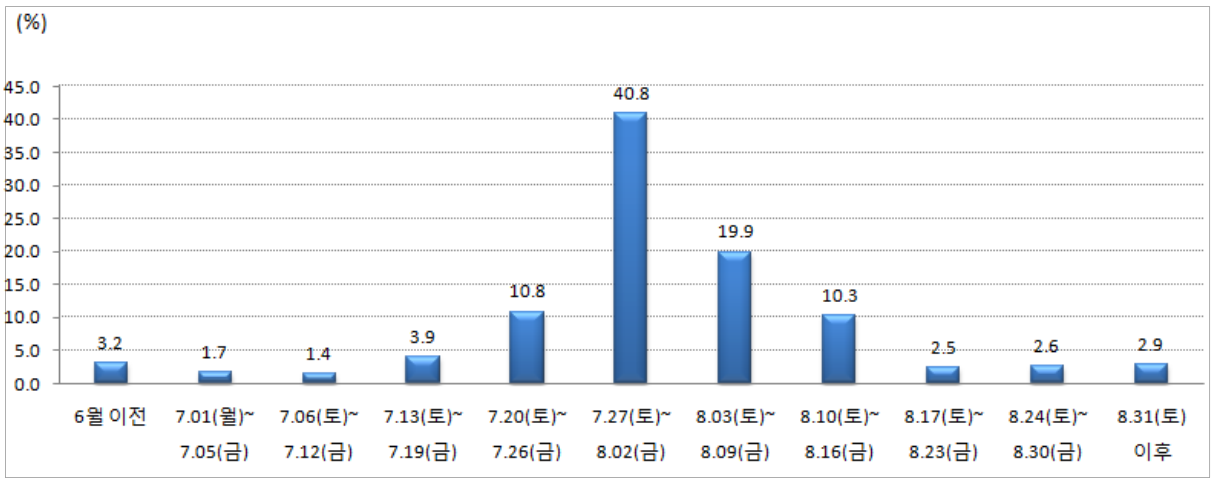
<그림 3-2> 작년(2013년) 하계 휴가시 여행 여부

○ 작년(2013년)에 여행을 다녀온 응답자의 여행일을 살펴보면, '7.27(토)~8.02(금)'이 40.8%로 가장 높고, '8.03(토)~8.09(금)'이 19.9%, '7.20(토)~7.26(금)' 10.8% 순임

<표 3-5> 작년(2013년) 하계 휴가시 여행일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6월 이전	7.01(월) ~ 7.05(금)	7.06(토) ~ 7.12(금)	7.13(토) ~ 7.19(금)	7.20(토) ~ 7.26(금)	7.27(토) ~ 8.02(금)	8.03(토) ~ 8.09(금)	8.10(토) ~ 8.16(금)	8.17(토) ~ 8.23(금)	8.24(토) ~ 8.30(금)	8.31(토) 이후	합계
비율	3.2	1.7	1.4	3.9	10.8	40.8	19.9	10.3	2.5	2.6	2.9	100.0
빈도	136	71	62	169	466	1,755	855	442	106	112	126	4,300



<그림 3-3> 작년(2013년) 하계 휴가시 여행일

3) 하계 휴가시 여행 안감 이유

○ 하계 휴가여행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생업(사업)상의 이유로'가 33.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휴가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21.1%)',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12.7%)' 순임

○ 기타 이유로는 '귀찮아서(0.9%)', '원래 가지않음', '휴식을 취하려고'(각각 0.8%)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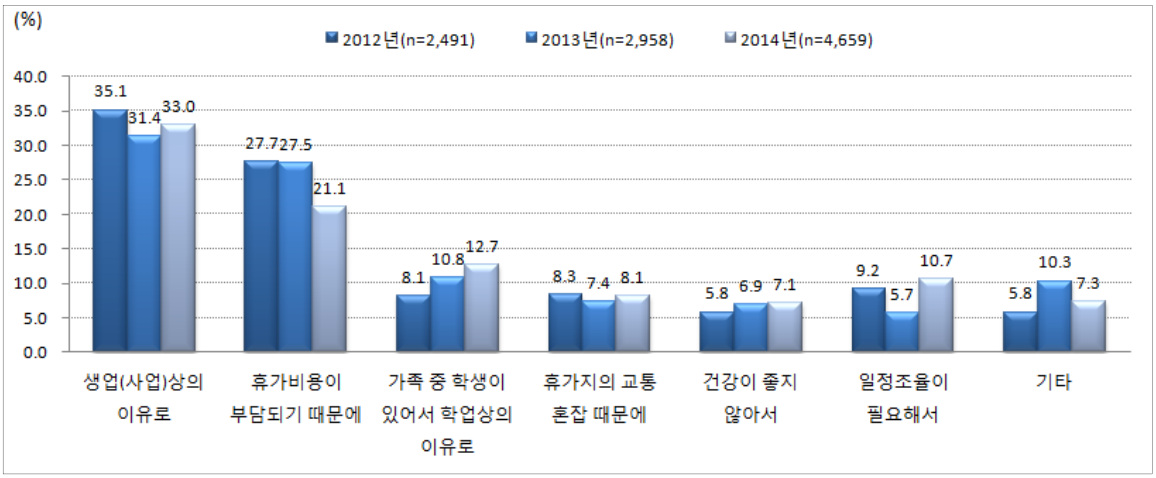
○ 2013년 대비 2014년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휴가 여행을 안가는 비율은 증가한 반면,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안가는 비율은 감소함

-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안가는 비율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
- 8개시도 대비 전국의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휴가여행을 가지 않는 비율이 높은 반면, ‘가족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의 비율은 낮음

<표 3-6> 하계 휴가시 여행 안감 이유(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휴가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	휴가지의 교통 혼잡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정 조율이 필요해서	기타	합계
2014년	전국	비율	33.0	21.1	12.7	8.1	7.1	10.7	7.3	100.0
		빈도	1,537	983	590	377	331	499	342	4,659
	8개 시도	비율	31.4	21.8	13.6	8.7	7.3	10.3	6.8	100.0
		빈도	989	687	428	274	231	323	215.0	3,147
2013년		비율	31.4	27.5	10.8	7.4	6.9	5.7	10.3	100.0
		빈도	929	812	319	220	203	169	306	2,958
2012년		비율	35.1	27.7	8.1	8.3	5.8	9.2	5.8	100.0
		빈도	874	690	201	207	145	229	145	2,491



<그림 3-4> 하계 휴가시 여행 안감 이유(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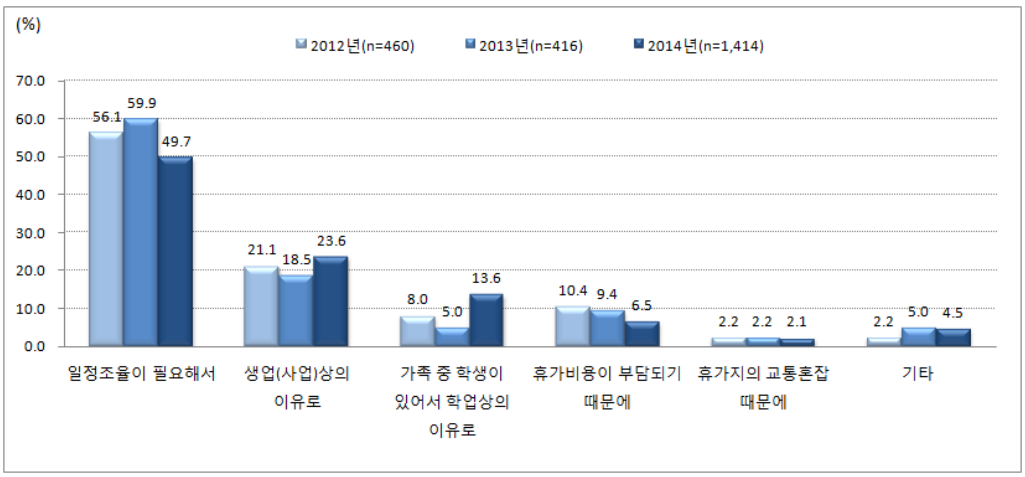
4) 하계 휴가시 여행 미정 이유

- 하계 휴가여행 계획이 미정이라고 응답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일정조율이 필요해서'가 49.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생업(사업)상의 이유로'(23.6%),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13.6%)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응답으로는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0.8%), '별다른 이유 없음'(0.6%) 등이 있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대비 2014년 '일정조율이 필요해서' 하계 휴가여행 계획이 미정인 경우가 감소한 반면,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의 비율은 증가함
- 2012년부터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하계휴가 여행계획이 미정인 경우가 감소추세임

<표 3-7> 하계 휴가시 여행 미정 이유(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일정조율이 필요해서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휴가지의 교통혼잡 때문에	기타	합계
2014년	전국	비율	49.7	23.6	13.6	6.5	2.1	2.5	100.0
		빈도	703	333	192	92	30	36	1,414
	8개 시도	비율	49.2	22.4	13.8	7.5	2.4	2.5	100.0
		빈도	468	213	131	71	23	24	952
2013년		비율	59.9	18.5	5.0	9.4	2.2	5.0	100
		빈도	249	77	21	39	9	21	416
2012년		비율	56.1	21.1	8.0	10.4	2.2	2.2	100
		빈도	258	97	37	48	10	10	460



<그림 3-5> 하계 휴가시 여행 미정 이유(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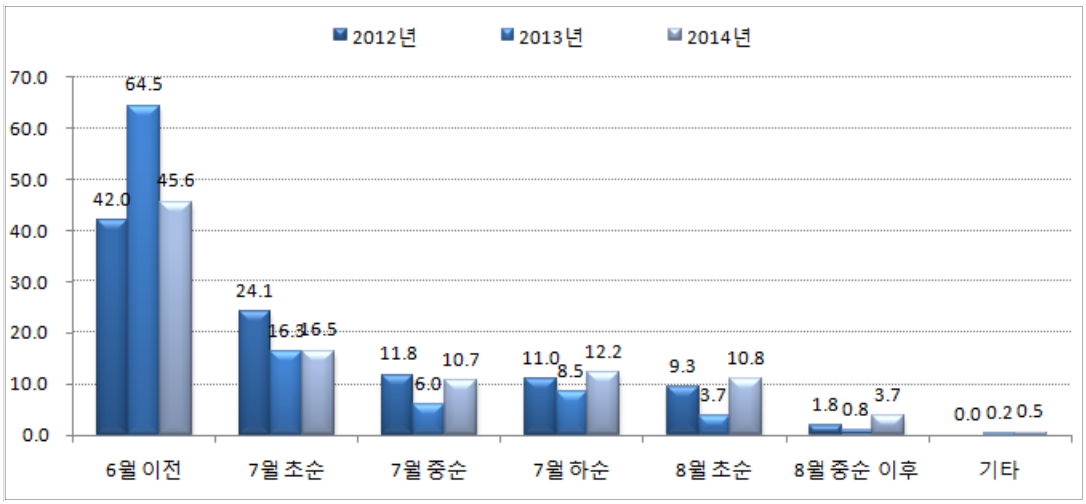
다. 하계 휴가여행 계획을 세우는 시점(하계 휴가여행 계획있음 응답자)

- 조사 시점에서 하계 휴가여행을 계획했다고 응답한 경우, 하계 휴가여행 계획을 세운 시점 또는 세우는 시점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45.6%는 '6월 이전' 하계 휴가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7월 초순' 시점에 16.5%가 하계휴가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는 2013년 대비 2014년 '6월 이전' 하계 휴가여행 계획을 세운다는 응답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7월 중순 이후'에 계획을 세운다는 응답이 증가함

<표 3-8> 하계 휴가여행 계획을 세우는 시점 - 계획있음(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6월 이전	7월 초순	7월 중순	7월 하순	8월 초순	8월 중순 이후	기타	합계
2014년	전체	비율	45.6	16.5	10.7	12.2	10.8	3.7	0.5	100.0
		빈도	1,072	387	251	287	255	88	11	2,351
	8개 시도	비율	47.4	15.3	10.2	12.2	10.6	4.0	0.3	100.0
		빈도	765	247	164	197	171	65	5	1,614
2013년		비율	64.5	16.3	6.0	8.5	3.7	0.8	0.8	100.0
		빈도	635	161	59	84	36	8	8	985
2012년		비율	42.0	24.1	11.8	11.0	9.3	1.8	1.8	100.0
		빈도	378	217	106	99	84	16	16	900



<그림 3-6> 하계 휴가여행 계획을 세우는 시점 - 계획있음(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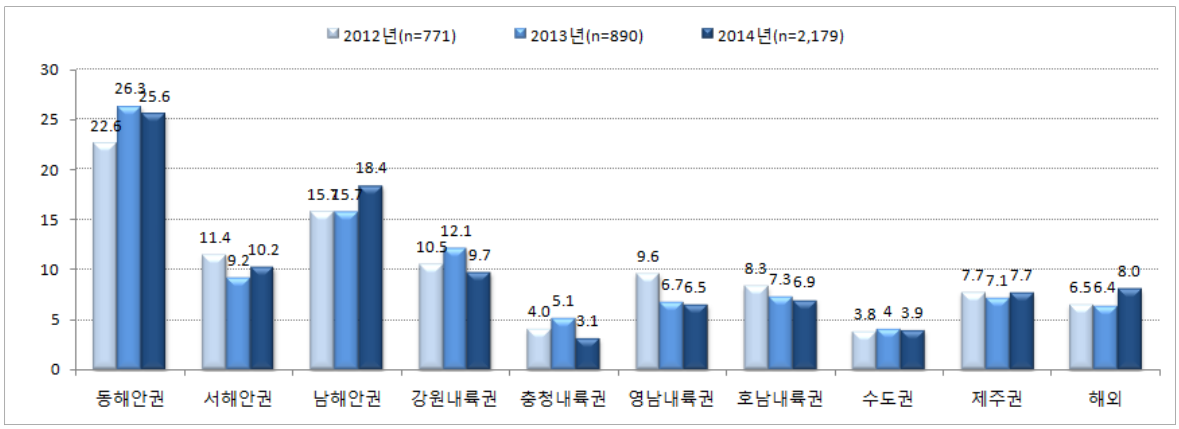
라. 하계 휴가 여행 지역

- ○ 하계 휴가시 여행 예정 지역을 분석한 결과, ‘동해안권’으로 하계 휴가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가 25.6%로 가장 많고, ‘남해안권(18.4%)’, ‘서해안권(10.2%)’ 순임
- ○ 하계 휴가시 여행 지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호남내륙권’과 ‘영남내륙권’의 비율이 감소함
- ○ 2013년 대비 2014년 ‘해외’여행은 1.6% 증가함

<표 3-9> 하계 휴가시 여행 지역(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동해안권	서해안권	남해안권	강원내륙권	충청내륙권	영남내륙권	호남내륙권	수도권	제주권	해외	합계
2014년	전체	비율	25.6	10.2	18.4	9.7	3.1	6.5	6.9	3.9	7.7	8.0	100.0
		빈도	557	223	400	212	67	141	151	86	167	175	2,179
	8개 시도	비율	27.6	10.4	16.9	10.5	2.9	6.3	5.6	3.9	7.5	8.4	100.0
		빈도	415	156	254	158	44	94	84	59	113	126.0	1,503
2013년		비율	26.3	9.2	15.7	12.1	5.1	6.7	7.3	4.0	7.1	6.4	100.0
		빈도	234	82	140	108	45	60	65	36	63	57	890
2012년		비율	22.6	11.4	15.7	10.5	4.0	9.6	8.3	3.8	7.7	6.5	100.0
		빈도	174	88	121	81	31	74	64	29	59	50	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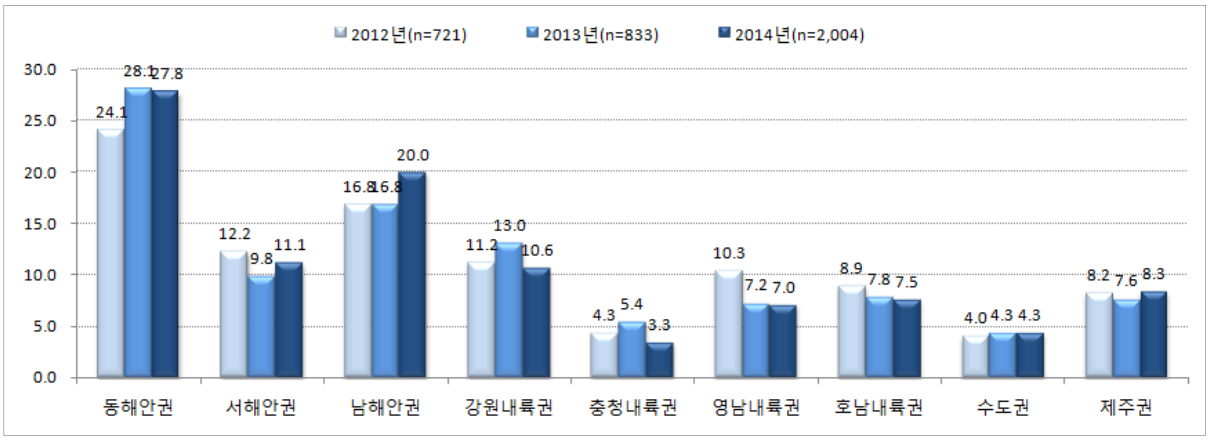
<그림 3-7> 하계 휴가시 여행 지역(연도별)

- ‘국내여행’을 살펴보면, ‘동해안권’이 27.8%로 하계휴가 여행 예정지로 가장 비율이 높고, ‘남해안권’(20.0%), ‘서해안권’(11.1%) 순임
- 연도별로는 2012년부터 ‘영남내륙권’, ‘호남내륙권’의 비율이 감소추세임

<표 3-10> 하계 휴가시 여행 지역(연도별)(국내)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동해안권	서해안권	남해안권	강원내륙권	충청내륙권	영남내륙권	호남내륙권	수도권	제주권	합계
2014년	전체	비율	27.8	11.1	20.0	10.6	3.3	7.0	7.5	4.3	8.3	100.0
		빈도	557	223	400	212	67	141	151	86	167	2,004
	8개 시도	비율	30.1	11.3	18.4	11.5	3.2	6.8	6.1	4.3	8.2	100.0
		빈도	415	156	254	158	44	94	84	59	113	1,377
2013년		비율	28.1	9.8	16.8	13.0	5.4	7.2	7.8	4.3	7.6	100.0
		빈도	234	82	140	108	45	60	65	36	63	833
2012년		비율	24.1	12.2	16.8	11.2	4.3	10.3	8.9	4.0	8.2	100.0
		빈도	174	88	121	81	31	74	64	29	59	721



<그림 3-8> 하계 휴가시 여행 지역(연도별)(국내)

○ 하계 휴가시 해외여행 지역을 분석한 결과, ‘동남아’로 휴가여행을 예정한 응답가구가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국’, ‘유럽’(각각 15.6%), '일본‘(8.4%)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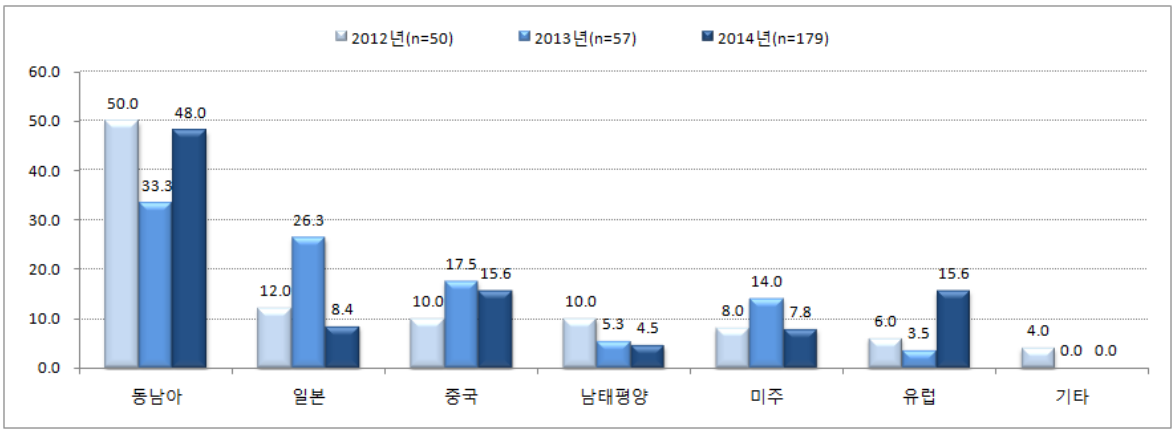
○ 하계 휴가시 해외여행 지역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대비 2014년 ‘동남아’의 비율은 증가한 반면, ‘일본’의 비율이 감소함

○ 2012년 이후 ‘남태평양’의 비율이 감소추세임

<표 3-11> 하계 휴가시 해외 여행 지역(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동남아	일본	중국	남태평양	미주	유럽	기타	합 계
2014년	비율	48.0	8.4	15.6	4.5	7.8	15.6	-	100.0
	빈도	86	15	28	8	14	28	-	179
2013년	비율	33.3	26.3	17.5	5.3	14.0	3.5	-	100.0
	빈도	19	15	10	3	8	2	-	57
2012년	비율	50.0	12.0	10.0	10.0	8.0	6.0	4.0	100.0
	빈도	25	6	5	5	4	3	2	50



<그림 3-9> 하계 휴가시 해외 여행 지역(연도별)

마. 하계 휴가 여행 시기 및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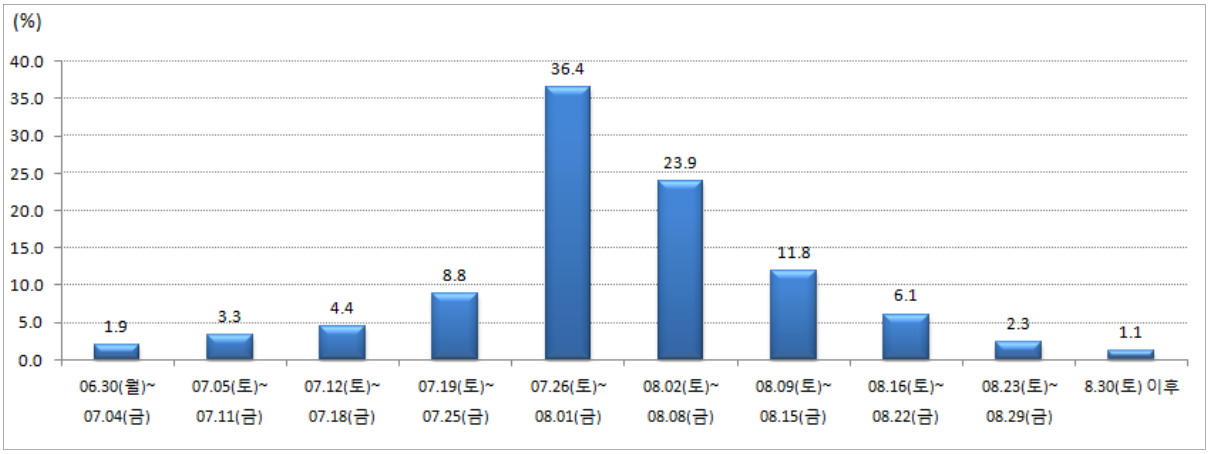
1) 하계 휴가시 여행 시기(계획있음)

○ 올해 하계 휴가시 여행시기를 분석한 결과, ‘7월 26일(토)~8월1일(금)’ 동안 하계 휴가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응답가구가 전체의 3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2> 하계 휴가시 여행 일자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06.30 (월)~ 07.04 (금)	07.05 (토)~ 07.11 (금)	07.12 (토)~ 07.18 (금)	07.19 (토)~ 07.25 (금)	07.26 (토)~ 08.01 (금)	08.02 (토)~ 08.08 (금)	08.09 (토)~ 08.15 (금)	08.16 (토)~ 08.22 (금)	08.23 (토)~ 08.29 (금)	8.30 (토) 이후	합계
전체	비율	1.9	3.3	4.4	8.8	36.4	23.9	11.8	6.1	2.3	1.1	100.0
	빈도	44	75	102	203	840	550	273	140	53	26	2,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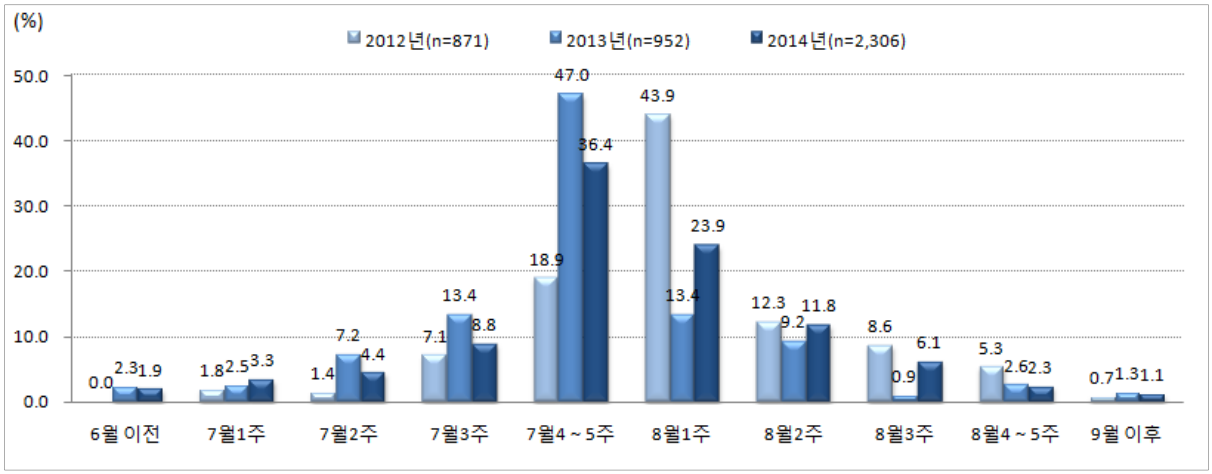
<그림 3-10> 하계 휴가시 여행 일자

○ 하계 휴가시 여행 시기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특별교통 대책기간인 7월 4주~8월 1주 사이에 여행시기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3> 하계 휴가시 여행 시기(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6월 이전	7월 1주	7월 2주	7월 3주	7월 4~5주	8월 1주	8월 2주	8월 3주	8월 4~5주	9월 이후	합 계
2014년	비율	1.9	3.3	4.4	8.8	36.4	23.9	11.8	6.1	2.3	1.1	100.0
	빈도	44	75	102	203	840	550	273	140	53	26	2,306
2013년	비율	2.3	2.5	7.2	13.4	47.0	13.4	9.2	0.9	2.6	1.3	100.0
	빈도	22	24	69	128	447	128	88	9	25	12	952
2012년	비율	-	1.8	1.4	7.1	18.9	43.9	12.3	8.6	5.3	0.7	100.0
	빈도	-	16	12	62	165	382	107	75	46	6	871



<그림 3-11> 하계 휴가시 여행 시기(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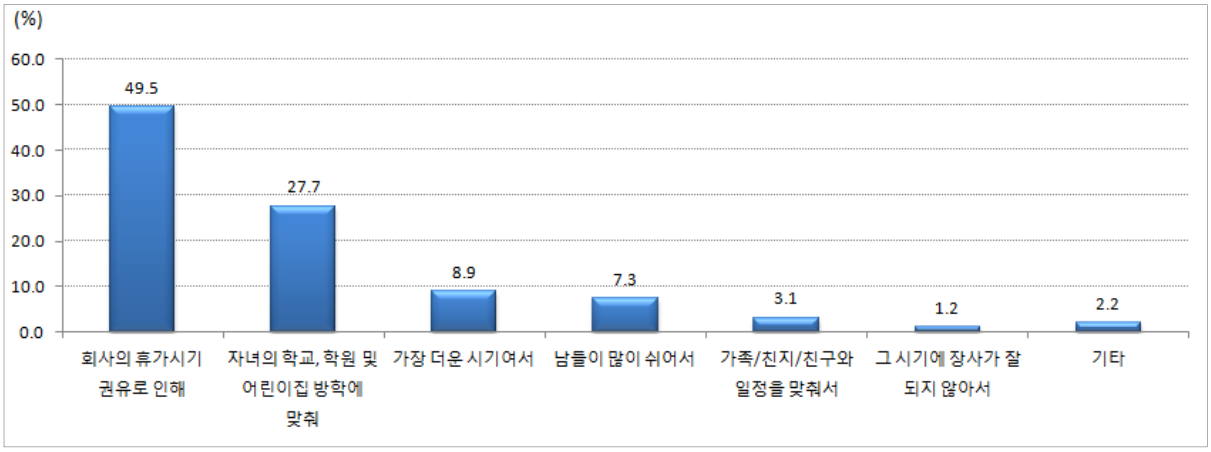
2) 7월 5주~8월 1주에 하계휴가 여행을 계획한 이유

○ 하계휴가가 집중되는 7월 5주~8월 1주에 하계휴가 여행을 계획한 이유에 따르면, '회사의 휴가시기 권유로 인해'가 49.5%로 가장 높고, '자녀의 학교, 학원 및 어린이집 방학에 맞춰'(27.7%), '가장 더운 시기여서'(8.9%), '남들이 많이 쉬어서'(7.3%) 등의 순임

<표 3-14> 7월 5주~8월 1주에 하계휴가 여행을 계획한 이유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회사의 휴가시기 권유로 인해	자녀의 학교, 학원 및 어린이집 방학에 맞춰	가장 더운 시기여서	남들이 많이 쉬어서	가족/친지/친구와 일정을 맞춰서	그 시기에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기타	합계
2014년	비율	49.5	27.7	8.9	7.3	3.1	1.2	2.2	100.0
	빈도	680	381	123	101	43	17	30	1,375



<그림 3-12> 7월 5주~8월 1주에 하계휴가 여행을 계획한 이유

3) 하계휴가 사용 예정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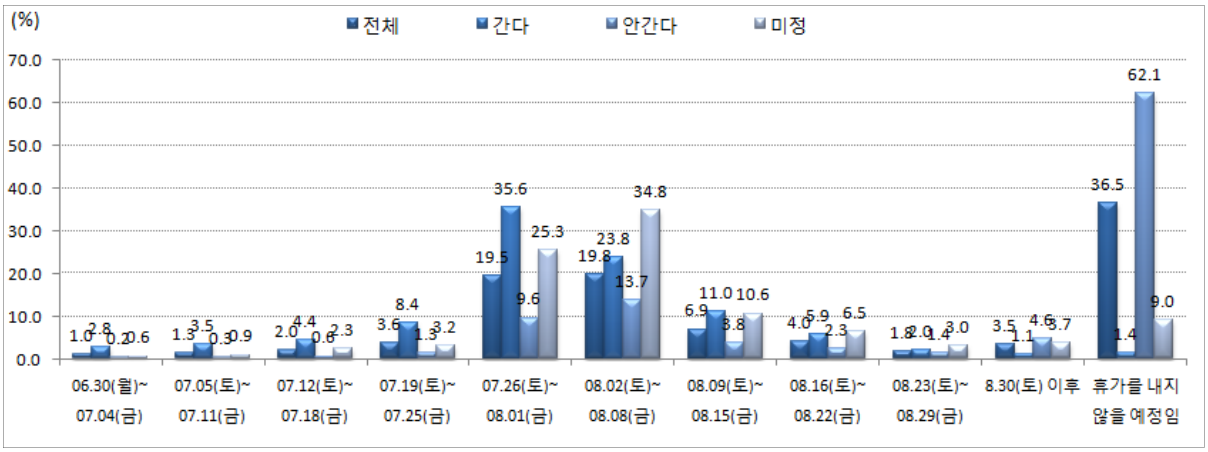
○ 여름휴가 사용 시기에 따르면, '휴가를 내지 않을 예정임'이 36.5%로 가장 높고, '8월 2일~8월 8일'(19.8%), '7월 26일~8월 1일'(19.5%), '8월 9일~8월 15일'(6.9%) 순임

○ 여름휴가 여행을 갈 예정인 응답자의 여름휴가 사용 시기는 '7월 26일~8월 1일'이 35.6%로 가장 높고, '8월 2일~8월 8일'(23.8%), '8월 9일~8월 15일'(11.0%) 순임

<표 3-15> 하계휴가 사용 예정일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06.30 (월) ~ 07.04 (금)	07.05 (토) ~ 07.11 (금)	07.12 (토) ~ 07.18 (금)	07.19 (토) ~ 07.25 (금)	07.26 (토) ~ 08.01 (금)	08.02 (토) ~ 08.08 (금)	08.09 (토) ~ 08.15 (금)	08.16 (토) ~ 08.22 (금)	08.23 (토) ~ 08.29 (금)	8.30 (토) 이후	휴가를 내지 않을 예정임	합계
여행 계획 여부	간다	비율	2.8	3.5	4.4	8.4	35.6	23.8	11.0	5.9	2.0	1.1	1.4	100.0
		빈도	65	81	102	194	820	549	254	135	47	25	32	2,304
	안간다	비율	0.2	0.3	0.6	1.3	9.6	13.7	3.8	2.3	1.4	4.6	62.1	100.0
		빈도	11	13	25	57	424	607	167	103	63	205	2,749	4,424
	미정	비율	0.6	0.9	2.3	3.2	25.3	34.8	10.6	6.5	3.0	3.7	9.0	100.0
		빈도	7	11	28	38	302	415	126	78	36	44	107	1,192
전체	비율		1.0	1.3	2.0	3.6	19.5	19.8	6.9	4.0	1.8	3.5	36.5	100.0
	빈도		83	105	155	289	1,546	1,571	547	316	146	274	2,888	7,920



<그림 3-13> 하계휴가 사용 예정일

4) 하계 휴가시 여행 기간(계획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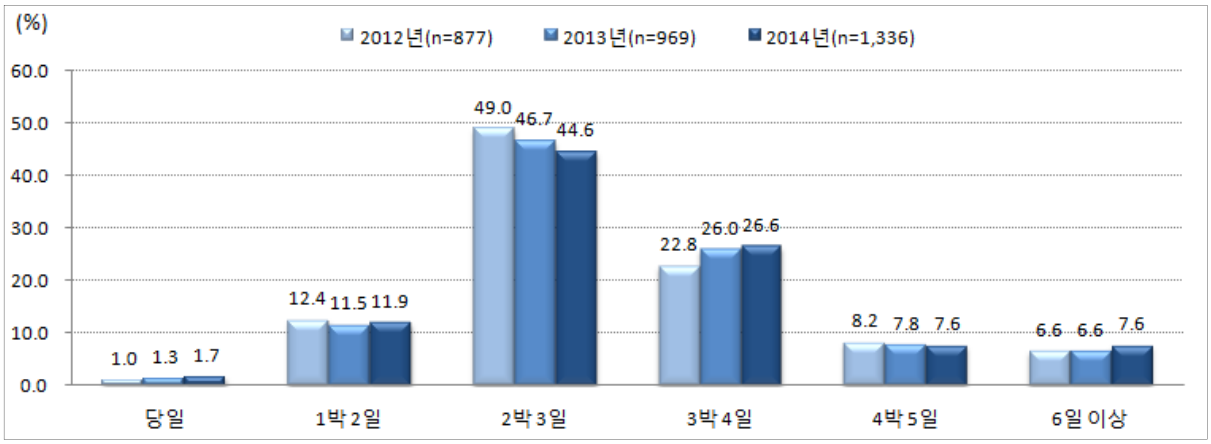
○ 하계 휴가시 여행기간으로 '2박 3일'이 전체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박 4일'이 26.6%, '1박 2일' 11.9% 순으로 나타남

○ 하계 휴가시 여행기간의 연도별 분석 결과,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2박 3일'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3박 4일'의 비율은 증가추세를 나타냄

<표 3-16> 하계 휴가시 여행 기간(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당 일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6일 이상	합 계
2014년	전체	비율	1.7	11.9	44.6	26.6	7.6	7.6	100.0
		빈도	41	283	1,057	629	179	180	2,369
	8개 시도	비율	1.4	8.5	44.9	28.6	8.4	8.2	100.0
		빈도	23	139	733	467	137	134	1,633
2013년		비율	1.3	11.5	46.7	26.0	7.8	6.6	100.0
		빈도	13	111	453	252	76	64	969
2012년		비율	1.0	12.4	49.0	22.8	8.2	6.6	100.0
		빈도	9	109	429	200	72	58	877



<그림 3-14> 하계 휴가시 여행 기간(연도별)

바.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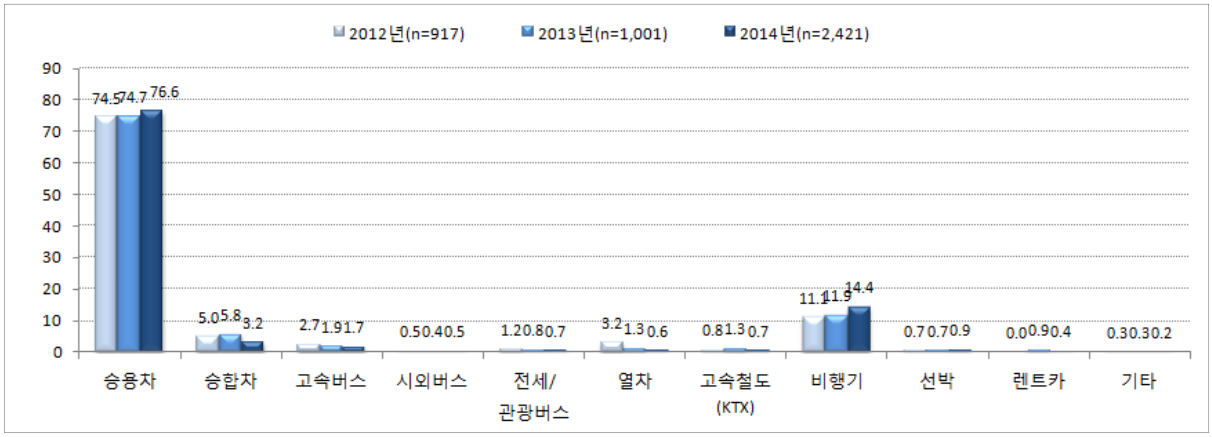
1) 하계 휴가시 이용 교통수단

- 2014년 하계 휴가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승용차, 승합차)'이 79.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용 교통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행기' 14.4%, '버스(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관광버스)'가 2.9%, '철도(열차, 고속철도)'가 1.4%로 나타남
- 하계 휴가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 연도별 분석한 결과, '승용차', '비행기' 이용률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고속버스', '열차' 이용률은 감소추세를 나타냄

<표 3-17> 하계 휴가시 이용 교통수단(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승용차	승합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관광버스	열차	고속철도(KTX)	비행기	선박	렌트카	기타	합계
2014년	전체	비율	76.6	3.2	1.7	0.5	0.7	0.6	0.7	14.4	0.9	0.4	0.2	100.0
		빈도	1,855	78	41	12	16	15	18	349	21	10	6	2,421
	8개 시도	비율	76.2	3.4	1.8	0.5	0.7	0.6	0.8	14.6	0.7	0.4	0.2	100.0
		빈도	1,268	57	30	8	12	10	14	243	12	7	3	1,664
2013년		비율	74.7	5.8	1.9	0.4	0.8	1.3	1.3	11.9	0.7	0.9	0.3	100.0
		빈도	748	58	19	4	8	13	13	119	7	9	3	1,001
2012년		비율	74.5	5.0	2.7	0.5	1.2	3.2	0.8	11.1	0.7	-	0.3	100.0
		빈도	683	46	25	5	11	29	7	102	6	-	3	917



<그림 3-15> 하계 휴가시 이용 교통수단(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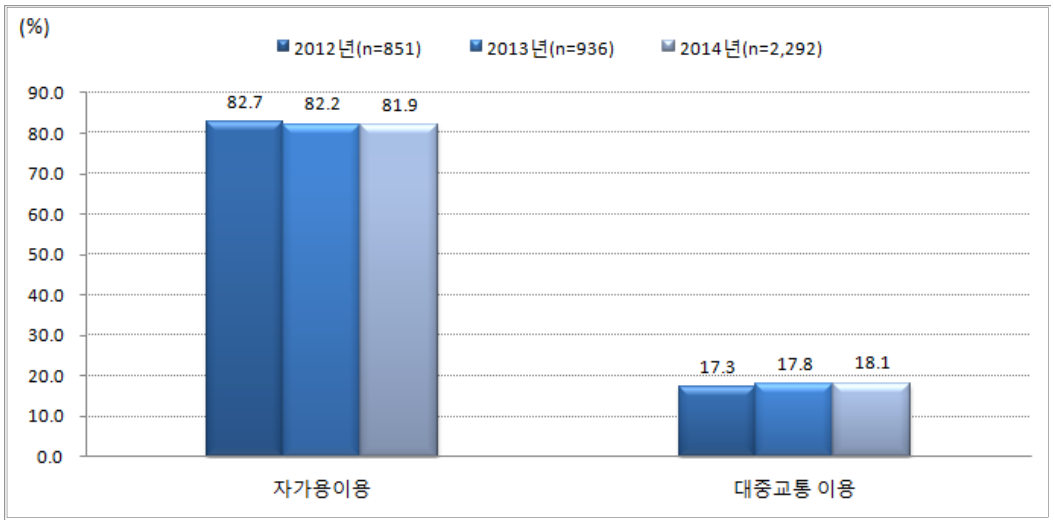
○ 하계휴가시 자가용 보유자[9]의 자가용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중 하계휴가시 자가용 이용률은 81.9%이며, 18.1%는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자가용 보유자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소폭 증가추세임

<표 3-18> 자가용 보유자의 자가용·대중교통 이용여부(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자가용 이용	대중교통 이용	합계
2014년	비율	81.9	18.1	100.0
	빈도	1,877	415	2,292
2013년	비율	82.2	17.8	100.0
	빈도	769	167	936
2012년	비율	82.7	17.3	100.0
	빈도	704	147	851



<그림 3-16> 자가용 보유자의 자가용·대중교통 이용여부(연도별)

9) 하계휴가 여행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2,447명(27.%) 중, 94.5%가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음

2) 하계 휴가시 고속도로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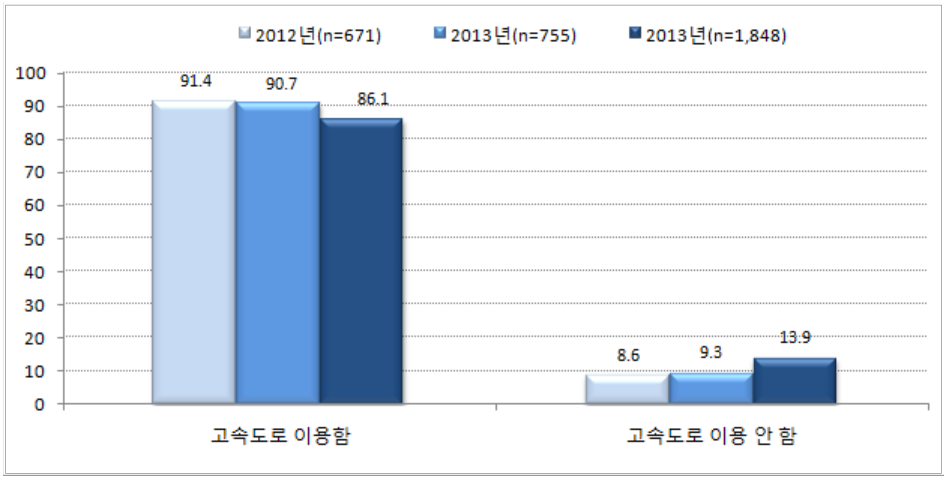
① 고속도로 이용여부

- 자가용(승용차, 승합차) 이용자의 하계 휴가시 고속도로 이용 여부는 '고속도로 이용함'이 86.1%, '고속도로 이용 안함'은 13.9%로 나타남
- '8개 시도'(91.4%)의 고속도로 이용률은 '전체'(86.1%)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고속도로 이용률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9> 하계 휴가시 이용 도로(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고속도로 이용함	고속도로 이용 안 함	합계
2014년	전체	비율	86.1	13.9	100.0
		빈도	1,591	257	1,848
	8개 시도	비율	91.4	8.6	100.0
		빈도	1,156	109	1,265
2013년		비율	90.7	9.3	100.0
		빈도	685	70	755
2012년		비율	91.4	8.6	100.0
		빈도	613	58	671



<그림 3-17> 하계 휴가시 이용 도로(연도별)

② 고속도로 이용 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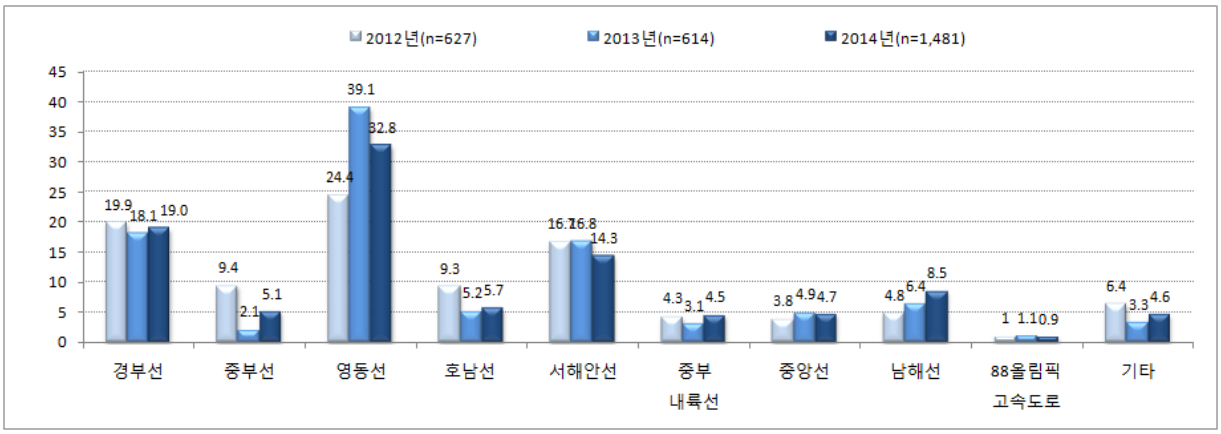
○ 하계 휴가여행시 고속도로 이용자의 주 이용노선은 '영동선'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부선'(19.0%), '서해안선'(14.3%)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2013년 대비 2014년 '영동선'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남해선'의 비율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추세임

<표 3-20> 하계 휴가시 고속도로 이용 예정 노선(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경부선	중부선	영동선	호남선	서해안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남해선	88올림픽고속도로	기타	합계
2014년	전체	비율	19.0	5.1	32.8	5.7	14.3	4.5	4.7	8.5	0.9	4.6	100.0
		빈도	281	75	486	85	212	66	69	126	13	68	1,481
	8개 시도	비율	19.0	4.0	38.1	4.9	15.5	4.0	3.7	5.9	0.7	4.3	100.0
		빈도	207	44	416	53	169	44	40	64	8	47	1,092
2013년		비율	18.1	2.1	39.1	5.2	16.8	3.1	4.9	6.4	1.1	3.3	100.0
		빈도	111	13	240	32	103	19	30	39	7	20	614
2012년		비율	19.9	9.4	24.4	9.3	16.7	4.3	3.8	4.8	1.0	6.4	100.0
		빈도	125	59	153	58	105	27	24	30	6	40	627



<그림 3-18> 하계 휴가시 고속도로 이용 노선(연도별)

사. 하계 휴가시 동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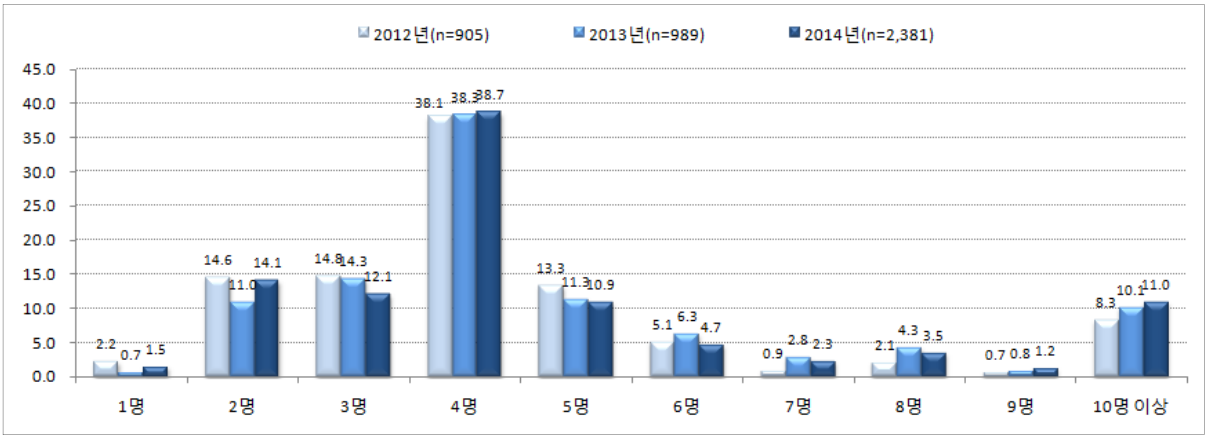
1) 하계 휴가시 동행인 수

○ 2014년 하계 휴가시 예정 동행인 수 (본인포함)는 '4명'이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명(14.1%)', '3명(12.1%)' 순임

<표 3-21> 하계 휴가시 예정 동행인 수(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이상	합계
2014년	전체	비율	1.5	14.1	12.1	38.7	10.9	4.7	2.3	3.5	1.2	11.0	100.0
		빈도	36	336	287	922	260	111	54	84	29	262	2,381
	8개 시도	비율	1.3	15.1	11.8	38.4	10.8	4.7	2.4	3.5	1.2	11.0	100.0
		빈도	22	246	192	627	176	76	39	57	19	180	1,634
2013년		비율	0.7	11.0	14.3	38.3	11.3	6.3	2.8	4.3	0.8	10.1	100.0
		빈도	7	109	141	379	112	62	28	43	8	100	989
2012년		비율	2.2	14.6	14.8	38.1	13.3	5.1	0.9	2.1	0.7	8.3	100.0
		빈도	20	132	134	345	120	46	8	19	6	75	905



<그림 3-19> 하계 휴가시 예정 동행인 수(연도별)

2) 하계 휴가시 동행인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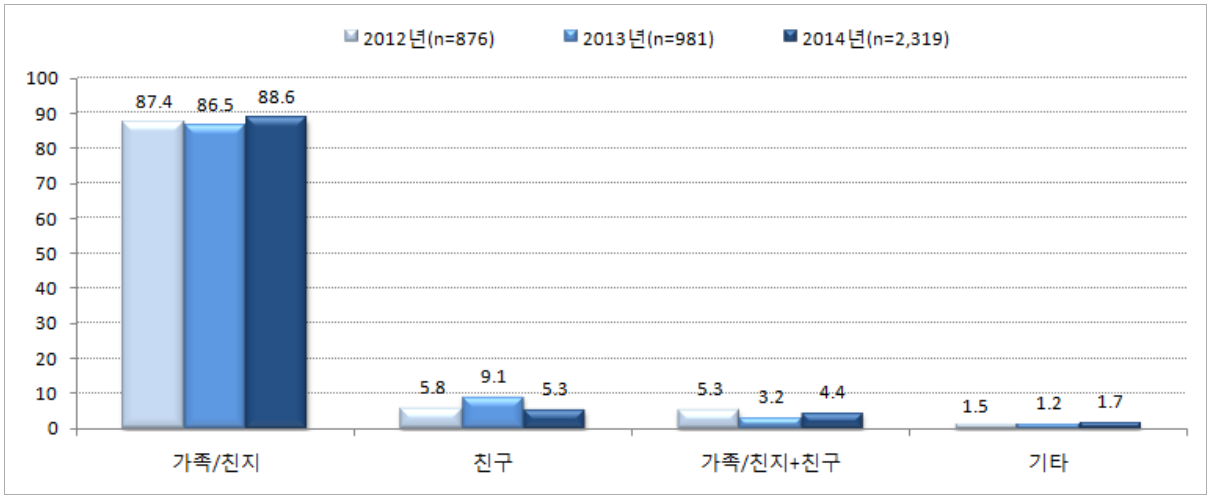
○ 여름 휴가여행을 함께 가는 동행인으로는 '가족/친지'가 88.6%로 다른 동행인 유형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친구'와 함께 휴가여행을 간다는 응답이 5.3%, '가족/친지+친구'가 4.4%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대비 2014년 '가족/친지' 비율은 증가한 반면, '친구'의 비율은 감소함

<표 3-22> 여름 휴가를 함께 가는 동행인(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가족/친지	친구	가족/친지+친구	기타	합 계
2014년	전체	비율	88.6	5.3	4.4	1.7	100.0
		빈도	2,054	123	102	40	2,319
	8개시도	비율	89.0	4.9	4.5	1.6	100.0
		빈도	1,419	78	72	25	1,594
2013년		비율	86.5	9.1	3.2	1.2	100.0
		빈도	849	89	31	11	981
2012년		비율	87.4	5.8	5.3	1.5	100.0
		빈도	766	51	46	13	876



<그림 3-20> 여름 휴가를 함께 가는 동행인(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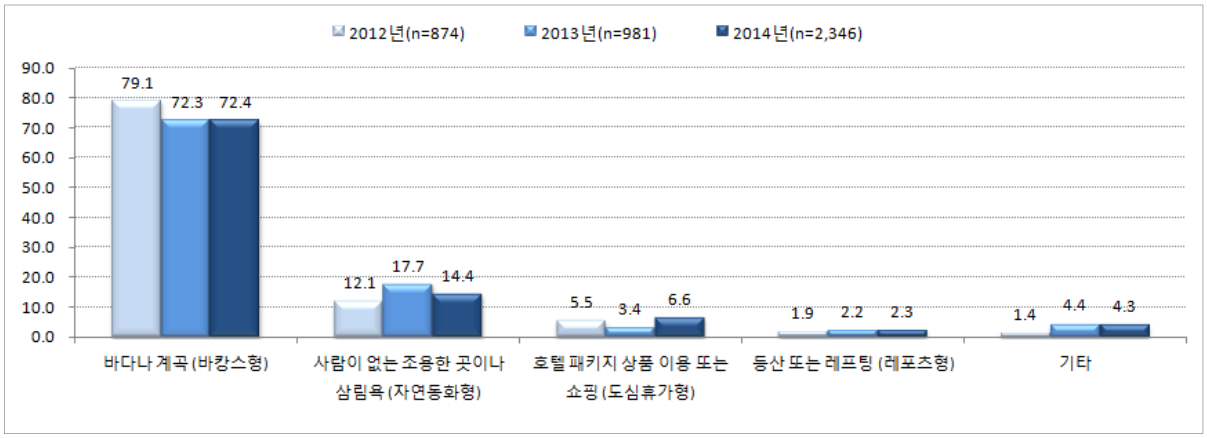
아. 선호하는 여름휴가 유형

- 가장 선호하는 여름 휴가여행 유형은 '바다나 계곡'(바캉스형)'이 72.4%로 가장 높고,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이나 삼림욕 등(자연동화형)'이 14.4% 순으로 나타남
- 2013년 대비 2014년, '자연동화형'은 감소한 반면, '도심휴가형'의 비율이 증가함

<표 3-23> 선호하는 여름휴가 유형(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바다나 계곡 (바캉스형)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이나 삼림욕 (자연동화형)	호텔 패키지 상품 이용 또는 쇼핑 (도심휴가형)	등산 또는 레프팅 (레포츠형)	기타	합계
2014년	전체	비율	72.4	14.4	6.6	2.3	4.3	100.0
		빈도	1,699	338	155	53	101	2,346
	8개 시도	비율	73.1	14.2	6.6	1.7	4.4	100.0
		빈도	1,184	230	107	28	71	1,620
2013년		비율	72.3	17.7	3.4	2.2	4.4	100.0
		빈도	706	173	33	21	43	981
2012년		비율	79.1	12.1	5.5	1.9	1.4	100.0
		빈도	691	106	48	17	12	874



<그림 3-21> 선호하는 여름휴가 유형(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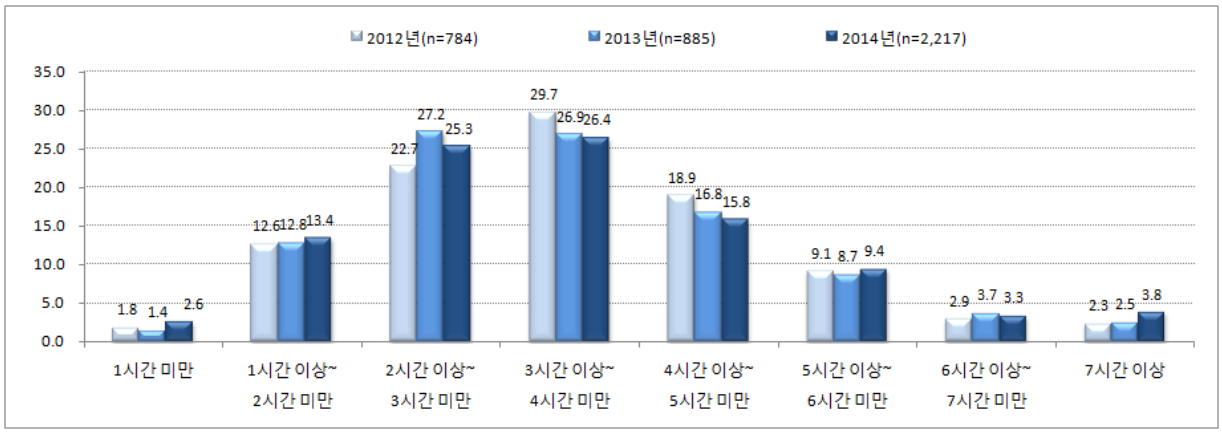
자. 예상 소요시간

- 여름 휴가여행 목적지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3시간 이상~4시간 미만'이 26.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25.3%, 4시간 이상~5시간 미만'이 15.8% 순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의 비율은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4시간 이상~5시간 미만'은 감소추세임

<표 3-24> 휴가여행 목적지까지 예상 소요 시간(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	7시간 이상	합계
2014년	전체	비율	2.6	13.4	25.3	26.4	15.8	9.4	3.3	3.8	100.0
		빈도	58	296	560	586	350	208	74	85	2,217
	8개시도	비율	1.6	9.1	24.4	28.5	18.2	10.9	3.5	3.8	100.0
		빈도	24	139	372	434	277	166	54	58	1,524
2013년		비율	1.4	12.8	27.2	26.9	16.8	8.7	3.7	2.5	100.0
		빈도	12	113	241	238	149	77	33	22	885
2012년		비율	1.8	12.6	22.7	29.7	18.9	9.1	2.9	2.3	100.0
		빈도	14	99	178	233	148	71	23	18	7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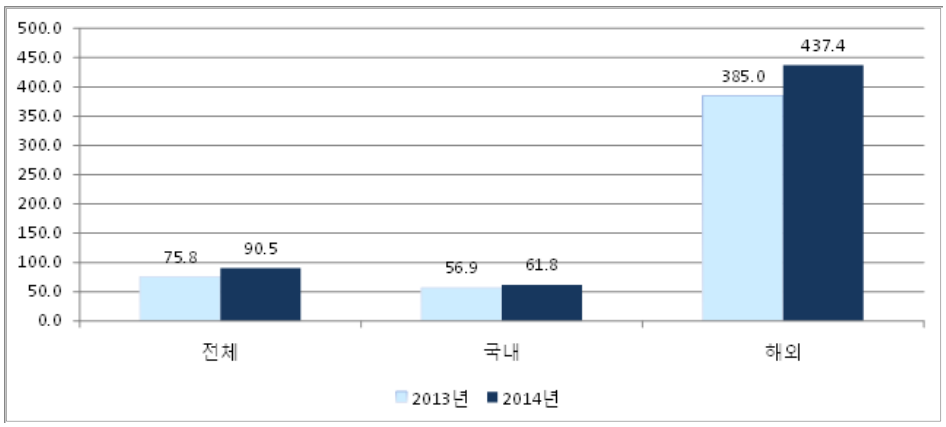
<그림 3-22> 휴가여행 목적지까지 예상 소요 시간(연도별)

차. 하계 휴가시 휴가비용

○ 하계 휴가시 전체 응답가구는 평균 약 90.5만원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고, 국내여행 평균 61.8만원, 해외여행 평균 437.4만원을 사용할 예정임

○ 가구당 평균 여행 지출 예상 비용은 작년 대비 국내는 약 23만원 증가하며, 해외는 약 52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휴가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2013년 대비 2014년 '해외여행' 및 '체류 일수'가 증가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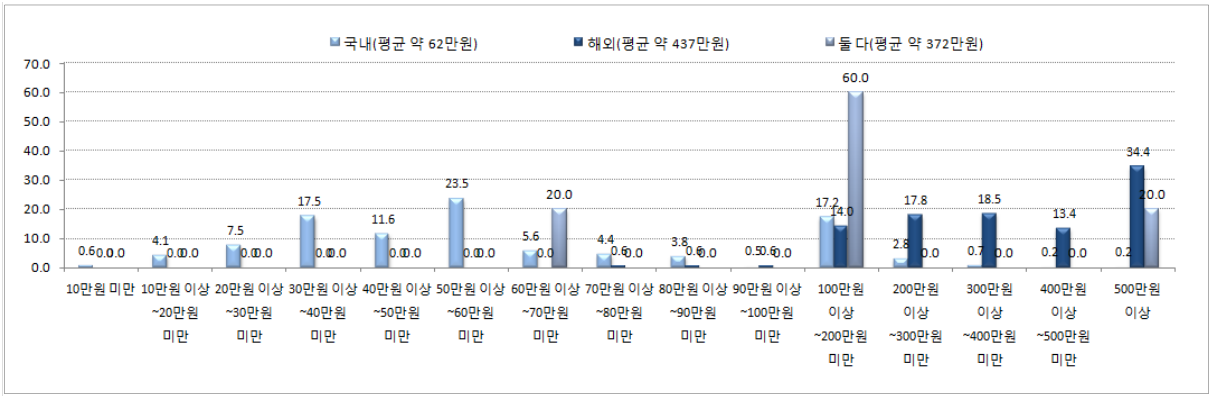
<그림 3-23> 하계 휴가시 총 예상 휴가 비용변화(연도별)

○ 국내와 해외여행의 비용분포를 함께 살펴보면, 국내여행 비용으로 '50만원 이상~60만원 미만'이 23.5%, 해외여행 비용으로 '500만원 이상'이 34.4%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25> 하계 휴가시 총 예상 휴가 비용 - 국내/해외여행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6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 90만원 미만	9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합계	평균(만원)
국내여행	비율	0.6	4.1	7.5	17.5	11.6	23.5	5.6	4.4	3.8	0.5	17.2	2.8	0.7	0.2	0.2	100.0	61.8
	빈도	12	80	145	340	225	458	108	85	74	9	335	55	13	3	3	1,945	
해외여행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6	0.6	0.6	14.0	17.8	18.5	13.4	34.4	100.0	437.4
	빈도	0	0	0	0	0	0	0	1	1	1	22	28	29	21	54	157	
둘다	비율	0.0	0.0	0.0	0.0	0.0	0.0	20.0	0.0	0.0	0.0	60.0	0.0	0.0	0.0	20.0	100.0	372.0
	빈도	0	0	0	0	0	0	1	0	0	0	3	0	0	0	1	5	
전체	비율	0.6	3.8	6.9	16.1	10.7	21.7	5.2	4.1	3.6	0.5	17.1	3.9	2.0	1.1	2.8	100.0	90.5
	빈도	12	80	145	340	225	458	109	86	75	10	360	83	42	24	58	2,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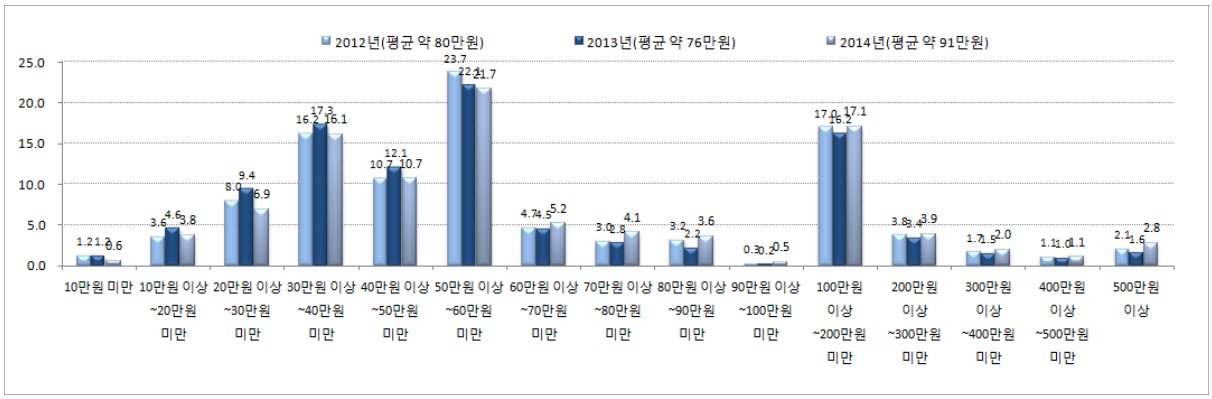
<그림 3-24> 하계 휴가시 총 예상 휴가 비용 - 국내/해외여행별

○ 하계 휴가시 예정 여행비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전체 응답가구는 평균 약 91만원으로 전년도(2013년)대비 증가(약 15만원)하였음

<표 3-26> 하계 휴가시 총 예상 휴가 비용(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6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 90만원 미만	9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합계	평균(만원)
2014년	비율	0.6	3.8	6.9	16.1	10.7	21.7	5.2	4.1	3.6	0.5	17.1	3.9	2.0	1.1	2.8	100.0	91
	빈도	12	80	145	340	225	458	109	86	75	10	360	83	42	24	58	2,107	
2013년	비율	1.2	4.6	9.4	17.3	12.1	22.1	4.5	2.8	2.2	0.2	16.2	3.4	1.5	1.0	1.6	100.0	76
	빈도	10	38	78	143	100	183	37	23	18	2	134	28	12	8	13	827	
2012년	비율	1.2	3.6	8.0	16.2	10.7	23.7	4.7	3.0	3.2	0.3	17.0	3.8	1.7	1.1	2.1	100.0	80
	빈도	8	24	53	108	71	158	31	20	21	2	113	25	11	7	14	666	



<그림 3-25> 하계 휴가시 총 예상 휴가 비용(연도별)

카. 하계 휴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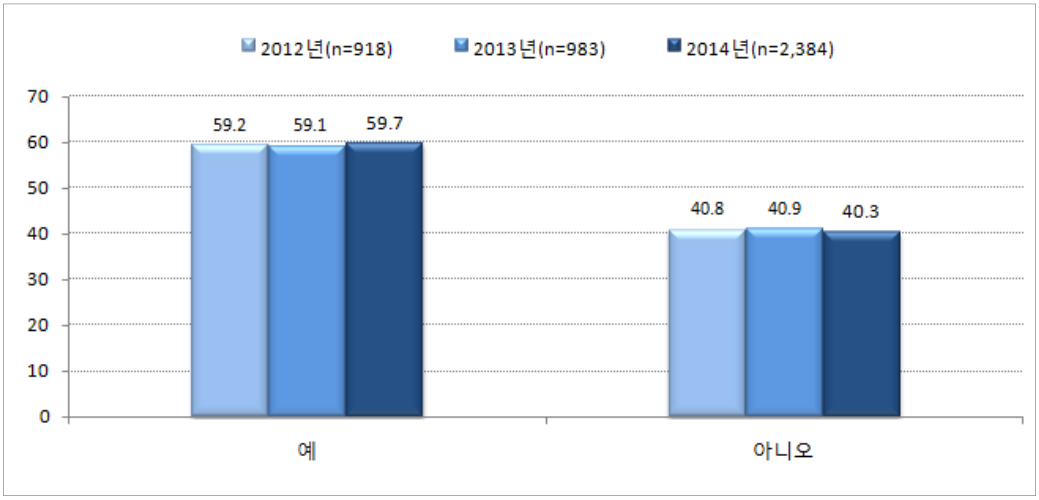
1) 하계 휴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여부

- 하계 휴가 계획이 있는 응답자 중 59.7%가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함
- 하계 휴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여부를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2014년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이용하는 비율은 2013년 대비 소폭 증가함

<표 3-27> 하계 휴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여부(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예	아니오	합계
2014년	전체	비율	59.7	40.3	100.0
		빈도	1,424	960	2,384
	8개 시도	비율	64.4	35.6	100.0
		빈도	1,055	583	1,638
2013년		비율	59.1	40.9	100.0
		빈도	581	402	983
2012년		비율	59.2	40.8	100.0
		빈도	543	375	918



<그림 3-26> 하계 휴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여부(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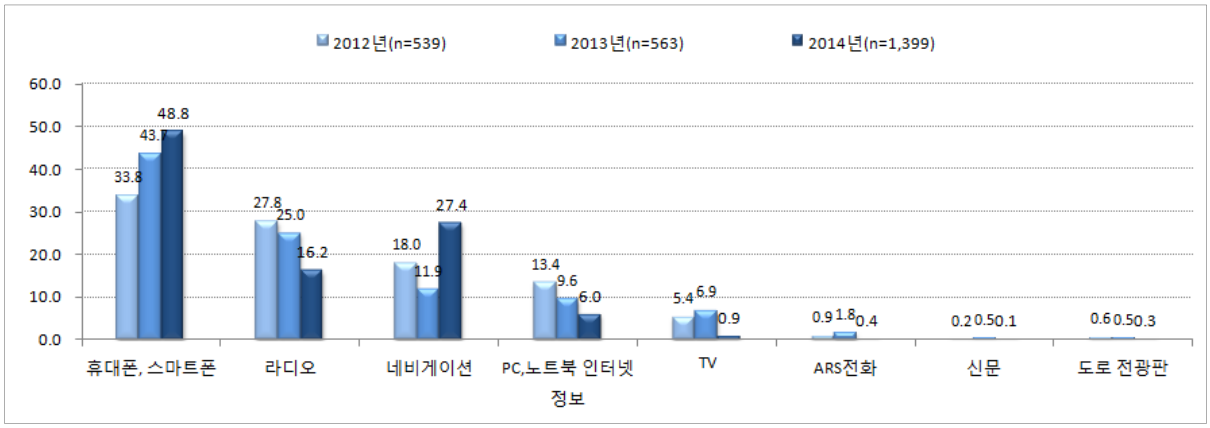
2) 하계 휴가시 교통상황 안내 정보획득 경로

- 하계 휴가시 교통상황 안내 정보획득 경로는 '휴대전화, 스마트폰'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비게이션' 27.4%, '라디오' 16.2% 순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라디오', 'PC, 노트북 인터넷 정보' 는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스마트폰의 보급량 증가로 인한 '휴대전화, 스마트폰'의 정보 획득이 증가추세를 나타냄

<표 3-28>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휴대전화, 스마트폰	라디오	내비게이션	PC, 노트북 인터넷 정보	TV	ARS전화	신문	도로 전광판	합 계
2014년	전체	비율	48.8	16.2	27.4	6.0	0.9	0.4	0.1	0.3	100.0
		빈도	683	227	383	84	12	5	1	4	1,399
	8개 시도	비율	48.6	17.9	25.9	6.0	0.8	0.5	0.1	0.4	100.0
		빈도	503	185	268	62	8	5	1	4	1,036
2013년		비율	43.7	25.0	11.9	9.6	6.9	1.8	0.5	0.5	100.0
		빈도	246	141	67	54	39	10	3	3	563
2012년		비율	33.8	27.8	18.0	13.4	5.4	0.9	0.2	0.6	100.0
		빈도	182	150	97	72	29	5	1	3	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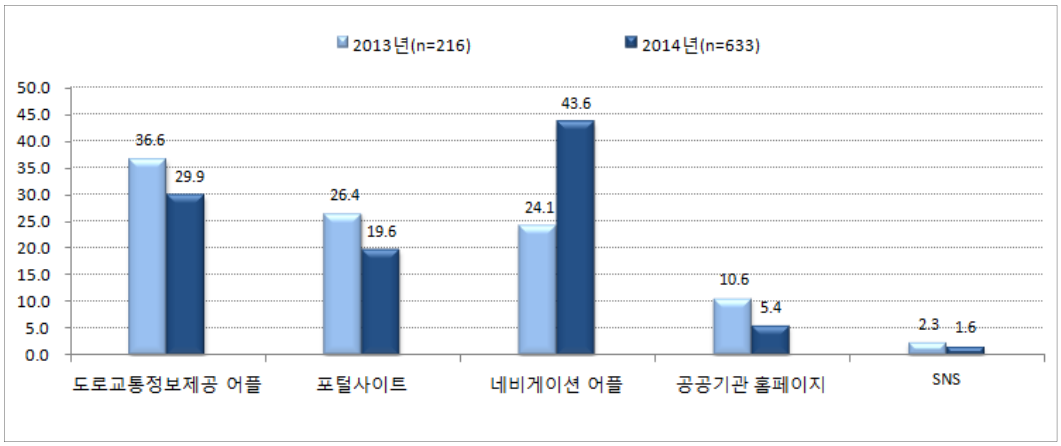
<그림 3-27>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연도별)

○ 휴대전화/스마트폰으로 교통정보를 취득하는 경로는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이 4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도로교통정보제공 어플'이 29.9%, '포털사이트' 19.6%순임

<표 3-29> 휴대전화, 스마트폰 사용자의 정보 획득 경로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도로교통 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	포털사이트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	공공기관 홈페이지	SNS	합계
2014년	전체	비율	29.9	19.6	43.6	5.4	1.6	100.0
		빈도	189	124	276	34	10	633
	8개 시도	비율	29.1	19.7	44.6	5.3	1.3	100.0
		빈도	137	93	210	25	6	471
2013년		비율	36.6	26.4	24.1	10.6	2.3	100.0
		빈도	79	57	52	23	5	216



<그림 3-28> 휴대전화, 스마트폰 사용자의 정보 획득 경로

타. 안전의식 및 휴게소 화장실 대기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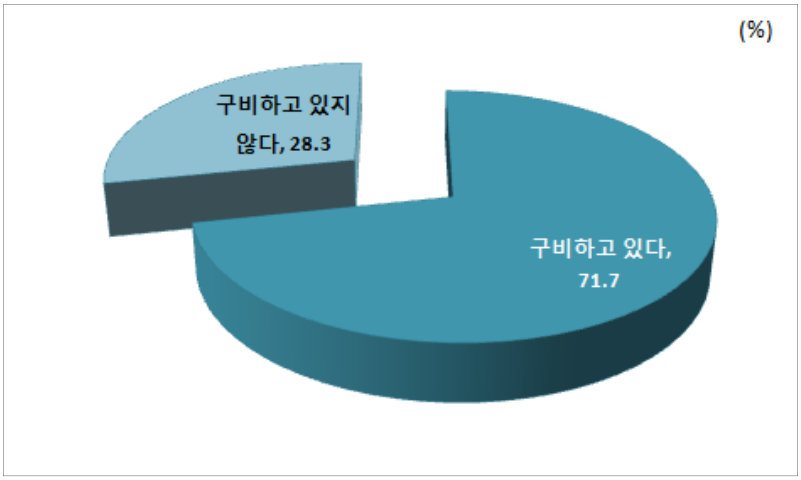
1) 자가용 안전용품 구비여부

○ 자가용 보유가구 중 71.7%가 안전용품을 구비하고 있음

<표 3-30> 자가용 안전용품 구비여부(자가용 보유자)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구비하고 있다	구비하고 있지 않다	합계
2014년	비율	71.7	28.3	100.0
	빈도	1,578	622	2,200



<그림 3-29> 자가용 안전용품 구비여부(자가용 보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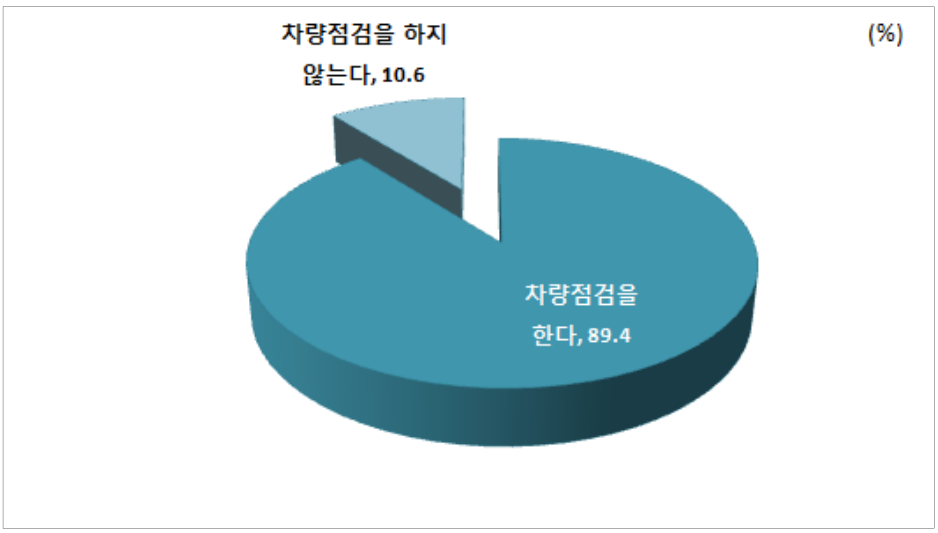
2) 여행전 차량점검 여부

○ 여름 휴가여행에 자가용을 이용할 응답자의 89.4%가 평소 여행전 차량점검을 한다고 응답함

<표 3-31> 여행전 차량점검 여부(자가용 보유자)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차량점검을 한다	차량점검을 하지 않는다	합계
전체	비율	89.4	10.6	100.0
	빈도	1,671	199	1,870



<그림 3-30> 여행전 차량점검 여부(자가용 보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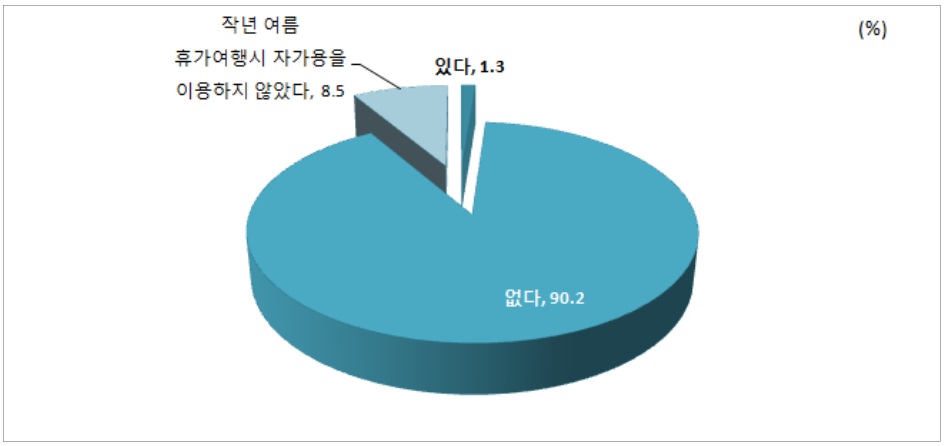
3) 작년 여름휴가 여행시 차량고장 경험 여부

○ 작년 여름휴가 여행을 다녀온 가구를 대상으로 차량고장 경험을 조사한 결과, 차량 고장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3%로 나타남

<표 3-32> 작년 여름휴가 여행시 차량고장 경험 여부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있다	없다	작년 여름 휴가여행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았다	합계
2014년	비율	1.3	90.2	8.5	100.0
	빈도	57	4,091	385	4,533



<그림 3-31> 작년 여름휴가 여행시 차량고장 경험 여부

4) 휴게소 화장실 대기여부 및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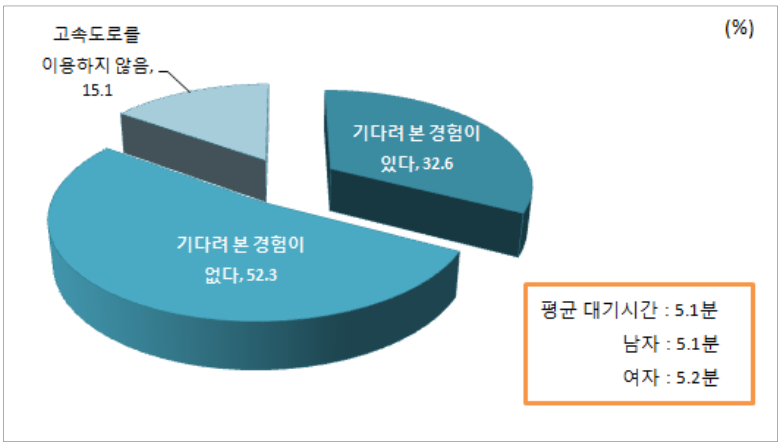
○ 작년 여름휴가 여행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기다려본 경험이 있는 응답은 32.6%이며, 평균 대기시간은 5.1분임

○ 성별에 따르면 '기다려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남성(18.1%) 대비 여성(40.2%)의 비율이 높음

<표 3-33> 휴게소 화장실 대기여부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기다려 본 경험이 있다	기다려 본 경험이 없다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음	합계
성별	남	비율	18.1	66.3	15.6	100.0
		빈도	280	1,026	241	1,547
	여	비율	40.2	44.9	14.9	100.0
		빈도	1,178	1,314	437	2,929
전체	비율		32.6	52.3	15.1	100.0
	빈도		1,458	2,340	678	4,476



<그림 3-32> 휴게소 화장실 대기여부 및 시간

○ 같은 문항을 조사한 2008년 추석 간이조사, 2013년 설 사전조사와 비교하면, 화장실을 대기시간은 추석, 설 명절 대비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모든 조사에서 여성의 대기시간은 남성 대비 긴 것으로 나타남

<표 3-34>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이용을 위한 대기 시간(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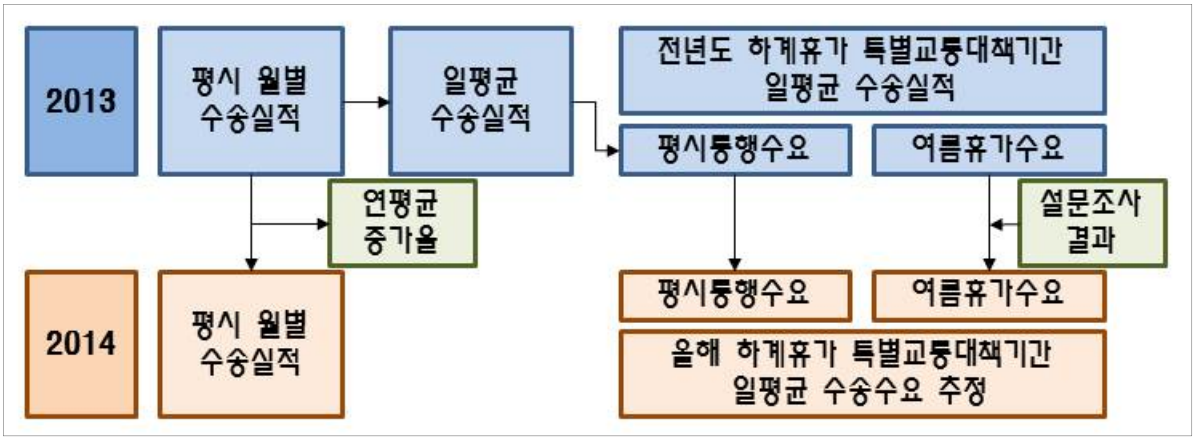
(단위: 분)

구 분		2008년 추석 간이조사 평균	2014년 설 사전조사 평균	2014년 하계 사전조사 평균
전체		7.6	6.1	5.1
성별	남	6.4	6.0	5.1
	여	7.8	6.2	5.2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1.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 수요예측 방법

- 하계휴가기간은 귀성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및 설 특별교통대책기간과는 달리 평상시 통행과 휴가통행이 혼재되어 있는 특성이 있음. 교통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의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의 수송실적을 평상시 통행과 휴가통행을 구분하여 구축하며, 전년도 1년간의 연평균 수송실적을 평상시 통행으로 가정하고, 하계휴가기간 동안에 수송실적과 평상시 통행간의 차이를 휴가통행으로 가정함
-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년도 대비 올해 휴가수요의 변화를 도출하여 전년도의 수송실적에 적용함으로서 올해 하계휴가기간 동안의 휴가수요를 예측함
- 전년도의 수송실적에서 일평균 수요를 평상시 수요로 간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요를 휴가수요로 구분함. 평상시 수요에 작년 대비 올해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올해년도 평시 수요를 산출하며, 휴가수요는 설문조사 결과인 전년 대비 올해 휴가통행 증감률을 반영하여 예측함
- 전년도의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의 수송실적은 수단별로 평상시 통행과 하계휴가 통행으로 분류됨으로 인하여 올해의 수단별 수송분담률 산출을 위해 전년도 대비 올해 하계휴가시 이용수단 변화율을 반영하도록 함
- 이를 위해, 설문조사시 전년도 하계휴가시 이용수단과 올해 하계휴가시 예상 이용교통수단을 동시에 질문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전년도 대비 올해의 수단별 수송분담률의 변화를 예측함



<그림 3-33>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예측과정

2. 수요예측 결과

-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2014.7.25~8.10, 17일간) 전국 예상 이동인원은 총 7,464만명, 1일 평균 439만명으로 전망됨
- 1일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430만명/일)대비 2.1% 증가하고, 평시(353만명/일)보다 24.4%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하계휴가기간 중 여행객 등이 이용할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82.0%, 버스(고속버스+시외·전세버스)가 12.4%, 철도가 3.9%, 해운 0.9%, 항공 0.8%로 전망됨

<표 3-35> 2014년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단위: 천명)

구분 / 교통수단			평시 1일 수송량	휴가기간(´14.7.25～8.10)			평시대비 (%)
				일평균 이동인원	17일 총 이동인원	분담률 (%)	
도로	승용차		2,624	3,599	61,178	82.0	137.1
	버스	고속버스	43	68	1,156	1.5	157.5
		시외·전세	652	478	8,124	10.9	73.3
철도			160	170	2,896	3.9	106.5
항공			29	37	627	0.8	125.5
해운			20	39	655	0.9	193.3
합계			3,529	4,390	74,637	100.0	124.4

주: 1) 수단별 수송실적 자료는 각 기관에서 수집하여 사용함
2) 과거의 수송실적현황과 하계휴가 통행패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용한 통행수요임

제4절 사후평가

1. 사후평가 방법론

○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의 교통수요예측결과와 기간 중 실적자료 간의 비교하기 위하여 특별교통대책기간 완료 이후 집계 가능한 수단별 수송실적을 활용하여 사후평가함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해운조합,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수송실적 수집 자료 :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7.25~8.10, 17일간)의 일별 출발·도착지별 여객 수송실적 및 일별 총 수송실적
- 대중교통 중 시외·전세버스 실적은 수집이 불가능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함

2. 사후평가 결과

○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1일 평균 예측치는 3,913천명, 실제 이동인원은 4,927천명으로 79.4%의 정확도로 예측되었으며, 20.6% 과소예측함

- 해운의 오차율이 77.3%로 가장 높으며, 고속버스, 승용차 순으로 높은 오차를 보임

○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에 작년 동기간보다 32.9%, 2014년 평시보다 71.3% 증가

<표 3-36>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

(단위: 천명)

교통수단	2013년 실적 (일평균) (A)	2014년 평시 (일평균) (B)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				정확도 (E) (C÷D×100) (%)	오차율[3] (E-100) (%)	전년대비 (D÷A×100) (%)	평시대비 (D÷B×100) (%)
			예측		실적					
			1일평균 (C)	기간 전체	1일평균 (D)	기간 전체				
승용차	3,396	2,624	3,599	61,178	4,657	83,821	77.3	▼22.7	137.1	177.5
고속버스	66	43	68	1,156	55	987	123.6	▲23.6	83.3	127.9
철도	173	160	170	2,896	161	2,903	105.6	▲5.6	93.1	100.6
항공	33	29	37	627	32	575	115.6	▲15.6	97.0	110.3
해운	40	20	39	655	22	393	177.3	▲77.3	55.0	110.0
전체	3,708	2,876	3,913	66,512	4,927	88,679	79.4	▼20.6	132.9	171.3

주: 1) 대중교통 중 시외·전세버스 실적은 수집이 불가능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
2)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 폐쇄식구간 통행에 한함
3) 오차율 : ▲ - 과대예측, ▼ - 과소예측

제4장 2014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제1절 추석연휴 수송실적 자료조사

제2절 추석연휴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 조사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제4절 사후평가

제4장 2014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제1절 추석연휴 수송실적 자료조사

1. 자료수집 개요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관

- 도로 : 한국도로공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철도 : 한국철도공사
- 항공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해운 : 한국해운조합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기 : 특별교통대책기간 약 25일 전까지

- 2014년 7월 28일(월)~2014년 8월 6일(수)

○ 수송실적 수집기관별 수집데이터

- 승용차(한국도로공사,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월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고속버스(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전세버스(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시외버스(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철도(한국철도공사) : 월별/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항공(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해운(한국해운조합)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간적 범위

- 월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4년 6월 ~ 2014년 7월
- 일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3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6일간: 2013.9.17~9.22)

2. 자료수집 결과(2013년 추석연휴 수송실적)

○ 각 기관별 2013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자료를 수령한 후 전년도(2012년) 수송실적과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고속버스를 제외한 전체 수단에서 2013년 설연휴기간 일평균 수송실적은 2012년 동기간보다 증가하였음
  · 특히 항공은 일평균 5,987명(8.7%) 증가로 각 수단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반면 고속버스의 경우 전년대비 17.3% 감소

<표 4-1> 2012, 2013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교통수단	단위	일평균		기간 전체		증감 (B-A)		일평균실적 증감률 (%)
		2012년 (A)	2013년 (B)	2012년(6일) (A)	2013년(6일) (B)	일평균	기간 전체	
승용차주)	대	2,973,884	3,101,573	17,843,304	18,609,440	127,689	766,136	4.3
고속버스	인	198,357	164,001	1,190,139	984,008	-34,355	-206,131	-17.3
시외/전세	인	1,368,416	1,439,973	8,210,497	8,639,837	71,557	429,340	5.2
철도	인	456,477	466,994	2,738,862	2,801,965	10,517	63,103	2.3
항공	인	68,963	74,950	413,777	449,701	5,987	35,924	8.7
해운	인	64,214	86,364	385,283	518,185	22,150	132,902	34.5

주: 한국도로공사의 TCS자료(폐쇄식구간 기종점간 교통량)를 기준으로 1종과 2종을 승용차로 간주하여 통행량을 산정함

제2절 추석연휴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 조사

1. 조사개요

가. 조사범위 및 방법

○ 조사범위

- 2014년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9.5(금)-9.11(목): 7일간)의 통행계획
- 전국 단위 세대(17개 시·도) 대상

○ 조사시기·방법·표본

- 조사시기 : 2014년 8월 8일(금) ~ 12일(화)(5일간)
-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
- 조사표본 : 9,000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03%)
- 유효표본수[9] : 2,163 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 2.19%)

나. 조사내용

○ 작년(2013년) 추석연휴기간 통행 관련사항 : 추석연휴 귀성 및 여행 여부, 주이용 교통수단

○ 올해(2014년) 추석연휴기간 중 귀성 및 여행 관련사항

- 대체휴일제 인지도, 2014년 추석연휴 기간의 귀성 및 여행계획, 귀성 및 여행지역, 거주지와 귀성지역의 동일권역 여부, 가족들의 역귀성 지역, 출발 날짜 및 출발시간, 귀가 날짜 및 귀가시간 등

○ 주이용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 자동차 보유 여부, 주이용 교통수단, 동행인 수, 주이용 고속도로 노선, 자가용 이용 귀성 및 여행하는 이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 추석연휴 교통비용 및 기타사항

- 추석연휴 교통비용, 본가와 처가 방문 여부 및 출발일자, 성묘 시기 및 성묘 지역, 벌초 여부, 시기 및 벌초 주체, 지난 명절(추석 또는 설)때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대기 경험 및 대기 시간,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인지도

---

9) 유효표본은 올해 귀성, 여행 계획이 있는 응답가구 기준임

○ 개인 속성 : 가족인원수, 세대주 연령 및 직업, 주거형태

다. 조사표본 선정

○ 추석 연휴기간 통행실태 설문조사가 전국 세대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해, 『2014년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을 모집단으로, 전국 17개 특별 광역시/도의 (대도시 위주, 군단위 이하 제외)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지역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서울 및 광역시 : 군 단위 제외한 행정구역
- 경기도 : 세대수 30만 가구 이상 행정구역
- 세종시 : 전 지역
- 그 외 지역 : 세대수 상위 10% 이상을 차지하는 행정구역

<표 4-2> 2014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지역별 조사 세대수

(단위: 세대수(세대), 비율(%))

구분	2013년 추석					2014년 추석				
	전체	표본		유효표본		전체	표본		유효표본	
	세대수[1]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세대수[2]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서울특별시	4,181,577	1,829	20.6	410	20.4	4,189,495	1,831	20.3	446	20.6
부산광역시	1,398,062	611	6.9	135	6.7	1,412,091	617	6.9	152	7.0
대구광역시	954,909	417	4.7	133	6.6	965,153	421	4.7	130	6.0
인천광역시	1,108,281	484	5.4	141	7.0	1,127,861	493	5.5	134	6.2
광주광역시	559,606	245	2.8	69	3.4	568,269	248	2.8	69	3.2
대전광역시	580,723	254	2.9	81	4.0	590,008	258	2.9	84	3.9
울산광역시	427,102	187	2.1	66	3.3	436,822	191	2.1	70	3.2
경 기 도	4,675,231	2,044	23.0	501	25.0	4,748,611	2,075	23.1	32	1.5
강 원 도	660,846	289	3.2	38	1.9	668,897	292	3.2	68	3.1
충청북도	639,082	280	3.1	42	2.1	650,157	284	3.2	92	4.3
충청남도	850,636	371	4.2	99	4.9	866,215	378	4.2	46	2.1
전라북도	763,138	334	3.8	41	2.0	770,284	336	3.7	43	2.0
전라남도	812,667	356	4.0	39	1.9	820,342	358	4.0	102	4.7
경상북도	1,131,718	494	5.6	100	5.0	1,145,091	500	5.6	116	5.4
경상남도	1,310,249	572	6.4	100	5.0	1,331,704	582	6.5	8	0.4
제 주 도	235,239	103	1.2	5	0.2	242,291	106	1.2	9	0.4
세종특별자치시	47,994	30	0.3	5	0.2	53,497	30	0.3	562	26.0
전 국	20,337,060	8,900	100.0	2,005	100.0	20,586,788	9,000	100.0	2,163	100.0

주: 1) 안전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13. 6)
2)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14. 6)
3) 비례할당 적용시 세종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을 위해 30표본으로 유의 할당하여 진행함

라. 조사표본 추출

○ 추석 연휴기간 통행실태조사를 위한 추출표본이 조사대상 지역별 통행특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별로 할당된 조사표본의 20배수의 리스트를 2014년도 세대수를 기준으로 비례 할당한 리스트를 추출하여, 최종 설문조사된 비율이 지역별 세대수 및 동단위 세대수 비율과 근사치로 조사됨

○ 리스트 추출은 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KORA)의 유선전화 RDD(Radom Digital Dialing System) 제공서비스를 사용하여 조사대상 지역별 세대수와 동일한 비율로 조사표본 20배의 리스트를 추출하였으며, 자체 개발한 랜덤샘플링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추출하여 각 권역별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사를 진행하였음

○ 전국 17개 시·도 중 해당 조사 지역을 선택하여 표본수를 입력하면 시·군·구·동 단위의 실제 세대수와 동일한 비율로 리스트가 추출되고 이를 무작위로 조사 진행함

2. 사전 설문조사 주요 결과

가. 결과 요약

○ 귀성 및 여행비율

- 응답가구 중 24.0%는 올해 추석 연휴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있으며, 역귀성 비율은 13.8%임
- 추석 연휴에 귀성 또는 여행을 가지 않는 이유는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서 거주하기 때문(67.9%)임

○ 귀성-귀가 출발일

- 귀성 출발일은 추석 전날인 '9월 7일(일)', 귀가 출발일은 추석 다음날인 '9월 9일(화)'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출발일은 올해(2014년)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예정일자로 추석 전날인 '9월 7일(일)'이 46.0%, 귀가일자는 추석 다음날인 '9월 9일(화, 추석연휴)'이 43.7%로 가장 높음
- 출발 일자별 시간은 '9월 7일(일, 추석연휴) 오전'(32.7%), 귀가 일자별 시간은 '9월 8일(월, 추석당일) 오후'가 31.9%로 가장 높음
- 연도별로는 귀성출발일은 '추석당일(D-day)', '추석 다음날(D+1)'에 출발하는 비율이 증

가하며, 귀가출발일은 'D+2'에 돌아오는 비율이 증가추세임

○ 체류일수

- 체류일수는 '1박 2일'이 32.2%로 가장 높고, '2박 3일'(29.9%), '3박 4일'(16.4%), 당일(12.4%) 등의 순임
- 연도별로는 2012년부터 2014년 '2박3일'은 감소추세인 반면, '3박4일'은 증가추세임

○ 귀성 또는 여행 예정지역

- '영남권'이 32.6%로 가장 높고, '호남권'(18.5%), '충청권'(17.5%) 순이며, 수도권 거주자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52.7%로 통행의 과반수이상을 차지
- 작년 대비 해외여행 비율이 소폭 감소 : 1.8%('13)→1.6%('14)

○ 이용교통수단

- 주 이용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이 86.9%(승용차 85.3%+승합차 1.6%)로 가장 높았고, '열차(3.9%, 일반열차 2.1%+고속열차 1.8%)', '버스(5.0%, 고속버스 3.6%+시외버스 1.1%+전세/관광버스 0.2%) 등임
- 자가용을 이용하여 귀성 및 여행하는 이유로는 '자가용 이용이 편리해서'(71.3%) 이며,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는 '교통 혼잡'(52.0%) 때문임
- 가구당 왕복 예상 교통비용은 평균 16만원으로 작년(16만 4천원) 대비 감소(4천원)할 것으로 예상

○ 동행인수

- 동행인수는 '4명'이 각각 52.4%, 32.7%로 가장 높으나, 대중교통대비 자가용 이용자의 비율이 높음
  · 동행인수 4명 : 자가용(52.4%)〉대중교통(32.7%)
  · 동행인수 1명 : 대중교통(14.1%)〉자가용(1.4%)

○ 주이용 고속도로 노선

- 고속도로 이용자의 주이용 노선으로는 '경부선' (34.2%)이 가장 높고, '서해안선'(14.2%), '호남선', '남해선'(각각 8.6%) 순
- 경부선의 이용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중부선 이용률이 감소추세
  · 경부선 : 30.4%('12)→33.8%('13)→34.2%('14)
  · 중부선 : 10.8%('12)→8.3%('13)→6.6%('14)

○ 고속도로 화장실 대기 시간

- 지난 명절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기다려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5.8%이며, 평균 대기시간은 5.6분

- 같은 문항을 조사한 2008년 추석 간이조사와 비교하면, 화장실을 대기시간은 2008년 평균 7.6분에서 2014년 평균 5.6분으로 2.0분 개선되었으며, 2008년, 2014년 모두 여성의 대기시간은 남성 대비 긴 것으로 나타남
- 2008년과 2014년의 평균 대기시간을 분석하면, 남성(1.2분 개선) 대비 여성(2.1분 개선) 화장실의 대기시간 개선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처가방문 여부

- 추석연휴 기간 중 처가(친정/외가)를 방문하는 가구는 66.7%이며, 처가방문 가구의 68.5%가 추석당일인 '9월 8일(일)'에 방문 예정임

○ 성묘여부 및 성묘지역

- 성묘를 할 예정인 가구는 71.0%임
- '추석 연휴' 중에 성묘 예정은 35.9%, '추석연휴 전'이 29.8%, '추석연휴 이후'가 5.3%로 나타남

○ 벌초계획

- 벌초계획이 있는 가구는 65.2%이며, 벌초시기는 '추석 연휴 2주전'이 가장 많고, 벌초가구의 85.1%가 '직접' 벌초를 하는 것으로 분석됨
- 벌초시기는 '추석 연휴 2주전'(43.0%), '추석연휴 3주 이전'(27.0%), '추석연휴 1주전'(24.7%) 순임

○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

- '음식, 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노동'(28.7%), '귀성 및 귀경길 교통체증'(22.0%)이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은 '귀성 및 귀경길 교통체증'(33.4%)을, 여성은 '음식, 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노동'(35.4%)을 가장 염려하고 있음

○ 특별교통 대책에 대한 인지도

- 응답자의 26.8%가 추석연휴특별교통대책에 대해 알고 있으며, 2009년(25.0%) 대비 인지율이 1.8% 증가함

나. 작년(2013년) 추석 귀성 및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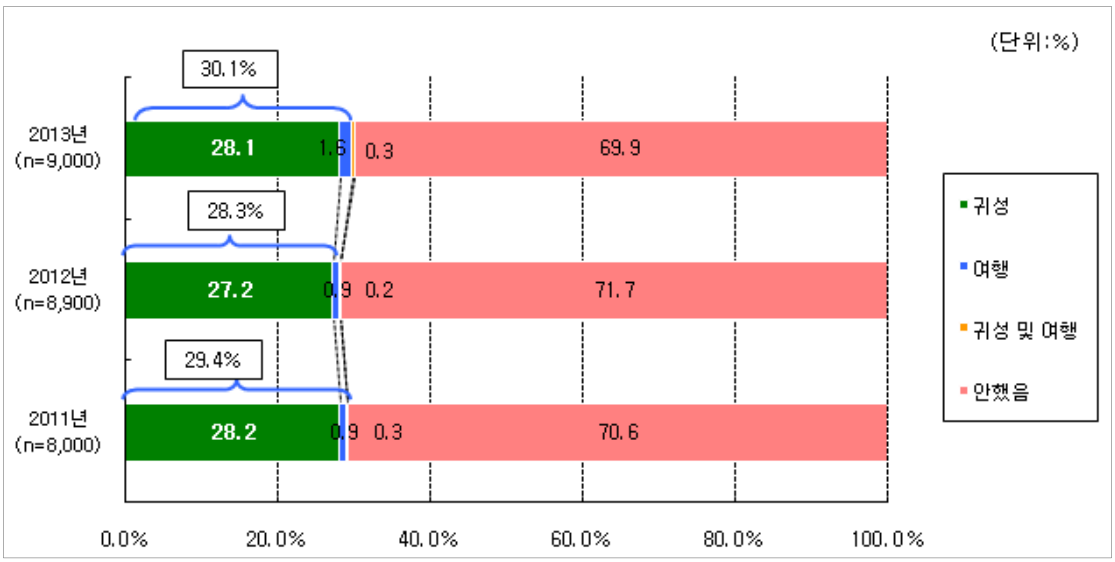
1) 작년(2013년) 추석 귀성 및 여행 여부

- 작년(2013년) 추석 연휴기간의 귀성 및 여행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30.1%가 작년 추석연휴 기간에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대비 2013년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왔다는 응답자가 증가함

<표 4-3> 작년(2013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귀성	여행	귀성 및 여행	안했음	합계
2013년	비율	28.1	1.6	0.3	69.9	100.0
	빈도	2,533	147	30	6,290	9,000
2012년	비율	27.2	0.9	0.2	71.7	100.0
	빈도	2,418	81	18	6,383	8,900
2011년	비율	28.2	0.9	0.3	70.6	100.0
	빈도	2,254	75	25	5,646	8,000



<그림 4-1> 작년(2013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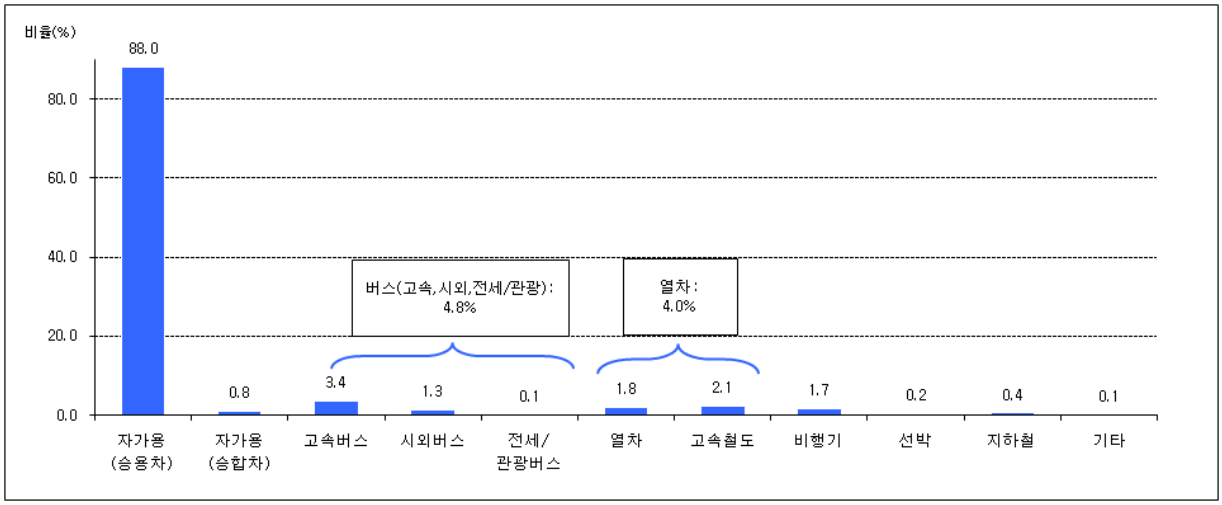
2) 작년(2013년) 추석 귀성 및 여행시 주 이용 교통수단

○ 작년(2013년) 추석연휴 기간에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주이용 교통수단은 '자가용(88.0%)'이며, 다음으로 '버스(4.8%)', '열차(4.0%)', '비행기(1.7%)' 순임

<표 4-4> 작년(2013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자가용(승용차)	자가용(승합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관광버스	열차	고속철도	비행기	선박	지하철	기타	합계
전체	비율	88.0	0.8	3.4	1.3	0.1	1.8	2.1	1.7	0.2	0.4	0.1	100.0
	빈도	2,380	23	93	35	2	49	58	46	5	12	3	2,706



<그림 4-2> 작년(2013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

다. 올해(2014년) 추석 귀성 및 여행

1)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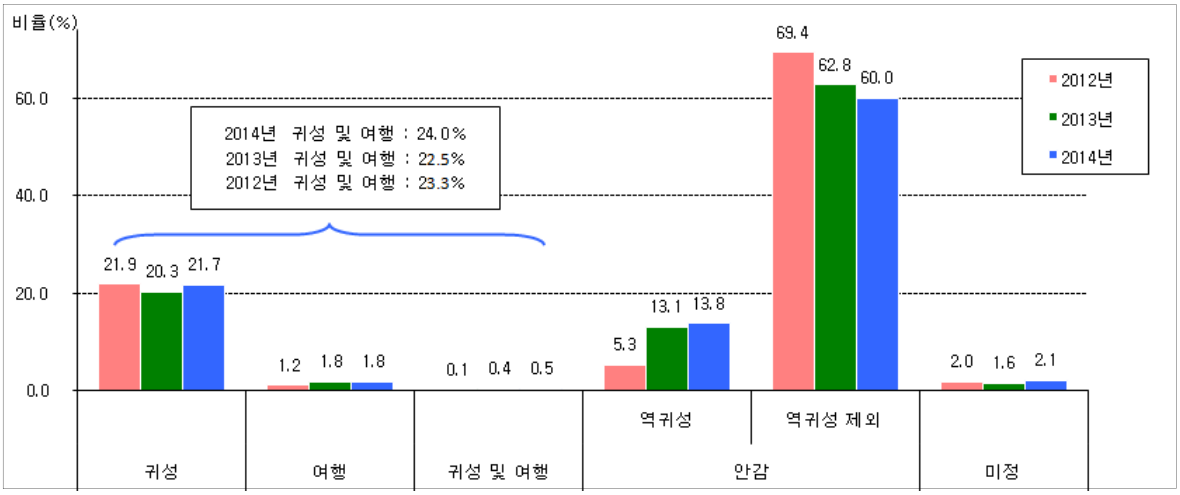
- 올해(2014년)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및 여행 계획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가구의 24.0%가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가구’ 중 13.8%는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임
- 추석 귀성 또는 여행여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3년도 까지 귀성 및 여행 비율은 소폭 감소한 반면, 2014년 다시 증가하였음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역귀성 비율은 증가추세임

<표 4-5>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귀성	여행	귀성 및 여행	안감		미정	합계
					역귀성주)	역귀성 제외		
2014년	비율	21.7	1.8	0.5	13.8	60.0	2.1	100.0
	빈도	1,956	165	42	1,246	5,400	191	9,000
2013년	비율	20.3	1.8	0.4	13.1	62.8	1.6	100.0
	빈도	1,810	156	39	1,165	5,592	138	8,900
2012년	비율	21.9	1.2	0.2	5.3	69.4	2.0	100.0
	빈도	1,750	93	19	422	5,555	161	8,000

주: 2012년~2013년 -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



<그림 4-3>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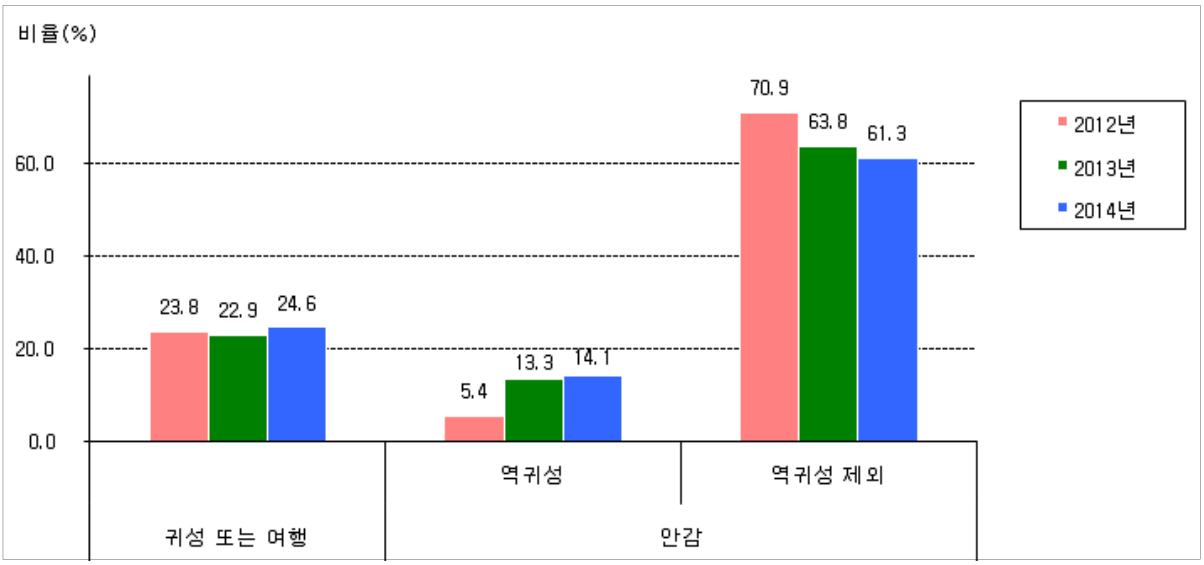
○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미정'인 경우를 제외하면 '귀성 또는 여행'은 24.6%이며, 역귀성은 14.1%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귀성 또는 여행' 비율이 2013년 대비 소폭 증가함

<표 4-6>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 - 미정제외(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귀성 또는 여행	안감		합계
			역귀성	역귀성 제외	
2014년	비율	24.6	14.1	61.3	100.0
	빈도	2,163	1,246	5,400	8,809
2013년	비율	22.9	13.3	63.8	100.0
	빈도	2,005	1,165	5,592	8,762
2012년	비율	23.8	5.4	70.9	100.0
	빈도	1,862	422	5,555	7,839



<그림 4-4>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 - 미정제외(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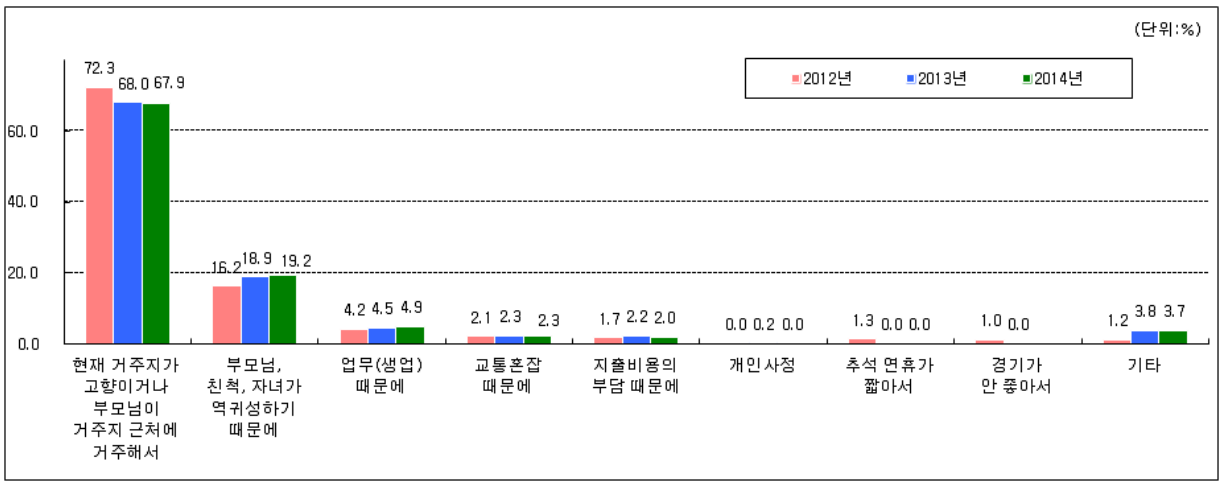
2) 추석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

-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로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서 거주해서'가 6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19.2%), '업무(생업) 때문에(4.9%)', '교통혼잡 때문에(2.3%)' 순임
- 기타 응답으로는 '추석 연휴기간 외에 귀성(또는 여행)', '건강상의 이유로', '자녀의 학업상의 이유로' 등이 있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이후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의 비율은 감소하고,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 비율은 소폭 증가함
- '업무(생업) 때문에', '교통 혼잡 때문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임

<표 4-7> 추석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	업무 (생업) 때문에	교통 혼잡 때문에	지출비용의 부담 때문에	개인 사정	추석 연휴가 짧아서	경기가 안 좋아서	기타	합계
2014년	비율	67.9	19.2	4.9	2.3	2.0	-	-	-	3.7	100.0
	빈도	4,389	1,246	319	148	128	-	-	-	245	6,475
2013년	비율	68.0	18.9	4.5	2.3	2.2	0.2	-	-	3.8	100.0
	빈도	4,189	1,165	275	143	134	15	-	-	236	6,157
2012년	비율	72.3	16.2	4.2	2.1	1.7	-	1.3	1.0	1.2	100.0
	빈도	3,896	873	225	113	92	-	70	55	64	5,388



<그림 4-5> 추석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연도별)

3) 추석 연휴기간 중 다른 가족(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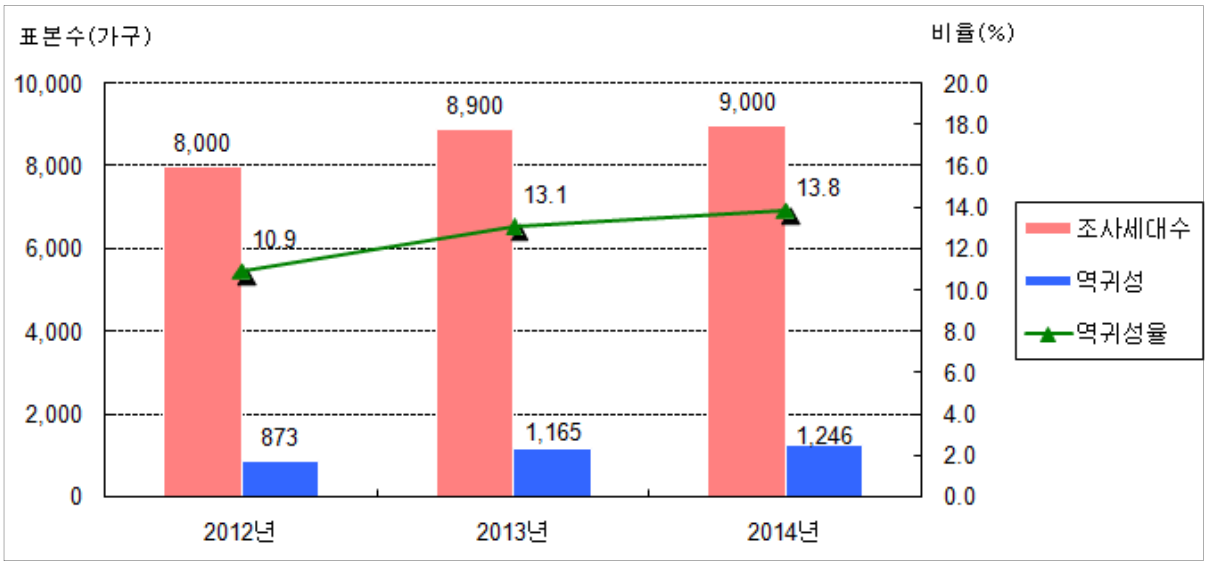
○ 추석 연휴기간 중 다른 가족(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 작년(2013년) 대비 올해(2014년) 역귀성 비율이 증가(+0.7%)한 것으로 나타남

<표 4-8> 다른 가족들(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여부(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조사 세대수	역귀성[1]	역귀성 비율[2]
2014년	빈도	9,000	1,246	13.8
2013년	빈도	8,900	1,165	13.1
2012년	빈도	8,000	873	10.9

주: 1) '올해(2014)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 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
2)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 하기 때문에'의 응답 표본과 '조사 세대수'의 백분율 값으로 전체 조사 세대수 중 역귀성 응답자의 비율임



<그림 4-6> 다른 가족들(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여부(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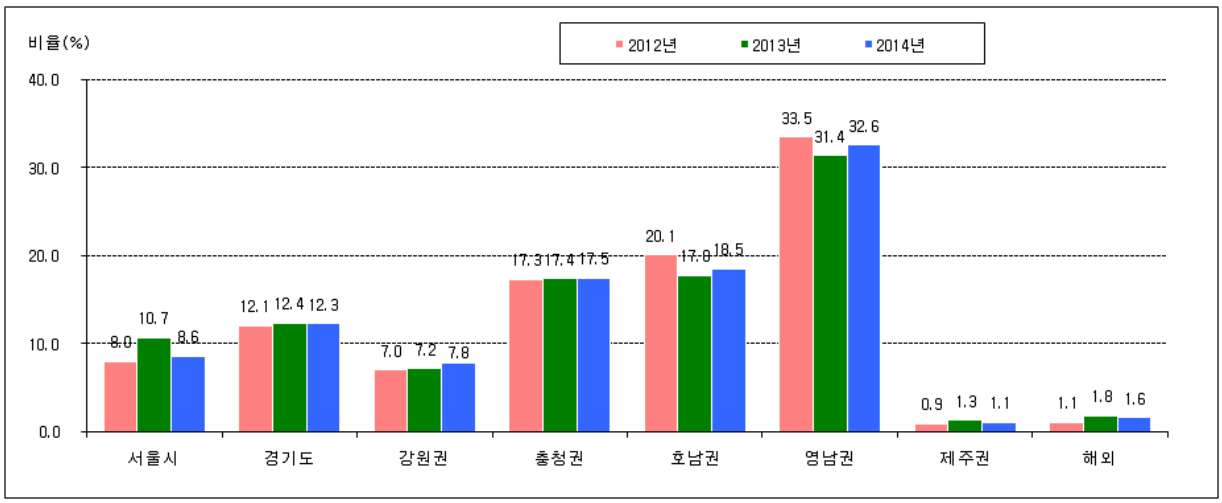
4)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지역[10)]

- 올해(2014년) 추석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지역은 '영남권'이 32.6%로 가장 높고, '호남권' 18.5%, '충청권' 17.5% 순임
-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예정 지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강원권', '충청권'의 비율이 2012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임

<표 4-9>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지역(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서울시	경기도 (인천 포함)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해외	합계
2014년	비율	8.6	12.3	7.8	17.5	18.5	32.6	1.1	1.6	100.0
	빈도	185	264	167	377	399	702	24	35	2,153
2013년	비율	10.7	12.4	7.2	17.4	17.8	31.4	1.3	1.8	100.0
	빈도	214	247	143	348	356	628	25	36	1,997
2012년	비율	8.0	12.1	7.0	17.3	20.1	33.5	0.9	1.1	100.0
	빈도	149	225	130	322	375	624	16	21	1,862



<그림 4-7>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지역(연도별)

10) 여행지역은 '1차 지역' 기준으로 작성됨

5)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예정 시기(출발일자 및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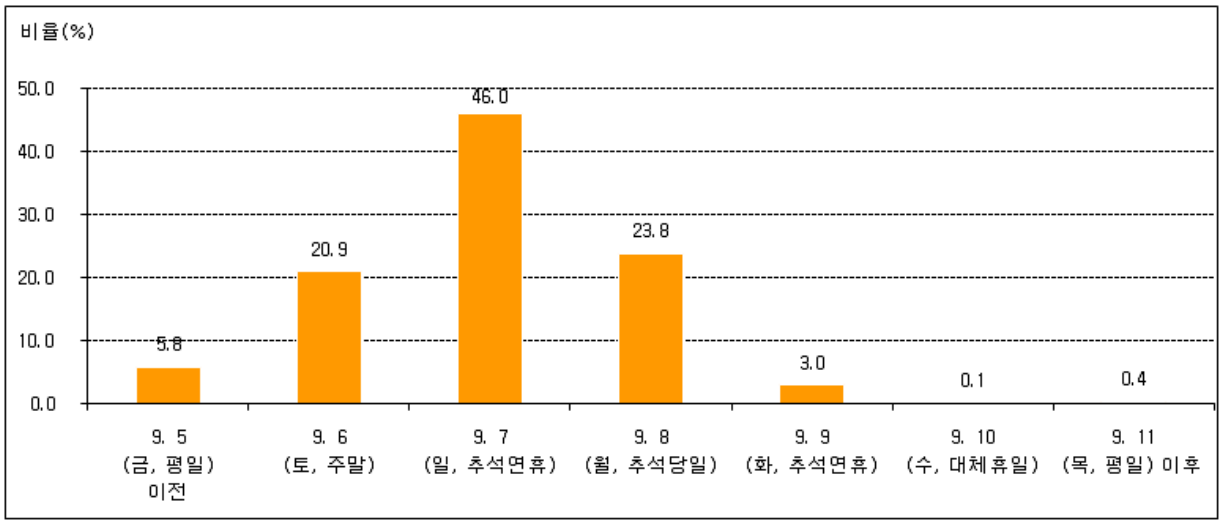
①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일자

○ 올해(2014년)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예정일자로 추석 전날인 '9월 7일(일)'이 46.0%로 가장 높았고, 추석당일인 '9월 8일(월)(23.8%)', '9월 6일(토)(20.9%)' 순임

<표 4-10> 추석 귀성 및 여행시 출발 예정 일자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9.5 (금,평일) 이전	9. 6 (토, 주말)	9. 7 (일, 추석연휴)	9. 8 (월, 추석당일)	9. 9 (화, 추석연휴)	9. 10 (수, 대체휴일)	9.11 (목, 평일) 이후	합계
2014년	비율	5.8	20.9	46.0	23.8	3.0	0.1	0.4	100.0
	빈도	113	407	895	462	58	2	7	1,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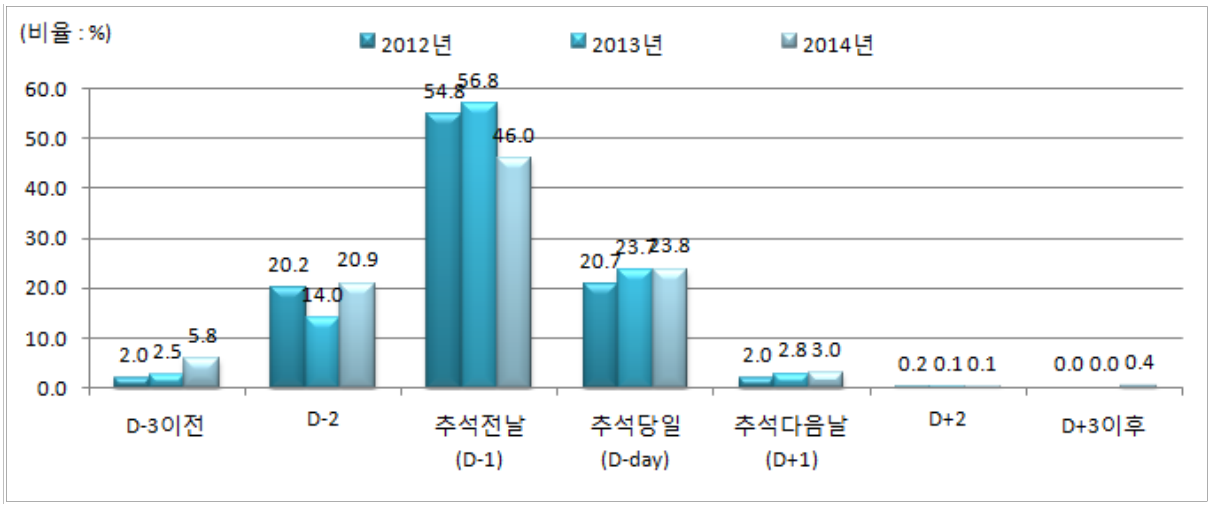
<그림 4-8> 추석 귀성 및 여행시 출발 예정 일자

○ 출발 일자를 추석을 기점으로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석당일(D-day)'과 '추석다음날(D+1)'에 출발하는 비율이 증가추세임

<표 4-11>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시점(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D-3	D-2	추석전날 (D-1)	추석당일 (D-day)	추석다음날 (D+1)	D+2	D+3	합계
2014년	비율	5.8	20.9	46.0	23.8	3.0	0.1	0.4	100.0
	빈도	113	407	895	462	58	2	7	1,944
2013년	비율	2.5	14.0	56.8	23.7	2.8	0.1	0.0	100
	빈도	47	258	1,048	437	52	2	0	1,844
2012년	비율	2.0	20.2	54.8	20.7	2.0	0.2	0.0	100
	빈도	36	346	946	352	33	3	0	1,716



<그림 4-9>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시점(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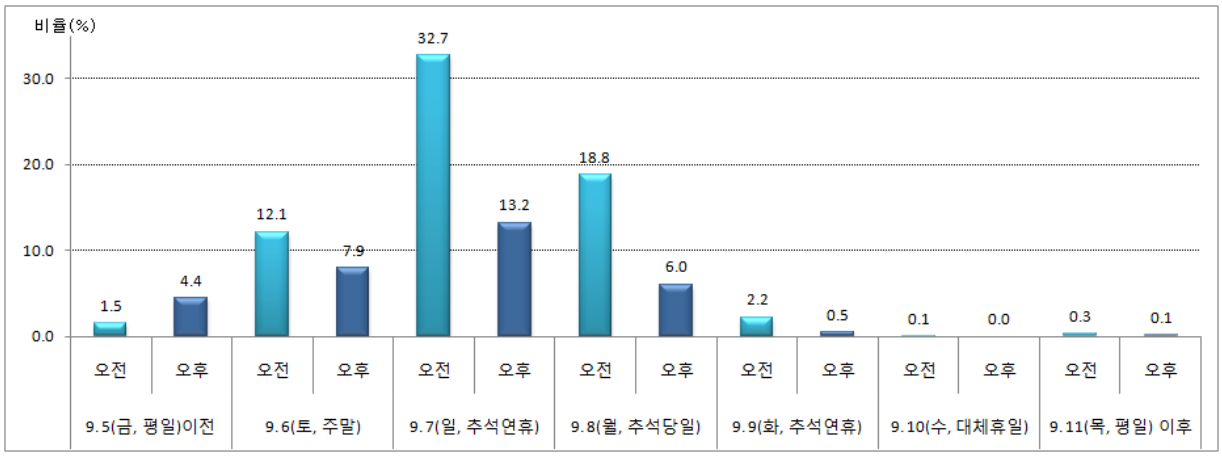
②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오전/오후)대

○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대를 오전, 오후로 분석해 보면, '9월 7일(일, 추석연휴) 오전'이 32.7%로 가장 높고, '9월 8일(월, 추석당일) 오전'(18.8%), '9월 7일(수, 추석연휴) 오후'(13.2%) 순임

<표 4-12>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오전/오후)대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9.5 (금,평일) 이전		9. 6 (토, 주말)		9. 7 (일, 추석연휴)		9. 8 (월, 추석당일)		9. 9 (화, 추석연휴)		9. 10 (수, 대체휴일)		9.11 (목, 평일) 이후		합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비율	1.5	4.4	12.1	7.9	32.7	13.2	18.8	6.0	2.2	0.5	0.1	0.0	0.3	0.1	100.0
빈도	26	78	213	139	574	232	330	106	39	9	1	0	5	2	1,754



<그림 4-10>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오전/오후)대

6) 추석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예정 시기(귀가일자 및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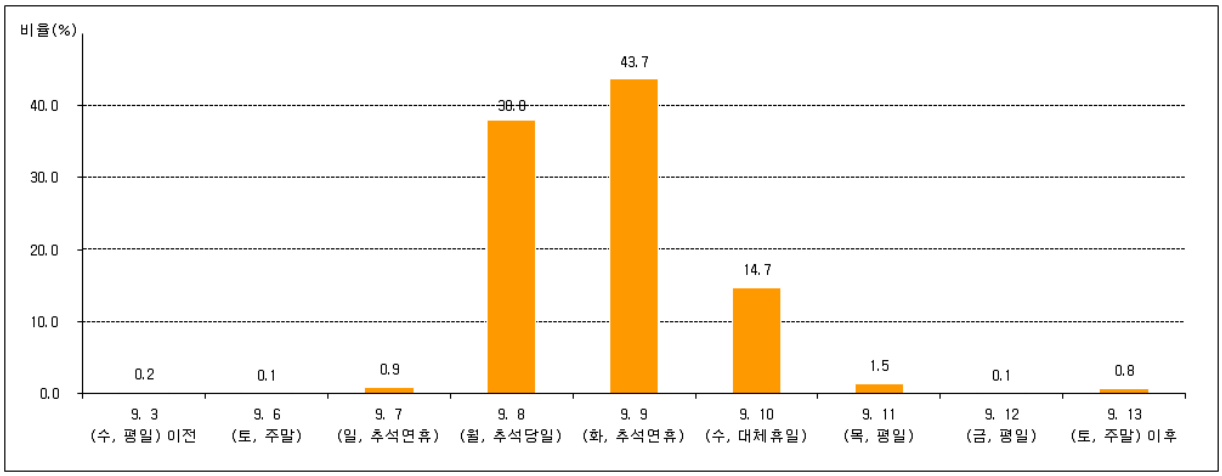
① 추석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일자

○ 추석 연휴기간의 귀가 예정 일자는 추석 다음날인 '9월 9일(화, 추석연휴)'이 43.7%로 가장 높고, '9월 8일(월, 추석당일)'(38.0%), '9월 10일(수, 대체휴일)'(14.7%) 순임

<표 4-13> 추석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예정 일자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9. 3(수, 평일)이전	9. 6(토, 주말)	9. 7(일, 추석연휴)	9. 8(월, 추석당일)	9. 9(화, 추석연휴)	9. 10(수, 대체휴일)	9. 11(목, 평일)	9. 12(금, 평일)	9. 13(토, 주말) 이후	합계
2014년	비율	0.2	0.1	0.9	38.0	43.7	14.7	1.5	0.1	0.8	100.0
	빈도	4	2	17	736	847	286	29	1	17	1,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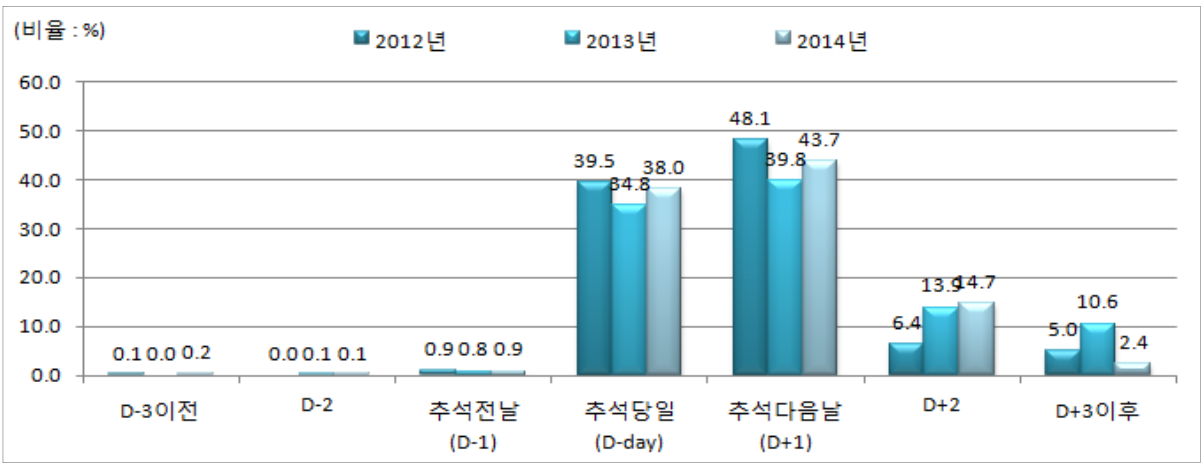
<그림 4-11> 추석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예정 일자

○ 출발 일자를 추석을 기점으로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D+2'에 귀가하는 비율이 증가추세임

<표 4-14> 추석 연휴기간 중 귀경 또는 여행후 귀가 시점(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D-3	D-2	추석전날 (D-1)	추석당일 (D-day)	추석다음날 (D+1)	D+2	D+3	합계
2014년	비율	0.2	0.1	0.9	38.0	43.7	14.7	2.4	100.0
	빈도	4	2	17	736	847	286	47	1,939
2013년	비율	0.0	0.1	0.8	34.8	39.8	13.9	10.6	100.0
	빈도	0	2	15	630	720	251	191	1,809
2012년	비율	0.1	0.0	0.9	39.5	48.1	6.4	5.0	100.0
	빈도	0	0	11	671	813	108	84	1,687



<그림 4-12> 추석 연휴기간 중 귀경 또는 여행후 귀가 시점(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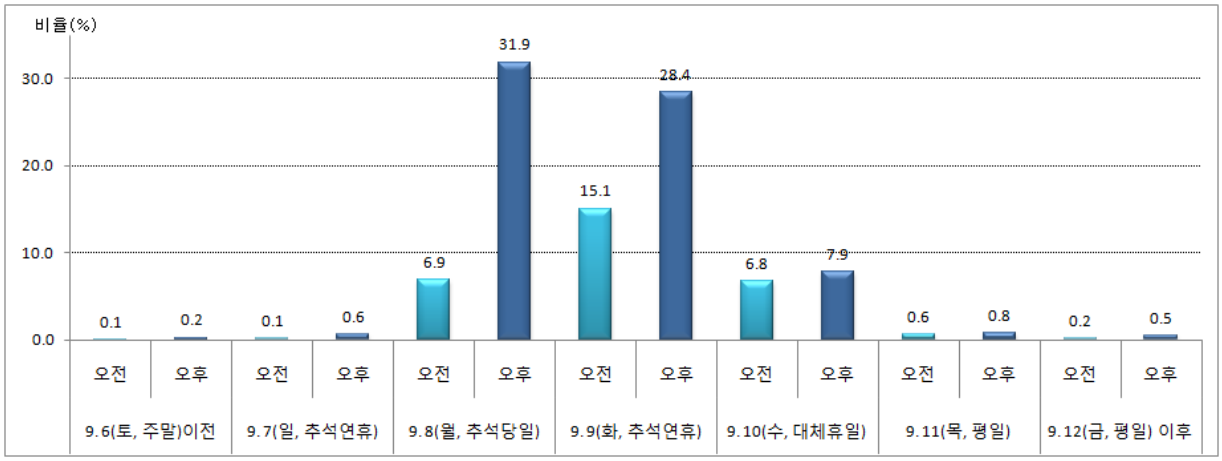
② 귀가(출발)일자 별 시간(오전/오후)대

○ 귀가(출발)일자 별 시간대를 오전, 오후로 분석해 보면, '9월 8일(월, 추석당일) 오후'가 31.9%로 가장 높고, '9월 9일(화, 추석연휴) 오후'(28.4%), '9월 9일(화, 추석연휴) 오전'(15.1%) 순임

<표 4-15>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오전/오후)대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9. 6(토, 주말)이전		9. 7(일, 추석연휴)		9. 8(월, 추석당일)		9. 9(화, 추석연휴)		9. 10(수, 대체휴일)		9. 11(목, 평일)		9. 12(금, 평일) 이후		합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비율	0.1	0.2	0.1	0.6	6.9	31.9	15.1	28.4	6.8	7.9	0.6	0.8	0.2	0.5	100.0
빈도	1	4	2	11	120	552	261	492	117	136	11	14	3	8	1,732



<그림 4-13>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오전/오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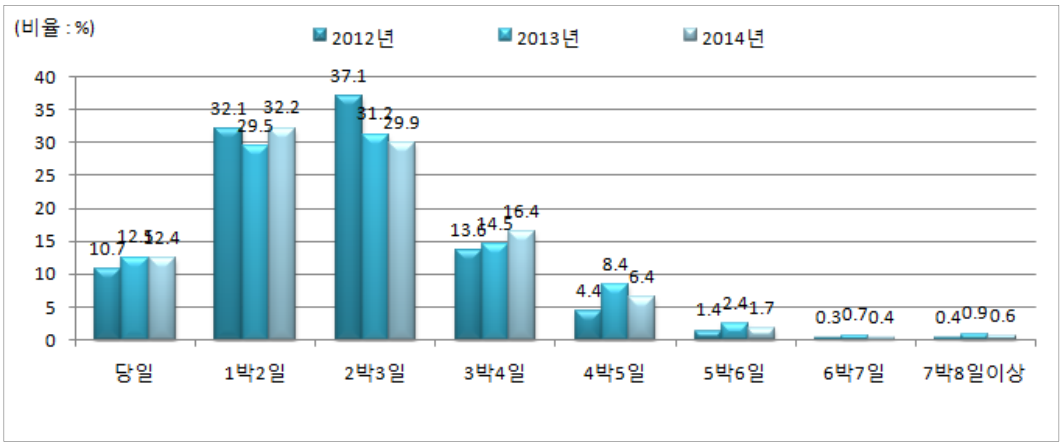
7) 체류일수

- 2014년 체류일수에 따르면, '1박 2일'이 32.2%로 가장 높고, '2박 3일'(29.9%), '3박 4일'(16.4%), 당일(12.4%) 등의 순임
- 2012년부터 2014년 '2박3일'은 감소추세인 반면, '3박4일'은 증가추세를 보임

<표 4-16> 체류일수(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당일	1박2일	2박3일	3박4일	4박5일	5박6일	6박7일	7박8일 이상	합계
2014년	비율	12.4	32.2	29.9	16.4	6.4	1.7	0.4	0.6	100.0
	빈도	231	600	556	305	120	31	8	11	1,862
2013년	비율	12.5	29.5	31.2	14.5	8.4	2.4	0.7	0.9	100.0
	빈도	217	511	541	251	146	41	12	15	1,734
2012년	비율	10.7	32.1	37.1	13.6	4.4	1.4	0.3	0.4	100.0
	빈도	175	524	604	221	71	23	5	7	1,630



<그림 4-14> 체류일수(연도별)

8) 귀성-귀가 출발 예정일자 교차분석

○ 귀성-귀가 출발 예정일을 교차 분석한 결과,

- 추석 전날(D-1) 출발하여 추석 다음날(D+1) 도착하는 비율은 2012년이 28.3%로 가장 높음
- 올해(2014년) 추석 전날(D-1) 출발하여 추석 당일(D-day)에 도착하는 비율은 전년대비 증가
- 추석 전전날(D-2) 출발하여 추석 다음날(D+1) 도착하는 비율이 2012년부터 2013년 감소하다가 2014년 증가
- 추석 전날(D-1) 출발하여, 추석 다음날(D+1) 도착하는 비율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감소추세

<표 4-17> 추석 귀성-귀가 출발 예정일자 교차분석

(단위: %)

출발일	도착일	연도별 비율		
		2012년	2013년	2014년
추석 전날 (D-1)	추석 다음날 (D+1)	28.3	24.7	20.2
추석 전날 (D-1)	추석 당일 (D-day)	22.8	19.8	20.9
추석 당일 (D-day)	추석 당일 (D-day)	10.0	11.1	10.2
추석 전전날 (D-2)	추석 다음날 (D+1)	9.9	5.4	12.5
추석 당일 (D-day)	추석 다음날 (D+1)	8.3	8.4	9.2

라. 주이용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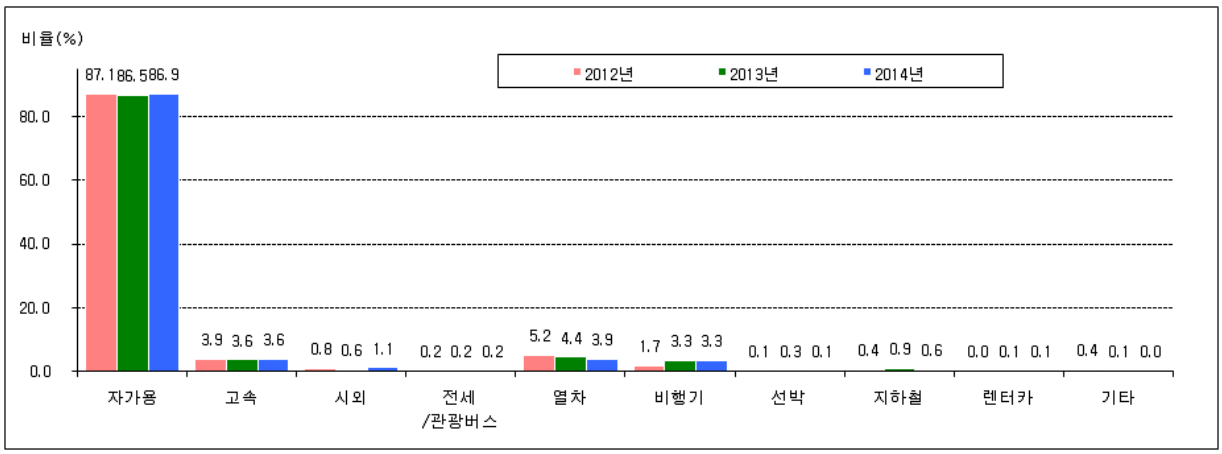
1)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

- 올해(2014년) 추석 연휴기간 귀성 또는 여행시 주 이용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이 86.9%(승용차 85.3%+승합차 1.6%)로 가장 높았고, '열차(3.9%, 일반열차 2.1%+고속열차 1.8%)', '버스(5.0%, 고속버스 3.6%+시외버스 1.1%+전세/관광버스 0.2%) 등이 있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열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8>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자가용	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관광버스	일반열차	고속열차	비행기	선박	지하철	렌트카	기타	합계
2014년	비율	86.9	3.6	1.1	0.2	2.1	1.8	3.3	0.1	0.6	0.1	0.0	100.0
	빈도	1,858	78	23	5	45	39	71	3	12	3	1	2,138
2013년	비율	86.5	3.6	0.6	0.2	2.1	2.3	3.3	0.3	0.9	0.1	0.1	100.0
	빈도	1,716	72	12	3	41	46	65	6	19	2	2	1,984
2012년	비율	87.1	3.9	0.8	0.2	2.7	2.5	1.7	0.1	0.4	-	0.4	100.0
	빈도	1,617	73	15	4	51	46	32	2	8	-	8	1,856



<그림 4-15>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연도별)

2)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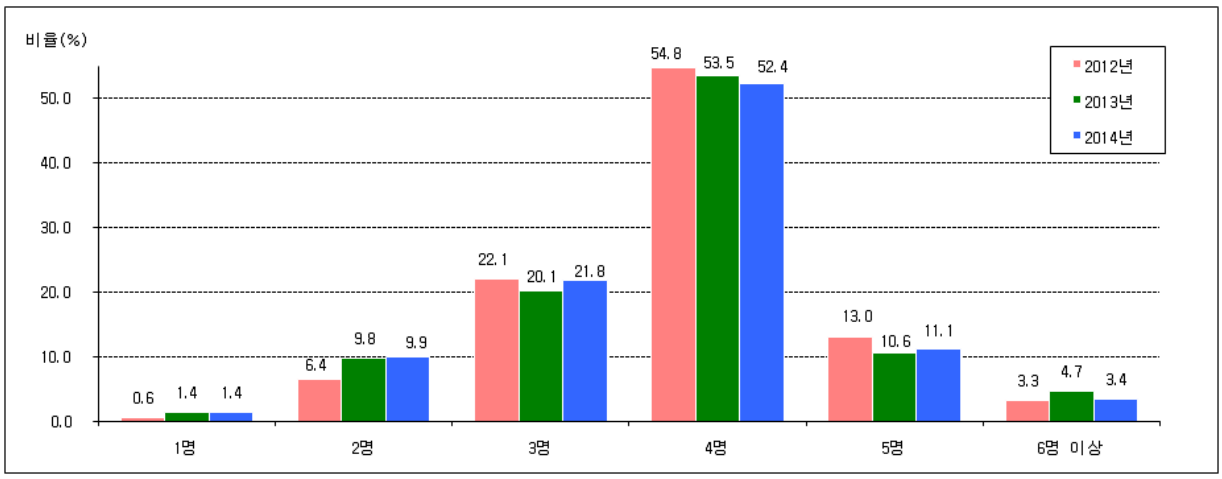
○ 올해(2014년) 추석 연휴기간 중 '자가용'을 이용하여 귀성 또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예정 동행인 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4명'이 52.4%로 가장 높고, '3명'(21.8%), '5명'(11.1%) 순임

○ 2012년 이후 동행인 수 '4명 이상'은 지속적으로 감소(71.1%→68.8%→66.9%)하고 있음

<표 4-19>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자가용 이용(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합계
2014년	비율	1.4	9.9	21.8	52.4	11.1	3.4	100.0
	빈도	26	181	400	962	204	63	1,836
2013년	비율	1.4	9.8	20.1	53.5	10.6	4.7	100.0
	빈도	23	165	339	902	178	79	1,686
2012년	비율	0.6	6.4	22.1	54.8	13.0	3.3	100.0
	빈도	9	103	357	886	210	52	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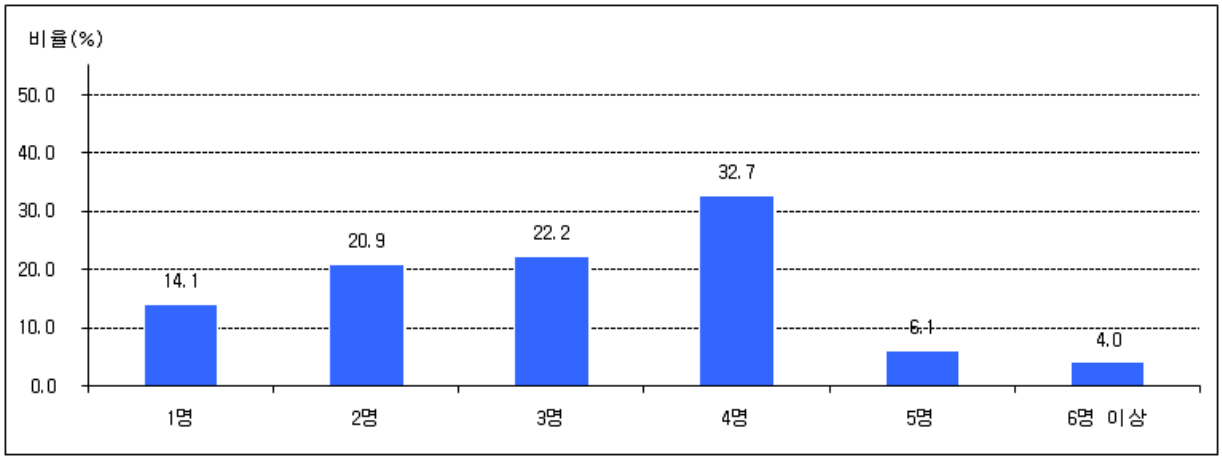
<그림 4-16>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자가용 이용(연도별)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성 또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예정 동행인 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4명’이 32.7%로 가장 높고, ‘3명’(22.2%), ‘2명’(20.9%) 순임

<표 4-20>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대중교통 이용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합계
2014년	비율	14.1	20.9	22.2	32.7	6.1	4.0	100.0
	빈도	42	62	66	97	18	12	297



<그림 4-17>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대중교통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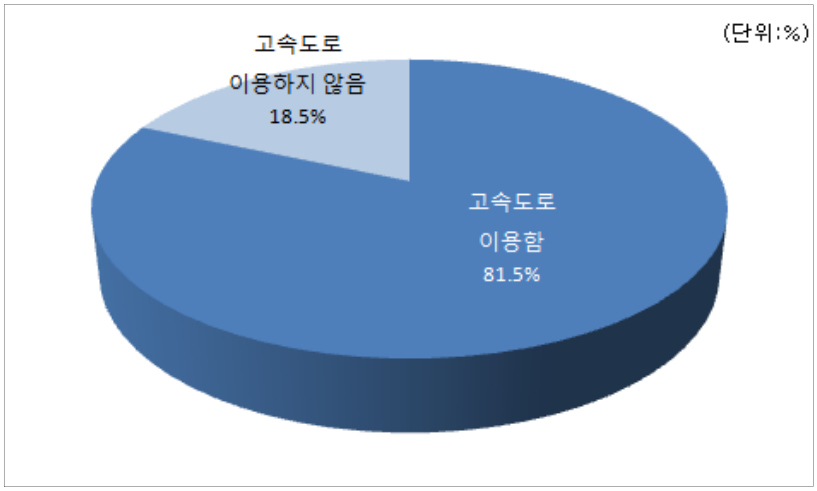
3)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여부

○ 올해(2014)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자가용 운전자들의 고속도로 이용률은 81.5%로 나타남

<표 4-21>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여부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고속도로 이용함	고속도로 이용하지 않음	합계
전체	비율	81.5	18.5	100.0
	빈도	1,506	341	1,847



<그림 4-18>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여부

4)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고속도로 노선

○ 올해(2014)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할 고속도로로는 '경부선'이 34.2%로 가장 높았고, '서해안선'(14.2%), '호남선', '남해선'(각각 8.6%)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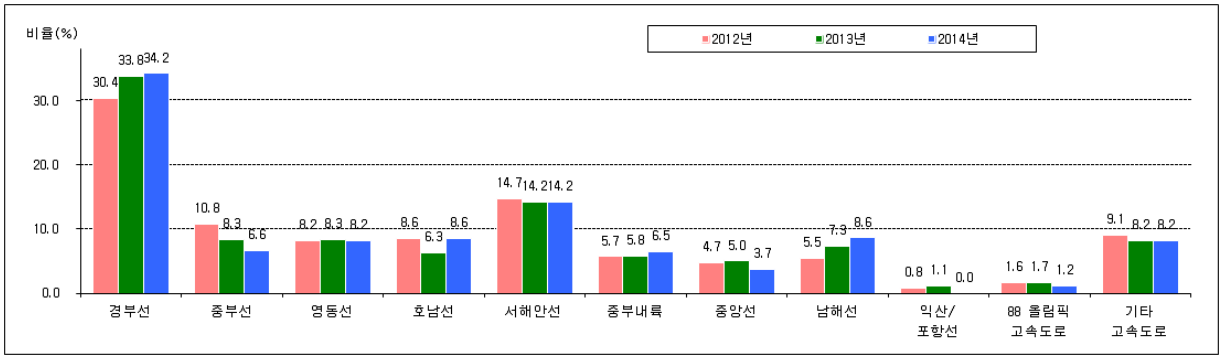
- 기타 고속도로로는 '경춘선'(1.9%), '경인선'(1.4%) 순임

○ 연도별로는 '경부선', '남해선'의 이용률은 소폭 증가한 반면, '중부선'의 이용률은 감소추세로 나타남

<표 4-22>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고속도로 노선(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경부선	중부선	영동선	호남선	서해안선	중부내륙	중앙선	남해선	88 올림픽 고속도로	기타 고속도로	계
2014년	비율	34.2	6.6	8.2	8.6	14.2	6.5	3.7	8.6	1.2	8.2	100.0
	빈도	515	100	123	129	213	98	56	130	18	124	1,506
2013년	비율	33.8	8.3	8.3	6.3	14.2	5.8	5.0	7.3	1.7	9.3	100.0
	빈도	446	109	110	83	187	77	66	96	22	123	1,319
2012년	비율	30.4	10.8	8.2	8.6	14.7	5.7	4.7	5.5	1.6	9.9	100.0
	빈도	358	127	96	101	173	67	55	65	19	116	1,177



<그림 4-19>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고속도로 노선(연도별)

5)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자가용 및 대중교통 이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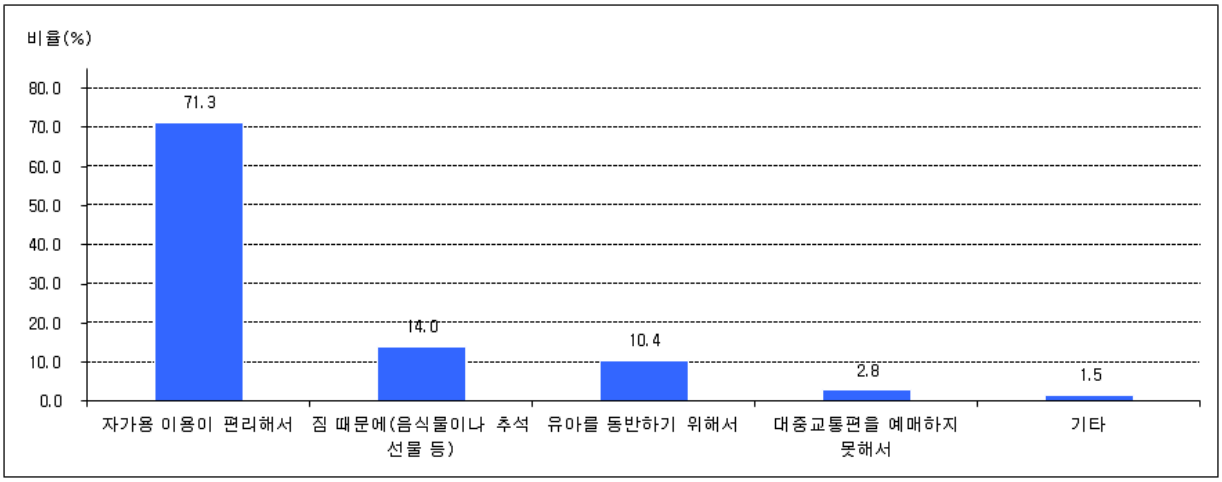
○ 자가용을 이용하여 귀성 및 여행하는 이유로는 '자가용 이용이 편리해서'(71.3%), '짐 때문에(음식물이나 추석선물 등)'(14.0%) 등으로 나타남

- 기타 응답으로는 '여러군데 이동이 필요해서', '비용이 더 저렴해서',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으로' 등이 있음

<표 4-23>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자가용 이용 이유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자가용 이용이 편리해서	짐 때문에 (음식물이나 추석 선물 등)	유아를 동반하기 위해서	대중교통편을 예매하지 못해서	기타	합계
2014년	비율	71.3	14.0	10.4	2.8	1.5	100
	빈도	1,317	258	194	52	27	1,848



<그림 4-20>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자가용 이용 이유

○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교통 혼잡으로 인해'(52.0%), '꼭 비행기로 이동해야 해서'(29.5%)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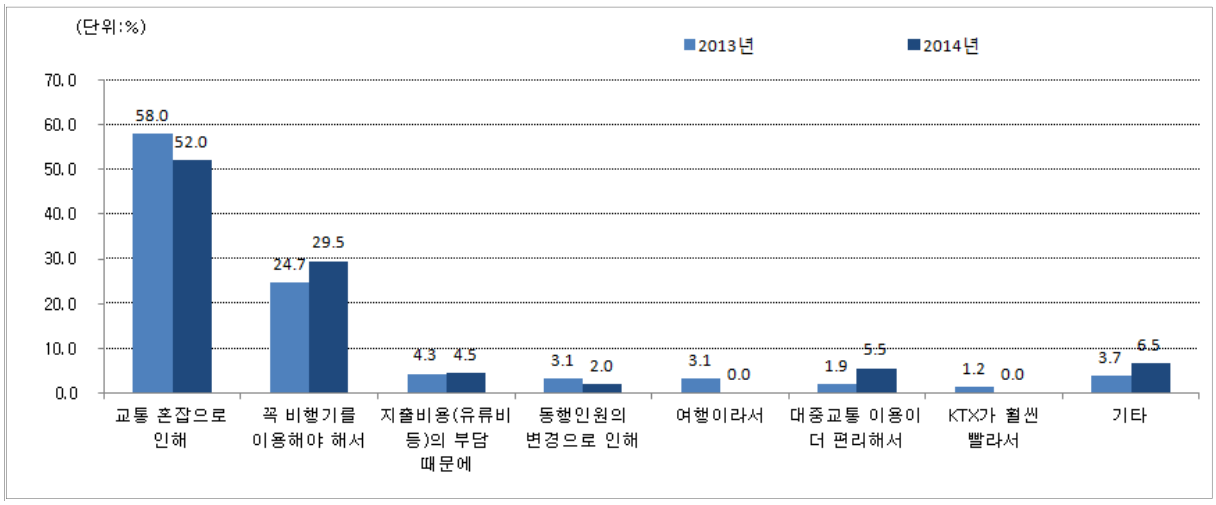
- 기타 응답으로는 '가족구성원이 따로 이동해서', '운전부담 때문' 등이 있음

○ '전년 대비 교통 혼잡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은 줄어든 반면, '꼭 비행기를 이용해야 해서' 비율은 소폭 증가하였음

<표 4-24> 자가용 보유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교통 혼잡으로 인해	꼭 비행기를 이용해야 해서	지출비용(유류비 등)의 부담 때문에	동행 인원의 변경으로 인해	여행 이라서	대중교통 이용이 더 편리해서	KTX가 훨씬 빨라서	기타	합계
2014년	비율	52.0	29.5	4.5	2.0	-	5.5	-	6.5	100.0
	빈도	104	59	9	4	-	11	-	13	200
2013년	비율	58.0	24.7	4.3	3.1	3.1	1.9	1.2	3.7	100
	빈도	94	40	7	5	5	3	2	6	162



<그림 4-21> 자가용 보유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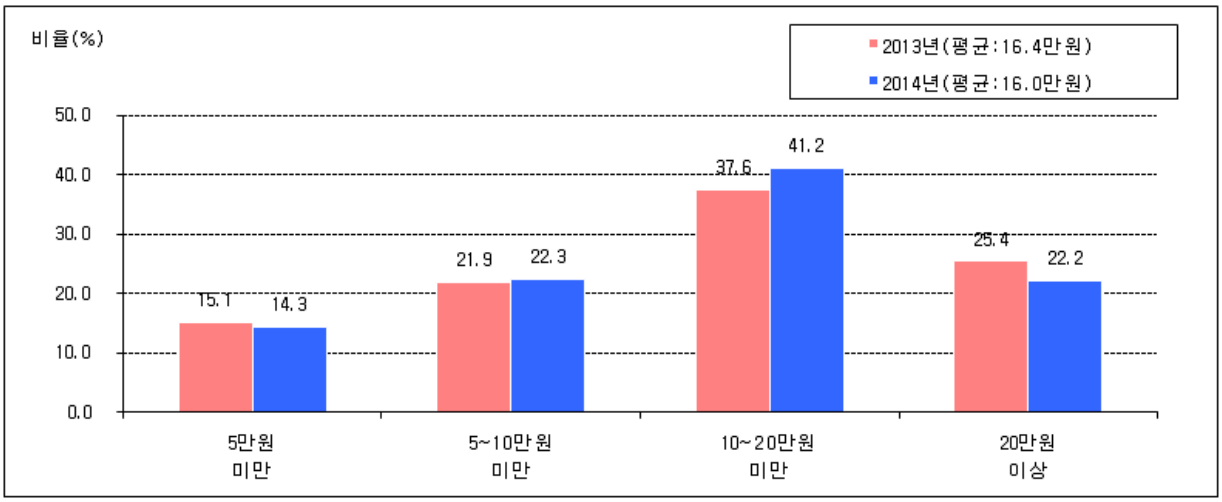
마. 추석 연휴 교통비용

○ 올해(2014년) 추석 연휴기간 귀성 및 귀경을 위한 왕복 예상 교통비용은 평균 16만원으로 나타나, 작년(2013년) 16만 4천원 대비 감소(-4천원)한 것으로 조사됨

<표 4-25> 추석 귀성 및 귀가시 왕복 교통비용 - 전년 비용/올해 비용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합계	평균 (만원)
올해 (2014년)	비율	14.3	22.3	41.2	22.2	100.0	16.0
	빈도	257	402	741	399	1,799	
작년 (2013년)	비율	15.1	21.9	37.6	25.4	100.0	16.4
	빈도	233	339	582	393	1,547	



<그림 4-22> 추석 귀성 및 귀가시 왕복 교통비용 - 전년 비용/올해 비용

바. 기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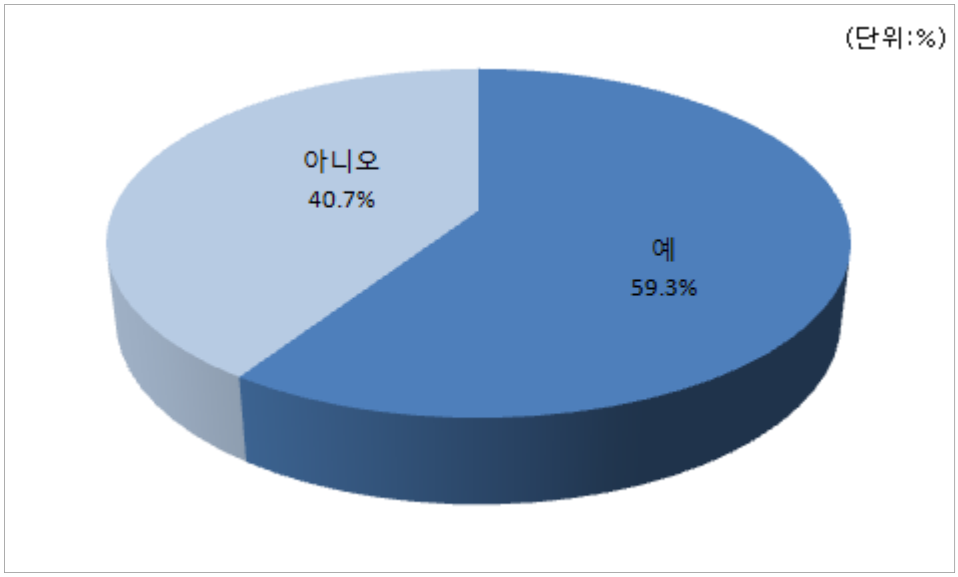
1) 대체휴일제에 대한 인지도

○ 올해(2014년)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처음으로 적용된 대체휴일제에 대해 과반수 이상(59.3%)이 인지하고 있음

<표 4-26> 대체휴일제에 대한 인지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대체휴일제 인지하고 있음	대체휴일제 인지하지 못함	합계
2014년	비율	59.3	40.7	100.0
	빈도	5,271	3,617	8,888



<그림 4-23> 대체휴일제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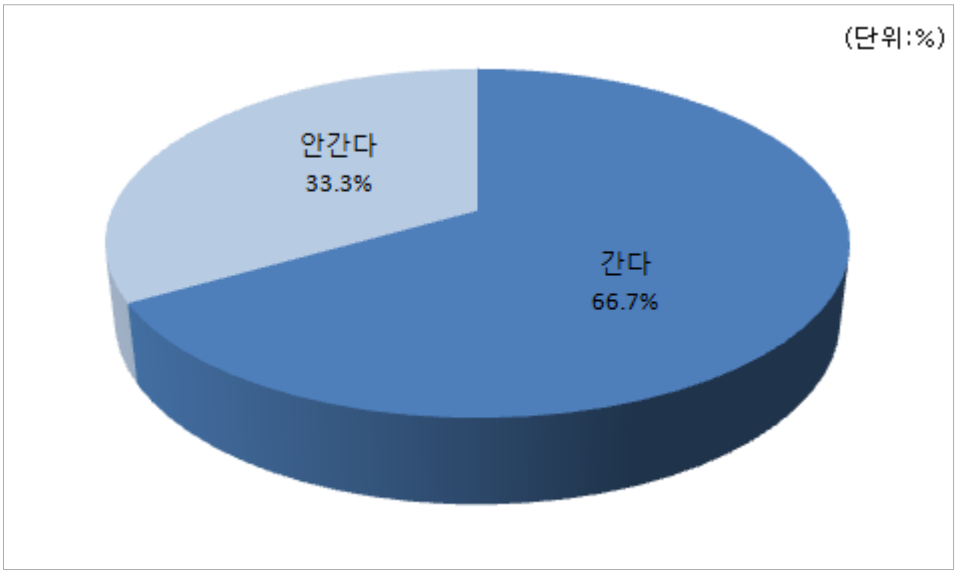
2) 추석 연휴기간 중 처가(친정/외가) 방문 예정 여부

○ 추석 연휴기간 중 처가(친정/외가)를 방문할 예정인 가구는 66.7%임

<표 4-27> 추석 연휴기간 중 처가(친정/외가) 방문 예정 여부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처가(친정/외가) 방문함	처가(친정/외가) 방문하지 않음	합계
전체	비율	66.7	33.3	100.0
	빈도	1,289	644	1,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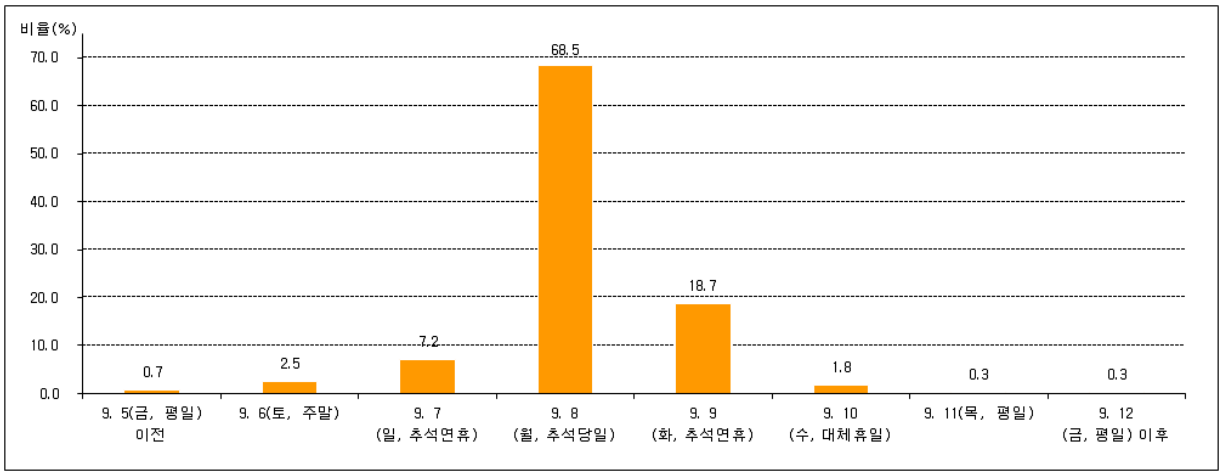
<그림 4-24> 추석 연휴기간 중 처가(친정/외가) 방문 예정 여부

○ 추석 연휴기간 중 처가(친정/외가)로의 출발일은 '9월 8일(월, 추석당일)'(68.5%)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9월 9일(화, 추석연휴)'(18.7%), '9월 7일(일, 추석연휴)'(7.2%)로 나타남

<표 4-28> 추석 연휴기간 중 처가(친정/외가) 방문 예정 일자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9.5 (금,평일) 이전	9. 6 (토,주말)	9.7 (일,추석 연휴)	9.8 (월,추석 당일)	9.9 (화,추석 연휴)	9.10 (수,대체 휴일)	9. 11 (목,평일)	9.12 (금,평일) 이후	합계
전체	비율	0.7	2.5	7.2	68.5	18.7	1.8	0.3	0.3	100.0
	빈도	8	30	86	811	222	21	3	3	1,184



<그림 4-25> 추석 연휴기간 중 처가(친정/외가) 방문 예정 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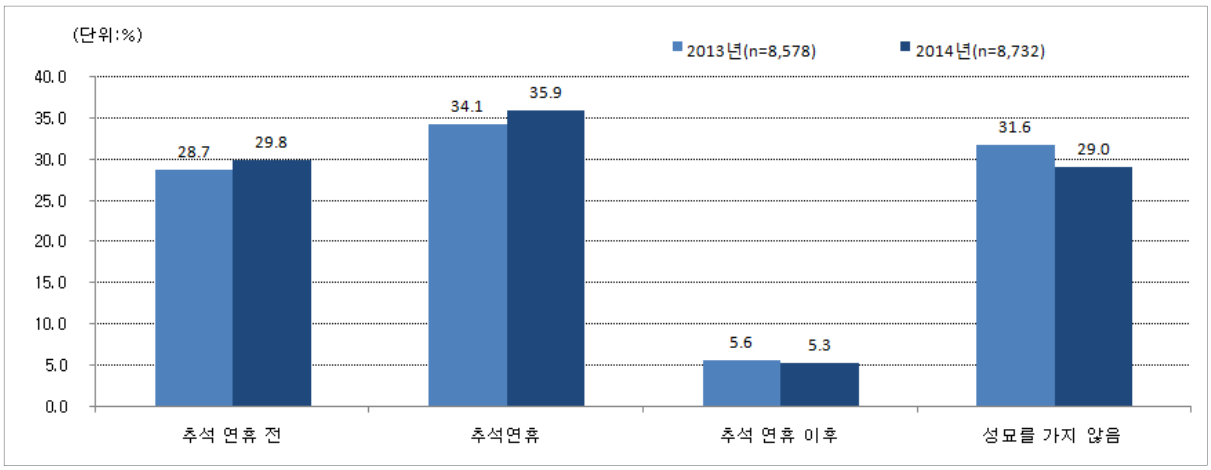
3) 추석 연휴기간 중 성묘 계획

- 올해(2014년) 추석 연휴기간 중 성묘계획을 조사한 결과, ‘추석 연휴’ 중에 성묘 예정인 응답자가 35.9%, ‘추석연휴 전’이 29.8%, ‘추석연휴 이후’가 5.3%로 나타남
- 2013년 대비 2014년 ‘추석연휴 전’과 ‘추석연휴’에 성묘하는 비율이 증가함

<표 4-29> 추석 연휴기간 중 성묘 여부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추석 연휴 전	추석연휴	추석 연휴 이후	성묘를 가지 않음	합계
2014년	비율	29.8	35.9	5.3	29.0	100.0
	빈도	2,605	3,135	461	2,531	8,732
2013년	비율	28.7	34.1	5.6	31.6	100.0
	빈도	2,462	2,928	480	2,708	8,578



<그림 4-26> 추석 연휴기간 중 성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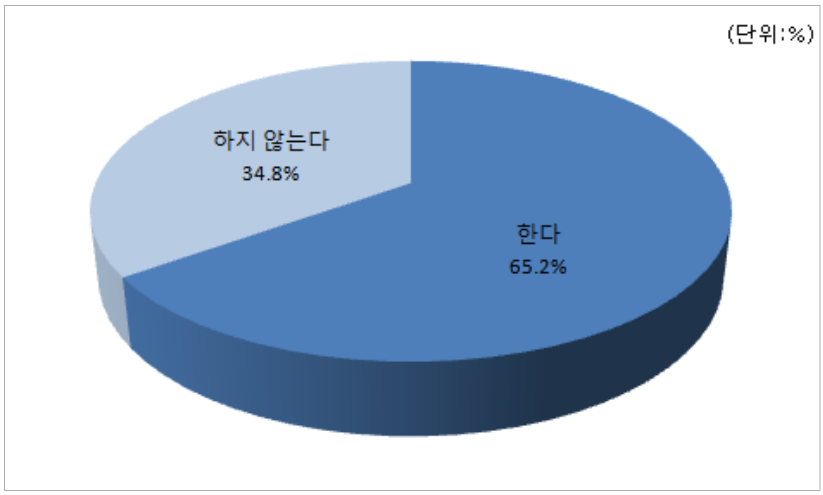
4) 벌초계획

○ 벌초계획이 있는 가구는 65.2%임

<표 4-30> 벌초계획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벌초함	벌초하지 않음	합계
전체	비율	65.2	34.8	100.0
	빈도	5,775	3,089	8,864



<그림 4-27> 벌초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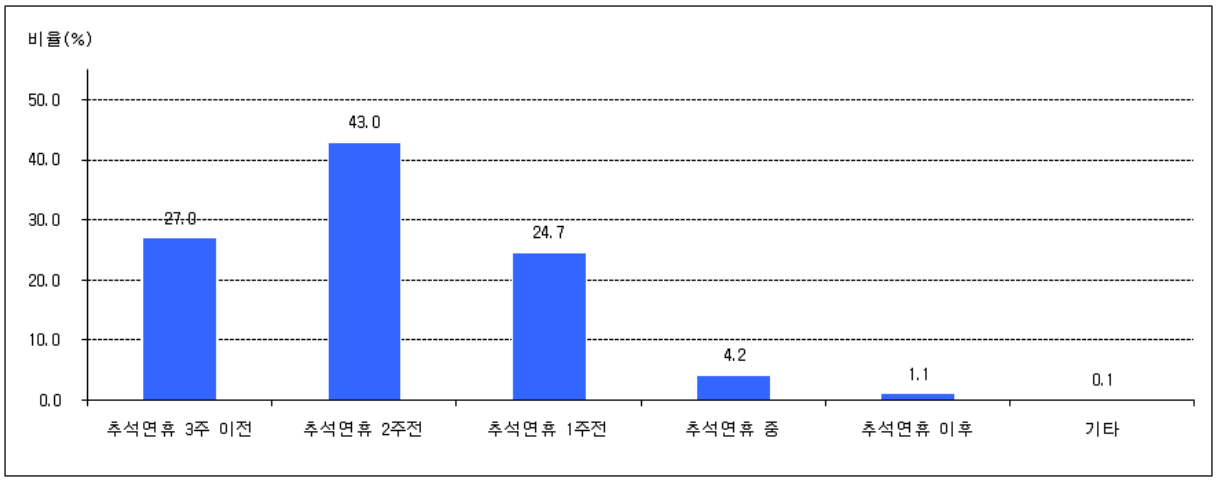
○ 벌초시기를 조사한 결과, '추석 연휴 2주전'(43.0%)에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추석연휴 3주 이전'(27.0%), '추석연휴 1주전'(24.7%) 순임

○ 일반적으로 벌초는 추석연휴 이전(98.9%)에 진행하고 있음

<표 4-31> 벌초시기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추석연휴 3주 이전	추석연휴 2주전	추석연휴 1주전	추석연휴 중	추석연휴 이후	기타	합계
전체	비율	27.0	43.0	24.7	4.2	1.1	0.1	100.0
	빈도	1,328	2,115	1,214	208	54	5	4,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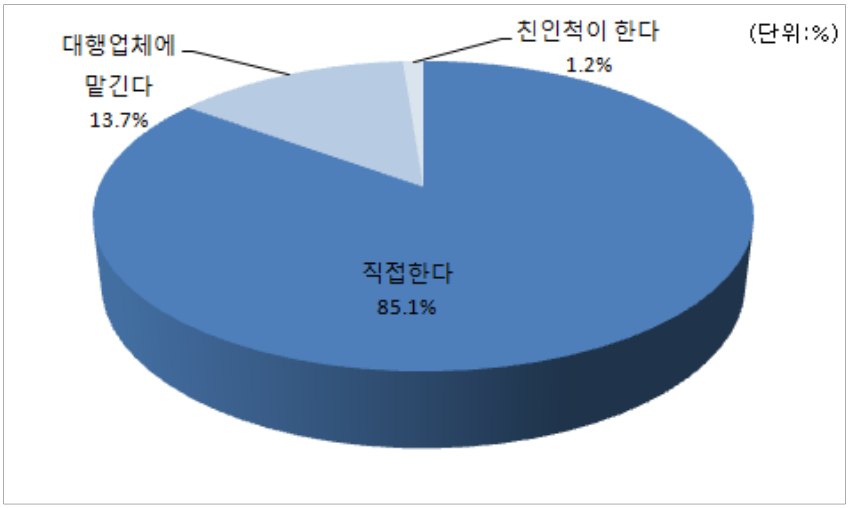
<그림 4-28> 벌초시기

○ 벌초를 하는 가구의 85.1%는 '직접'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2> 벌초 진행 주체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직접 한다	대행업체에 맡긴다	친인척이 한다	합계
2014년	비율	85.1	13.7	1.2	100.0
	빈도	4,859	785	69	5,713



<그림 4-29> 벌초 진행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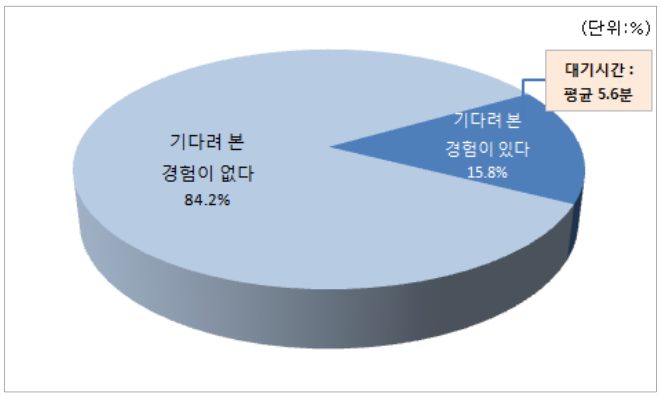
5) 휴게소 화장실 대기여부 및 시간

○ 지난 명절(설 또는 추석)때 귀성하는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5.8%이며, 평균 대기 시간은 5.6분임

<표 4-33>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이용을 위한 대기 여부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기다려 본 경험이 있다	평균 대기시간	기다려 본 경험이 없다	합계
2014년	비율	15.8	5.6분	84.2	100.0
	빈도	1,349		7,176	8,525



<그림 4-30>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이용을 위한 대기 여부

○ 같은 문항을 조사한 2008년 추석 간이조사와 비교하면, 화장실을 대기시간은 2008년 평균 7.6분에서 2014년 평균 5.6분으로 2.0분 개선되었음

- 2008년, 2014년 모두 여성의 대기시간은 남성 대비 긴 것으로 나타남

○ 2008년과 2014년의 평균 대기시간을 분석하면, 남성(1.2분 개선) 대비 여성(2.1분 개선) 화장실의 대기시간 개선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34>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이용을 위한 대기 시간

(단위: 분)

구 분		2008년 평균	2014년 평균
전체		7.6	5.6
성별	남	6.4	5.2
	여	7.8	5.7

6)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

○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으로는 '음식, 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노동'(28.7%), '귀성 및 귀경길 교통체증'(22.0%), '차례상 비용증가',(19.7%), '추석 선물비용'(19.0%)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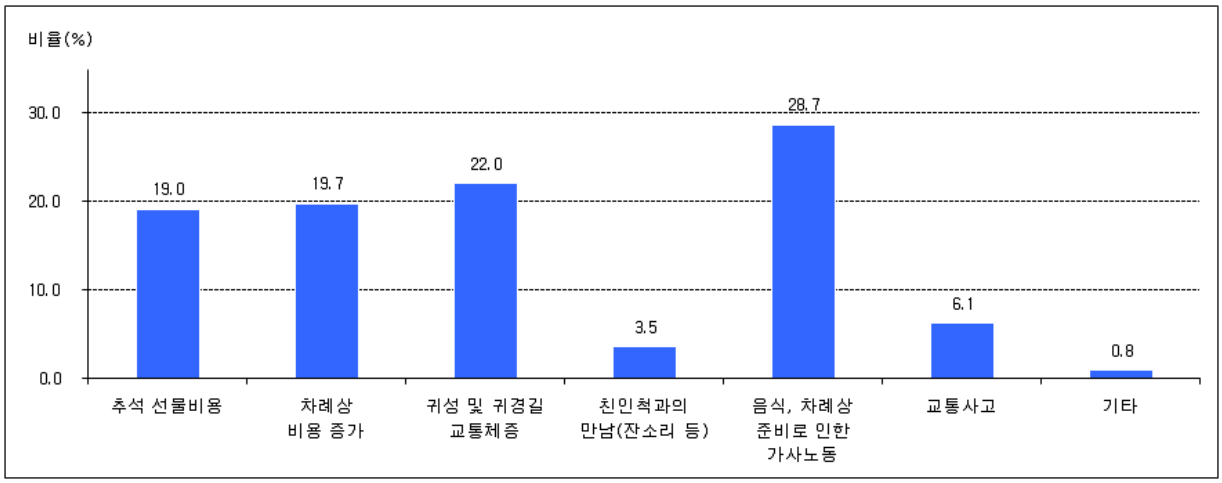
- 기타 응답으로는 '대중교통 예매', '교통비용' 등이 있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귀성 및 귀경길 교통체증'(33.4%)을, 여성은 '음식, 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노동'(35.4%)을 높은 비율로 응답함

<표 4-35>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추석 선물비용	차례상 비용증가	귀성 및 귀경길 교통체증	친인척과의 만남(잔소리 등)	음식, 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노동	교통사고	기타	합계
전체	비율		19.0	19.7	22.0	3.5	28.7	6.1	0.8	100.0
	빈도		1,140	1,181	1,318	210	1,720	368	50	5,987
성별	남	비율	21.4	18.0	33.4	4.1	11.1	10.7	1.3	100.0
		빈도	353	296	551	67	183	177	21	1,648
	여	비율	18.1	20.4	17.7	3.3	35.4	4.4	0.7	100.0
		빈도	787	885	767	143	1,537	191	29	4,339



<그림 4-31>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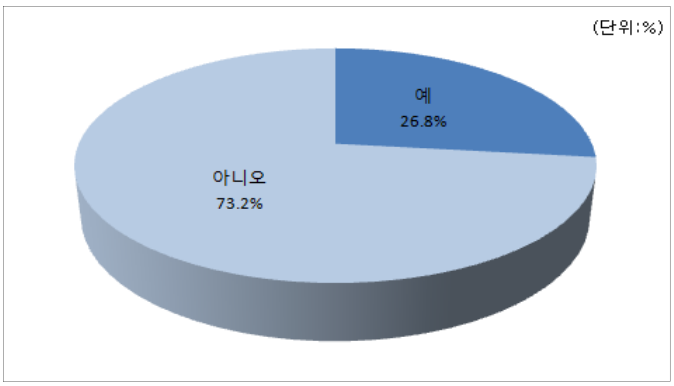
7) 추석연휴 특별교통 대책에 대한 인지도

○ 추석연휴특별교통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한 결과 응답자의 26.8%가 추석연휴특별교통대책에 대해 알고 있음

<표 4-36> 추석연휴특별교통대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예	아니오	합계
전체	비율	26.8	73.2	100.0
	빈도	2,402	6,548	8,950



<그림 4-32> 추석연휴특별교통대책에 대한 인지도

○ 2009년 대비 인지율은 1.8% 증가하였음

<표 4-37> 추석연휴특별교통대책에 대한 인지도 - 2009년/2014년

(단위: %)

구 분	2009년		2014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25.0	75.0	26.8	73.2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1.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수요예측 방법

○ 2014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은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7일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요예측방법도 기존의 특별교통대책과 유사한 방법을 적용함

○ 통행수요예측을 위한 우선적으로 수집될 전년도 추석연휴 기간 일별 수송실적 자료를 수집하여 특성을 파악함

- 귀성 및 귀경, 성묘 등 추석 특별 교통수요는 D-1일부터 D+1일에 집중될 것이며, D-2일과 D+2일은 평상시 통행과 귀성통행이 혼재한 것으로 가정함
- 평상시 통행과 혼재되어 있는 수송실적에서 설문조사에서 산출되는 일자별 귀경비율을 적용하여 귀성 및 귀경 통행을 산출하며, 나머지 통행을 평상시 통행인 것으로 간주함

○ 2014년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은 추석연휴를 중심으로 한 5일간 통행과 인접 주말 통행을 구분하여 예측함

- 연휴기간 포함 5일간 통행은 전년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을 기반으로 전년도 대비 올해의 연평균 증감률,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전년도 대비 올해의 귀성비율, 성묘통행 및 친지방문통행 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함
- 인접 주말동안의 통행수요는 전년도 수송실적 자료에서 관련 자료를 구득하기가 어려우므로, 과거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주말이 포함된 유사 경우에서 통행패턴과 주말 통행 특성 조사에 의한 평일 대비 주말통행특성을 고려하여 예측함

2013년 특별교통대책기간 수단별 수송실적 조사	○ 전년도인 2013년의 수단별 수송실적을 조사하여 2014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요예측에 활용
⇓	
2014년 특별 교통대책기간 통행 특성 설문조사	○ 전년도 2013년의 귀성여부와 올해 2014년의 귀성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통행패턴을 예측 ○ 지역간 무작위층화추출법을 적용하여 전국단위로 전화설문조사
⇓	
수단별 수송수요 (권역간 O/D) 예측	○ 2013년 수송실적자료와 2014년 통행패턴의 변화를 이용하여 2014년 권역간 수송수요를 예측 ○ 과거년도 연휴기간 통행패턴 변화 참조

<그림 4-33> 2014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예측과정

2. 수요예측 결과

- 2014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7일간) 전국 예상 이동인원은 총 3,945만명, 1일 평균 564만명으로 전망됨
- 1일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 추석(580만명/일)에 비해 2.9% 감소하고, 평시(329만명/일)보다 71.4%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추석연휴기간 중 귀성객 등이 이용할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84.4%, 버스(고속버스+시외·전세버스)가 11.2%, 철도가 3.3%, 항공 0.6%, 해운 0.5%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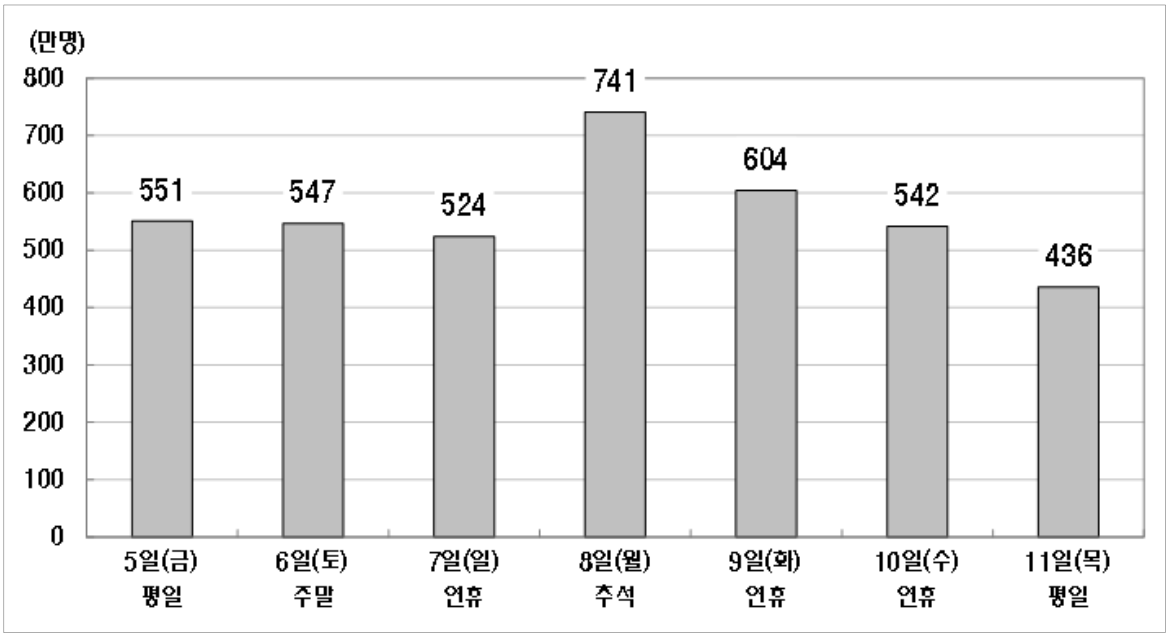
<표 4-38> 2014년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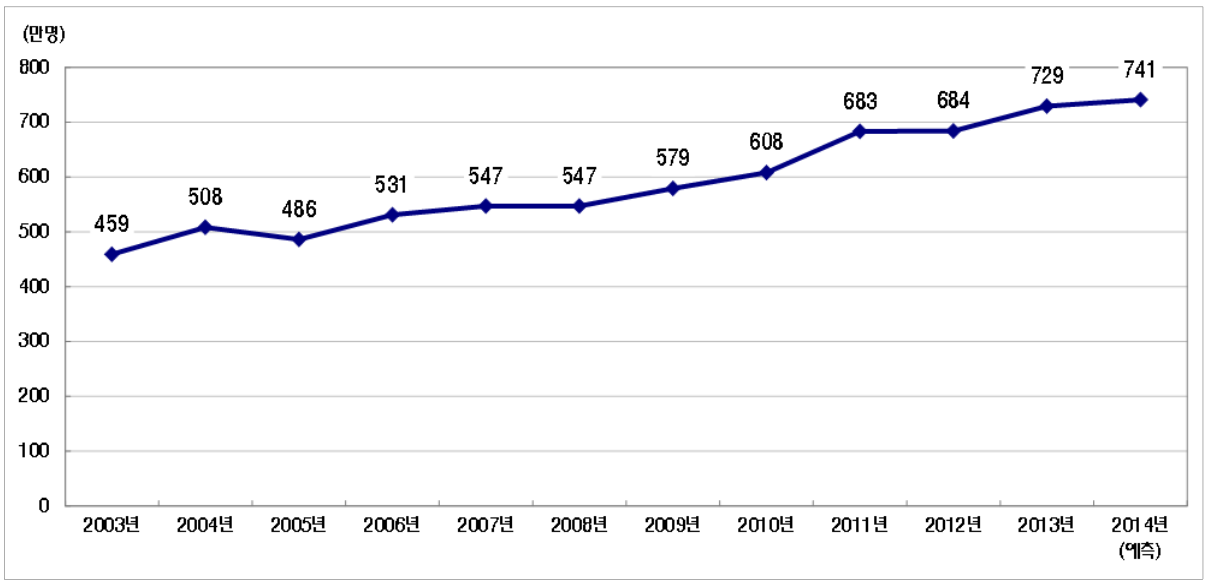
구분 / 교통수단			평시 1일 수송량	추석연휴기간('14.9.5~9.11)			평시대비 (%)
				일평균 이동인원	7일 총 이동인원	분담률 (%)	
도로	승용차		2,502	4,759	33,313	84.4	190.2
도로	버스	고속버스	45	67	468	1.2	148.9
도로	버스	시외·전세	553	561	3,930	10.0	101.5
철도			140	185	1,293	3.3	131.9
항공			29	33	233	0.6	112.2
해운			18	30	210	0.5	163.9
합계			3,288	5,635	39,447	100.0	171.4

주: 1)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로 한정하였으며, 폐쇄식 구간을 기준으로 함
2) 수단별 수송실적 자료는 각 기관에서 수집하여 사용함
3) 과거의 수송실적현황과 설연휴 통행패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용한 통행수요임

- 1일 최대 이동인원은 9월 8일(추석 당일) 741만명으로 작년 대비(729만명, 9월 19일 추석 당일) 1.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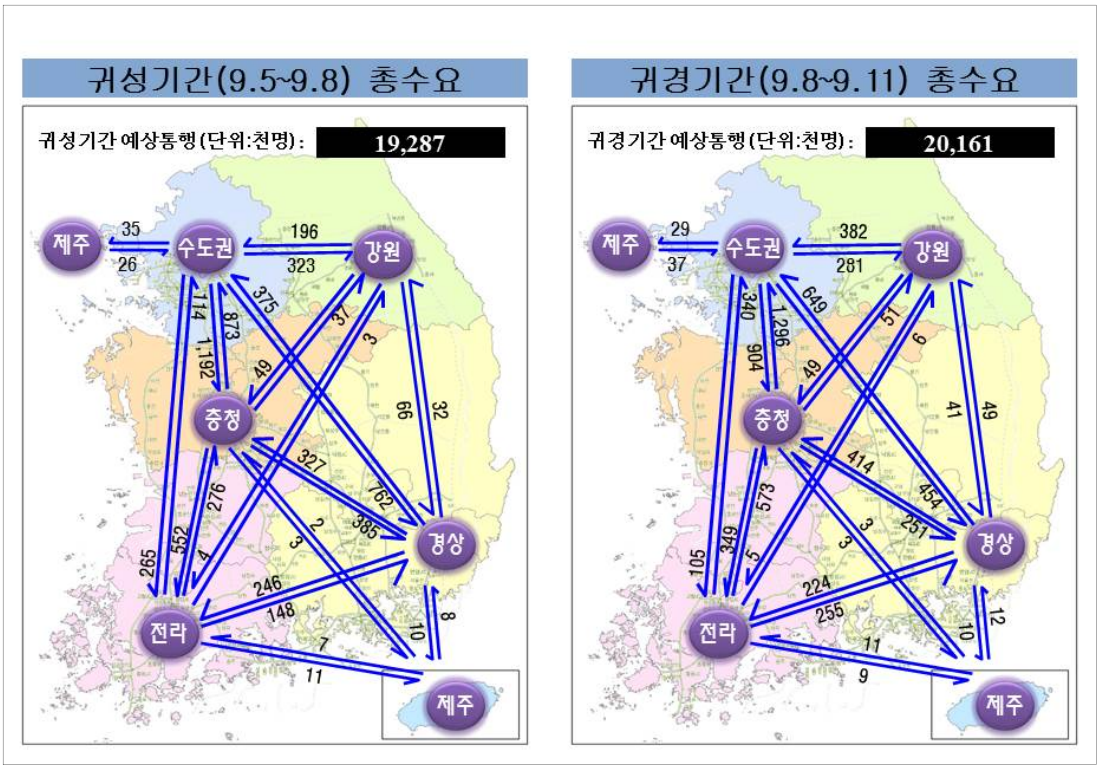


<그림 4-34> 2014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일자별 이동수요(전망)



<그림 4-35> 2014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연도별 하루최대 이동 추이

○ 추석 연휴기간 동안 예상되는 지역간 이동은 귀성시 1,929만명, 귀경시 2,016만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통행 중 수도권에서 출발하거나 수도권으로 도착하는 통행이 귀성시 41.8%, 귀경시 39.7%를 차지하여 각 권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과 충청권역의 고속도로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그림 4-36> 2014년 추석 귀성, 귀경기간 권역간 통행수요

제4절 사후평가

1. 사후평가 방법론

○ 특별교통대책용 교통수요예측결과와 특별교통대책기간 실적자료 간의 비교하기 위하여 특별교통대책기간 완료 이후 집계 가능한 수단별 수송실적을 활용하여 사후평가 함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해운조합,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수송실적 수집 자료 : 2014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9.5~9.11, 7일간)의 일별 출발·도착지별 여객 수송실적 및 일별 총 수송실적
- 대중교통 중 시외·전세버스 실적은 수집이 불가능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함

2. 사후평가 결과

○ 2014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1일 평균 예측치는 5,074천명, 실제 이동인원은 5,043천명으로 100.6%의 정확도로 예측되었으며, 0.6% 과대예측함

- 대부분 교통수단의 오차율이 5% 이내이지만, 고속버스가 16.5%로 가장 큰 오차를 보임

○ 2014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 작년 동기간보다 2.8% 감소, 2014년 평시보다 53.4% 증가

<표 4-39> 2014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

(단위: 천명)

교통수단	2013년 실적 (일평균) (A)	2014년 평시 (일평균) (B)	2014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정확도 (E) (C÷D×100) (%)	오차율[3] (E-100) (%)	전년대비 (D÷A×100) (%)	평시대비 (D÷B×100) (%)
			예측		실적					
			1일평균 (C)	기간 전체	1일평균 (D)	기간 전체				
승용차	4,846	2,502	4,759	33,312	4,715	33,002	100.9	▲0.9	97.3	188.5
고속버스	70	45	67	468	80	561	83.5	▼16.5	113.9	177.7
철도	200	140	185	1,293	186	1,302	99.3	▼0.7	93.0	132.6
항공	32	29	33	233	33	230	101.5	▲1.5	102.8	112.3
해운	37	18	30	210	29	206	103.6	▲3.6	78.4	158.5
전체	5,186	3,288	5,074	35,516	5,043	35,301	100.6	▲0.6	97.2	153.4

주: 1) 대중교통 중 시외·전세버스 실적은 수집이 불가능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
2)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 폐쇄식구간 통행에 한함
3) 오차율 : ▲ - 과대예측, ▼ - 과소예측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제1절 결론

제2절 향후 과제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제1절 결론

○ 본 과업은 하계휴가, 추석연휴 기간 동안 평시와 달리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수단별 특별 수송수요를 예측하여 각 기간별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 유효표본오차 및 전체표본오차 개선을 위해 유효표본수를 증대시켰으며, 통행시 의사결정권자의 남성의 응답비율 증가를 위해 기존 오전 10시~오후 6시에서 오후 13시~21시로 조사시간대를 변경하였으며 더불어 주말조사를 추가하였음
- 조사지침서, 조사원 평가표, 내검 및 코딩가이드, 상담품질관리 가이드 등에 대한 지침을 매뉴얼화하였으며, 다수의 자문회의를 통하여 조사표를 삭제, 변경 추가하였으며 조사시기별 추가된 문항은 아래와 같음
  - · 2014년 설연휴[11] : 명절연휴 귀성 필요성, 설 당일 계획, 대중교통 동행인원, 대중교통 이용 이유, 처가(친정) 방문여부, 휴게소 화장실 대기여부 및 대기시간
  - · 2014년 하계휴가 : 안전용품 구비여부, 휴가 사용시기, 7월5주~8월1주 휴가 계획 이유, 여행전 차량점검 여부, 지난 휴가시 차량고장 경험
  - · 2014년 추석연휴 : 대체휴일제 인지도, 귀성 및 여행에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 처가로의 출발일, 벌초 시기 및 벌초 방법,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 추석연휴 특별교통 대책 인지도
-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의 공간적 범위 확대(수도권 및 광역시→전국) 및 표본수 증대(약 4천표본→9천표본)로 조사의 신뢰도 제고
-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부터 응답자에게 답례품(경품)을 제공하여, 조사 응답률을 증대하였음

○ 교통수요예측방법

- 2014년도 사업은 2013년도 사업에서 적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전년도 특별교통대책기간의 수송실적과 사전 설문조사결과에 근거하여 평시 통행과 특별(연휴, 휴가 등) 통행을 구분하

11)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는 2013년 사업에서 수행되었음

여 교통수요를 예측하였음

- 추석연휴 특별교통수요 예측을 위해서는 통행 목적을 평상시 통행, 귀성·귀경통행(역귀성 포함)으로 세분화함. 즉, 평상시 통행은 전년도 대비 올해의 연평균 증감률을 적용하였으며, 귀성 및 귀경통행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전년도 대비 올해의 귀성비율을 적용하였음
- 공간적 단위로는 귀성, 귀경 수요 제공시 전국을 6개 권역(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기종점 통행량을 구축 및 제시하였음

○ 특별교통대책기간별 교통수요특성

- 하계휴가 수요는 주5일근무제의 확대와 휴가기간의 증가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였고, 2014년에도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설과 추석연휴 기간의 귀성 수요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음

○ 사후평가결과

- 특별교통대책기간 이후 특별교통대책 추진결과보고에서 특별교통수요예측결과와 각 수단별 수송실적 집계자료에 의거한 총 수송인원을 비교하여 평가하였음
  - · 전체수단 기준(시외·전세버스 제외) 2014년 설의 경우 5.2%, 2014년 하계휴가의 경우 20.6%, 2014년 추석연휴의 경우는 0.6%의 오차율을 보임
  - · 오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수단은 설과 하계휴가의 경우 해운(설 16.7%, 하계휴가 77.3%), 추석연휴의 경우 고속버스가 16.5%로 가장 큰 오차를 보였음

제2절 향후 과제

○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특별교통수요에서 발견되는 통행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 예측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초자료를 상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승용차 통행의 시·공간적 이동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위한 자료 보완 대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함
- 최근 첨단기기를 활용하여 교통정보의 취득 및 활용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 정체를 피할 수 있는 우회국도 선택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내비게이션 자료 및 국도 교통량조사 자료가 확보될 경우, 이 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수요예측방법을 도입하여 기존 수요예측 방법론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

○ 과거의 통행수요 예측치와 고속도로 TCS 자료와 같은 수송실적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예측모형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사전 및 간이조사로 구분하는 현행 방법은 특별교통대책 기간 보다 30여일 전에 시행되는 사전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간이조사를 시행하나, 연말연시, 여름휴가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의 보완조사로서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2010년 제안)

- 이에, 2013년에 이어 간이조사를 생략하는 대신 사전조사 표본수를 늘려 수행하였음
- 사후조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예측된 통행수요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사전응답과 실제 결과간의 편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전조사의 유효표본수 및 사후조사의 표본수를 늘려 수행하는 것이 필요로 함

부 록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설문지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설문지

2014년 추석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설문지

언론보도실적 정리

2014년 설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설문지

1. 사전조사

이 조사표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를 준수합니다.

2014년 설연휴 기간 중 통행실태 조사

<설 사전조사>

주 최 : 국토교통부
주 관 :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조사 의뢰를 받은 리서치랩의 조사상담원 OOO입니다.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설 연휴기간 교통대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단지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자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 : 2014년 1월 2일~6일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실사연구원 박정아 과장 (Tel. 02-559-2791)

조사지역 Quota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17. 세종시

본 조사는 리서치랩의 면접 지침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_____ **면접원 ID**	**S/V 확인** _____

Section 0. 응답자 선정 질문

SQ1. 응답자 성별

※ 질문하지 말고 적을 것

① 남 ② 여

SQ2. 실례지만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 19세~29세
(※고등학생을 제외한 만 19세 이상부터 조사 진행)
② 만 30세~39세
③ 만 40세~49세
④ 만 50세~59세
⑤ 만 60세~69세 이하

Section Ⅰ. 작년(2013년) 설 연휴

1. 귀댁에서는 작년(2013년) 설 연휴에 귀성(또는 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① 귀성
② 여행
③ 귀성 및 여행
▷문2로 이동
④ 안갔음 ▷문3으로 이동

2. 귀댁에서 작년 설(2013년) 귀성(또는 여행) 및 귀가 시 주로 이용하셨던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자가용(승용차) ② 자가용(승합차)
③ 고속버스 ④ 시외버스 ⑤ 전세/관광버스
⑥ 열차(무궁화, 새마을, 관광열차) ⑦ 고속철도(KTX)
⑧ 비행기 ⑨ 선박
⑩ 렌트카 ⑪ 기타( )
⑫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응답후 문3으로 이동

SectionⅡ. 올해(2014년) 설 연휴 귀성 및 여행

- **설 연휴 기간은 1월 30일(목), 1월 31일(금), 2월 1일(토) 입니다.**

3. 귀댁에서는 올해(2014년) 설 연휴기간을 이용한 귀성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귀성 한다 ▷문3-1로 이동
② 귀성 계획이 없다 ▷문4로 이동
③ 미정 ▷문4로 이동

3-1. 그럼 몇 곳을 가세요?
① 한 곳 ▷문3-2로 이동
② 두 곳 ③ 세 곳 이상 ▷문3-3으로 이동

3-2. 올해(2014년) 설 연휴에 어느 지역으로 귀성을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1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3-3. 올해(2014년) 설 연휴에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으로 귀성을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1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3-4. 거주지(출발지)와 귀성지역이 동일한 권역(17개 시도 기준)인가요? (예 : 서울→서울, 경남→경남 등)
① 예 ▷문4로 이동 ② 아니오 ▷문3-5로 이동

3-5. (문3-4의 ②의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명절 연휴에 귀성을 꼭 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응답후 문4로 이동

4. 그럼, 귀댁에서는 설 연휴기간을 이용한 여행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여행 한다 ▷문4-1로 이동
② 여행 계획이 없다
문3-4의 응답이 '①예'인 경우 ▷문6으로 이동
문3-4의 응답이 '②아니오'인 경우 ▷문8-1로 이동
문3의 응답이 '②아니오'인 경우 ▷문6으로 이동
문3의 응답이 '③미정'인 경우 ▷문5-1로 이동

4-1. 그럼 몇 곳을 가세요?
① 한 곳 ▷문4-2로 이동 ② 두 곳 ▷문4-3으로 이동
③ 세 곳 이상 ▷문4-3으로 이동

4-2. 올해(2014년) 설 연휴에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1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문3-4의 ②와 문4의 ①응답자는 문5로 이동
▷문3의 ②③, 3-4의 ①, 문4의 ①응답자는 문8-1로 이동

4-3. 올해(2014년) 설 연휴에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1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문3-4의 ②와 문4의 ①응답자는 문5로 이동
▷문3의 ②③, 3-4의 ①, 문4의 ①응답자는 문8-1로 이동
▷응답후 문8-1로 이동

5. (문3의 '①귀성 한다'와 문4의 '①여행한다'를 둘 다 선택한 응답자만) 그럼 귀성을 먼저 가시나요? 여행을 먼저 가시나요?
① 귀성 먼저 간다 ② 여행 먼저 간다
▷응답후 문8-1로 이동

5-1. (문3의 '③미정을 선택한 응답자만) 그럼 설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귀성/여행 할 가능성이 높음
② 귀성/여행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응답후 문8로 이동

6. (문3의 '②없다', 문4의 '②없다' 둘 다 응답한 응답자만) 그럼, 설 연휴기간 중 귀성(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①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 ▷문7로 이동
②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
③ 지출비용의 부담 때문에 ④ 업무(생업) 때문에
⑤ 설 연휴기간 외에 귀성(또는 여행)
⑥ 교통혼잡 때문에 ⑦ 기타( )
⑧ 모름/무응답
▷응답후 문8로 이동

7. (문6의'①'응답자만)다른 가족들이 역귀성을 하신다면 어느 분께서, 어느 지역에서 출발해서 오실 예정입니까? (※ 복수응답 가능)

문	가족 구분	광역시/도 code	시/군/구 code
7-1	① 부모님 ② 친지 ③ 자녀		
7-2	① 부모님 ② 친지 ③ 자녀 ④ 없음		
7-3	① 부모님 ② 친지 ③ 자녀 ④ 없음		

8. (문3의 '③미정', 문3의 '②없다', 문4의 '②없다' 둘 다 응답한 응답자만)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다면 설 당일에는 주로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복수)
① 위락시설 이용 ② 휴식 ③ 친교활동
④ 성묘 ⑤ 생업 ⑥ 친지방문 ⑦ 본가방문
⑧ 처가방문 ⑨ 차례/제사 ⑩ 기타( )
▷응답후 문22로 이동

8-1. (귀성 및 여행계획이 있는 경우-문3의 ①, 문4의 ①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설 당일에는 주로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복수)
① 위락시설 이용 ② 휴식 ③ 친교활동
④ 성묘 ⑤ 생업 ⑥ 친지방문 ⑦ 본가방문
⑧ 처가방문 ⑨ 차례/제사 ⑩ 기타( )

9. 귀성(또는 여행)의 출발 날짜는 대략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2014년도 설연휴 : 1월 30일(목)~2월 1일(토))

※ 반드시 출발일을 물어보시고, 보기의 일자를 꼭 읽어주세요

① 1.28(화, 평일) 이전 ② 1.29(수, 평일)
③ 1.30(목, 설연휴) ④ 1.31(금, 설당일)
⑤ 2.1(토, 설연휴) ⑥ 2.2(일, 주말)
⑦ 2.3(월, 평일) ⑧ 2.4(화, 평일)
⑨ 2.5(수, 평일) 이후 ⑩ 미정

10. 귀성 또는 여행가실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① 0시~오전3시 미만 ② 오전3시~오전6시 미만
③ 오전6시~오전9시 미만 ④ 오전9시~오후12시 미만
⑤ 오후12시~오후3시 미만 ⑥ 오후3시~오후6시 미만
⑦ 오후6시~오후9시 미만 ⑧ 오후9시~자정 미만 ⑨ 미정

11. 그럼, 귀가시(또는 여행 후) 돌아올 날짜는 대략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 반드시 출발일을 물어보시고, 보기의 일자를 꼭 읽어주세요

① 1.28(화, 평일) 이전 ② 1.29(수, 평일)
③ 1.30(목, 설연휴) ④ 1.31(금, 설당일)
⑤ 2.1(토, 설연휴) ⑥ 2.2(일, 주말)
⑦ 2.3(월, 평일) ⑧ 2.4(화, 평일)
⑨ 2.5(수, 평일) 이후 ⑩ 미정

12. 귀가시(또는 여행 후) 돌아올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① 0시~오전3시 미만 ② 오전3시~오전6시 미만
③ 오전6시~오전9시 미만 ④ 오전9시~오후12시 미만
⑤ 오후12시~오후3시 미만 ⑥ 오후3시~오후6시 미만
⑦ 오후6시~오후9시 미만 ⑧ 오후9시~자정 미만 ⑨ 미정

SectionⅢ. 주이용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13. 귀댁은 자가용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4. 귀댁에서 귀성(또는 여행) 및 귀가시 주로 이용하실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자가용(승용차) ② 자가용(승합차)
▶문15로 이동
③ 고속버스 ④ 시외버스 ⑤ 전세/관광버스
⑥ 열차(무궁화, 새마을, 관광열차) ⑦ 고속철도(KTX)
⑧ 비행기 ⑨ 선박
▶문15-1로 이동
⑩ 렌트카 ▶문15로 이동
⑪ 기타( ) ▶문15-1로 이동
⑫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문19-1로 이동

15. (문14의 '①자가용, ②자가용(승합차)' 응답자만) 귀댁의 차량으로 본인을 포함해서 귀성(또는 여행)을 함께 가실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⑪ 기타( )명

15-1. (문14의 '⑤~⑪' 응답자만) 본인을 포함해서 귀성(또는 여행)을 함께 가실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⑪ 기타( )명

16. (문14의 '①자가용, ②자가용(승합차)' 응답자만) 귀성(또는 여행)시 어떤 도로를 이용하실 예정입니까?
① 고속도로만 이용 ▶문17로 이동
② 국도/지방도만 이용 ▶문19로 이동
③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를 동시에 이용 ▶문17로 이동

17. (문16의 ①, ③응답자만) 그럼, 고속도로 이용시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할 노선을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할 노선	( )

① 경부선 ② 중부선 ③ 영동선
④ 호남선(천안-논산선) ⑤ 서해안선 ⑥ 중부내륙선
⑦ 중앙선 ⑧ 남해선 ⑨ 익산-포항선
⑩ BB콜림픽고속도로(무안-광주선) ⑪ 경춘선
⑫ 당진-상주선 ⑬ 서천-공주선 ⑭ 미정
⑮ 기타( ) ⑯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18. (문13의 ①응답자 중 문14의 ③~⑨응답자만)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지출비용(유류비 등)의 부담 때문에
② 동행인원의 변경으로 인해
③ 교통 혼잡으로 인해
④ 가족구성원이 따로 이동해서
⑤ 기타( )

SectionⅣ. 설 연휴 교통비용

※ (문19) 다음은 이번 설 연휴(2014년)와 지난 설연휴(2013년) 귀성 및 귀경(또는 여행)을 위한 교통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9-1. 올해 설 연휴(2014년) 예상되는 귀성 및 귀경(또는 여행)을 위한 교통비용은 얼마입니까?
(모름/무응답 : 9999)

※ 교통비용은 왕복 기준으로 응답받음 → 승용차(유류비+고속도로 통행요금), 기타(대중교통비 즉, 승차권 포함)

올해(2014년) 설연휴 교통비용	( ) 만원

19-2. 작년 설 연휴(2013년) 귀성 및 귀경(또는 여행)을 위한 교통비용은 얼마입니까?(모름/무응답 : 9999)

※ 교통비용은 왕복 기준으로 응답받음 → 승용차(유류비+고속도로 통행요금), 기타(대중교통비 즉, 승차권 포함)

작년(2013년) 설연휴 교통비용	( ) 만원

SectionⅤ. 교통상황 안내정보의 이용

20. 귀댁에서는 평소 설연휴 기간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이용하십니까?
① 예 ▶문20-1 응답후 문20-2로 이동
② 아니오 ▶문21로 이동
③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문21로 이동

20-1. (문20의 '①예'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평소 습득하신 교통상황 안내정보에 따라 출발시간이나 노선을 변경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응답후 문20-2로 이동

20-2. (문20의 '①예' 응답자만) 그럼,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
(교통정보 수신처)
① PC, 노트북 인터넷 정보
② 휴대폰, 스마트폰 ▶문20-3으로 이동
③ 라디오 ④ TV ⑤ 신문
⑥ 도로 전광판 ⑦ 내비게이션 ⑧ ARS전화
⑨ 기타( )
⑩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문20-3. **(문20-2의 '⑧'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통해 얻고 계십니까?
①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야후 등)
② 공공기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공사, 지자체 등)
③ SNS(카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④ 도로교통 정보제공 어플
⑤ 내비게이션 어플(티맵, 올레내비, 김대리 등)의 실시간 교통정보
⑥ 기타( )

SectionⅥ. 기타 사항

21. 귀댁에서는 본가(시댁/친가)와 처가(친정/외가) 중 어디를 방문하실 예정입니까?
① 본가(시댁/친가)만 방문 ② 처가(친정/외가)만 방문
③ 둘 다 방문 ④ 둘 다 방문하지 않음
⑤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 문22부터는 귀성 또는 여행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응답자에게 질문

22. 귀댁에서는 올해(2014년) 설의 귀성 및 귀경을 위해 연휴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① 예 ▶문22-1로 이동
② 아니오 ▶문23으로 이동

22-1. 그럼, 계획하신 휴가일 수를 설 연휴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세요.
설연휴 이전( )일, 설연휴 이후( )일

23. 귀댁에서는 지난 명절(설 또는 추석)때, 귀성하는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기다려 본 경험이 있다
→ 그럼, 평균 몇 분 정도 기다리셨습니까?
평균( )분
② 기다려 본 경험이 없다
③ 휴게소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다

SectionⅦ. 응답자 특성

※ 지금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응답자 특성 분류를 위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DQ1. 실례지만 귀댁의 가족은 본인을 포함해서 총 몇 분이십니까? (총 명)
③ 모름/무응답 (읽어주지 말것)

DQ2.귀댁의 세대주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 19세 이하 ② 만 20세~29세
③ 만 30세~39세 ④ 만 40세~49세
⑤ 만 50세~59세 ⑥ 만 60세 이상

DQ3. 귀댁 세대주의 현재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기혼여자로 정규직일 경우는 직업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① 관리자
② 전문가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군인 ⑪ 학생 ⑫ 전업주부
⑬ 무직 ⑭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사후조사

이 조사표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를 준수합니다.

2014년 설연휴 기간 중 통행실태 조사

<설 사후조사>

주 최 : 국토교통부
주 관 :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조사 의뢰를 받은 리서치랩의 조사상담원 OOO입니다.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설 연휴기간 교통대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달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응답해주신 설문항목 중 몇 가지만 확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 : 2014년 2월 6일~7일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실사연구원 박정아 과장 (Tel. 02-559-2791)

조사지역 Quota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17. 세종시

본 조사는 리서치랩의 면접 지침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_____ 면접원 ID	S/V 확인 _____

Section 0. 응답자 선정 질문

SQ1. 응답자 성별

※ 질문하지 말고 적을 것

① 남 ② 여

SQ2. 실례지만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 19세~29세
(※고등학생을 제외한 만 19세 이상부터 조사 진행)
② 만 30세~39세 ③ 만 40세~49세
④ 만 50세~59세 ⑤ 만 60세~69세 이하

Section I. 올해(2014년) 설 연휴

※ 사전조사 응답내역이 이미 기재되어 나옴

1. (사전조사에서 응답 받은) 올해(2014년) 설 연휴기간을 이용한 귀성 또는 여행 계획 여부 :
① 귀성 ② 여행 ③ 귀성 및 여행
④ 미정 ⑤ 안감

2. 귀댁에서는 지난 설 연휴기간(1월 30일(목)~2월 1일(토))) 이용해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① 귀성 → Q2-1.그럼, 한 곳만 다녀오셨나요?
(① 한 곳, ② 두 곳, ③ 세 곳 이상)
② 여행 → Q2-2.그럼, 한 곳만 다녀오셨나요?
(① 한 곳, ② 두 곳, ③ 세 곳 이상)
③ 귀성 및 여행 → Q2-3.그럼, 귀성 또는 여행 먼저 가셨나요? (① 귀성 먼저, ② 여행 먼저)
④ 안감

[※ 조건문]
문1.귀성/여행/귀성 및 여행 => 문2.귀성 = 문5-1.귀성지역1 => (다수귀성 조건문) => 문5-1.귀성지역2
문1.귀성/여행/귀성 및 여행 => 문2.여행 = 문5-2.여행지역1 => (다수여행 조건문) => 문5-2.여행지역2
문1.귀성/여행/귀성 및 여행 => 문2-3.귀성 여행 우선순위 => 문5-3.귀성여행 / 문5-4.여행귀성
문1.귀성/여행/귀성 및 여행 => 문2.안감 = 문4.귀성 여행 취소 이유
문1.미정/안감 => 문2.귀성 = 문5-1.귀성지역1 => (다수귀성 조건문) => 문5-1.귀성지역2
문1.미정/안감 => 문2.여행 = 문5-2.여행지역1 => (다수여행 조건문) => 문5-2.여행지역2
문1.미정/안감 => 문2-3.귀성 여행 우선순위 => 문5-3.귀성 여행 / 문5-4.여행귀성
문1.미정/안감 => 문2.안감 = 문3. 귀성 여행 없는 이유

3. 설 연휴기간 중 귀성(또는 여행)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 ▷문3-1로 이동
②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
③ 지출비용의 부담 때문에 ④ 업무(생업) 때문에
⑤ 설 연휴기간 외에 귀성(또는 여행)
⑥ 교통혼잡 때문에 ⑦ 기타( )
⑧ 모름/무응답
▷문16으로 이동

4. 지난달 사전조사와 달리 설 연휴기간을 이용한 귀성 또는 여행계획을 취소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 ▶문3-1로 이동
②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
③ 지출비용의 부담 때문에 ④ 업무(생업) 때문에
⑤ 설 연휴기간 외에 귀성(또는 여행)
⑥ 교통혼잡 때문에 ⑦ 기타( ) ⑧ 모름/무응답
▶문16으로 이동

3-1. (문3, 4의 ①응답자만)다른 가족들이 역귀성을 하셨다면 어느 분께서, 어느 지역에서 출발해서 오셨습니까? (※ 복수응답 가능)

문	가족 구분	광역시/도 code	시/군/구 code
3-1	① 부모님 ② 친지 ③ 자녀		
3-2	① 부모님 ② 친지 ③ 자녀 ④ 없음		
3-3	① 부모님 ② 친지 ③ 자녀 ④ 없음		

▶문16으로 이동

※ CATI시스템의 조건문에 따라 귀성 및 여행지역을 각각 응답받음

5-1. 올해 설 연휴에 귀성은 어느 지역으로 다녀오셨습니까?

1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5-2. 올해 설 연휴에 여행은 어느 지역으로 다녀오셨습니까?

1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5-3. 올해 설 연휴에 어느 지역으로 귀성을 가시고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1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5-4. 올해 설 연휴에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가시고 어느 지역으로 귀성을 다녀오셨습니까?

1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5-5. (문5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성 또는 여행 지역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 또는 여행지역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부모님이 거주지를 변경해서
② 귀성(또는 여행) 다녀오는 순서를 변경해서
③ 친가 또는 처가 중 한곳만 다녀와서
④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⑤ 지출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⑥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⑦ 기상여건 때문에
⑧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⑨ 기타 ( )
⑩ 모름/무응답

6. 귀성(또는 여행)의 출발 날짜는 대략 언제였습니까?
(※2014년도 설연휴 : 1월 30일(목)~2월 1일(토))

※ 반드시 출발일을 물어보시고, 보기의 일자를 꼭 읽어주세요

① 1.28(화, 평일) 이전 ② 1.29(수, 평일)
③ 1.30(목, 설연휴) ④ 1.31(금, 설당일)
⑤ 2.1(토, 설연휴) ⑥ 2.2(일, 주말)
⑦ 2.3(월, 평일) ⑧ 2.4(화, 평일)
⑨ 2.5(수, 평일) 이후 ⑩ 모름/무응답

6-1. (문6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출발 날짜가 △△△라고 하셨는데, 귀성시 출발 날짜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③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④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⑤ 기상여건 때문에 ⑥ 기타 ( )
⑦ 모름/무응답

7. 귀성 또는 여행가실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였습니까?
① 0시~오전3시 미만 ② 오전3시~오전6시 미만
③ 오전6시~오전9시 미만 ④ 오전9시~오후12시 미만
⑤ 오후12시~오후3시 미만 ⑥ 오후3시~오후6시 미만
⑦ 오후6시~오후9시 미만 ⑧ 오후9시~자정 미만
⑨ 모름/무응답

7-1. (문7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출발시간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시 출발 시간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③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④ 교통정보 확인후 출발하여
⑤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⑥ 일행의 시간에 맞추려고
⑦ 기상여건 때문에 ⑧ 기타 ( )
⑨ 모름/무응답

8. 그럼, 귀가시(또는 여행 후) 귀가 날짜는 언제였습니까?

※ 반드시 출발일을 물어보시고, 보기의 일자를 꼭 읽어주세요

① 1.28(화, 평일) 이전 ② 1.29(수, 평일)
③ 1.30(목, 설연휴) ④ 1.31(금, 설당일)
⑤ 2.1(토, 설연휴) ⑥ 2.2(일, 주말)
⑦ 2.3(월, 평일) ⑧ 2.4(화, 평일)
⑨ 2.5(수, 평일) 이후 ⑩ 모름/무응답

8-1. (문8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가 날짜가 △△△라고 하셨는데, 귀가시 출발 날짜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③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④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⑤ 기상여건 때문에 ⑥ 기타 ( )
⑦ 모름/무응답

9. 귀가시(또는 여행 후) 돌아올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였습니까?
① 0시~오전3시 미만 ② 오전3시~오전6시 미만
③ 오전6시~오전9시 미만 ④ 오전9시~오후12시 미만
⑤ 오후12시~오후3시 미만 ⑥ 오후3시~오후6시 미만
⑦ 오후6시~오후9시 미만 ⑧ 오후9시~자정 미만
⑨ 모름/무응답

9-1. (문9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가시 출발시간이 △△△라고 하셨는데,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③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④ 교통정보 확인후 출발하여
⑤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⑥ 일행의 시간에 맞추려고
⑦ 기상여건 때문에 ⑧ 기타 ( )
⑨ 모름/무응답

10. 귀하께서는 출발하여서 목적지까지 그리고 목적지까지 그리고 목적지로부터 귀가지역까지 소요시간은 각각 얼마가 걸리셨습니까?

10-1. 출발지역부터 목적지까지 귀성 또는 여행시 소요시간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7시간미만 ⑧ 7시간 이상~8시간 미만
⑨ 8시간 이상

10-2. 목적지부터 귀가지역까지 귀가시 소요시간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7시간 미만 ⑧ 7시간 이상~8시간 미만
⑨ 8시간 이상

SectionⅡ 주이용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11. 귀댁은 자가용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2. 귀댁에서 귀성(또는 여행) 및 귀가시 주로 이용하신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자가용(승용차) ② 자가용(승합차)
▶문12-3로 이동
③ 고속버스 ④ 시외버스 ⑤ 전세/관광버스
⑥ 열차(무궁화, 새마을, 관광열차) ⑦ 고속철도(KTX)
⑧ 비행기 ⑨ 선박
▶문12-4로 이동
⑩ 렌트카 **▶문12-3로 이동**
⑪ 기타( ) **▶문12-4로 이동**
⑫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문14로 이동**

12-1. (문12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이용 교통수단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 또는 여행시 주로 이용하신 교통수단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일정이 변경되었기 때문
② 지출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③ 귀성/여행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동행인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⑤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⑥ 대중교통 예매를 못했기 때문에
⑦ 대중교통을 예매하였기 때문에
⑧ 기상여건 때문에 ⑨ 기타 ( )
⑩ 모름/무응답

12-2. (문11의 ①응답자 중 문12의 ⑨~⑨응답자만)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지출비용(유류비 등)의 부담 때문에
② 동행인원의 변경으로 인해
③ 교통 혼잡으로 인해 ④ 가족구성원이 따로 이동해서
⑤ 비행기를 이용해야 해서 ⑥ 기타( )

12-3. (문12의 '①,② 자가용' 응답자만) 귀댁의 차량으로 본인을 포함해서 귀성(또는 여행)을 함께 가신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⑪ 기타( )명

12-4. (문12의 '⑨~⑪' 응답자만) 본인을 포함해서 귀성(또는 여행)을 함께 가신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⑪ 기타( )명

13. (문12의 '①,② 자가용' 응답자만) 귀성(또는 여행)시 어떤 도로를 이용하셨습니까?
① 고속도로만 이용 **▶문13-2로 이동**
② 국도/지방도만 이용 **▶문14로 이동**
③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를 동시에 이용 **▶문13-2로 이동**

13-1. (문13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 도로를 이용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도로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②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③ 귀성/여행 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우회도로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⑤ 기상여건 때문에 ⑥ 기타 ( )
⑦ 모름/무응답

13-2. (문13의 ①, ③응답자만) 그럼, 고속도로 이용시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한 노선은 무엇입니까?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할 노선	( )

① 경부선 ② 중부선 ③ 영동선
④ 호남선(천안-논산선) ⑤ 서해안선 ⑥ 중부내륙선
⑦ 중앙선 ⑧ 남해선 ⑨ 익산-포항선
⑩ 88올림픽고속도로(무안-광주선) ⑪ 경춘선
⑫ 당진-상주선 ⑬ 서천-공주선 ⑭ 기타( )
⑮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3-3. (문13-2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이용 노선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노선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통 체증 상황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②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③ 귀성/여행 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기상여건 때문에 ⑤ 기타 ( )
⑥ 모름/무응답

SectionⅢ. 설 연휴 교통비용

14. 올해(2014년) 귀성 및 귀경(또는 여행)을 위해 사용한 교통비용은 얼마입니까?
(모름/무응답 : 9999)

※ 교통비용은 왕복 기준으로 응답받음 → 승용차(유류비+고속도로 통행요금), 기타(대중교통비 즉, 승차권 포함)

올해(2014년) 설연휴 교통비용	(　　) 만원

14-1. (문14의 응답이 사전조사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성 및 귀경시 교통비용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 및 귀경을 위한 교통비용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② 귀성/여행 일정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③ 귀성/여행 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동행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⑤ 이용 교통수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⑥ 기타 (　　)

14-2. (문14의 응답이 사전조사보다 감소한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성 및 귀경시 교통비용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 및 귀경을 위한 교통비용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② 귀성/여행 일정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③ 귀성/여행 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동행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⑤ 이용 교통수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⑥ 기타 (　　)

SectionⅣ. 교통상황 안내정보의 이용

15. 귀댁에서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이용하셨습니까?
① 예　▷문15-1 응답후 문15-2로 이동
② 아니오　▷문17로 이동
③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문17로 이동

15-1. (문15의 '①예'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습득하신 교통상황 안내정보에 따라 출발시간이나 노선을 변경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무응답(불러주지 말 것)
▷응답후 문15-2로 이동

15-2. (문15의 '①예' 응답자만) 그럼,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교통정보 수신처)
① PC, 노트북 인터넷 정보
② 휴대폰, 스마트폰　▷문15-3으로 이동
③ 라디오　④ TV　⑤ 신문
⑥ 도로 전광판　⑦ 내비게이션　⑧ ARS전화
⑨ 기타(　　) ⑩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응답후 문17로 이동

문15-3. **(문15-2의 '②'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통해 얻으셨습니까?
①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야후 등)
② 공공기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공사, 지자체 등)
③ SNS(카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④ 도로교통 정보제공 어플
⑤ 내비게이션 어플(티맵, 올레내비, 김대리 등)의 실시간 교통정보
⑥ 기타(　　)
▷응답후 문17로 이동

SectionⅤ. 기타 사항

16. (문2의 '④'응답자만) 귀성 또는 여행을 하지 않았다면 설 당일에는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복수)
① 위락시설 이용　② 휴식　③ 친교활동
④ 성묘　⑤ 생업　⑥ 친지방문　⑦ 본가방문
⑧ 처가방문 ⑨ 차례/제사　⑩ 기타(　　)
▷응답 후 조사종료

17. (문2의 '①,②,③'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설 당일에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복수)
① 위락시설 이용　② 휴식　③ 친교활동
④ 성묘　⑤ 생업　⑥ 친지방문　⑦ 본가방문
⑧ 처가방문 ⑨ 차례/제사　⑩ 기타(　　)

18. 귀댁에서는 본가(시댁/친가)와 처가(친정/외가) 중 어디를 방문하셨습니까?
① 본가(시댁/친가)만 방문 ② 처가(친정/외가)만 방문
③ 둘 다 방문　④ 둘 다 방문하지 않음
⑤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9. 귀댁에서는 이번 설 연휴 때, 귀성하는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기다려 본 경험이 있다
→ 그럼, 평균 몇 분 정도 기다리셨습니까?
평균(　　)분
② 기다려 본 경험이 없다
③ 휴게소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았다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년 하계휴가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설문지

1. 사전조사

이 조사표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를 준수합니다.

2014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중 특별교통 통행실태조사

<하계휴가 사전조사>

주 최 : 국토교통부
주 관 :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조사 의뢰를 받은 리서치랩의 조사상담원 OOO입니다.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여름 휴가철 교통대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단지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자의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감사의 뜻으로 추첨을 통해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차량용 공기청정기 등을 드립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 : 2014년 6월 26일~29일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실사연구원 홍지문 대리 (Tel. 02-559-2794)

조사지역 Quota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17. 세종시

본 조사는 리서치랩의 면접 지침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_____ 면접원 ID [ ][ ]	S/V 확인 _____

Section 0. 응답자 선정 질문

SQ1. 응답자 성별

※ 질문하지 말고 적을 것

① 남 ② 여

SQ2. 실례지만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만 19세 미만과 만 70세 이상은 면접 중단

① 만 19세 미만 ▶면접중단 ② 만 19세~29세
(※고등학생을 제외한 만 19세 이상부터 조사 진행)
③ 만 30세~39세 ④ 만 40세~49세
⑤ 만 50세~59세 ⑥ 만 60세~69세 이하
⑦ 만 70세 이상 ▶면접중단

Section Ⅰ. 올해(2014년) 여름 휴가여행

1. 귀댁은 올해 여름 휴가여행을 갈 계획이 있습니까?
① 예 ▶문1-2로 이동
② 아니오 ▶문3-1, 문4 응답 후 문15로 이동
③ 미정 ▶문3-2, 문4, 문4-2, 문4-3, 문5-1, 문5-2 응답 후 문14로 이동
④ 이미 다녀옴 ▶문1-1로 이동

1-1. **(문1의 ④응답자만)** 여름 휴가여행은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① 4월 이전 ⑧ 5월 1주: 05.01(목) ~ 05.02(금)
⑧ 5월 2주: 05.03(토) ~ 05.09(금) ④ 5월 3주: 05.10(토) ~ 05.16(금)
⑥ 5월 4주: 05.17(토) ~ 05.23(금) ⑨ 5월 5주: 05.24(토) ~ 05.30(금)
⑦ 6월 1주: 05.31(토) ~ 06.06(금) ⑧ 6월 2주: 06.07(토) ~ 06.13(금)
⑨ 6월 3주: 06.14(토) ~ 06.20(금) ⑩ 6월 4주: 06.21(토) ~ 06.27(금)
⑪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응답후 문14로 이동

1-2. 귀댁의 가족구성원은 총 몇 명입니까?( )명

1-3. (가족구성원 유형)
- 귀댁의 가족구성원 중 성인은 몇 명입니까?
(만 19세 이상) ( )명
- 청소년(중고등학생)은 몇 명입니까?
(만 18세 이하) ( )명
- 어린이(초등학생 이하, 영유아 포함)는 몇 명입니까?
(만 12세 이하) ( )명

1-3-1. 모든 가족구성원이 함께 여행을 가십니까?
① 예 ▶문1-5로 이동 ② 아니오 ▶문1-4로 이동

1-4. 가족구성원 중 올해 함께 여름휴가를 갈 계획이 있는 분은 누구 입니까?
- 함께 여행을 가는 성인은 몇 명입니까?
(만 19세 이상) ( )명
- 함께 여행을 가는 청소년 (중고등학생)은 몇 명 입니까? (만 18세 이하) ( )명
- 함께 여행을 가는 어린이(초등학생 이하, 영유아 포함)는 몇 명입니까? (만 12세 이하) ( )명

1-5. 귀댁은 자가용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① 예 ▶문1-6으로 이동 ② 아니오 ▶문2로 이동

1-6. **(문1-5의 ①응답자만)** 귀하께서는 평소 자가용에 안전용품 (삼각대, 소화기 등)을 구비하고 계십니까?
① 구비하고 있다 ② 구비하고 있지 않다
③ 모름/무응답(불러주지 말 것)

2. **(문1의 '①예' 응답자만)** 평소 귀댁에서 여름 휴가여행 계획을 세우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① 6월 이전 ② 7월 초순 ③ 7월 중순
④ 7월 하순 ⑤ 8월 초순 ⑥ 8월 중순 이후
⑦ 기타( ) ⑧ 모름/무응답(불러주지 말 것)
▶응답후 문4로 이동

3-1. **(문1의 '②아니오' 응답자만)** 그럼, 여름 휴가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③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
④ 휴가지의 교통 혼잡 때문에
⑤ 교통편을 구하지 못해서 ⑥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⑦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⑧ 일정조율이 필요해서
⑨ 기타 ( )
⑩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응답후 문4로 이동

3-2. **(문1의 '③미정' 응답자만)** 여름 휴가여행 계획을 아직 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③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
④ 휴가지의 교통 혼잡 때문에
⑤ 교통편을 구하지 못해서 ⑥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⑦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⑧ 일정조율이 필요해서
⑨ 기타 ( )
⑩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응답후 문4로 이동

4. 귀하께서는 여름휴가를 언제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귀하께서 직장생활을 하지 않으신다면, 세대주의 휴가 일자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날짜를 모를 경우 몇 주차에 휴가를 낼 것인지 응답을 유도함

① 7월 1주: 06.30(월) ~ 07.04(금) ⑧ 7월 2주: 07.05(토) ~ 07.11(금)
⑨ 7월 3주: 07.12(토) ~ 07.18(금) ④ 7월 4주: 07.19(토) ~ 07.25(금)
⑤ 7월 5주: 07.26(토) ~ 08.01(금) ⑥ 8월 1주: 08.02(토) ~ 08.08(금)
⑦ 8월 2주: 08.09(토) ~ 08.15(금) ⑧ 8월 3주: 08.16(토) ~ 08.22(금)
⑨ 8월 4주: 08.23(토) ~ 08.29(금) ⑩ 8.30(토) 이후
⑪ 휴가를 내지 않을 예정임 ⑫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문1의 ①은 문4-1, ②는 문14, ③은 문4-3로 이동

4-1. 올해 여름 휴가여행은 언제쯤 가실 예정입니까?
(출발 일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 정확한 날짜를 모를 경우 몇 주차에 가는지 또는 날짜를 설명하여 응답을 유도함

① 7월 1주: 06.30(월)~07.04(금) ⑧ 7월 2주: 07.05(토)~07.11(금)
⑨ 7월 3주: 07.12(토)~07.18(금) ④ 7월 4주: 07.19(토)~07.25(금)
⑤ 7월 5주: 07.26(토)~08.01(금) ⑥ 8월 1주: 08.02(토)~08.08(금)
▶문4-2로 이동
⑦ 8월 2주: 08.09(토)~08.15(금) ⑧ 8월 3주: 08.16(토)~08.22(금)
⑨ 8월 4주: 08.23(토)~08.29(금) ⑩ 8.30(토) 이후
⑪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응답후 문5로 이동

4-2. 7월 5주부터 8월 1주에 여름휴가 여행을 계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자녀의 학교 및 어린이집 방학에 맞춰
② 남들이 많이 쉬어서
③ 회사의 휴가시기 권유로 인해
④ 그 시기에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⑤ 가장 더운 시기여서
⑥ 기타( )
▶응답후 문5로 이동

4-3. **(문1의 '③미정' 응답자에게만 질문)** 혹시 여름 휴가여행을 간다면,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출발 일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 정확한 날짜를 모를 경우 몇 주차에 가는지 또는 날짜를 설명하여 응답을 유도함

① 7월 1주: 06.30(월) ~ 07.04(금) ⑧ 7월 2주: 07.05(토) ~ 07.11(금)
⑨ 7월 3주: 07.12(토) ~ 07.18(금) ④ 7월 4주: 07.19(토) ~ 07.25(금)
⑤ 7월 5주: 07.26(토) ~ 08.01(금) ⑥ 8월 1주: 08.02(토) ~ 08.08(금)
⑦ 8월 2주: 08.09(토) ~ 08.15(금) ⑧ 8월 3주: 08.16(토) ~ 08.22(금)
⑨ 8월 4주: 08.23(토) ~ 08.29(금) ⑩ 8.30(토) 이후
⑪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응답후 문5-1로 이동

5. 올해 여름 휴가여행은 며칠간 다녀오실 계획이십니까?
① 당일 ② 1박 2일 ③ 2박 3일
④ 3박 4일 ⑤ 4박 5일 ⑥ 6일 이상
⑦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응답후 문6으로 이동

5-1. **(문1의 '③미정' 응답자에게만 질문)** 혹시 여름 휴가여행을 간다면, 며칠간 다녀오실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① 당일 ② 1박 2일 ③ 2박 3일
④ 3박 4일 ⑤ 4박 5일 ⑥ 6일 이상
⑦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5-2. **(문1의 '③미정' 응답자에게만 질문)** 평소 귀댁에서 여름 휴가여행 계획을 세우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① 6월 이전 ② 7월 초순 ③ 7월 중순
④ 7월 하순 ⑤ 8월 초순 ⑥ 8월 중순 이후
⑦ 기타( ) ⑧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응답후 문14로 이동

6. 본인을 포함해서 올해 여름 휴가여행을 함께 가실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본인혼자) ▶문B-1로 이동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이상			

▶문7로 이동

⑪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응답후 문B-1로 이동

7. **(문6의 응답이 '②2명'~'⑩10명 이상'인 응답자만)** 그럼, 어떤 분들과 함께 휴가여행을 가시나요?

① 가족/친지 ② 친구
③ 직장/단체 ④ 연인
⑤ 가족/친지+친구 ⑥ 친구+연인
⑦ 기타 ( ) ⑧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 (문8) 휴가 여행지는 국내, 해외를 구분해서 응답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외나 국내가 각각 두 군데 이상일 경우 가장 먼 곳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B-1. **(문1의 '①예' 응답자만)** 여름 휴가여행은 국내, 해외 중 어디로 가실 예정입니까?

① 국내 ▶문B-2-1만 응답
② 해외 ▶문B-2-2만 응답
③ 둘 다 ▶문B-2-1~2 모두 응답

B-2-1. **(문B-1의 '①국내' 응답자만)** 여름 휴가여행은 어느 지역으로 떠나실 예정입니까? (주관식으로도 응답받아 코드화)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B-2-2. **(문B-1의 '②해외' 응답자만)** 여름 휴가여행은 어느 지역으로 떠나실 예정입니까?

	해외 권역구분	B-2
문B-2-2. 해외	동남아: 태국(방콕, 파타야, 푸켓), 싱가폴, 필리핀,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등	①
	일본	②
	중국	③
	남태평양: 호주(시드니, 멜버른), 뉴질랜드, 괌, 사이판, 피지, 뉴칼레도니아 등	④
	미주: 미국, 캐나다, 중남미(페루, 쿠바, 브라질,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등	⑤
	유럽: 서유럽, 지중해, 동유럽, 북유럽 등	⑥
	기타	⑦
	미정	⑧

9. 그럼, 예정하신 휴가 여행지는 다음 중 어떤 유형입니까?

① 바다나 계곡 (바캉스형)
②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이나 삼림욕 (자연동화형)
③ 호텔 패키지 상품 이용 또는 쇼핑 (도심휴가형)
④ 등산 또는 레프팅 (레포츠형)
⑤ 교회수련회 등 (종교활동형)
⑤ 기타 (_____)
⑥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0. 올해 여름 휴가여행시 이용하실 주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자가용(승용차) ② 자가용(승합차) ▶문10-1로 이동
③ 고속버스 ④ 시외버스
⑤ 전세/관광버스 ⑥ 열차(무궁화, 새마을, 관광열차)
⑦ 고속철도(KTX) ⑧ 비행기
⑨ 선박 ⑩ 렌트카 ⑪ 기타( )
⑫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응답후 문12로 이동

10-1. **(문10의 ①,②응답자만)** 귀하께서는 평소 여름 휴가 계획시 여행전 차량점검을 하십니까?

① 차량점검을 한다 ② 차량점검을 하지 않는다

▶응답후 문11로 이동

11. **(문10의 '①승용차', '②승합차' 응답자만)** 올해 여름 휴가여행시 고속도로를 이용하실 계획이십니까?

※ 고속도로는 국도/지방도를 제외한 유료도로를 의미

① 예 ▶문11-1로 이동 ② 아니오 ▶문12로 이동
③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문12로 이동

11-1. **(문11의 '①예' 응답자만)** 그럼, 고속도로 이용시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할 노선을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할 노선	( )

① 경부선 ② 중부선 ③ 영동선
④ 호남선(천안-논산선) ⑤ 서해안선 ⑥ 중부내륙선
⑦ 중앙선 ⑧ 남해선 ⑨ 익산-포항선
⑩ 88올림픽고속도로(무안-광주선) ⑪ 경춘선
⑫ 당진-상주선 ⑬ 서천-공주선 ⑭ 미정
⑮ 기타( ) ⑯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2. 올해 여름휴가 여행시 목적지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⑧ 7시간 이상 ⑨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3. 귀댁에서는 평소 여름휴가 기간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이용하십니까?

① 예 ▶문13-1로 이동
② 아니오 ▶문14로 이동
③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문14로 이동

13-1. **(문13의 '①예' 응답자만)** 그럼,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교통정보 수신처)

① PC, 노트북 인터넷 정보
② 휴대폰, 스마트폰 ▶문13-2로 이동
③ 라디오 ④ TV ⑤ 신문
⑥ 도로 전광판 ⑦ 내비게이션 ⑧ ARS전화
⑨ 기타( ) ⑩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3-2. **(문13-1의 '⑧'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통해 얻고 계십니까?
①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야후 등)
② 공공기관 홈페이지(국토부, 공사, 지자체 등)
③ SNS(카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④ 도로교통 정보제공 어플
⑤ 내비게이션 어플(티맵, 올레내비, 김대리 등)의 실시간 교통정보
⑥ 기타(　　)

SectionⅡ. 작년(2013년) 여름 휴가여행

14. 귀댁에서는 작년(2013년) 여름 휴가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① 예　▷문14-1로 이동
② 아니오　▷문14에서 ① 응답자 문14-1, 14-1-1만 응답 후 문 16로 이동
▷문14에서 ②, ③, ④ 응답자 문16로 이동

14-1. **(문14의 ① 응답자만)** 그럼, 작년(2013년) 여름 휴가여행은 언제쯤 다녀오셨습니까?

① 6월 이전	⑤ 7월 1주: 07.01(월) ~ 07.05(금)
⑥ 7월 2주: 07.06(토) ~ 07.12(금)	⑦ 7월 3주: 07.13(토) ~ 07.19(금)
⑧ 7월 4주: 07.20(토) ~ 07.26(금)	⑨ 8월 1주: 07.27(토) ~ 08.02(금)
⑩ 8월 2주: 08.03(토) ~ 08.09(금)	⑪ 8월 3주: 08.10(토) ~ 08.16(금)
⑫ 8월 4주: 08.17(토) ~ 08.23(금)	⑬ 8월 5주: 08.24(토) ~ 08.30(금)
⑭ 8.31(토) 이후	⑮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4-2. **(문14의 ①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작년 여름 휴가여행 시 차량고장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작년 여름 휴가여행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았다.

14-3. **(문14의 ①응답자만)** 귀하께서는 지난 여름휴가 시, 이동하는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기다려 본 경험이 있다
→ 그럼, 평균 몇 분 정도 기다리셨습니까?
평균(　　)분
② 기다려 본 경험이 없다
③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음

SectionⅢ. 여름 휴가여행 지출 비용

15-1. 올해(2014년) 예상되는 여름 휴가여행 지출 비용은 얼마입니까?

※ 귀댁의 총 지출비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족이 함께 가더라도 귀댁의 지출비용만을 응답바랍니다.

올해(2014년) 총 여름휴가 비용	(　　) 만원

15-1-1. 위의 비용은 몇 명의 비용입니까?
(　　)명

15-2. 작년(2013년) 여름 휴가여행 지출 비용은 얼마입니까?

※ 귀댁의 총 지출비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족이 함께 가더라도 귀댁의 지출비용만을 응답바랍니다.

작년(2013년) 총 여름휴가 비용	(　　) 만원

15-2-1. 위의 비용은 몇 명의 비용입니까?
(　　)명

※ 지금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응답자 특성 분류를 위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 귀댁의 세대주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 19세 이하　② 만 20세~29세
③ 만 30세~39세　④ 만 40세~49세
⑤ 만 50세~59세　⑥ 만 60세 이상

17. 귀댁의 주거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아파트　② 연립 및 다세대
③ 단독주택　④ 기타(　　)
⑤ 모름/무응답(불러주지 말 것)

18.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군인
⑪ 학생
⑫ 전업주부
⑬ 무직
⑭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사후조사

이 조사표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를 준수합니다.

2014년 하계휴가 기간 중 통행실태 조사

<하계휴가 사후조사>

주 최 : 국토교통부
주 관 :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조사 의뢰를 받은 리서치랩의 조사상담원 OOO입니다.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여름 휴가철 교통대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달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응답해주신 설문항목 중 몇 가지만 확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 : 2014년 8월 18일~19일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실사연구원 과장 (Tel. 02-559-2792)

조사지역 Quota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17. 세종시

본 조사는 리서치랩의 면접 지침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_____ 면접원 ID [ ][ ]	S/V 확인 _____

Section 0. 응답자 선정 질문

SQ1. 응답자 성별

※ 질문하지 말고 적을 것

① 남 ② 여

SQ2. 실례지만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 19세~29세
(※고등학생을 제외한 만 19세 이상부터 조사 진행)
② 만 30세~39세
③ 만 40세~49세
④ 만 50세~59세
⑤ 만 60세~69세 이하

Section Ⅰ. 올해(2014년) 여름 휴가여행

※ 문1은 리스트상의 응답을 기준으로 입력되어 있음

1. **(사전조사에서 응답 받은)** 올해 여름 휴가여행 계획 여부 : ① 예 ② 아니오 ③ 미정

2. 귀하께서는 올해 여름 휴가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① 예 (문1의 ① 응답자 ▶문3으로 이동)
(문1의 ②, ③ 응답자 ▶문2-1로 이동)
② 아니오 (문1의 ① 응답자 ▶문2-2로 이동)
③ 미정 (문1의 ① 응답자 ▶문2-2로 이동)

2-1. **(문1의 ②,③ → 문2의 ①로 변경된 응답자만)** 지난달 조사에서는 여름 휴가계획이 없다고(또는 미정이라고) 응답하셨었는데, 계획이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업(사업)상의 문제가 해결됨
② 휴가비용 문제가 해결됨
③ 가족 중 학생의 학업문제가 해결
④ 휴가지의 혼잡한 교통문제 해결
⑤ 교통편 문제가 해결됨 ⑥ 숙소 문제가 해결됨
⑦ 건강이 좋아짐 ⑧ 일정조율이 가능해짐
⑨ 기타 ( ) ⑩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2-2. **(문1의 ① → 문2의 ②,③로 변경된 응답자만)** 그럼, 여름 휴가여행을 다녀오지 않았거나 미정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③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
④ 휴가지의 교통혼잡 때문에
⑤ 교통편을 구하지 못해서 ⑥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⑦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⑧ 일정조율이 필요해서
⑨ 기상여건의 악화 때문에 ⑩ 기타 ( )
⑪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2-3. **(문1의 ②, ③ → 문2의 ②, ③ 응답자만)** 그럼, 여름 휴가여행을 다녀오지 않았거나 미정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③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
④ 휴가지의 교통혼잡 때문에
⑤ 교통편을 구하지 못해서 ⑥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⑦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⑧ 일정조율이 필요해서
⑨ 기상여건의 악화 때문에 ⑩ 기타 ( )
⑪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3. 그럼, 올해 여름 휴가여행은 언제쯤 다녀오셨습니까?

※ 정확한 날짜를 모를 경우 몇 주차인지 또는 날짜를 설명하여 응답을 유도함 (주단위로 응답시 날짜 확인필수)

① 7월 1주: 06.30(월)~07.04(금) ② 7월 2주: 07.05(토)~07.11(금)
③ 7월 3주: 07.12(토)~07.18(금) ④ 7월 4주: 07.19(토)~07.25(금)
⑤ 8월 1주: 07.26(토)~08.01(금) ⑥ 8월 2주: 08.02(토)~08.08(금)
⑦ 8월 3주: 08.09(토)~08.15(금) ⑧ 8월 4주: 08.16(토)~08.22(금)
⑨ 8월 5주: 08.23(토)~08.29(금) ⑩ 8.30(토) 이후
⑪ 모름/무응답(물러주지 말것)

3-1. (문3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지난달 조사에서는 휴가일정이 △△△이라고 응답하셨었는데, 일정이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③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
④ 휴가지의 교통혼잡 때문에
⑤ 교통편을 구하지 못해서 ⑥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⑦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⑧ 일정조율이 필요해서
⑨ 기상여건의 악화 때문에 ⑩ 기타 ( )
⑪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4. 올해 여름 휴가여행은 며칠간 다녀오셨습니까?

① 당일 ② 1박 2일 ③ 2박 3일
④ 3박 4일 ⑤ 4박 5일 ⑥ 5일 이상
⑦ 모름/무응답(물러주지 말 것)

4-1. (문4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지난달 조사에서는 휴가일정 기간이 △△△이라고 응답하셨었는데, 일정 기간이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4-1-1. 일정 증가시	① 생업(사업)상의 문제가 해결됨 ② 휴가비용 문제가 해결됨 ③ 가족 중 학생의 학업문제가 해결 ④ 휴가지의 혼잡한 교통문제 해결 ⑤ 교통편 문제가 해결됨 ⑥ 숙소 문제가 해결됨 ⑦ 건강이 좋아짐 ⑧ 일정조율이 가능해짐 ⑨ 기상여건이 좋아져서 ⑩ 기타 ( )
4-1-2. 일정 감소시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③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 ④ 휴가지의 교통혼잡 때문에 ⑤ 교통편을 구하지 못해서 ⑥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⑦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⑧ 일정조율이 필요해서 ⑨ 기상여건의 악화 때문에 ⑩ 기타 ( )

5. 본인을 포함해서 올해 여름 휴가여행을 함께 다녀오신 분은 몇 명입니까?

① 1명(본인혼자) ▶문6-1로 이동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이상			

▶문5-1로 이동

⑪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응답후 문6-1로 이동

5-1. **(문5의 응답이 '②2명'~'⑩10명 이상'인 응답자만)** 그럼, 어떤 분들과 함께 휴가여행을 다녀오셨나요?

① 가족/친지 ② 친구
③ 직장/단체 ④ 연인
⑤ 가족/친지+친구 ⑥ 친구+연인
⑦ 기타 ( )
⑧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 (문6) 휴가 여행지는 국내, 해외를 구분해서 응답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외나 국내가 각각 두 군데 이상일 경우 가장 먼 곳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1. 여름 휴가여행은 국내, 해외 중 어디로 다녀오셨습니까?

① 국내 ▶문6-2-1만 응답
② 해외 ▶문6-2-2만 응답
③ 둘 다 ▶문6-2-1~2 모두 응답

6-2. 여름 휴가여행은 어느 지역으로 다녀오셨습니까?

권역구분		
문6-2-1 국내	동해안권: 강릉, 경포대, 주문진, 속초, 울릉도, 금강산 등	①
	서해안권: 목포, 보길도, 대천, 안면도, 변산반도, 영종도, 홍도, 흑산도, 인천 등	②
	남해안권: 여수, 부산, 한려수도, 거제도, 해남, 땅끝마을 등	③
	강원내륙권: 설악산, 오대산, 평창, 동강, 영월, 정선, 원주, 치악산, 춘천	④
	중청내륙권: 화양계곡, 청주, 충주, 대전, 유성, 속리산, 온양, 공주, 부여 등	⑤
	영남내륙권: 문경새재, 경주, 포항, 울산 등	⑥
	호남내륙권: 광주, 부안, 고창, 선운사, 지리산, 벽양사, 무주 구천동 등	⑦
	수도권: 서울, 양평, 가평, 양수리, 포천등	⑧
	제주권: 제주도 일원	⑨
문6-2-2. 해외	동남아: 태국(방콕, 파타야, 푸켓), 싱가폴, 필리핀,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등	⑩
	일본	⑪
	중국	⑫
	남태평양: 호주(시드니, 멜버른), 뉴질랜드, 괌, 사이판, 피지, 뉴칼레도니아 등	⑬
	미주: 미국, 캐나다, 중남미(페루, 쿠바, 브라질,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등	⑭
	유럽: 서유럽, 지중해, 동유럽, 북유럽 등	⑮
	기타	⑯
	미정	⑰

6-3. (문6-2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지난달 조사에서는 여름 휴가여행지 예정지역이 △△△이라고 응답하셨었는데, 여름 휴가여행 지역이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휴가비용의 부담 때문에
② 여행 일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③ 숙박 예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④ 동행인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⑤ 기상여건 때문에 ⑥ 교통정체 때문에
⑦ 기타( ) ⑧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7. 그럼, 여행하신 휴가 여행지는 다음 중 어떤 유형입니까?
① 바다나 계곡 (바캉스형)
②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이나 삼림욕 (자연동화형)
③ 호텔 패키지 상품 이용 또는 쇼핑 (도심휴가형)
④ 등산 또는 레프팅 (레포츠형)
⑤ 교회수련회 등 (종교활동형)
⑤ 기타 (_____)
⑥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8. 올해 여름 휴가여행시 주로 이용한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자가용(승용차) ② 자가용(승합차)
▶문9로 이동
③ 고속버스 ④ 시외버스 ⑤ 전세/관광버스
⑥ 열차(무궁화, 새마을, 관광열차) ⑦ 고속철도(KTX)
⑧ 비행기 ⑨ 선박
⑩ 렌트카
⑪ 기타( )
⑫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8-1. (문8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지난달 조사에서는 여름 휴가여행시 주이용 교통수단이 △△△이라고 응답하셨었는데, 주이용 교통수단이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휴가비용의 부담 때문에
② 여행일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③ 여행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숙박 예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⑤ 동행인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⑥ 기상여건 때문에 ⑦ 교통정체 때문에
⑧ 대중교통 예약을 못했기 때문에
⑨ 기타( )

9. **(문8의 '①승용차', '②승합차' 응답자만)** 올해 여름 휴가여행시 고속도로를 이용하셨습니까?

※ 고속도로는 국도/지방도를 제외한 유료도로를 의미

① 예 ▶문10으로 이동
② 아니오
③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9-1. (문9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지난달 조사에서는 여름 휴가여행시 고속도로를 이용(또는 이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응답하셨었는데, 이용도로가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②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③ 여행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기타( )
⑤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0. **(문9의 '①예' 응답자만)** 그럼, 고속도로 이용시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한 노선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한 노선	( )

① 경부선 ② 중부선 ③ 영동선
④ 호남선(천안-논산선) ⑤ 서해안선 ⑥ 중부내륙선
⑦ 중앙선 ⑧ 남해선 ⑨ 익산-포항선
⑩ BB올림픽고속도로(무안-광주선) ⑪ 경춘선
⑫ 당진-상주선 ⑬ 서천-공주선 ⑭ 미정
⑮ 기타( )
⑯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10-1. (문10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지난달 조사에서는 여름 휴가여행시 △△△선을 주로 이용 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셨었는데, 이용 노선이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②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③ 여행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기타( )
⑤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1. 올해 여름휴가 여행시 목적지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셨습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⑧ 7시간 이상
⑨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SectionⅡ. 여름 휴가여행 지출 비용

12. 올해(2014년) 여름 휴가여행 지출 비용은 얼마입니까?

※ 귀댁의 총 지출비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족이 함께 가더라도 귀댁의 지출비용만을 응답바랍니다.

올해(2014년) 총 여름휴가 비용	( ) 만원

12-1. 위의 비용은 몇 명의 비용입니까?
( )명

12-2. (문12의 응답금액 대비 사전조사 금액이 증가한 경우) 지난달 조사에서는 여름 휴가여행시 지출 예상비용이 △△△만원이라고 응답하셨었는데, 지출 비용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휴가여행일수의 증가 때문에
② 동반인원의 증가 때문에
③ 고급시설 또는 상품의 이용으로 인해
④ 경제적 여건이 좋아져서
⑤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⑥ 기타 ( )
⑦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2-3. (문12의 응답금액 대비 사전조사 금액이 감소한 경우) 지난달 조사에서는 여름 휴가여행시 지출 예상비용이 △△△만원이라고 응답하셨었는데, 지출 비용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휴가여행일수의 감소 때문에
② 동반인원의 감소 때문에
③ 저렴한 시설 또는 상품의 이용으로 인해
④ 경제적 여건이 나빠져서
⑤ 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⑥ 기타 ( )
⑦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3. **(문9의 ①응답자만)** 귀하께서는 올해(2014년) 여름휴가 시, 이동하는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기다려 본 경험이 있다
→ 그럼, 평균 몇 분 정도 기다리셨습니까?
평균( )분
② 기다려 본 경험이 없다
③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음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년 추석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설문지

1. 사전조사

이 조사표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를 준수합니다.

2014년 추석연휴 기간 중 통행실태 조사

<추석 사전조사>

주 최 : 국토교통부
주 관 :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조사 의뢰를 받은 리서치랩의 조사상담원 OOO입니다.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교통대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단지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자의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감사의 뜻으로 추첨을 통해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차량용 냉장고 등을 드립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 : 2014년 8월 8일~12일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실사연구원 박정아 과장 (Tel. 02-559-2791)

조사지역 Quota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17. 세종시

본 조사는 리서치랩의 면접 지침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_____ 면접원 ID _____	S/V 확인 _____

Section 0. 응답자 선정 질문

SQ1. 응답자 성별

※ 질문하지 말고 적을 것

① 남 ② 여

SQ2. 실례지만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 19세~29세
(※고등학생을 제외한 만 19세 이상부터 조사 진행)
② 만 30세~39세 ③ 만 40세~49세
④ 만 50세~59세 ⑤ 만 60세~69세 이하

Section I. 작년(2013년) 추석 연휴

1. 귀댁에서는 작년(2013년) 추석 연휴에 귀성(또는 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① 귀성
② 여행 ▷문1-1로 이동
③ 귀성 및 여행
④ 안갔음 ▷문2로 이동

1-1. 귀댁에서 작년(2013년) 귀성(또는 여행) 및 귀가시 주로 이용하셨던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자가용(승용차) ② 자가용(승합차)
③ 고속버스 ④ 시외버스 ⑤ 전세/관광버스
⑥ 열차(무궁화, 새마을, 관광열차) ⑦ 고속철도(KTX)
⑧ 비행기 ⑨ 선박
⑩ 렌트카 ⑪ 기타( )
⑫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응답후 문2로 이동

SectionII. 올해(2014년) 추석 연휴 귀성 및 여행

2. 귀하께서는 대체휴일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올해 추석연휴 기간은 9월 7일(일), 8일(월), 9일(화)이며, 10일(수) 대체휴일까지 이어집니다.**

3. 귀댁에서는 올해 추석 연휴기간을 이용한 귀성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귀성 한다 ▷문3-1로 이동
② 귀성 계획이 없다 ▷문4로 이동
③ 미정 ▷문4로 이동

3-1. 그럼 몇 곳을 가세요?

① 한 곳 ▷문3-2로 이동
② 두 곳 ③ 세 곳 이상 ▷문3-3으로 이동

3-2. 올해 추석 연휴에 어느 지역으로 귀성을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1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3-3. 올해 추석 연휴에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으로 귀성을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1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3-4. 거주지(출발지)와 귀성지역이 동일한 권역(17개 시도 기준)인가요? (예 : 서울→서울, 경남→경남 등)
① 예 ② 아니오
▶응답후 문4로 이동

4. 그럼, 귀댁에서는 올해 추석 연휴기간을 이용한 여행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여행 한다 ▶문4-1로 이동
② 여행 계획이 없다
문3-4의 응답이 '①예'인 경우 ▶문7로 이동
문3-4의 응답이 '②아니오'인 경우 ▶문9로 이동
문3의 응답이 '②아니오'인 경우 ▶문7로 이동
문3의 응답이 '③미정'인 경우 ▶문6으로 이동

4-1. 그럼 몇 곳을 가세요?
① 한 곳 ▶문4-2로 이동 ② 두 곳 ▶문4-3으로 이동
③ 세 곳 이상 ▶문4-3으로 이동

4-2. 올해 추석 연휴에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1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문3의 ①과 문4의 ①응답자는 문5로 이동
▷문3의 ②,③ 문4의 ①응답자는 문9로 이동

4-3. 올해 추석 연휴에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1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문3의 ①과 문4의 ①응답자는 문5로 이동
▷문3의 ②,③ 문4의 ①응답자는 문9로 이동
▶응답후 문9로 이동

5. (문3의 '①귀성 한다'와 문4의 '①여행한다'를 둘 다 선택한 응답자만) 그럼 귀성을 먼저 가시나요? 여행을 먼저 가시나요?
① 귀성 먼저 간다 ② 여행 먼저 간다
▶응답후 문9로 이동

6. (문3의 '③미정을 선택한 응답자만) 그럼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귀성/여행 할 가능성이 높음
② 귀성/여행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응답후 문22로 이동

7. (문3의 '②없다', 문4의 '②없다' 둘 다 응답한 응답자만) 그럼,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①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 ▶문8로 이동
②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
③ 지출비용의 부담 때문에
④ 업무(생업) 때문에
⑤ 추석 연휴기간 외에 귀성(또는 여행)
⑥ 교통혼잡 때문에
⑦ 기타( )
⑧ 모름/무응답
▶응답후 문22로 이동

8. (문7의'①'응답자만)다른 가족들이 역귀성을 하신다면 어느 분께서, 어느 지역에서 출발해서 오실 예정입니까? (※ 복수응답 가능)

문	가족 구분	광역시/도 code	시/군/구 code
8-1	① 부모님 ② 친지 ③ 자녀		
8-2	① 부모님 ② 친지 ③ 자녀 ④ 없음		
8-3	① 부모님 ② 친지 ③ 자녀 ④ 없음		

▶응답후 문22로 이동

9. 귀성(또는 여행)의 출발 날짜는 대략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 2014년도 추석연휴 : 9.7(일) ~ 9.9(화), 9.10(수, 대체휴일))

※ 반드시 출발일을 물어보시고, 보기의 일자를 꼭 읽어주세요

① 9. 3(수, 평일) 이전 ② 9. 4(목, 평일)
③ 9. 5(금, 평일) ④ 9. 6(토, 주말)
⑤ 9. 7(일, 추석연휴) ⑥ 9. 8(월, 추석당일)
⑦ 9. 9(화, 추석연휴) ⑧ 9.10(수, 대체휴일)
⑨ 9.11(목, 평일) ⑩ 9.12(금, 평일)
⑪ 9.13(토, 주말) 이후 ⑫ 미정

10. 귀성 또는 여행가실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① 0시~오전3시 미만 ② 오전3시~오전6시 미만
③ 오전6시~오전9시 미만 ④ 오전9시~오후12시 미만
⑤ 오후12시~오후3시 미만 ⑥ 오후3시~오후6시 미만
⑦ 오후6시~오후9시 미만 ⑧ 오후9시~자정 미만
⑨ 미정

11. 그럼, 귀가시(또는 여행 후) 돌아올 날짜는 대략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 반드시 출발일을 물어보시고, 보기의 일자를 꼭 읽어주세요

① 9. 3(수, 평일) 이전 ② 9. 4(목, 평일)
③ 9. 5(금, 평일) ④ 9. 6(토, 주말)
⑤ 9. 7(일, 추석연휴) ⑥ 9. 8(월, 추석당일)
⑦ 9. 9(화, 추석연휴) ⑧ 9.10(수, 대체휴일)
⑨ 9.11(목, 평일) ⑩ 9.12(금, 평일)
⑪ 9.13(토, 주말) 이후 ⑫ 미정

12. 귀가시(또는 여행 후) 돌아올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① 0시~오전3시 미만 ② 오전3시~오전6시 미만
③ 오전6시~오전9시 미만 ④ 오전9시~오후12시 미만
⑤ 오후12시~오후3시 미만 ⑥ 오후3시~오후6시 미만
⑦ 오후6시~오후9시 미만 ⑧ 오후9시~자정 미만
⑨ 미정

SectionⅢ. 주이용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13. 귀댁은 자가용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4. 귀댁에서 귀성(또는 여행) 및 귀가시 주로 이용하실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자가용(승용차) ② 자가용(승합차)
▷문15로 이동
③ 고속버스 ④ 시외버스 ⑤ 전세/관광버스
⑥ 열차(무궁화, 새마을, 관광열차) ⑦ 고속철도(KTX)
⑧ 비행기 ⑨ 선박
⑩ 렌트카 ⑪ 기타( )
▷문16으로 이동
⑫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5. (문14의 '①자가용, ②자가용(승합차)' 응답자만) 귀댁의 차량으로 본인을 포함해서 귀성(또는 여행)을 함께 가실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⑪ 기타( )명

16. (문14의 '③~⑪' 응답자만) 본인을 포함해서 귀성(또는 여행)을 함께 가실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⑪ 기타( )명
▷응답후 문20으로 이동, 문13의 ①응답자는 문19로 이동

17. (문14의 ①, ②응답자만) 그럼, 고속도로 이용시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할 노선을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할 노선	( )

① 경부선 ② 중부선 ③ 영동선
④ 호남선(천안-논산선) ⑤ 서해안선 ⑥ 중부내륙선
⑦ 중앙선 ⑧ 남해선 ⑨ 익산-포항선
⑩ 88올림픽고속도로(무안-광주선) ⑪ 경춘선
⑫ 당진-상주선 ⑬ 서천-공주선 ⑭ 미정
⑮ 기타( ) ⑯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음
⑰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8. (문14의 ①, ②응답자만) 자가용을 이용하여 귀성 및 여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대중교통편을 예매하지 못해서
② 유아를 동반하기 위해서
③ 짐 때문에(음식물이나 추석 선물 등)
④ 자가용 이용이 편리해서
⑤ 기타( )

19. (문13의 ①응답자 중 문14의 ③~⑪응답자만)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지출비용(유류비 등)의 부담 때문에
② 동행인원의 변경으로 인해
③ 교통 혼잡으로 인해
④ 가족구성원이 따로 이동해서
⑤ 꼭 비행기로 이동해야 해서
⑥ 기타( )

SectionⅣ. 추석 연휴 교통비용

20. 올해(2014년) 예상되는 귀성 및 귀경(또는 여행)을 위한 교통비용은 얼마입니까?
(모름/무응답 : 9999)

※ 교통비용은 왕복 기준으로 응답받음 → 승용차(유류비+고속도로 통행요금), 기타(대중교통비 즉, 승차권 포함)

올해(2014년) 추석연휴 교통비용	( ) 만원

SectionⅤ. 기타 사항

21. 귀댁에서는 본가(시댁/친가)와 처가(친정/외가) 중 어디를 방문하실 예정입니까?
① 본가(시댁/친가)만 방문 ▷22로 이동
② 처가(친정/외가)만 방문 ▷22-1로 이동
③ 둘 다 방문 ▷22-1로 이동
④ 둘 다 방문하지 않음 ▷22로 이동
⑤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22로 이동

21-1. (문21의 ②, ③ 응답자만) 그럼, 처가로의 출발일은 대략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① 9. 3(수, 평일) 이전 ② 9. 4(목, 평일)
③ 9. 5(금, 평일) ④ 9. 6(토, 주말)
⑤ 9. 7(일, 추석연휴) ⑥ 9. 8(월, 추석당일)
⑦ 9. 9(화, 추석연휴) ⑧ 9.10(수, 대체휴일)
⑨ 9.11(목, 평일) ⑩ 9.12(금, 평일)
⑪ 9.13(토, 주말) 이후 ⑫ 미정

※ 문22부터는 귀성 또는 여행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응답자에게 질문

22. 귀댁에서는 성묘를 언제 가십니까?
① 추석 연휴 전 ▷문23로 이동
② 추석 연휴 ▷문22-1로 이동
③ 추석 연휴 이후 ▷문23로 이동
④ 성묘를 가지 않음 ▷문23로 이동

22-1. 그렇다면, 귀댁에서는 성묘를 어느 지역으로 가십니까?

성묘지역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3. 귀댁에서는 벌초를 하십니까?
① 한다 ▷문23-1로 이동
② 하지 않는다 ▷문24로 이동

23-1. (문23의 ①응답자만) 그렇다면, 벌초는 언제하십니까?
① 추석연휴 3주 이전 ② 추석연휴 2주전
③ 추석연휴 1주전 ④ 추석연휴 중
⑤ 추석연휴 이후 ⑥ 기타( )

23-2. (문23의 ①응답자만) 귀댁에서 벌초는 누가 하십니까?
① 직접한다 ② 대행업체에 맡긴다
③ 기타( )

24. 귀댁에서는 지난 명절(추석 또는 설)때, 귀성하는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기다려 본 경험이 있다
→ 그럼, 평균 몇 분 정도 기다리셨습니까?
평균( )분

② 기다려 본 경험이 없다

25. 귀하께서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① 추석 선물비용
② 차례상 비용 증가
③ 귀성 및 귀경길 교통체증
④ 친인척과의 만남(잔소리 등)
⑤ 음식, 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노동
⑥ 교통사고
⑦ 없음
⑧ 기타( )

26. 귀하께서는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SectionVI. 응답자 특성

※ 지금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응답자 특성 분류를 위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DQ1. 실례지만 귀댁의 가족은 본인을 포함해서 총 몇 분이십니까? (총 명)

DQ2.귀댁의 세대주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 19세 이하 ② 만 20세~29세
③ 만 30세~39세 ④ 만 40세~49세
⑤ 만 50세~59세 ⑥ 만 60세 이상

DQ3. 귀댁의 주거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아파트 ② 연립 및 다세대
③ 단독주택 ④ 기타( )
⑤ 모름/무응답(불러주지 말 것)

DQ4. 귀댁 세대주의 현재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기혼여자로 정규직일 경우는 직업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① 관리자
② 전문가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군인
⑪ 학생
⑫ 전업주부
⑬ 무직
⑭ 모름/무응답

2. 사후조사

이 조사표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를 준수합니다.

2014년 추석연휴 기간 중 통행실태 조사

<추석 사후조사>

주 최 : 국토교통부
주 관 :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조사 의뢰를 받은 리서치랩의 조사상담원 OOO입니다.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교통대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달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응답해주신 설문항목 중 몇 가지만 확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 : 2014년 9월 15일~16일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실사연구원 박정아 과장 (Tel. 02-559-2791)

조사지역 Quota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17. 세종시

본 조사는 리서치랩의 면접 지침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_____ **면접원 ID**	**S/V 확인** _____

Section 0. 응답자 선정 질문

SQ1. 응답자 성별

※ 질문하지 말고 적을 것

① 남 ② 여

SQ2. 실례지만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 19세~29세
(※고등학생을 제외한 만 19세 이상부터 조사 진행)
② 만 30세~39세
③ 만 40세~49세
④ 만 50세~59세
⑤ 만 60세~69세 이하

Section I. 올해(2014년) 추석 연휴

※ 사전조사 응답내역이 이미 기재되어 나옴

1. (사전조사에서 응답 받은) 올해(2014년) 추석 연휴기간 및 주말을 이용한 귀성 또는 여행 계획 여부 :
① 귀성 ② 여행 ③ 귀성 및 여행
④ 미정 ⑤ 안감

2. 귀댁에서는 지난 추석 연휴기간(9.7(일) ~ 9.9(화), 9.10(수, 대체휴일)) 이용해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① 귀성 → Q2-1.그럼, 몇 곳을 다녀오셨나요?
(① 한 곳, ② 두 곳, ③ 세 곳 이상)
② 여행 → Q2-2.그럼, 몇 곳을 다녀오셨나요?
(① 한 곳, ② 두 곳, ③ 세 곳 이상)
③ 귀성 및 여행 → Q2-3.그럼, 귀성 또는 여행 먼저 가셨나요?
(① 귀성 먼저, ② 여행 먼저)
④ 안감

[※ 조건문]
문1.귀성/여행/귀성 및 여행 => 문2.귀성 = 문5-1.귀성지역1 => (다수귀성 조건문) => 문5-1.귀성지역2
문1.귀성/여행/귀성 및 여행 => 문2.여행 = 문5-2.여행지역1 => (다수여행 조건문) => 문5-2.여행지역2
문1.귀성/여행/귀성 및 여행 => 문2-3.귀성 여행 우선순위 => 문5-3.귀성여행 / 문5-4.여행귀성
문1.귀성/여행/귀성 및 여행 => 문2.안감 = 문4.귀성 여행 취소 이유
문1.미정/안감 => 문2.귀성 = 문5-1.귀성지역1 => (다수귀성 조건문) => 문5-1.귀성지역2
문1.미정/안감 => 문2.여행 = 문5-2.여행지역1 => (다수여행 조건문) => 문5-2.여행지역2
문1.미정/안감 => 문2-3.귀성 여행 우선순위 => 문5-3.귀성여행 / 문5-4.여행귀성
문1.미정/안감 => 문2.안감 = 문3. 귀성 여행 없는 이유

3.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또는 여행)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 ▶문3-1로 이동
②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
③ 지출비용의 부담 때문에 ④ 업무(생업) 때문에
⑤ 추석 연휴기간 외에 귀성(또는 여행)
⑥ 교통혼잡 때문에 ⑦ 기타( )
⑧ 모름/무응답
▶응답후 면접종료

4. 지난달 사전조사와 달리 추석 연휴기간을 이용한 귀성 또는 여행계획을 취소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 ▶문3-1로 이동
②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
③ 지출비용의 부담 때문에 ④ 업무(생업) 때문에
⑤ 추석 연휴기간 외에 귀성(또는 여행)
⑥ 교통혼잡 때문에 ⑦ 기타( )
⑧ 모름/무응답
▶응답후 면접종료

3-1. (문3, 4의'①'응답자만)다른 가족들이 역귀성을 하셨다면 어느 분께서, 어느 지역에서 출발해서 오셨습니까? (※ 복수응답 가능)

문	가족 구분	광역시/도 code	시/군/구 code
3-1	① 부모님 ② 친지 ③ 자녀		
3-2	① 부모님 ② 친지 ③ 자녀 ④ 없음		
3-3	① 부모님 ② 친지 ③ 자녀 ④ 없음		

▶응답후 면접종료

※ CATI시스템의 조건문에 따라 귀성 및 여행지역을 각각 응답받음

5-1. 올해 추석 연휴에 귀성은 어느 지역으로 다녀오셨습니까?

1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5-2. 올해 추석 연휴에 여행은 어느 지역으로 다녀오셨습니까?

1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5-3. 올해 추석 연휴에 어느 지역으로 귀성을 가시고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1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5-4. 올해 추석 연휴에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가시고 어느 지역으로 귀성을 다녀오셨습니까?

1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5-5. (문5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성 또는 여행 지역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 또는 여행지역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부모님이 거주지를 변경해서
② 귀성(또는 여행) 다녀오는 순서를 변경해서
③ 친가 또는 처가 중 한곳만 다녀와서
④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⑤ 지출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⑥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⑦ 기상여건 때문에
⑧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⑨ 기타 ( )
⑩ 모름/무응답

6. 귀성(또는 여행)의 출발 날짜는 대략 언제였습니까?
(※ 2014년도 추석연휴 : 9.7(일) ~ 9.9(화), 9.10(수, 대체휴일))

※ 반드시 출발일을 물어보시고, 보기의 일자를 꼭 읽어주세요

① 9. 3(수, 평일) 이전 ② 9. 4(목, 평일)
③ 9. 5(금, 평일) ④ 9. 6(토, 주말)
⑤ 9. 7(일, 추석연휴) ⑥ 9. 8(월, 추석당일)
⑦ 9. 9(화, 추석연휴) ⑧ 9.10(수, 대체휴일)
⑨ 9.11(목, 평일) ⑩ 9.12(금, 평일)
⑪ 9.13(토, 주말) 이후 ⑫ 모름/무응답

6-1. (문6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출발 날짜가 △△△라고 하셨는데, 귀성시 출발 날짜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③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④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⑤ 기상여건 때문에 ⑥ 기타 ( )
⑦ 모름/무응답

7. 귀성 또는 여행가실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였습니까?
① 0시~오전3시 이전 ② 오전3시~오전6시 이전
③ 오전6시~오전9시 이전 ④ 오전9시~오후12시 이전
⑤ 오후12시~오후3시 이전 ⑥ 오후3시~오후6시 이전
⑦ 오후6시~오후9시 이전 ⑧ 오후9시~자정
⑨ 모름/무응답

7-1. (문7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출발시간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시 출발 시간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③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④ 교통정보 확인후 출발하여
⑤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⑥ 일행의 시간에 맞추려고
⑦ 기상여건 때문에 ⑧ 기타 ( )
⑨ 모름/무응답

8. 그럼, 귀가시(또는 여행 후) 귀가 날짜는 언제였습니까?

※ 반드시 출발일을 물어보시고, 보기의 일자를 꼭 읽어주세요.

① 9. 3(수, 평일) 이전 ② 9. 4(목, 평일)
③ 9. 5(금, 평일) ④ 9. 6(토, 주말)
⑤ 9. 7(일, 추석연휴) ⑥ 9. 8(월, 추석당일)
⑦ 9. 9(화, 추석연휴) ⑧ 9.10(수, 대체휴일)
⑨ 9.11(목, 평일) ⑩ 9.12(금, 평일)
⑪ 9.13(토, 주말) 이후 ⑫ 모름/무응답

8-1. (문8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가 날짜가 △△△라고 하셨는데, 귀가시 출발 날짜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③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④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⑤ 기상여건 때문에 ⑥ 기타 ( )
⑦ 모름/무응답

9. 귀가시(또는 여행 후) 돌아올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였습니까?

① 0시~오전3시 이전 ② 오전3시~오전6시 이전
③ 오전6시~오전9시 이전 ④ 오전9시~오후12시 이전
⑤ 오후12시~오후3시 이전 ⑥ 오후3시~오후6시 이전
⑦ 오후6시~오후9시 이전 ⑧ 오후9시~자정
⑨ 모름/무응답

9-1. (문9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가시 출발시간이 △△△라고 하셨는데,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③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④ 교통정보 확인후 출발하여
⑤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⑥ 일행의 시간에 맞추려고
⑦ 기상여건 때문에 ⑧ 기타 ( )
⑨ 모름/무응답

10. 귀하께서는 출발하여서 목적지까지 그리고 목적지까지 그리고 목적지로부터 귀가지역까지 소요시간은 각각 얼마가 걸리셨습니까?

10-1. 출발지역부터 목적지까지 귀성 또는 여행시 소요시간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이상~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5시간 미만 ⑥ 5시간이상~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7시간미만 ⑧ 7시간 이상~8시간 미만
⑨ 8시간 이상

10-2. 목적지부터 귀가지역까지 귀가시 소요시간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이상~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5시간 미만 ⑥ 5시간이상~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7시간미만 ⑧ 7시간 이상~8시간 미만
⑨ 8시간 이상

SectionⅡ 주이용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11. 귀댁은 자가용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2. 귀댁에서 귀성(또는 여행) 및 귀가시 주로 이용하실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자가용(승용차) ② 자가용(승합차)

▷문13으로 이동

③ 고속버스 ④ 시외버스 ⑤ 전세/관광버스
⑥ 열차(무궁화, 새마을, 관광열차) ⑦ 고속철도(KTX)
⑧ 비행기 ⑨ 선박

▷문11의 ①응답자는 문13-2로 이동

⑩ 렌트카 ⑪ 기타( )
⑫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2-1. (문12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이용 교통수단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 또는 여행시 주로 이용하신 교통수단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일정이 변경되었기 때문
② 지출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③ 귀성/여행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동행인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⑤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⑥ 대중교통 예매를 못했기 때문에
⑦ 대중교통을 예매하였기 때문에
⑧ 기상여건 때문에 ⑨ 기타 ( )
⑩ 모름/무응답

12-2. (문12의 ①, ②응답자만) 자가용을 이용하여 귀성 및 여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대중교통편을 예매하지 못해서
② 유아를 동반하기 위해서
③ 짐 때문에(음식물이나 추석 선물 등)
④ 자가용 이용이 편리해서
⑤ 기타( )

12-3. (문11의 ①응답자 중 문12의 ③~⑨응답자만)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지출비용(유류비 등)의 부담 때문에
② 동행인원의 변경으로 인해
③ 교통 혼잡으로 인해
④ 가족구성원이 따로 이동해서
⑤ 꼭 비행기로 이동해야 해서
⑥ 기타( )

13. (문12의 '①자가용, ②자가용(승합차)' 응답자만) 귀댁의 차량으로 본인을 포함해서 귀성(또는 여행)을 다녀오신 분은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⑪ 기타( )명

13-1. (문12의 '③~⑪' 응답자만) 본인을 포함해서 귀성(또는 여행)을 함께 가신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⑪ 기타( )명

14. (문12의 ①, ②응답자만) 그럼, 고속도로 이용시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한 노선은 무엇입니까?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할 노선	( )

① 경부선 ② 중부선 ③ 영동선
④ 호남선(천안-논산선) ⑤ 서해안선 ⑥ 중부내륙선
⑦ 중앙선 ⑧ 남해선
⑨ 익산-포항선 ⑩ BB올림픽고속도로(무안-광주선)
⑪ 경춘선 ⑫ 당진-상주선
⑬ 서천-공주선 ⑭ 미정
⑮ 기타( ) ⑯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음
⑰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14-1. (문14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이용 노선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노선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통 체증 상황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②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③ 귀성/여행 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기상여건 때문에 ⑤ 기타 ( )
⑥ 모름/무응답

SectionⅢ. 추석 연휴 교통비용

15. 올해(2014년) 귀성 및 귀경(또는 여행)을 위해 사용한 교통비용은 얼마입니까?
(모름/무응답 : 9999)

※ 교통비용은 왕복 기준으로 응답받음 → 승용차(유류비+고속도로 통행요금), 기타(대중교통비 즉, 승차권 포함)

올해(2014년) 추석연휴 교통비용	( ) 만원

15-1. (문15의 응답이 사전조사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성 및 귀경시 교통비용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 및 귀경을 위한 교통비용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② 귀성/여행 일정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③ 귀성/여행 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동행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⑤ 이용 교통수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⑥ 기타 ( )

15-1. (문15의 응답이 사전조사보다 감소한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성 및 귀경시 교통비용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 및 귀경을 위한 교통비용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② 귀성/여행 일정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③ 귀성/여행 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동행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⑤ 이용 교통수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⑥ 기타 ( )

SectionⅤ. 기타 사항

16. 귀댁에서는 본가(시댁/친가)와 처가(친정/외가) 중 어디를 방문하셨습니까?
① 본가(시댁/친가)만 방문 ▷문17로 이동
② 처가(친정/외가)만 방문 ▷문16-1로 이동
③ 둘 다 방문 ▷문16-1로 이동
④ 둘 다 방문하지 않음 ▷문17로 이동
⑤ 모름/무응답 (물러주지 말 것)

16-1. (문16의 ②, ③ 응답자만) 그럼, 처가로의 출발일은 언제였습니까?
① 9. 3(수, 평일) 이전 ② 9. 4(목, 평일)
③ 9. 5(금, 평일) ④ 9. 6(토, 주말)
⑤ 9. 7(일, 추석연휴) ⑥ 9. 8(월, 추석당일)
⑦ 9. 9(화, 추석연휴) ⑧ 9.10(수, 대체휴일)
⑨ 9.11(목, 평일) ⑩ 9.12(금, 평일)
⑪ 9.13(토, 주말) 이후 ⑫ 모름/무응답

17. 귀댁에서는 올해 추석에 귀성(또는 여행)하는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기다려 본 경험이 있다 → 그럼, 평균 몇 분 정도 기다리셨습니까? 평균( )분
② 기다려본 경험이 없다
③ 고속도로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았다

언론보도실적 정리

1. 2014년 설연휴

가. 설연휴 특별교통대책

- 보도자료명 : 귀성 1.30 오전, 귀경 1.31 오후 가장 몰릴 듯
- TV/라디오 : 20건, 신문/인터넷뉴스 : 64건 총 84건 언론보도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4-01-21	아시아경제	정책뉴스	신문	[설 교통대책]부산·광주, 작년보다 20분 더 걸린다
2014-01-21	노컷뉴스	사회일반	신문	올해 설 연휴, '극심한 교통 체증'..서울-부산 8시간 소요
2014-01-21	아시아경제	정책뉴스	신문	[설 교통대책]교통비 작년보다 2만2000원 더 든다
2014-01-21	조선비즈	항공운송	신문	설 귀성길 부산·광주 20~30분 더 걸린다
2014-01-21	아시아경제	부동산	신문	[설 교통대책]귀경길 전철 새벽2시까지 연장 운행
2014-01-21	머니투데이뉴스	정책뉴스	신문	설연휴 열차·항공기 증편.. 고속버스 33% 늘려
2014-01-21	연합뉴스		신문	"설연휴 승용차 이동, 작년보다 20~30분 더 걸려"
2014-01-21	뉴스핌	교통물류	신문	설 연휴 서울~부산 8시간 걸린다
2014-01-21	아주경제	부동산	신문	올 설 연휴 귀성은 30일, 귀경은 31일 피하세요
2014-01-21	BBS	경제	라디오	설 연휴, 귀성은 30일 오전. 귀경은 31일 오후가 혼잡
2014-01-21	국민일보	문화	신문	올 설 연휴 고향으로 출발 '1월30일' 가장 많아
2014-01-21	PBC뉴스	경제	라디오	설 귀성 30일 오전, 귀경 31일 오후 가장 붐벼
2014-01-21	연합뉴스		신문	설연휴 금·토 서울버스·지하철연장운행
2014-01-21	아주경제신문	부동산	신문	설 연휴 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8시간, 올때는 7시간 20분
2014-01-21	한국경제	사회	신문	설 귀성 30일 오전·귀경 31일 오후 혼잡 극심..서울→부산 8시간
2014-01-21	뉴시스	사회일반	신문	[설 교통대책①]'귀성 30일·귀경 31일' 고속도로 혼잡 예상
2014-01-21	뉴시스	사회일반	신문	[설교통대책②]정부, 대중교통 수송력 대폭 증강하기로
2014-01-21	머니투데이뉴스	부동산/정책	신문	"설 귀성 30일 오전, 귀경 31일 오후 피하세요"
2014-01-21	경향신문	사회	신문	“설 연휴 승용차 이동, 지난해보다 20~30분 더 걸려”
2014-01-21	이투데이	정치정책	신문	설 귀성길, 서울-부산 8시간 서울-광주 6시간50분
2014-01-21	국제신문	사회	신문	"설 연휴 승용차 이동, 작년보다 20~30분 더 걸려
2014-01-21	sbs뉴스	사회	라디오	"설 연휴 승용차 이동, 작년보다 20~30분 더 걸려"
2014-01-21	티엔티뉴스	문화/라이프	신문	올해 설 연휴, 2천700여만명 이동
2014-01-21	뉴시스	사회일반	신문	[설 교통대책-③끝]정부합동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마련
2014-01-21	뉴스1	건설/부동산	신문	설 고향길 30일 오전 피해라…귀경 31일 오후 가장 혼잡
2014-01-21	TBS교통방송	교통	라디오	"설연휴 승용차 이동, 지난해보다 20~30분 더 걸려"
2014-01-21	아시아타임즈	뉴스사회	신문	올 설 교통량, 귀성 30일 오전·귀경 31일 오후 ‘최대’
2014-01-21	KBS	경제	라디오	“설 연휴 승용차 이동, 지난해보다 20~30분 더 걸려”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4-01-21	국민일보	문화	신문	올 설 연휴 고향으로 출발 '1월30일' 가장 많아
2014-01-21	아주경제신문	부동산	신문	정부 설 특별교통대책, 대중교통 늘리고 교통량조절 나서
2014-01-21	일간투데이	교통물류	신문	“설 귀성 30일오전, 귀경31일 오후 피크”
2014-01-21	경기방송		TV	설 연휴 승용차 이동, 지난해보다 20~30분 더 걸려
2014-01-21	아시아경제	부동산/정책	신문	[설 교통대책]교통비 작년보다 2만2000원 더 든다
2014-01-21	데일리안	경제	신문	설 연휴 "귀성 30일오전, 귀경31일 오후 가장 정체될듯"
2014-01-21	메트로신문	교통	신문	설 귀성 30일 오전, 귀경 31일 오후 가장 막힌다
2014-01-21	BBS		라디오	설 교통체증, 30일. 31일 가장 '짜증
2014-01-21	아주경제신문	부동산	신문	설 연휴 고속도로 우회도로·갓길차로 "체크하세요“
2014-01-21	아주경제	부동산	신문	설 연휴 철도·항공·도로 전방위 안전점검
2014-01-21	파이낸셜뉴스	사회일반	신문	정부 설 연휴 교통대책 주요내용은?
2014-01-21	그린경제	사회일반	신문	설 연휴기간 '귀성 30일 오전·귀경 31일 오후 '가장혼잡
2014-01-21	정책브리핑	사회	신문	“설 연휴 승용차 이동, 작년보다 20~30분 더 걸려”
2014-01-21	SBS뉴스	산업/기업	라디오	올해 설 귀성길, 지난해보다 20~30분 더 걸린다
2014-01-21	뉴스토마토	건설일반	신문	설 귀성 30일 오전, 귀경 31일 오후 가장 혼잡
2014-01-21	시티저널	사회	신문	설 연휴 귀성 29일 오전 10시 혼잡
2014-01-21	머니위크		신문	설 연휴 서울~광주 6시간50분..귀경 5시간30분
2014-01-21	머니스토리		신문	설 연휴 서울~광주 6시간50분...귀경 5시간30분
2014-01-21	연합뉴스	사회	신문	〈그래픽〉 설 연휴 도시간 예상 소요시간
2014-01-21	연합뉴스	사회	신문	〈그래픽〉 설 연휴 고속도로 진입조절 영업소
2014-01-21	한국경제	사회	신문	설날 귀성 30일 오전, 귀경 31일 오후 가장 몰린다
2014-01-21	머니위크		신문	설 귀성은 30일 오전, 귀경은 31일 오후에 혼잡 심해
2014-01-21	그린경제	교통/해양	신문	설 연휴 승용차 이동, 작년보다 20~30분 더 걸려
2014-01-21	연합뉴스	경제	신문	〈그래픽〉 설 연휴 귀성·귀경객 예상 분포
2014-01-21	경인종합일보	사회	신문	설 연휴 이동인원 총 2769만명
2014-01-21	미디어다음		신문	귀성 30일 오전, 귀경 31일 오후 고속도로 혼잡 심할듯
2014-01-21	한국경제TV	뉴스	신문	"설 연휴, 서울~부산 8시간 예상"
2014-01-21	MTN	부동산	TV	설 연휴, 작년보다 더 막힌다..31일이 '절정'
2014-01-21	YTN	경제	TV	"귀성 30일 오전·귀경 31일 오후는 피하세요
2014-01-21	YTN	경제	TV	귀성 30일 오전·귀경 31일 오후 '절정
2014-01-21	코카뉴스		신문	설날 연휴 귀성길, 작년대비 소요시간 증가 예상되
2014-01-21	경제투데이	교통/물류	신문	설 명절 ‘귀성길 30일 오전·귀경길 31일 오후’ 피해야
2014-01-21	국민일보	경제	신문	설 연휴 교통혼잡 귀성 30일 오전, 귀경 31일 오전이 가장 심각
2014-01-21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신문	설 연휴 특별교통관리 시행
2014-01-21	매일경제	문화	신문	설 귀성 30일 오전 피하세요
2014-01-21	파이낸셜뉴스	사회	신문	설 귀성 30일 오전·귀경 31일 오후 혼잡
2014-01-21	이코노믹리뷰	today뉴스	신문	설 귀성길 작년보다 막힌다…“30일 오전 피해야”
2014-01-22	조선일보	사회	신문	설 귀성, 30일 오전 가장 많이 몰릴듯
2014-01-22	SBS뉴스	사회	TV	설 연휴, 귀성 30일 오전·귀경 31일 오후에 가장 혼잡
2014-01-22	국민일보		신문	설 연휴 교통체증, 1월30일 오전·1월31일 오후 최고조
2014-01-22	동아일보	사회일반	신문	설 연휴 교통수요조사 해보니.. 귀성 30일 오전, 귀경 31일 오후 가장 혼잡
2014-01-22	서울신문	사회	신문	설 고향길, 올해는 30분 더 걸린다네요
2014-01-21	경인일보	사회	신문	귀성 30일 귀경 31일 교통혼잡
2014-01-22	강원일보	사회	신문	설 연휴 강릉~서울왕복9시간
2014-01-22	KBS뉴스	사회	TV	설 연휴 이동 30만명 증가…이곳이 ‘우회도로’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4-01-22	노컷뉴스	경제	신문	응답하라~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 준비요령
2014-01-22	MBC	사회	TV	'설 전날 오전' 정체 절정
2014-01-21	서울경제	사회	신문	설 귀성, 30일 오전은 피하세요
2014-01-21	경향신문	경제	신문	설 연휴.. 귀성 30일 오전·귀경 31일 오후 혼잡
2014-01-22	뉴스Y		TV	"설 연휴 승용차 이동, 작년보다 20~30분 더 걸려"
2014-01-22	충청투데이	정치/행정	신문	설 연휴 대중교통 수송력 늘린다
2014-01-21	MBC	사회	TV	설 전날 오전·설 당일 오후 '정체극심'..작년보다 막힌다
2014-01-21	MBC	이브닝뉴스	TV	설 연휴, 가장 막히는때는?…서울→부산 8시간 예상
2014-01-22	MBC	뉴스투데이	TV	귀성 '30일 오전'·귀경 '31일 오후' 가장 혼잡 예상
2014-01-22	KBS	사회	TV	설 연휴 이동 30만명 증가…이곳이 '우회도로
2014-01-22	SBS	경제	TV	설 귀성, 30일 가장 몰린다…작년보다 31만명 늘어

나. 설연휴 10년간 통행패턴 변화

○ 보도자료명 : 10년간 설날 당일 귀성·귀경 늘고 정체는 완화

○ TV/라디오 : 9건, 신문/인터넷뉴스 : 45건 총 54건 언론보도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4-01-28	연합뉴스	속보	신문	"귀성 25%·귀경 40% 설에 몰려..10년새 크게 늘어"
2014-01-28	KBS	경제	신문	"귀성 25%·귀경 39% 설에 집중…10년새 크게 늘어"
2014-01-28	투데이코리아	사회	신문	설 귀성·귀경…"10년새 크게 늘어"
2014-01-28	머니워크	머니스토리	신문	설 당일 귀성 30%·귀경 40%..10년새 풍속도 변화
2014-01-28	서울경제	정치·사회	신문	"귀성 25%·귀경 40% 설에 몰려..10년새 크게 늘어"
2014-01-28	YTN		TV	10년간 설날 당일 이동 늘고 정체는 완화
2014-01-28	YTN	경제	TV	10년 사이 크게 변한 설 귀성·귀경 풍속도
2014-01-28	SBS CNBC	경제	TV	10년간 설 당일 귀성·귀경 늘고 정체는 완화
2014-01-28	시사우리신문	정치·국제	신문	"10년간 설날 당일 귀성·귀경 늘고 정체는 완화"
2014-01-28	국토경제신문		신문	10년간 귀성·귀경 정체 대폭 완화
2014-01-28	산업일보	정책/동향	신문	"설날 당일 귀성?귀경↑ 정체 완화"
2014-01-28	YTN		TV	10년간 설날 당일 이동 늘고 정체는 완화
2014-01-28	제이칸뉴스	사회	신문	10년간 설날 당일 귀성·귀경 늘고 정체는 완화
2014-01-28	뉴스와이어		신문	10년간 설날 당일 귀성·귀경 늘고 정체는 완화
2014-01-28	조선비즈	정치·사회	신문	설 당일 귀성·귀경 인파 10년전보다 늘었다
2014-01-28	뉴시스	경제	신문	[설 연휴]최근 10년간 설 당일 귀성·귀경 늘었다.. 소요시간 3시간 단축
2014-01-28	뉴스1	경제	신문	"지난 10년간 설날 당일 귀성·귀경 늘었다"
2014-01-28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신문	10년간 설날 당일 귀성·귀경 늘고 정체는 완화
2014-01-28	매일경제	문화	신문	10년새 설날 당일 귀성·귀경 늘어..고속도로 정체는 완화
2014-01-28	데일리안	경제	신문	"10년간 설날 귀성·귀경 늘었지만 도로정체는 완화"
2014-01-28	아시아경제	정책	신문	설연휴 10년전 대비, '1박2일'族 늘고..서울-부산 2시간 단축
2014-01-28	위키트리		신문	국토교통부 "10년간 설날 당일, 귀성·귀경 늘고 정체는 완화"
2014-01-28	MTN	부동산	신문	설 연휴 통행시간, 10년 전 대비 3시간 단축
2014-01-28	아주경제신문	부동산	신문	설 연휴 이동패턴 10년 전과 비교해보니… "짧고 빠르게"
2014-01-28	강원도민일보	속보	신문	"귀성 25%·귀경 40% 설에 몰려…10년새 크게 늘어"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4-01-28	뉴데일리	경제	신문	설 민족 대이동, 10년 전과 달라진 점은?
2014-01-28	아시아투데이	경제	신문	"귀성 25%·귀경 40% 설 당일 집중…10년새 대폭 늘어
2014-01-28	OBS	사회	신문	"귀성 25%·귀경 40% 설에 몰려…10년 새 급증"
2014-01-28	TBS 교통방송	교통	신문	"귀성 25%·귀경 40% 설에 몰려…10년새 크게 늘어"
2014-01-28	아주경제	사회	신문	10년간 설 당일 귀성·귀경 늘고 정체는 완화
2014-01-29	이투데이	사회	신문	10년새 설 당일 귀성 · 귀경 크게 늘어...이유는?
2014-01-28	케이에스피뉴스	특집	신문	〈특집〉 국토교통부 10년 간 귀성·귀경 늘고 정체는 완화
2014-01-28	중부매일	사회	신문	10년간 설 당일 귀성·귀경 늘고 정체는 줄어
2014-01-29	조선일보	사회	신문	설 귀성 3명중 1명 "하룻밤만 자고 온다"
2014-01-28	기업경제신문	자동차/교통	신문	10년간 설날 당일 귀성·귀경 늘고 정체는 완화
2014-01-28	동양뉴스통신	문화	신문	설날 당일 귀성 & #8231귀경 늘고 정체는 완화
2014-01-28	일간투데이	부동산	신문	“10년간 설날 당일 귀성·귀경 늘고 정체는 완화”
2014-01-28	대전투데이	사회	신문	10년간 설 당일 귀성·귀경 늘고 정체는 완화
2014-01-28	코카뉴스		신문	10년간 설날 당일 귀성·귀경 늘고 정체는 완화
2014-01-28	파이낸스투데이	종합	신문	10년간 설날 당일 귀성·귀경 늘고 정체는 완화
2014-01-28	디지털타임스	문화	신문	설 당일 귀성-귀경객 급증..고향서 1박2일 체류
2014-01-28	경인종합일보		신문	설날 당일 귀성 · 귀경늘고 정체는 완화
2014-01-28	뉴스에이	사회	신문	설날 당일 귀성·귀경 늘고 정체는 완화
2014-01-28	MBC		TV	빨라진 고향길…덜 막히고 짧게 머문다
2014-01-28	KBS	경제	TV	“지난 10년간 설 당일 귀성·귀경 대폭 늘어”
2014-01-28	KBS	경제	TV	“지난 10년간 설 당일 귀성·귀경 대폭 늘어”
2014-01-28	KBS	경제	TV	‘1박 2일’ 가며 오며…설 당일 귀성·귀경 급증
2014-01-29	세계일보	사회	신문	설 당일 귀성·귀경 크게 늘었다
2014-01-29	KBS	경제	TV	설 연휴 고향 체류 기간 줄어들어
2014-01-29	경인일보	특집	신문	10년새 달라진 풍속도… 귀성객 4명 중 1명 '설 당일 출발'
2014-01-29	강원일보	경제	신문	귀성 25% 귀경 40% 설 당일 몰려
2014-01-28	뉴시스		신문	[그래픽] 설 연휴 귀성·귀경객 변화 비교 및 최대 소요예상시간
2014-01-29	포커스신문	사회	신문	귀성 늦게 하고, 귀경 서두르고
2014-01-29	M머니		신문	10년간 설날 당일 이동 늘어

2. 2014년 하계휴가

가.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

- 보도자료명 : 여름휴가 8.1(출발)~8.2(귀경) 피하세요
- TV/라디오 : 13건, 신문/인터넷뉴스 : 35건 총 48건 언론보도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4-07-22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신문	여름휴가 8.1(출발)~8.2(귀경) 피하세요!
2014-07-22	경인일보	레저/여행	신문	여름휴가 성수기 기간 26일~내달 1일 교통량 피크 '특별교통대책 시행'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4-07-22	뉴스토마토		신문	8월 1~2일 가장붐벼..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2014-07-22	아시아경제	부동산	신문	휴가철 고속도로 '8월1~2일' 가장 붐빈다
2014-07-22	파이낸셜뉴스	건설	신문	"휴가철 8월 1~2일 피하세요"..정부,하계특별교통대책
2014-07-22	머니투데이	부동산	신문	"여름휴가 8월 1~2일 고속도로 피하세요"
2014-07-22	뉴시스	경제	신문	국토부, 휴가철 고속도 혼잡도 8월1~2일 가장 심각 예상
2014-07-22	아시아일보	사회	신문	국토부“여름휴가 내달 1~2일 피하세요”
2014-07-22	조선비즈	기업	신문	"휴가철 고속도로 8월1~2일 가장 혼잡할듯"
2014-07-22	뉴스와이어		신문	국토부, "여름휴가 8.1(출발)~8.2(귀경) 피하세요"
2014-07-22	컨슈머치	라이프	신문	“여름휴가 8월 1~2일 고속도로 피하세요”
2014-07-22	매일경제	사회	신문	"여름휴가 8.1(출발)~2(귀경) 피하세요"
2014-07-22	조선일보	사회	신문	올여름 피서객 가장 많이 몰리고 고속도로 가장 혼잡한 기간은..
2014-07-22	경향신문		신문	여름휴가기간에 8월 1~2일이 고속도로 가장 막힌다
2014-07-22	아주경제신문	부동산	신문	여름휴가철 고속도로 8월 1~2일 가장 혼잡
2014-07-22	이데일리	사회	신문	"올 여름 8월 1~2일이 고속도로 가장 붐벼요"
2014-07-22	뉴시스	사회	신문	올 여름 휴가비 가구당 61만원
2014-07-22	데일리안	경제	신문	"올 휴가철 고속도로, 8월 1~2일 가장 붐빈다"
2014-07-22	동아일보	교통	신문	"여름휴가 8월 1일~2일 고속도로 피하세요" 휴가객 36.4%가..
2014-07-22	한국경제	사회	신문	'조용한 가족'위한 2014여름휴가 '秘정보' 폭로
2014-07-22	평화방송	경제	라디오	국토부, 여름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
2014-07-22	중부매일	사회	신문	올 여름휴가 26일~8월1일 36% 집중
2014-07-22	뉴스1	건설	신문	여름휴가객 7월말서 8월초 몰린다
2014-07-22	연합뉴스	속보	신문	"휴가 피크로 다음달 1~2일 고속도로 혼잡 극심"
2014-07-22	KBS	경제	TV	“올여름 휴가 고속도로 정체, 8월 1~2일 절정”
2014-07-22	KBS	경제	TV	“휴가지, 이렇게 가면 빨라요”
2014-07-22	SBS	경제	TV	"휴가피크로 다음달 1~2일 고속도로 혼잡 극심"
2014-07-22	오마이건설뉴스	종합뉴스	신문	국토교통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
2014-07-23	경인일보	사회	신문	국토부 "여름휴가 최고 절정기 26일~내달1일"
2014-07-22	세계일보	사회	신문	8월 1~2일 휴가피크..고속도로 피하세요
2014-07-22	이슈와뉴스	사회	신문	국토부, “여름휴가 8.1(출발)~8.2(귀경) 피하세요”
2014-07-23	강원도민일보	사회	신문	휴가철 고속도 내달 1~2일 가장 혼잡
2014-07-23	동아일보	사회	신문	여름휴가 8월 1일 출발 - 2일 귀경 피하세요
2014-07-22	매일경제	사회	신문	"휴가후 귀경 8월2일 피하세요"
2014-07-22	파이낸셜뉴스	건설	신문	8월 1~2일 고속도로 가장붐빈다
2014-07-22	KTV	사회	TV	8월 1~2일 고속도로 가장 혼잡..열차·버스증편
2014-07-23	조선일보	사회	신문	다음주 피서지 가장 붐빌듯
2014-07-22	무비조이	사회	신문	국토부, “여름휴가 8.1(출발)~8.2(귀경) 피하세요”
2014-07-23	대전일보	경제/과학	신문	올 여름휴가철 고속도로 가장 붐비는 날 언제인가 봤더니
2014-07-22	강원일보	경제	신문	여름휴가 8월1일·동해안권으로 몰린다
2014-07-23	KBS	경제	TV	“올 여름휴가, 다음달 1~2일 고속도로 최대 정체”
2014-07-22	KBS	사회	TV	“휴가철 고속도로, 다음달 1·2일 가장 정체”
2014-07-22	MBC		TV	올 여름 휴가철, 8월 1-2일이 고속도로 가장 혼잡
2014-07-22	MBC		TV	올 여름 휴가철, 8월 1~2일이 고속도로 가장 붐빈다
2014-07-22	SBS	경제	TV	휴가 피크로 다음달 1∼2일 고속도로 혼잡 극심
2014-07-23	YTN	경제	TV	다음 주말 고속도로 가장 혼잡
2014-07-22	YTN	경제	TV	다음 주말 고속도로 가장 혼잡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4-07-22	YTN	경제	TV	다음 주말 고속도로 가장 혼잡

나. 하계휴가 10년간 통행패턴 변화

○ 보도자료명 : “늦게·길게·멀리·소규모로” 여름휴가 풍속 변화

○ TV/라디오 : 5건, 신문/인터넷뉴스 : 53건 총 58건 언론보도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4-07-28	영남일보	경제	신문	여름휴가 기간 늘고 장거리 비중 높아져
2014-07-27	한국경제TV		신문	여름휴가 풍속 변화..장기간·장거리화
2014-07-27	뉴스토마토	생활일반	신문	'더늦게, 더길게, 더멀리' 여름휴가 풍속 변화
2014-07-27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신문	"늦게·길게·멀리·소규모로" 여름휴가 풍속 변화
2014-07-27	경인일보	정치	신문	'늦게·길게·멀리·소규모로'…여름휴가 풍속 변화
2014-07-27	아시아투데이	경제	신문	여름휴가 풍속 '늦게·길게·멀리·소규모로' 변화
2014-07-28	서울신문	경제	신문	여름휴가 더 멀리, 더 길게, 더 늦게
2014-07-28	국민일보	시사	신문	'늦게·길게·멀리·소규모' 바캉스로 바뀐다
2014-07-28	바끄로	기타	신문	지난 10년간 여름휴가 '늦게,길게,멀리,소규모로' 변화
2014-07-27	경향신문	사회	신문	10년간 달라진 풍속도.. 휴가날짜 분산되고, 휴가지 점점 멀어지고
2014-07-28	동양뉴스통신	경제	신문	여름휴가 "늦게 · 길게 · 멀리 · 소규모로" 특성 변화
2014-07-28	대전일보	사회	신문	여름휴가 '길게·멀리·단출히'
2014-07-28	YTN	경제	TV	여름휴가 '풍속도' 바뀐다..이유는?
2014-07-28	YTN	경제	TV	"8월중·하순 휴가 10년새 2배 증가"
2014-07-27	헤드라인뉴스	경제	신문	“늦게·길게·멀리·소규모”…10년간 여름휴가 풍속도 변화
2014-07-27	일간투데이	교통물류	신문	여름휴가 패턴변화 "늦게 출발하고 멀리 간다"
2014-07-27	매일경제	사회	신문	여름휴가 늦게·길게·멀리간다
2014-07-27	제주매일	경제/관광	신문	여름휴가 ‘늦게·길게·멀리·소규모’로 변화
2014-07-27	머니워크	라이프	신문	확 바뀐 여름휴가 풍속도.. '늦게, 길게, 멀리, 소규모'
2014-07-27	뉴스핌	교통물류	신문	여름휴가 '늦게·길게·멀리·소규모로.. 휴가패턴 변화
2014-07-27	아시아경제	정책	신문	10년간 여름휴가 풍속도 '늦게·길게·멀리·소규모'로 변했다
2014-07-27	경인종합일보	사회	신문	여름휴가 '늦게 길게 멀리 소규모로'
2014-07-27	여성종합뉴스	생활,문화	신문	여름휴가 풍속 변화 “늦게·길게·멀리·소규모로”
2014-07-27	경남매일	사회	신문	여름휴가 ‘8월 중순 이후’ 증가
2014-07-27	매일경제	사회	신문	여름휴가는 '8월 2주 이후, 해외로 3박 4일 이상'
2014-07-27	아주경제신문		신문	“여름휴가는 8월 2주 이후, 해외로 3박 4일 이상”
2014-07-27	동양뉴스통신	문화,레저	신문	여름휴가 풍속도 10년간 변화
2014-07-27	중도일보	건설/부동산	신문	여름휴가 '더 멀리 더 오래'
2014-07-27	국민일보	시사	신문	휴가쏠림현상 완화.. "8월 중·하순 여름휴가 늘어나"
2014-07-27	YTN		TV	"8월 중·하순 여름휴가 10년새 2배 증가"
2014-07-27	서울경제	사회	신문	'극성수기 피하자 '여름휴가, 8월 둘째주 이후로 확산
2014-07-27	여성신문	사회	신문	‘성수기 피하자’…8월 중하순 여름휴가 급증
2014-07-27	SBS	경제	TV	국토교통부 "8월중·하순 여름휴가 늘어나"
2014-07-27	연합뉴스		신문	"8월중·하순 여름휴가 늘어나"
2014-07-27	경향신문	트레블	신문	여름휴가 8월 중·하순으로 분산 추세
2014-07-27	기독일보		신문	여름철휴가, '8월 중·하순'으로 분산 추세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4-07-27	KBS	경제	신문	“여름휴가기간 8월 중·하순까지로 분산”
2014-07-27	헤럴드경제		신문	분산되는 '여름휴가철'..7월말·8월초 집중에서 8월 중순~하순까지로..
2014-07-27	조선비즈	기업	신문	10년새 여름휴가 길어져..여행지는 강원도 최고
2014-07-27	연합인포맥스	부동산	신문	여름휴가지 '강원·동해안권' 인기 10년째 최고
2014-07-28	파이낸스투데이	종합	신문	국토부, 하계휴가기간 통행특성 변화 분석
2014-07-27	뉴스와이어		신문	국토부, 하계휴가기간 통행특성 변화 분석
2014-07-27	서울경제	사회	신문	확바뀐 여름휴가 풍속도..늦게 길게 간다
2014-07-27	이데일리	사회	신문	'둘이서 제주도 2박3일 여행'이 요즘 대세
2014-07-28	조세일보	산업	신문	'늦게·길게·멀리·소규모로'…여름휴가 풍속 변화
2014-07-28	광주일보		신문	여름휴가, 남해안으로 길~게 간다
2014-07-28	M머니		신문	"8월 중·하순 여름휴가 10년새 2배 증가"
2014-07-27	뉴스1		신문	올 여름 가장 선호하는 휴가지 ‘강원도’
2014-07-27	건설경제신문	레저/웰빙	신문	여름휴가 10년간 풍속도 '늦게, 길게, 멀리, 소규모'
2014-07-27	뉴데일리	경제	신문	"8월 중순에 제주·해외 인기"…확 바뀐 여름휴가 트렌드
2014-07-27	뉴스1	건설/부동산	신문	여름휴가, '늦게·길게·멀리·소규모'로 즐긴다
2014-07-28	강원일보	경제	신문	여름 휴가지 1위는 `강원도'
2014-07-27	아주경제	부동산	신문	“여름휴가는 8월 2주 이후, 해외로 3박 4일 이상”
2014-07-27	디지털타임즈	생활과학	신문	여름휴가 3박 4일 이상, 해외여행, 남해안 및 제주도 비중 증가
2014-07-27	충청일보	사회	신문	"8월 중·하순 여름휴가 늘어나"
2014-07-27	YTN	경제	TV	"8월 중·하순 여름휴가 늘어"
2014-07-27	뉴시스	경제	신문	여름휴가 길어지고, 장거리 여행 많아졌다
2014-07-27	이코노믹리뷰	라이프	신문	하계휴가, 장기간-장거리-2인이하 여행 늘었다

3. 2014년 추석연휴

가.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 보도자료명 : 귀성 9.6 오전, 귀경 9.8 오후 가장 몰릴 듯
- TV/라디오 : 23건, 신문/인터넷뉴스 : 101건 총 124건 언론보도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4-09-02	아주경제신문		신문	[추석 교통대책] '안전제일' 터널 등 주요시설 안전점검·안전운전 캠페인
2014-09-02	아주경제신문		신문	[추석 교통대책] 실시간 교통정보로 교통량분산, 자동차점검 등 지원
2014-09-02	뉴시스	경제	신문	'귀성 6일 오전, 귀경 8일 오후' 가장 붐빈다
2014-09-02	동양뉴스통신		신문	"귀성 6일 오전 · 귀경 8일 오후 가장 몰릴듯"
2014-09-02	데일리안	경제	신문	"추석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가장 혼잡"
2014-09-02	연합인포맥스	부동산	신문	추석 귀성-6일 오전, 귀경-8일 오후 가장 '혼잡'
2014-09-02	시사뉴스	경제	신문	'귀성 6일 오전, 귀경 8일 오후' 가장 붐빈다
2014-09-02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신문	올 추석 귀성길 6일 오전, 귀경길 8일 오후 가장 붐벼요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4-09-02	천지일보	경제	신문	“추석 귀성 6일 오전, 귀경 8일 오후 가장 붐빌것”
2014-09-02	디지털타임즈	생활과학	신문	추석 귀성길 6일 오전, 귀경 8일 오후 '가장 혼잡'
2014-09-02	연합뉴스		신문	"추석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혼잡 극심"
2014-09-02	SBS	경제	TV	"추석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혼잡 극심"
2014-09-02	뉴스토마토	생활일반	신문	추석 서울~부산 8시간.. 전국 3945만명 이동
2014-09-02	MBN	생활·건강	TV	"추석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혼잡 극심" 얼마나 걸리나 봤더니..
2014-09-02	TBS교통방송	교통	라디오	주요 고속도로, 6일 오전과 8일 오후 가장 혼잡
2014-09-02	KBS	경제	TV	추석 귀성길 6일, 귀경길 8일 혼잡
2014-09-02	조선비즈	기업	신문	추석 연휴 3945만명 이동..귀성길은 1시간 빨라진다
2014-09-02	이데일리	사회	신문	추석 연휴 4천만 대이동.. 귀성길 6일, 귀경길 8일 혼잡(종합)
2014-09-02	머니투데이	부동산	신문	"추석 연휴 고속도로 6일 오전·8일 오후 피하세요"
2014-09-02	뉴스1	경제	신문	"추석 귀성길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가장 혼잡"
2014-09-02	뉴스핌	교통물류	신문	추석 고향길, 서울~부산 8시간.. 고속도 6일 가장 혼잡
2014-09-02	뉴스핌	교통물류	신문	[그림] 추석 연휴 고속도로 우회 노선도
2014-09-02	뉴시스		신문	[그래픽] 시간대별 귀성·귀경객 비율 전망
2014-09-02	뉴스포스트	사회	신문	추석 연휴,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가장 몰릴듯
2014-09-02	천지일보	경제	신문	"추석 귀성길 자동차 무상점검 받으세요"
2014-09-02	인터뷰365		신문	추석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가장 혼잡
2014-09-02	MBC		TV	귀성은 6일 귀경은 8일 집중
2014-09-02	KBS	경제	TV	“귀성길 6일 오전·귀경길 8일 오후 가장 혼잡"
2014-09-02	SBS	사회	TV	길어진 추석 연휴, 귀성·귀경 가장 혼잡한 날은?
2014-09-02	SBS CNBC	부동산	신문	추석 명절 3945만명 대이동…"귀성길 1시간 줄 듯"
2014-09-02	뉴스핌	교통물류	신문	[그림]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관련 기관별 연락처
2014-09-02	중앙일보		신문	추석 고향가는 길 빨라지고, 귀경길은 작년과 비슷
2014-09-02	정책브리핑		신문	귀성 9.6 오전, 귀경 9.8 오후 가장 몰릴듯
2014-09-02	한국경제	사회	신문	"추석 귀성길 6일 오전·귀경길 8일 오후 혼잡 심할 듯"
2014-09-02	경향신문		신문	"추석 귀성길은 6일 오전, 귀경길은 8일 오후 가장 혼잡"
2014-09-02	아주경제신문		신문	[추석교통대책] 우회도로 지정 및 갓길·감속차로 운영, 고속도로·국도 44곳...
2014-09-02	아주경제신문		신문	[추석교통대책] 귀성 7일, 귀경 8~9일 혼잡…서울~부산 8시간
2014-09-02	매일경제	문화	신문	"추석 6일 오전·8일 오후, 고속도로 혼잡 절정"
2014-09-02	YTN	사회	TV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가장 몰릴듯"
2014-09-02	뉴스핌	교통물류	신문	[그림] 추석연휴 진출입 통제 고속도로 IC
2014-09-02	뉴스핌	교통물류	신문	[그림] 추석연휴 임시개통 고속도로·국도 노선도
2014-09-02	뉴스핌	교통물류	신문	[그림] 추석연휴 고속도로 혼잡 예상구간
2014-09-02	이데일리	사회	신문	추석명절 4천만 움직인다…서울→부산·광주 8시간
2014-09-02	한국경제TV		신문	추석연휴 고속도로 6일 오전, 8일 오후 혼잡 극심
2014-09-02	MBN		TV	추석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가장 혼잡
2014-09-02	경기방송		라디오	"추석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혼잡 극심"
2014-09-02	연합뉴스	사회	신문	〈그래픽〉 추석 귀성·귀경 전망
2014-09-02	연합뉴스	사회	신문	〈그래픽〉 추석연휴 고속도로 진입조절 영업소
2014-09-02	연합뉴스	사회	신문	〈그래픽〉 추석연휴 귀성·귀경객 예상 분포
2014-09-02	시사타임즈	경제	신문	국토부“추석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가장 혼잡”
2014-09-02	메트로신문	교통	신문	"추석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혼잡 극심"
2014-09-02	아시아일보	사회	신문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 시행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4-09-02	아주경제신문		신문	[추석교통대책] 고속도로 귀성 6일·귀경 8일 혼잡, 우회도로 등 교통분...
2014-09-02	오마이건설뉴스	특집	신문	추석연휴 고속도로 유익한 정보
2014-09-02	이투데이	정책	신문	추석연휴, 서울→부산·광주 8시간 걸려…서서울→목포는 9시간 30분
2014-09-02	위클리오늘	사회	신문	귀성 '6일오전' 귀경 '추석당일' 가장 몰릴듯
2014-09-02	조세일보	산업	신문	고속도로 귀성 6일 오전, 귀경 8일 오후 가장 혼잡
2014-09-02	미디어펜	경제	신문	국토부, 추석특별교통대책 발표…명절 당일 이동인원 최대 750만명 예상
2014-09-02	교육산업신문		신문	"추석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혼잡 극심"
2014-09-02	MBC	사회	신문	"추석 귀성은 6일 오전, 귀경은 8일 오후 가장 혼잡"
2014-09-02	위키트리	생활/정보	신문	올 추석 '귀성 6일 오전, 귀경 8일 오후' 가장 붐빈다
2014-09-02	오토타임즈		신문	추석, '귀성은 6일 오전 귀경은 8일 오후 혼잡'
2014-09-02	아시아경제	정책	신문	추석 고향가는 길, 6일 오전 가장 막힌다
2014-09-02	뉴스1		신문	국토교통부,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수립
2014-09-02	뉴데일리	경제	신문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가장 혼잡
2014-09-03	KTV	사회	TV	추석 특별교통대책.. 버스·항공기·비행기 증편
2014-09-03	JTBC	사회	TV	추석 귀성길 '6일오전' 정체 절정..귀경길 '8일 오후'
2014-09-03	BBS불교방송	사회	라디오	추석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혼잡 극심
2014-09-03	MBC	사회	TV	추석연휴,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가장 '혼잡'
2014-09-03	MBC	사회	TV	귀성길 언제 가장 막힐까?.. 버스전용차로 단속 유의
2014-09-03	영남일보	사회	신문	추석연휴 고속도로 혼잡…6일 오전·8일 오후 심각
2014-09-03	한국경제	사회	신문	추석 귀성길 6일 오전 가장 막힌다
2014-09-03	중앙일보	사회	신문	귀성 7일 오전, 귀경 8일 오후 가장 막힐듯
2014-09-03	조선일보	사회	신문	서울~부산·광주 8시간 걸릴듯
2014-09-03	서울신문	사회	신문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가장 막혀요
2014-09-03	YTN	경제	TV	'혼잡한' 귀성·귀경길, 언제가 가장 막힐까?
2014-09-03	YTN	경제	TV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가장 몰릴듯"
2014-09-03	YTN	경제	TV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가장 몰릴듯"
2014-09-03	충남일보		신문	추석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혼잡
2014-09-03	전남일보		신문	연휴 추석당일 인구이동 최다
2014-09-02	중부매일	사회	신문	"추석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가장 혼잡"
2014-09-02	OBS뉴스	사회	TV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혼잡 극심
2014-09-02	전북일보	사회	신문	추석 고속도로 6일 오전·8일 오후 가장 혼잡
2014-09-02	MBN		TV	[뉴스8단신] "추석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혼잡 극심"
2014-09-02	SBS CNBC	경제	신문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가장 몰릴듯"
2014-09-02	매일경제	사회	신문	추석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가장 혼잡.. 서울서 부산 8시간 소요 예상
2014-09-02	MBC	사회	TV	추석연휴, 귀성길 6일 오전·귀경길 8일 오후에 가장 막힌다
2014-09-02	세계일보		신문	추석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가장 혼잡
2014-09-02	티브이데일리		신문	추석 귀성 6일 오전 혼잡, 서울에서 부산 '8시간' 걸린다
2014-09-02	YTN	경제	신문	추석연휴 대이동..귀성·귀경길 혼잡시간은?
2014-09-02	아시아투데이	사회	신문	추석 귀성 6일 오전 혼잡, 주말 포함돼 교통량 분산 '지난해보다최대1...
2014-09-02	서울시정일보	사회	신문	[한가위특집]"추석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가장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혼잡”
2014-09-02	경기매일	사회	신문	‘귀성 6일 오전, 귀경 8일 오후’가장 혼잡
2014-09-02	스포츠투데이		신문	추석 귀성 6일 오전 혼잡…서울에서 부산 '8시간' 걸린다
2014-09-02	OSEN	생활일반	신문	추석 귀성 6일 오전 혼잡, 서울→부산·광주 8시간 소요
2014-09-02	SBSfunE		신문	추석 귀성 6일 오전 혼잡 '소요시간' 서울에서 부산 8시간 정도
2014-09-02	MBN	생활·건강	TV	추석 귀성 6일 오전 혼잡.. 지난해보다 '한시간 단축' 예상
2014-09-02	SBSfunE		신문	추석 귀성 6일 오전 혼잡 '귀경길은 8일 오후' 소요시간은?
2014-09-02	세계일보		신문	추석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교통혼잡 예상
2014-09-02	충청일보	사회	신문	추석연휴 고속도 6일 오전, 8일 오후 가장 혼잡
2014-09-02	데일리한국	사회	신문	추석 귀성 6일 오전 혼잡, 가장 피해야 하는 날은…
2014-09-02	머니위크		신문	추석연휴 서울~광주 8시간, 광주~서울 5시간50분
2014-09-02	bnt뉴스	경제	신문	추석 귀성 6일 오전 혼잡, 얼마나 걸릴까
2014-09-02	금강일보	사회	신문	귀성길 6일 오전 가장 밀린다
2014-09-02	폴리뉴스		신문	추석 귀성 6일 오전 혼잡, 귀경은 8일 오후 혼잡
2014-09-02	엑스포츠뉴스	라이프	신문	추석 귀성 6일 오전 혼잡..귀경은 8일 오후
2014-09-02	한라일보	사회	신문	추석 귀성 6일 오전 혼잡, 고향가는 길 얼마나 걸릴까?
2014-09-02	스포츠한국		신문	추석 귀성 6일 오전 가장 혼잡.. 지역간 예상 소요시간은?
2014-09-02	SBSfunE		신문	추석 귀성 6일 오전 혼잡, 귀경길은 '이때가 가장 많이 막혀요'
2014-09-02	서울경제		신문	고향가는 길, 6일 오전은 피하세요
2014-09-02	매일경제	문화	신문	추석 고향길 6일 오전 가장 혼잡
2014-09-02	코리아데일리	사회	신문	추석연휴 귀성·귀경길, 6일과 8일 가장 혼잡할 것
2014-09-02	헤럴드경제		신문	추석,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가장 혼잡..도시별 소요시간은?
2014-09-02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신문	"추석 귀성길 6일 오전은 피하세요"
2014-09-02	한국경제TV		신문	올 추석연휴 귀성 6일 오전 가장 혼잡.. 각 도시별 소요시간은?
2014-09-02	중부일보		신문	추석 귀성 6일 오전 혼잡, 귀경길은 8일 오후“고향까지 소요시간은?”
2014-09-02	국토일보	물류&교통	신문	추석연휴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가장 몰려
2014-09-02	상용차정보		신문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시행, 대체휴일 10일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2014-09-02	대전투데이	사회	신문	“추석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가장 혼잡”
2014-09-02	신아일보	사회	신문	추석연휴 귀성길 6일 오전·귀경길 8일 오후 가장 혼잡
2014-09-02	조선비즈		신문	추석 귀성길 잦은 차로변경 '유령체증' 부른다
2014-09-02	머니위크	건설·부동산	신문	추석연휴 귀성·귀경시간, 오히려 체증시간 공략?
2014-09-02	여성종합뉴스		신문	국토교통부, 추석연휴 경부선 KTX 5회 추가 운행
2014-09-02	경인종합일보	사회	신문	추석 귀성 6일, 귀경 8일 가장 혼잡

나. 추석연휴 10년간 통행패턴 변화

○ 보도자료명 : 추석 고향체류 2일 내로 단축, 역귀성·여행 증가

○ TV/라디오 : 9건, 신문/인터넷뉴스 : 45건 총 54건 언론보도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4-09-04	현대건강신문		신문	서울-부산간 추석 귀성길 10년새 3시간 빨라져
2014-09-04	뉴스에이	사회	신문	추석 고향체류 2일내로 단축, 역귀성·여행 증가
2014-09-04	프런티어타임스	사회	신문	추석 고향체류 짧아지고, 역귀성·여행 증가
2014-09-04	연합뉴스	사회	신문	〈그래픽〉추석연휴 체류일수 변화
2014-09-04	조세일보	산업	신문	추석 고향체류 2일내로 단축…역귀성·여행 증가
2014-09-04	시사뉴스	경제	신문	'한가위 고향방문 1~2일로 줄었다'...지난 10년간 역귀성·여행 증가로
2014-09-04	헤드라인제주	사회	신문	추석 고향체류 2일내로 단축...역귀성 여행 증가
2014-09-04	디지털타임스	생활과학	신문	추석 고향서 머무는 기간 단기로 바뀌고..역귀성 증가
2014-09-04	파이낸셜투데이	사회	신문	10년전보다 추석 고향체류 짧아져…역귀성 증가
2014-09-04	SBS	경제	TV	추석 고향체류 짧아지고 역귀성 증가
2014-09-04	아시아일보	사회일반	신문	추석 고향체류 2일내로 단축, 역귀성·여행 증가
2014-09-04	신아일보	경제	신문	추석연휴 고향체류는 짧게…역귀성·해외여행 증가
2014-09-04	이투데이	정책	신문	추석명절에 고향 머무는 기간 짧아졌다
2014-09-04	컨슈머타임스		신문	추석 고향체류 짧아지고 역귀성 증가
2014-09-04	경향신문		신문	추석에 고향에 3박4일이상 장기체류 줄고 단기체류 늘어
2014-09-04	뉴스토마토		신문	10년사이 추석연휴 여행가구 약 3배 증가
2014-09-04	위클리오늘	사회	신문	추석명절 고향체류기간 줄고 여행·역귀성 늘었다
2014-09-04	데일리안	경제	신문	"추석 고향체류 2일, 역귀성·여행 증가"
2014-09-04	헤드라인뉴스	Life	신문	추석연휴 고향체류 2일 이내…역귀성·여행 증가
2014-09-04	파이낸셜데일리	경제	신문	'한가위 고향방문 1~2일로 줄었다'...지난 10년간 역귀성·여행 증가로
2014-09-04	정책브리핑		신문	추석 고향체류 2일내로 단축, 역귀성·여행 증가
2014-09-04	이데일리	사회일반	신문	추석연휴 고향집 머무는 시간 줄었다
2014-09-04	YTN	경제	TV	추석 고향체류 짧아지고 역귀성 증가
2014-09-04	뉴스와이어		신문	추석 고향체류 2일내로 단축, 역귀성·여행 증가
2014-09-04	연합뉴스		신문	추석 고향체류 짧아지고 역귀성 증가
2014-09-04	아주경제신문		신문	추석 고향체류 당일·1박2일 증가…역귀성·여행 늘어
2014-09-04	뉴시스	경제	신문	[일찍온추석] '한가위 고향방문 1~2일로 줄었다'..지난 10년간 역귀성...
2014-09-04	아시아경제	정책	신문	"추석연휴, 고향에 머무는 기간 짧아져..이틀이내 多"
2014-09-04	한국경제TV		신문	올 추석 고향체류 '이틀'
2014-09-04	머니투데이방송	부동산	TV	추석 풍속변화...고향체류 줄고, 역귀성 · 여행 증가
2014-09-04	뉴스1	경제	신문	추석 풍속도 변했다…'역귀성·여행' 급증
2014-09-04	충청일보		신문	추석 고향체류 짧아지고 역귀성 증가
2014-09-04	뉴데일리	경제	신문	고향 머무는시간 ↓ 역귀성·여행 ↑… 달라진 추석 풍속도
2014-09-04	국제신문	경제	신문	추석 고향체류 짧아지고 역귀성 증가…"명절 인식 달라져"
2014-09-04	브레이크뉴스	경제	신문	국토부, 추석연휴 귀성객 통행특성 변화 발표
2014-09-05	YTN	사회	TV	이번 추석 고향집 방문, '1박 2일'이 대세
2014-09-05	충남일보		신문	추석 고향체류 짧고 역귀성 증가
2014-09-05	YTN	경제	TV	추석 고향체류 짧아지고 역귀성 증가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4-09-05	국제뉴스	사회	신문	추석에 '고향체류 '짧아지고…'역귀성' 증가
2014-09-05	YTN	경제	TV	추석 고향체류 짧아지고 역귀성 증가
2014-09-05	국민일보		신문	머무는 비율 10년새 40.3%→25.5%로..추석연휴 고향 체류일수 크게 줄었다
2014-09-04	이슈와뉴스	사회	신문	추석 고향체류 2일내로 단축, 역귀성, 여행 증가
2014-09-04	투어코리아	사회	신문	추석에 고향 짧게 머물고 여행간다!
2014-09-04	충청매일	경제	신문	한가위 고향방문 장기체류 줄었다
2014-09-04	경기매일	사회	신문	“한가위 역귀성·여행 증가했다”
2014-09-04	KSP뉴스	사회	신문	국토교통부, 추석 고향체류 짧아지고 역귀성 증가
2014-09-04	노컷뉴스	경제	신문	추석 풍속도 변화..고향방문이 사라진다
2014-09-04	중부매일		신문	고향체류 1~2일…역귀성·여행 늘었다
2014-09-04	무비조이	사회	신문	추석 고향체류 2일내로 단축, 역귀성·여행 증가
2014-09-04	세계일보	사회	신문	추석인데… 아범아, 벌써 가려고?
2014-09-04	KBS	경제	신문	추석 고향체류 짧아지고 역귀성증가
2014-09-04	MBC	사회	TV	추석연휴, 고향 체류시간 짧아지고 역귀성은 증가
2014-09-05	JTBC	사회	TV	고향집에 머무는 시간 '1박2일'..귀경길엔 여행지로
2014-09-05	MBC	사회	TV	고향가도 잠깐만 머물고, 역귀성하는 부모는 증가